2018년도 韓民族語文學會

(327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주제 : "한국어문학 속의 일본"

일 시 : 2018년 12월 22일(토), 12:30~19:00
장 소 : 영남대학교 인문관 101호, 201호
주 최 :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회

차 례

[일 정] ····· V

▌기획 발표▐

이인직 문학의 주변 ····· 9

한국 근대 번역문학과 일본

-1920년대 홍난파 번역서의 서지적 연구를 중심으로- ····· 26

<임진록>에 나타난 일본과 역사의식 ····· 51

대법원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에 대하여 ····· 63

▌1분과 발표▐고전 · 현대문학분야(1)

이상의 일본어 시와 시대적 정서 ····· 83

일본인의 조선 기행문

-原田藤一郎의『亜細亜大陸旅行日誌并清韓露三国評論』을 중심으로- ····· 94

<임진록>에 나타난 모범상으로서의 논개 연구

-'충'의 실현을 중심으로- ····· 101

▌1분과 발표▐고전 · 현대문학분야(2)

鄭夢周의 日本 使行詩 창작 의미 ····· 121

일제하 소설 속의 일본 ····· 135

▌2분과 발표▌국어학·(한)국어교육 분야(1)

디지털 쓰기에서 작용하는 고정 독자의 활동 양상 분석 ····· 151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 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 ····· 171
비언어행동(몸짓·손짓언어)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187

▌2분과 발표▌국어학·(한)국어교육 분야(2)

Discourse Analysis: Request Strategies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 197
부산 지역 20대 화자들의 표준어화와 방언 인식 ····· 210

▌연구윤리교육 및 폐회사▌

연구윤리와 연구자의 책임 ····· 229

발표 순서

일 시		발 표 주 제	비 고
12:30 ~12:40		학회 등록	
12:40 ~12:50		**개회식(인문관 101호)**	사회자 : 박은정(영남대)
		개회 선언 및 인사 : 최동주(한민족어문학회장, 영남대)	
12:50 ~ 15:20		**기획 발표(인문관 101호)**	사회자 : 조보라미(영남대)
	12:50 ~ 13:20	발표주제 : 이인직 문학의 주변 발 표 자 : 표세만(군산대) 토 론 자 : 손미란(경일대)	
	13:20 ~ 13:50	발표주제 : 한국 근대 번역문학과 일본 - 1920년대 홍난파 번역서의 서지적 연구를 중심으로- 발 표 자 : 윤경애(영남대) 토 론 자 : 안영희(계명대)	
		휴 식 (13:50~14:00)	
	14:00 ~ 14:30	발표주제 : <임진록>에 나타난 일본과 역사의식 발 표 자 : 김창현(공주교대) 토 론 자 : 신태수(영남대)	사회자 : 김기호(영남대)
	14:30 ~ 15:00	발표주제 : 대법원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에 대하여 발 표 자 : 서경숙(서울대) 토 론 자 : 김남경(대구가톨릭대)	
		휴 식 (15:00~15:20)	
15:20 ~ 17:00		**1분과 - 고전·현대문학 분야(1)(인문관 101호)**	사회자 : 서혜은(경북대)
	15:20 ~ 15:50	발표주제 : 이상의 일본어 시와 시대적 정서 발 표 자 : 김효신(대구가톨릭대) 토 론 자 : 최윤정(영남대)	
	15:50 ~ 16:20	발표주제 : 일본인의 조선 기행문 발 표 자 : 박선지(큐슈대) 토 론 자 : 류희식(경북대)	
	16:20 ~ 16:50	발표주제 : <임진록>에 나타난 모범상으로서의 논개 연구 발 표 자 : 박진아(경북대) 토 론 자 : 이현주(영남대)	
		휴 식(16:50~17:00)	
17:00 ~ 18:00		**1분과 - 고전·현대문학 분야(2)(인문관 101호)**	사회자 : 김원준(영남대)
	17:00 ~ 17:30	발표주제 : 정몽주의 일본 사행시(使行詩) 창작 의미 발 표 자 : 김 준(연세대) 토 론 자 : 정목주(계명문화대)	

	17:30 ~ 18:00	발표주제 : 일제하 소설 속의 일본 발 표 자 : 최중녀(경일대)　　토 론 자 : 심영덕(영남대)	
15:20 ~ 17:00		**2분과 - 국어학·(한)국어교육 분야(1)(인문관 201호)**	사회자 : 김억조(동국대)
	15:20 ~ 15:50	발표주제 : 디지털 쓰기에서 작용하는 고정 독자의 활동 양상 분석 발 표 자 : 주민재(명지대)　　토 론 자 : 김진웅(연세대)	
	15:50 ~ 16:20	발표주제 :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 발 표 자 : 서　만(서울대)　　토 론 자 : 김민호(대구한의대)	
	16:20 ~ 16:50	발표주제 : 비언어행동(몸짓·손짓언어)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발 표 자 : 민지영(대구한의대)　토 론 자 : 엄진숙(영남대)	
		휴 식(16:50~17:00)	
17:00 ~ 18:00		**2분과 - 국어학·(한)국어교육 분야(2)(인문관 201호)**	사회자 : 이철우 (대구한의대)
	17:00 ~ 17:30	발표주제 : Discourse Analysis: Request Strategies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발 표 자 : 박향숙(경북대)　　토 론 자 : 박준범(영남대)	
	17:30 ~ 18:00	발표주제 :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의 표준어화와 방언 인식 발 표 자 : 배혜진(동의대)　　토 론 자 : 김지숙(경성대)	
18:00 ~ 19:00	18:00 ~ 18:30	**연구윤리교육(인문관 101호)**	사회자 : 박은정(영남대)
		발표주제 : 연구윤리와 연구자의 책임 발 표 자 : 윤정헌(경일대)	
	18:30 ~ 19:00	**학술상 시상식 및 총회**	
		▪ 2018년도 한민족어문학회 학술상 시상식 ▪ 한민족어문학회 정기총회	
19:00 ~ 21:00		**폐회사 및 만찬**	

기획 발표

(인문관 101호)

발표자	발표시간	제목	토론자	사회자
표세만 (군산대)	12:50 ~ 13:40	이인직 문학의 주변	손미란 (경일대)	조보라미 (영남대)
윤경애 (영남대)	13:20 ~ 13:50	한국 근대 번역문학과 일본 - 1920년대 홍난파 번역서의 서지적 연구를 중심으로-	안영희 (계명대)	
(13:50~14:00)		휴 식		
김창현 (공주교대)	14:00~ 14:30	<임진록>에 나타난 일본과 역사의식	신태수 (영남대)	김기호 (영남대)
서경숙 (서울대)	14:30~ 15:00	대법원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에 대하여	김남경 (대구가톨릭대)	

이인직 문학의 주변
- 동경정치학교와 마쓰모토 군페이(松本君平)를 중심으로-

표세만(군산대)

〈 차 례 〉

1. 들어가며
2. 동경정치학교와 그 주변 인물들
3. 마쓰모토 군페이와 이인직
4. 나오며

1. 들어가며

-한국 근대문학의 문제적 작가 이인직
-임화에서 출발하여 김윤식에 이르는 「일본 정치소설의 ‘이식’과 ‘결핍’」이라 평가
-일본 정치소설과의 차이점
-이인직 문학의 기저 형성한 동시대 일본의 문학 및 사회에 대한 이해 파악 필요.
-이인직의 일본 체험(학습내용이나 동시대 사회 환경)
-최근 일련의 연구(구장률, 함태영, 다지리)
-선행연구의 문제점, 자료 발굴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해 부족
-자료 보충과 심도 깊은 이해로 이인직의 활동과 그 문학의 저변을 풍부화한다

이를 위해서 이인직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학교 교육, 즉 「동경정치학교(東京政治学校)」에서의 경험과 그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교장이었던 마쓰모토 군페이는 학교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강사로서 직접 언론(신문) 관련 수업을 진행했던 인물인 관계로 이인직의 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는 이인직의 근대적 지식 함양의 내실을 이해하는 주요한 단초가 될 것이고, 나아가 이인직이 그리고자 했던 문학세계, 나아가 한국 근대문학의 특질을 명확하게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동경정치학교와 그 주변 인물들

(1) 동경정치학교

이인직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일본에 갔는지, 그의 삶이 그러하듯 여전히 많은 논란에 쌓여 있다. 강현조가 1900년 3월 13일 자 『황성신문』 「잡보」 기사를 통해 보고하고 있는 바[1]처럼 최초 사비유학생 신분이었다가 1900년 국비유학생으로 전환, 그 해 9월 동경정치학교에 입학

1) 강현조(2008) 「이인직 소설의 창작 배경 연구」

한다. 이인직이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위는 물론, 학교 자체도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이 학교의 실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경우[2]도 있다.

동경정치학교는 1898년 9월 28일 동경부(東京府)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정식학교[3]로 처음에는 간다구(神田区) 우라사루가쿠 정(裏猿楽町)에 있었다. 학교설립에는 교장 마쓰모토 군페이는 물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청일전쟁 당시 외무장관을 한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라는 정계 거두가 직접 관여한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1896년 귀국한 마쓰모토는『東京日日新聞』의 객원기자 및『東京新聞』의 주필로 활동하다 이토와 무쓰를 만나게 되고, 이 두 사람의 지원 하에 정론(政論) 잡지『大日本』을 창간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경정치학교를 설립하는데 이 학교 배후에는 무쓰의 심복인 호시 도루(星享) 같은 인물과 이토 히로부미의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4]가 있었다.

학교 설립 취지서나 학교광고가 전하는 것처럼 이 학교는「정치가, 웅변가, 신문기자, 외교가, 경제가」양성과 건전한「공민(公民)」양성을 목표[5]로 삼는다. 마쓰모토는「개교식 연설」에서「정치학 보급」을 위해 학교를 설립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란 광의의 의미로「국가학, 경제학, 법률학, 재정학, 군정학, 통계학, 정치역사, 헌법학, 행정학, 국제학이 있고, 외교학, 신문학, 웅변학 등 한 나라 정치에 관한 모든 학술 연구를 포괄」[6]한다고 말한다. 현행 학교교육이 편협하면서「이론과 실제」가 분리되었다는 점,「사제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들면서 동경정치학교는 이런 폐해를 극복하며 설립했다고 주장한다.

> 특히 본교가 다른 여러 전문학교와 그 취향을 달리하는 바는 오늘날 실제 사회의 긴급함에 대응해 오직 외교관, 신문기자 내지는 대의원 의원 자격을 양성하는 데 있다. 앞으로 여러 나라와의 교제가 더욱 빈번해질 터이니 좀 더 외교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고, 헌정(憲政)의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니 대의원(代議院)이 좋은 의원을 더욱 급하게 요구한다. (중략) 본교는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응하여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7]

그 당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마쓰모토 자신이 각별하게 도울 수 있는 분야로「선량한 신문기자 양성」을 꼽는다. 그리고「신문 사업」은「다른 사업에 비해 훨씬 광

---

2) 유희봉는「이인직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재고찰」(2011)에서 동경정치학교에의「과도한 의미부여」에 문제제기하는데, 그가 근거하는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의 기억은 시기가 불분명하고 田中英夫(『山口孤剣小伝』)의 주장은 본문 아래에서 언급하는 동경정치학교 현황을 단순히 누락시킨 것으로 당해 연도의 현황은 각각의『東京府統計書』에 수록되어 있다.

3) 東京都公文書館「私立学校設置指令按 (松本君平より私立東京政治学校他 1 校設置願、認可、他) 」(기안 연월일 : 1898年09月28日), 三好仲雄 編『東京就学案内』(四海堂, 1901.5)

4)『北海道新聞』의 山口喜一라는 동경정치학교 출신 원로 언론인은 훗날 진술(『月刊・新聞資料』, 73号, 1965.1 수록)에서 이 학교는「무쓰 무네미쓰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고「정치학교 자금은 정우회(政友会)」에서 나왔으며 학교 주인은 이후에 다룰 호시 도루(星享)였다고 말한다.(藤原恵「新聞学を拓いた人たち」,『関西学院大学社会学部紀要』, 1967.12에서 재인용) 또 정치기자이자 평론가인 마에다 렌잔(前田蓮山)은 동경정치학교가 있던 곳이「政友会本部の地下の会議室で、蓮山は東京政治学校の学生を前に「政党学」の講義」했다고 술회한다.(인용은 前田又彦『政治記者 前田蓮山物語』, 2018. 3, http://renzan-monogatari.cocolog-nifty.com/blog/2016/01/17-2-f685.html 에 공개 중)

5) 예를 들어 松本君平『雄弁学』(警醒社, 1901.7) 권말에 수록된 광고에「유위(有爲)의 청년에게 정치적 학술을 가르쳐 고등 문관, 각 의회 의원, 외교, 신문기자가 된다. 동시에 한 명의 공민으로서 일가(一家)를 관리하고 하나의 사업을 경영하기에 필요한 학식을 부여하는 것」이 동경정치학교의 목적이라고 천명한다.

6) 松本君平,「新聞学付録 東京政治学校設立の趣旨-政治学校開校式演説会に於ける予が演説の大意也」,『新聞学』, 1899. 12. 3.

7) 위의 松本君平의 글

대한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업(商業)이기 때문에 성공한 거대 신문의 지배인은 반드시 놀랄 만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란 점을 알아야 하고, 따라서 거대 은행의 지배인이건, 대기업 대표건, 대정부(大政府)의 행정 수령」[8]조차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출발점이 신문기자라고 강조한다.

동경정치학교는 세계 유수의 엘리트 학교를 이상적으로 조합하여 만들었다. 현실적으로 잘 구현되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프랑스 자유 정치과학 학원(École libre des sciences politiques)[9]」이나 영국의 법정변호인 양성과 그 인가를 위한 비영리 조합조직인 「미들 템플」(The Honourable Society of the Middle Temple),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대학 재정경제학교」(Wharton School of Finance and Economy)의 장점을 절충하여 만든 학교[10]다. 게이오의숙(慶応義塾大学部)이나 동경전문학교(早稲田専門学校), 동경법학원(東京法学院-현 中央大學), 사립전수학교(私立専修学校), 메이지법률학교(明治法律学校), 화불법률학교(和仏法律学校-현 法政大學)와 같이 당시 동경의 유수한 사립학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학생을 모집했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입학자격 조건은 중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17세 이상 학생으로 일정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입학 가능한 고등교육기관[11]이었다. 물론 편입학나 특례 입학 제도도 있었고, 통신교육을 받는 교외생(校外生)과 단일한 한, 두 과목만을 수강하는 찬과생(撰科生) 제도도 함께 운영했다.

한편 동경부(東京府) 편찬『東京府統計書』의 1898년부터 1903년까지 기록에 따른 동경정치학교 강사 및 학생 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898년은 강사 40명 / 학생 97명, 1899년 강사 13명 / 학생 102명, 1900년 강사 11명 / 학생 100명, 1901년 강사 10명 / 학생120명, 1902년 강사 10명 / 학생 135명, 1903년 강사 8명 / 학생 50명(1902년 3월 31일 기준 졸업생 10명)이었다. 동경정치학교의 인원이 가장 많았던 1902년을 기준으로 타 학교와 비교하면 메이지법률학교는 강사 48 /학생 1,784명, 동경법학원은 강사 44명 / 학생 1,260명, 화불법률학교 47명 / 1,124명, 전수학교 강사 27명 / 학생 700명 등으로 동경정치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학생이 재학했다. 그러나 단일 학과를 운영하는 동경정치학교와 달리 각 학교마다 운영방식이 달라서 절대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학교의 절대적 규모는 작은 편이라 하겠다. 참고로 게이오의숙이나 동경전문학교는 다양한 전공을 포괄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훨씬 많은 편이나 게이오의숙의 대학부(정치, 법률, 이재, 문학부문)는 강사 51명/ 학생 320명이다.

또 위에 열거한 법률전문학교는 정치인, 언론인을 지향하는 동경정치학교와 달리 사법성 지정학교(司法省指定学校)로 고등문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만큼 학생들이 많이 모였던 듯하다. 게이오의숙 대학부가 강사 수 대비 학생 수가 적은 편처럼 보이지만 적은 수의 학생만으로도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듯하다. 왜냐 하면 게이오의숙의 경우 1년 학비가 36엔인 반면, 동경정치학교를 비롯한 위 사립학교는 매월 1.5엔, 연간 18엔(단, 동경법학원은 16.5엔)이었다[12].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런 재장상의 어려움으로 동경정치학교는 일시 학교폐쇄라는 사태를 맞이하기도 한다.

---

8) 위의 책『新聞学』15쪽.

9) 오늘날 프랑스의 유수한 엘리트 양성 학교인 파리 정치학원(IEP de Paris)의 전신으로 당시 일본사회에서는 프랑스 정치대학이라 불렸다.

10) 「東京政治学校学生一覧」의 「綱領」은 물론 여타의 학교소개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천명하고 있다.

11) 『東京就学案内』(1901.5, 四海堂), 그리고 또 다른 취학 안내서인 蛟竜子編 『男女東京学校案内』(1902.9, 大學館)에서는 「법정(法政)」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학교로 동경제국대학의 「법과대학」 및 「司法省指定學校」와 나란히 동경정치학교를 소개하고 있다.

12) 위의 진학 안내 책자. 참고로 와세다대학의 전신인 동경전문학교는 전기(前期) 수업료 12엔, 후기(後期) 10엔으로 연간 총 22엔을 받고 있다.

한편, 동경정치학교의 일주일 동안의 수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뤄졌다.

<표-1>

	제 1 교시	제 2 교시	제 3 교시
월	경제학(松本)	정치제도(小松)	농정(山本)
화	외교사(杉)	화폐학(小手川)	화폐학(小手川)
수	법률학(小沢)	일본정치사(福地)	농정(山本)
목	법률학(小沢)	정치제도(小松)	신문학(朝比奈), 웅변학(松本)
금	경제학(松本)	상공사(和田垣)	문학(長田)
토	중국 정치사(竹越)	금융학(小手川)	과외(課外)

이는 1898년 11월 시점 시간표인데 수업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었는지,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매 수업은 오후 3시에 시작해 6시에 끝났으며, 일주일 과목 당 수업 시수는 1시간 내지 1시간 반가량 진행되었고, 한 학기 24주 남짓 이뤄진 것 같다[13]. 일주일 동안 진행된 위 시간표의 강사 수가 10명 남짓인데 이는 동경정치학교가 각종 광고에서 소개하는 40~50여명의 강사 수에 비해 많이 적지만,『동경부 통계서』에 등재된 강사 수와는 일치하고 있다.

한편 동경정치학교의 가장 특징적인 수업은 토요일 세 번째 시간에 진행되는「과외」수업이다. 이 수업에서는「정계, 저널리즘, 학문 세계 등 제 일선에서 활약」하는 인물의 강연[14]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현실 사회에 대한 실질적 지식과 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마쓰모토가 앞서 인용한 학교설립 취지처럼 학생들은 이들 강사와「사제 관계」를 돈독히 하여 정계, 학계, 언론계의 인맥을 형성해 갔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무교육을 중시하는 수업 특성 상, 신문과 정치, 그리고 법률과 관련한 모의 퍼포먼스도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모의의회(模擬議會)와 청년 웅변회(雄辯會)[15]인데 유력인사의「과외」수업과 함께 신문 기사가 종종 실렸다. 모의국회 및 웅변회에서 사회 현안문제를 직접 다루고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정치가로서의 실질 역량을 함양한 것이다.

3년 동안 동경정치학교에서 다루는 학과목은 <표-2>와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학년은 이론교육, 2학년은 심화 응용교육, 그리고 3학년에는 실기 중심 교육이 이뤄진다.

<표-2>

학년	교과목	내용
제 1 학년	경제학	최신 오스트리아 학파(墺派)의 원리, 생산, 이전(移轉), 분배, 소비범론(消費汎論), 화폐학, 금융학
	국가학	순정국가학(純正國家學)의 원리
	법률학	법리학, 민법 범론
	농정학	농업 행정 논리 및 연혁
	일본 정치역사	일본국의 성립부터 도쿠가와 기부(德川羈府) 쇠망까지
	중국 정치역사	주실(周室)의 발흥에서 청조(淸朝)까지

13) 위의 前田又彦『政治記者 前田蓮山物語』에서 마에다는「毎週１時間半の時間が与えられ、半年間に二四回の授業を行う。蓮山にとっては教壇に立つのは初めてであったが、無報酬のこの仕事に熱が入っていた。」라 증언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법률 전문학교인「메이지 전문학교(明治専門学校)」의 경우도「수업연한은 3년, 1일 2시간, 20주간을 1기(一期)」로 삼고 있다. 참고로 1881년 이 학교 개교 당시의 학생 정원은 500명, 교원 수는 7명이었다. (吉田善明「法学部の歴史」,『思索の樹海』, 1993.4.1.)

14)『요미우리 신문』에도 1901년 2월 23일 토요일과 4월 27일 금요일 각각 빈민문제, 노동문제, 보통선거 문제 등의 주제로 강사들의 강연회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15) 成瀬公策는「1902년 2월부터 11월까지『만조보(万朝報)』「금일의 주의란(注意欄)」에 5회 정도「동경정치학교 의회」개회 예고가 게재되어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형법, 신문지 조례 등의 개정법안, 해군의 확장문제, 치안경찰법의 폐지에 관한 건의안, 추가예산(전화사업비)이 의제로 예정」되었다고 소개하면서 1903년『만조보』의 같은 기사 항목에도 여러 웅변회 개최 기사가 있는데 그 해 9월까지 총 9차례의 공지가 실린다고 전한다.(「松本君平の立憲思想形成と東京政治学校(下)」『静岡県近代史研究』, 2002.10)

	구미 정치역사	고대, 중세, 근세
	근세 외교사	프랑스 혁명부터 베를린 회의까지
	세계 상업사	상세(上世), 중고 및 근세
	열국 정치제도	현재 열국에서 행하는 정치 제도 및 그 연혁
	군정학	육해군의 조직 및 행정, 각국 군정(軍政)의 비교 연구
	정치지리학	지리와 정치의 관계 및 정치적 지획(地劃)의 변천
	웅사학(雄辭學)	웅변에 관한 이론 및 웅변의 조직법
	구미 신문사업	신문학의 원리 및 각국의 연혁
	사회 정책	노동문제, 빈민문제 및 사회주의
	문학사	각국문학의 특성, 근세의 문학, 정치와 문학의 관계
	실지문제(實地問題)의 연구	정치, 경제, 법률, 사회의 문제에 관하여
	정치학교 의회	입법원의 방법 및 토의법
	한문학	
	문장 수련(修練)	
	외국어학	
	도서(圖書) 연구	
제2학년	경제학	은행학, 외환학(爲換學), 외국 무역학
	법률학	상법 범론, 형법 원리
	국가학	응용(應用) 국가의 원리
	외교사	상세(上世) 및 중고의 외교 역사
	사회학	사회 조직의 원리
	재정학	세입, 세출 공채(公債), 예산 원리
	통계학	이론 통계, 응용 통계
	헌법학	제국헌법 및 영, 미, 독, 프, 스위스, 이, 스페인, 오스트리아 제국의 헌법 비교
	국제공법	국제법의 연혁, 평시 국제법, 전시 국제법의 연구
	신문학	이론 및 각국의 연혁
	웅변학	이론 및 응용
	실지문제의 연구	정치, 경제, 법률, 사회의 문제
	정치학교 의회	입법원의 방법 및 토의법
	한문학	
	문장수련	
	외국어학	
	도서연구	
제3학년	경제학 제가(諸家)의 특별연구	
	국가학 제가의 특별연구	
	법률학	로마법의 연구
	행정학	각국 행정의 비교 연구
	국제 사법(私法)	이론, 학설 및 연혁
	재정학	열국 현재의 재정제도 및 그 정태(情態)의 연구
	영국헌법 연혁사	
	구미 정당의 조직 및 연혁	
	자치제도	현군시정촌(縣郡市町村) 자치제도의 원리 및 그 재정
	신문학	실천(實踐)
	웅변학	응용
	정치학교 의회	입법원의 방법 및 토의법
	한문학	
	문장수련	
	외국어학	
	도서연구	

1899년 8월 「私立学校令」이 제정된 이래 국가는 사립학교를 직접 관리하는데 1903년 3월에는 「專門学校令」을 마련, 사립 고등교육기관을 정비한다. 제국대학과는 별도로 사립 고등교육 기관을 전문대학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사립학교가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다.

『동경부 통계서』의 1903년 보고에 따르면 동경정치학교는 와세다, 게이오 등의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문부대신의 허가를 얻어 「정치, 경제, 법률」 전문의 「전문학교」가 된다. 그런데 다음 해 『동경부 통계서』의 「사립 전문학교」 항목에서 동경전문학교의 이름이 사라진다. 「사립

전문학교」 항목 이외에 「각종 학교」에도 동경정치학교는 없다. 「각종학교」 현황 보고 말미의 「학생 백 명 이상」 학교만을 게재한다는 조항 때문인지 50여명 규모로 줄어든 동경정치학교의 이름은 한 동안 『동경부 통계서』 자료에 보이지 않는다.

확실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으나 1904년을 기점으로 동경정치학교의 이름을 다른 자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 1901년 6월 21일 호시 도루의 암살사건을 그 이유로 드는 경우가 있다. 동경정치학교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호시 도루의 사망과 재정상의 궁핍이 종국적으로 학교 폐쇄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마쓰모토 군페이의 본격적인 정계 진출에 따른 관리 소홀도 생각할 수 있다. 1900년 입헌정우회 설립, 이후의 보통선거 운동, 『静岡新報』 경영, 1904년 중의원 의원 입후보와 3월 1일 제9회 중의원 의원선거 당선 등 다망한 일정이 이어진다. 게다가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마쓰모토가 다음 해 중국에 건너감으로써 더 이상 학교 운영이 어려웠던 것 같다.

마쓰모토 군페이는 1904년 6월 동경부에 「私立学校規則一部改正」[16]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다. 운영의 어려움이 학칙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정치학교는 1912년 『동경부 통계서』 「私立各種學校一覽(其他の者)」에 1개 학급, 교원 4명, 학생 수 33명, 입학자 19명, 졸업자 10명이란 형태로 다시 등장한다. 학교 문을 일시적으로 닫았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문을 다시 열었고, 이는 최소한 1920년대 후반까지 지속[17]한다. 이처럼 마쓰모토가 끈질기게 유지시킨 동경정치학교는 이후 이인직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 지점인 「청년교단(青年教団)」[18]으로 수렴되어 함께 이어진다.

(2) 동경정치학교의 주변 인물들

마쓰모토 군페이의 출신지 시즈오카 현(静岡県)은 에도 막부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가 칩거한 곳이다. 시즈오카 자체가 대대로 도쿠가와 막부의 직할지인데다 마쓰모토의 고향 엔슈(遠州)는 막부 직할 군대와 같은 후다이다이묘(譜代大名)가 통치했던 곳이다. 그 만큼 메이지 정부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었는데, 이 때문인지 동경정치학교 주변에 모여든 인물들 중에는 시즈오카와 관련된 인물, 반삿쵸(反薩長) 전제정부 세력들이 많다.

동경정치학교에는 중요사안을 자문해 주는 「상의원(商議員)」[19]이란 집단이 있다. 총 15명인

16) 東京都公文書館 「私立学校規則一部改正ノ件（東京政治学校設立者松本君平ヘ規則改正認可、他）」(기안일자, 1904年06月07日).

17) 예를 들어 1926년 『木下謙次郎氏講演録. 第1集』에 木下가 「政黨の研究」란 제목으로 강연한 것을 「동경정치학교 웅변부」에서 발간하고 있다. 거기에 동경정치학교의 소재지가 「동경시 고지 정(麹町)」에 있는 「政友ビルヂング内」로 되어있어 존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929년 9월 25일 『관보』에는 여전히 「동경정치학교 웅변부」 모집 광고가 나오고 있다.

18) 1911년 설립한 「정신운동 교화단체」 「청년교단」은 마쓰모토의 이력에 1912년 이인직이 조선에 「청년교단」 지부를 설립했다고 적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은 향후의 과제가 되겠지만, 1932년 1월 13일 『朝鮮新聞』에 마쓰모토 군페이에 의해 서울 「黄金町 二丁目 朝鮮発明協会内」에 교단의 지단(支團)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19) 이들 상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에바라 소로쿠(江原素六), 오카 이쿠조(大岡育造),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가타오카 겐키치(片岡健吉),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郎), 스에마쓰 겐초(末松謙澄), 쓰즈키 게이로쿠(都筑馨六), 쓰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하야시 유조(林有造), 하라 다카시(原敬), 호시 도오루(星亨), 혼다 마사자네(本多政以), 마쓰다 마사히사(松田正久), 와타나베 구니타케(渡辺国武) 등이다. 이중에서 이타가키만큼은 이토와 함께 정계에서 활약한 인물로 정치적 라이벌과도 같은 존재로 입헌정우회의 성립과 동시에 정계를 은퇴한다. 그럼에도 동경정치학교 상의원 및 강사로 이름이 오른 이유는 이타가키가 워낙 유명한 정치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899년 1월 마쓰모토 군페이의 여동생 세쓰코(節子)가 이타가키의 장남 호코타로(鉾太郎)와 결혼, 마쓰모

데 이들은 고급관료, 혹은 귀족원 의원, 아니면 원로급 중의원들이다. 또 이들 대부분이 야마가타 아리아케(山縣有朋)의 삿쵸(薩長) 전제정부와 대립하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나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와 긴밀한 관계라는 점에서 공통한다. 그리고 이들은 의회주의의 기치 아래 1900년 9월 결성된 입헌정우회와 다음 달 10월에 발족한 제4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지지 기반이기도 하다.

동경정치학교의 배경에 있는 이런 정치 집단은 정계 진출을 꿈꾸던 동경정치학교 학생들에게 큰 자극이 된다. 이들 사이에 이인직이 있었던 셈인데, 바꿔 말하면 이런 정치적 배경이 이인직이 동경정치학교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의원」들의 면면, 그 중에서도 조선과 관련성이 있는 인사들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스에마쓰 겐초(末松謙澄)는 1976년 강화도조약 체결 당시, 전권변리대신(全権弁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를 수행하여 조약문 초안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1889년 이토 히로부미의 둘째 딸과 결혼하였고 1892년 총리가 된 이토의 추천으로 법제국 장관까지 취임한다. 1894년 청일전쟁 때에는 추밀원(樞密院) 고문관(顧問官)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와 함께 「위문사」(慰問使) 자격으로 조선을 방문한다. 청일전쟁에 대한 조선의 유력 인사 및 해외 공관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들어와 고종과 민비, 그리고 대원군까지를 접견한다. 이후에도 스에마쓰는 법제국 장관으로서 청일 전쟁 및 이후의 조선 식민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조처들을 해나갔고, 더불어 조선의 유력인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간다.

쓰즈키 게이로쿠(都筑馨六)는 동경대학 정치이재학과(政治理財學科)를 나와 베를린 대학에서 유학한 인물로 1898년 외무차관으로 활동한다. 외교관으로서 한국 사정에 정통했던 쓰즈키는 1905년 11월 러일전쟁 때 스에마쓰와 마찬가지로 위문의 목적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수행하여 방한, 고종한테서 포상까지 받는다.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여 고종의 밀사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좌절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다음 인물인 쓰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는 1905년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 통감으로 취임하자 함께 따라와 통감부 총무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 이전인 1895년 3월, 일본은행에 근무하면서 일본은행 총재를 대신하여 어윤중과 함께 조선에 300만원의 차관 제공 계약을 체결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쓰루하시가 일본돈 300만 엔을 가지고 들어올 때 함께 온 사람이 법제국 장관 스에마쓰로 두 사람 모두 이토의 핵심 참모라 하겠다. 1900년 입헌정우회 창립 멤버이기도 한 쓰루하시는 1907년 8월 조선 궁내부 차관(宮內次官)까지를 하다 다음 해 귀국한다.

또 상의원 중 중요한 인물이 하라 다카시(原敬)로 3·1운동 당시 일본 총리를 지냈던 인물이자 소위 「평민재상(平民宰相)」이라 불리며 일본인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다. 마쓰모토 군페이를 적극 후원했던 무쓰 무네미쓰 외무장관이 발탁한 인물로 1896년 6월 11일 조선주재 공사로 부임했다가 다음 해 9월 1일 사퇴한다. 만일 이인직이 1896년 조중응과 함께 도일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각별했을 것이다.

호시 도오루(星享)는 영국 미들 템플 출신으로 동경정치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누구보다도 깊게 관여한 인물이다. 그 또한 동경정치학교 이전에 이미 조선과의 관계가 긴밀했는데 당시의 조선공사(朝鮮公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요청을 받아 1895년 3월부터 10월까지 조선의 법부고문관(法部顧問官)으로 임명되어 근무한다. 그리고 민비 시해사건 직후 일본에 귀국[20]한 만큼 이인직과 관련해 눈여겨 봐야할 인물이다.

토와 이타가키 두 사람은 사돈 관계이기도 했다.

20) 호시 도루가 일본에 귀국한 이유를 야만적인 민비시해 사건에 혐오해서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 남아있는 사료에는 미우라 고로가 일본 정부에 민비 시해사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기

이상의 상의원과 마찬가지로 함께 고려해 봐야하는 것이 동경정치학교의 강사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몇 몇 선행 연구가 있지만 이인직이 받은 교육의 전체 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 도항 전후한 이인직의 행보를 알기 위해서는 이들 강사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참고가 될 만한 것이 나루세 고사쿠(成瀨公策)의 논문[21]이다.

나루세는 강사진 중 메이지유신 때 청년기였던 사람을 전세대(前世代, 1833년~1855년 생), 유소년기였던 이들을 중심세대(中心世代, 1856년~1866년 생), 그 이후 세대를 후세대(後世代, 1867년~1871년 생)라 부른다. 「전세대」 강사들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도막부의 관료, 혹은 막부 학문소(学問所), 막부 군사학교인 시즈오카 번 누마즈 병학교(沼津兵学校) 출신자란 점으로 주로 학계 및 언론계에 종사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메이지 신정부의 대척 지점에 있으면서 메이지 번벌(藩閥) 정부에 적대적인 논진을 펼친다.

그 중에서 오다 준이치로(小田純一郎)는 호시 도루와 같은 영국 미들 템플 출신[22]이다. 그는 일본 근대문학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서양 번역소설인 『화류춘화(花柳春話)』[23]를 발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이다. 오다 역시 호시와 마찬가지로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의 후원 하에 신문 『촌철(寸鐵)』의 주필을 하기도 한다. 호시 도루가 1901년 6월 호시의 교육정책에 불만을 품은 이바 소타로(伊庭想太郎)의 습격을 받아 죽지 않았다면, 오다와 호시가 중심이 되어 또 다른 모습의 동경정치학교가 되었을 것이다.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 아사히나 지센(朝比奈知泉), 스즈키 미쓰요시(鈴木充美)처럼 동경제국대 등의 국내 대학 출신자도 눈에 띄지만, 중심세대나 후세대에는 오다나 호시처럼 외국유학 경험자가 월등히 많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지역 유학자에 비해 미국 유학자 경험자가 유난히 많다. 우키다 가즈타미(浮田和民), 고마쓰 미도리(小松緑), 곤도 시즈오(近藤賤男), 치바 고조(千葉鉱蔵), 야마구치 친타(山口鍖太), 가타야마 센(片山潜), 모토다 사쿠노스케(元田作之進), 노야 다케오(野矢丈夫), 후쿠오카 히데이(福岡秀猪) 등은 모두 마쓰모토와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유학[24]을 한다. 또 마쓰모토와 같은 시즈오카 출신자로는 가나이 노부루(金井延), 다케무라 신지(竹村真次), 야마자키 가쿠지로(山崎覚次郎) 등이 있으며 비록 시즈오카 출신은 아니지만 누마즈 병학교 출신자로 상의원이면서도 강사로 활약한 에바라 소로쿠(江原素六)나 시마다 사부로(島田三郎)도 동경정치학교에서 꽤 오랫동안 수업을 진행한다. 다시 말해 동경정치학교의 강사진은 마쓰모토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강사가 해외 유학파였던 만큼 대학과 같은 학계나 외무성, 대장성과 같은 관료 세계에서 활약하는 인물이 많았다. 그런데 입헌정우회 설립 시기, 마쓰모토와 같이 정치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이 구라하라 이카쿠(蔵原惟廓), 구리하라 료이치(栗原亮一), 다케고시 요사부로(竹越与三郎), 모치즈키 소타로(望月小太郎)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중의원 의원이 되어 국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선 의원이다. 이후 러일전쟁, 한일합방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 강사진들은 학계, 언론계, 행정기관, 그리고 정치에서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에 복무하는데 특히 이인직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 있다.

위해 귀국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21) 成瀨公策 「松本君平の立憲思想形成と東京政治学校(下)」(『静岡県近代史研究』, 2002)

22) 오다 준이치로는 1870년~77년, 호시 도오루는 1874~77년까지 유학을 하다 귀국한다. 다만 오다는 1874년 일단 에든버러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했다가 산조 사네토미(三条実美)의 아들 유학을 따라 다시 출국하였다가 1877년 귀국한다. 그러나 그 아들의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평생 관직 진출을 봉쇄당했다는 소문이 있다.

23) 영국의 정치가이자 소설가인 리턴(E.G. Lytton)의 소설 『Ernest Maltravers』(1837)와 그 속편인 『Alice, or The Mysteries』를 초역한 것이다.

24) 위의 成瀨(2002) 논문.

예를 들어 현재 남아있는 동경정치학교 강의록에서 확인가능하듯이『군정학(軍政学)』과『전시 국제공법(戦時国際公法)』 분야를 담당한 신도 사이이치(神藤才一)가 그러하다. 1879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소위로 임관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신도는 1884년 갑신정변 때 조선에 출정한다. 그 덕분에 대위로 진급하지만, 2년 후인 1886년부터 10년 가깝게 프랑스에 유학한다. 그는 동경정치학교의 규범인「프랑스 정치학교」를 거쳐 리옹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25]한다. 특히 신도의 주요 전공은「전시 국제법」으로『혈의누』의 청일전쟁 전장 풍경과 관련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법률을 전공한 스즈키 미쓰요시(鈴木充美)도 1886년에는 인천 영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시미즈 이치타로(清水市太郎) 또한 청일전쟁 기간 동안 포획심검소(捕獲審検所)의 평정관(評定官)으로 근무하면서 교전국 포획물에 관한 법률적 심사를 담당한다. 또한 이토 히로부미의 비서관 출신인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는 청일전쟁 때는 제2군 사령부 법률고문으로 종군하였으며, 러일전쟁 때도 국제법 고문으로 여순 공격 시 종군한 인물이다. 아리가 나가오는 특히 청일전쟁을 주제로 한「국제공법」강의도 종종 했다고 전해진다.

이인직과 관련해서 또 한명 주목해야 할 인물은 역시 고마쓰 미도리(小松緑)다. 그는 게이오 대학 출신으로 1887년부터 1895년까지 미국 예일대학에서 법학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다음 해인 1896년 귀국, 무쓰 무네미쓰의 인정을 받아 외무성 번역관으로 근무한다. 그리고 1902년 11월 7일부로 고마쓰는 태국 방콕에 2등 서기관 영사로 파견 나갔다가 러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4년 5월 4일부로 면직되어 귀국하는데, 이는「임시 외무성 사무에 종사」[26]하기 위해서다. 다음 해인 1905년 5월 16일 경에는 요동수비군 사령부 공사관(遼東守備軍司令部公使舘) 2등 서기관으로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이토가 조선에 통감으로 올 때 함께 수행하여 외교부장이 되었으며, 합방 후에는 총독부 외사국장, 총무부장관, 중추원 서기관장까지를 지낸다.

우메 겐지로(梅謙次郎)는 신도 사이이치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리옹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물로 일본 민법 초안을 마련했고, 이후 현재의 호세이 대학(法政大学) 전신인 화불법률학교(和仏法律学校) 교장에 취임한다. 1906년 이토 히로부미의 요청으로 한국정부 법률 최고 고문으로 취임, 법전조사국 고문(法典調査局顧問)으로서 법전 편찬에 참여하였고 부동산조사회(不動産調査會)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토지제도에 관한 법률을 기초한다.

원래『재팬 메일』의 기자였던 즈모토 모토사다(頭本元貞)는 1896년 이토 히로부미의 비서관이 되었다가 곧 바로 사직하고 유학을 떠나지만 1906년 이토의 요청으로 통감부 촉탁이 되어 영국인이 경성에서 발행하던 영자 신문『Seoul Press』를 매입, 사장 겸 주필로서 친일 선전활동을 전개한다[27]. 조선 내에서 이인직의『국민신보』『만세보』는 물론『대한매일신보』등의 언론 환경과 관련해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동경정치학교는 이토 히로부미가 관련되고, 청일전쟁을 기획한 일본 외상 무쓰 무네미쓰가 이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만큼 훨씬 일반적인 교육기관과는 달리 훨씬 더 정치적인 의미를 지

25)「外交学者神藤才一氏」(『太陽』, 1895.6.5.)

26)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外務省月報 第二巻(外・報２)」(外務省外交史料館), 이후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무렵 松本君平도 러일전쟁 시찰을 목적으로 중국에 건너가 있었다.

27) 러일전쟁 기간 중인 1904년 한국 궁중에서 반일신문『Korea Times』를 발간할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었는데 이는 원래『Japan Times』의 기자였던 영국인 코웬이 즈모토에게 알려와 드러난 것이다. 이 코웰은 원래 베델과 함께 반일신문『Korea Times』를 내려고 했는데, 두 사람의 의견충돌이 있었고 코웰이 떠나자 베델은『大韓每日申報』를 발간한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통감부에서 지원해 발간한 것이 바로『Seoul Press』가 된다.(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 기록&통감부 문서『駐韓日本公使館記錄 22권』)

닌다. 그 만큼 조선과 크고 작은 관계를 맺고 있는 동경정치학교 관련자들은 이인직과 단순한 사제 간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다. 고작 과외생(科外生)으로서 이인직을 가르친 적이 있다는 고마쓰는 이인직이 「舊師」니 「賢師」[28]니 하며 받은 극진한 대접을 기록하고 있다. 고마쓰에 대한 이인직의 태도는 비단 고마쓰한테만 한정된 것이 아닐 것이다. 동경정치학교의 수업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에서 언급한 「강사」들의 정치적 역량은 이인직이 조선에 귀국하기 전, 그리고 러일전쟁 기간 중 통역으로 참전할 때, 또 귀국 후 이인직의 무수한 활동에 깊이 관련될 수밖에 없다. 이인직 쪽에서의 일방적 구애일 수도 있겠지만, 조선으로 넘어 온 그들 「선생」들이 가장 손쉬운 접근 대상이 이인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마쓰모토 군페이와 이인직

(1) 마쓰모토 군페이

이인직이 동경정치학교를 다닐 무렵, 촉망받는 유력 정치인이었던 마쓰모토는 오늘날 거의 잊혀 진 인물이다. 그 뿐 아니라 그는 보통선거 운동이나 여성 참정권 운동처럼 근대 일본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선두에 서있던 진보적 「민중 정치가」 중 한 명이기도 했다[29]. 또한 겉멋든 서양풍 인사, 진보적 인사를 비꼬며 썼던 「하이칼라」[30]의 대장격이기도 하다. 동경정치학교에서 함께 강사를 했던 다케코시 요사부로(竹越與三郎), 고테가와 도요지로(小手川豊次郎)와 더불어 「삼대 하이칼라」라 불렸던 마쓰모토는 미국 필라델피아 대학을 졸업하고, 브라운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한 당대 최고의 유학파 엘리트였다. 1896년 미국 등지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해 마쓰모토는 이토 히로부미와 알게 되고 그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후에도 마쓰모토와 이토의 관계는 긴밀했는데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것처럼 그는 1900년 이토의 입헌정우회(立憲政友会) 설립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당대 최고의 풍자가이자 초기 사회주의 운동의 선구자인 야마구치 고겐(山口孤剣)은 마쓰모토를 『메이지 백걸전(明治百傑伝) 제1편』(1911.1)이란 책에서 그를 「정신적인 하이칼라」라고 높이 평가한다. 시마다 사부로나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처럼 그 시대 최고의 「선생」을 「뼈를 찌르는 붓으로 당세(當世) 백 명의 선생을 어관(魚貫)」[31]하지만 마쓰모토만큼은 관대했다. 물론 야마구치 스스로가 동경정치학교 출신인 까닭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정치가 중에서 가장 순수한 우리 마쓰모토 군페이 선생도 경조부박(慶弔浮薄)한 신문기자들 때문에 마냥 냉조열매(冷嘲熱罵) 속에 묻히려 하니 진실로 한탄스럽다」 말한다.

1900년대 이미 초기 사회주의 운동이 일던 시점, 마쓰모토가 기치로 내걸었던 보통선거와 여성참정권 주장은 보수 언론인들의 매도 대상이었고, 당시 청년 사회주의자들에게는 큰 「선생」과 같았다. 마쓰모토의 보통선거 주장 이후, 20여 년이 지난 1925년 3월 29일 제 50회 의

28) 小松緑『朝鮮併合の裏面』(1920.中外新論社)

29) 松本君平와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는 成瀬公策의 일련의 연구가 유일하다 하겠다. 위에서 인용한 「松本君平の立憲思想形成と東京政治学校(下)」 이외에도 「大正デモクラシーと民衆政治家松本君平」(『静岡県近代史研究』, 1998), 「民衆政治家松本君平の中国認識」(『静岡県近代史研究』, 1999), 「松本君平の立憲思想形成と東京政治学校(上)」(『静岡県近代史研究』, 2001), 「アジア主義の蹉跌-松本君平の場合」(『静岡県近代史研究』, 2005)가 있다.

30) 옷깃을 높게 세워 멋을 부린 사람을 일컫는 하이칼라라는 용어는 당시 『東京毎日新聞』 주필이고, 동경정치학교에서 간사였던 이시가와 한잔(石川半山=石川安次郎)이 만든 용어라고 한다.

31) 倉辻白蛇 「서(序)」(『明治百傑伝』, 1910.4)

회에서 겨우 보통 선거법은 가결, 성립된다. 만 25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법은 여전히 여성의 정치 참여를 배제시켰고, 여성참정권을 주장하는 마쓰모토는 변함없이 언론계의 협조를 얻지 못한 채 기인취급 당하기 십상이었다.

사실 마쓰모토의 행적을 살펴보다 보면 기인 취급을 받을 만한 것이 많다. 의원 신분에 종종 중국에 넘어가 지내기도 하는데, 1917년 손문의 광동군 정부에서 고문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또 마쓰모토는 몽골에 들어가 본인 또한 칭기즈칸의 후예라며 지역 지도자들과 만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중국, 몽골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의 마쓰모토는 조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쓰모토는 1896년 1월 11일 자『국민의 벗(国民之友)』에 발표한「조선문명책(朝鮮文明策)」에서 조선 문명화를 위해 몇 가지「일본 동화책(同化策)」을 제안한다.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①일본인종의 조선 귀화, ②일본인의 조선 이주, ③조선인의 교육, ④ 일본 화폐의 공동 사용을 제안한다. 순망치한의 관계인 조선을 외세 침략에서 막아내기 위해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 동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1906년 7월 20일『만세보』에 실린 사설「三進聯邦」의 구체적 방법으로 보이는 주장으로 그 자체로서도 재미있지만, ③의 조선인 교육과 관련한 마쓰모토의 다음과 같은 의견은 주목할 만하다.

> 오늘날 다행히도 조선 학생, 일본 유학하는 자, 그 수 적지 않다. 몇 년 후 어느 날 일본문명의 수입자가 되어 조선 문명의 도화선이 될 자, 필시 이들 학생 중에서 나올 것이다. 과거 일본이 아시아 문명을 흡수하여 개국의 기초를 세운 것은 사실 그들 견당(遣唐), 견수(遣隋) 유학생 한명 한명한테 힘입은 바 크다. 이를 유신(維新)의 역사에 비춰보면 얼마 안 되는 양학자(洋學者)가 신일본의 신문명을 계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혹여 조선의 문명을 돕고 그 독립을 확고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조선인의 교화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의협심 있는 미국인이 우리 유학생을 우대하고 호우(好遇)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반드시 공명정대와 인도(人道)의 대의를 내걸고, 서쪽 이웃 자매국을 대해야만 한다. (중략) 이는 비단 동양문명의 전교자(傳教者)인 우리의 책임일 뿐 아니라 과거 조선에게 빚진 바를 갚아야 하는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 글에서 마쓰모토는「대개 12세기까지 일본문명의 원천을 구하면 조선의 귀화인에 귀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며「조선이 일본화하더라도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임을 잃지 않는다. 조선의 독립은 만대불역(萬代不易)」이라고 강조한다. 조선 귀화인이 일본 문명을 구축한 것처럼 일본 귀화인이 한국 근대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마쓰모토의 주장은 야마구치 고겐이 지적한 마쓰모토의「순수」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재미있다. 또한 그는 조선인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본인의 미국 유학경험을 토대로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기대를 피력한다. 즉 이 글에서 이인직을 동경정치학교 학생으로 받아들이려는 그의 적극적 태도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했다는 것은 1910년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일본에 입국했던 이인직의 행동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자료이지만 일본 외무성 극비자료인『이인직의 행동』[32]에 의하면, 동경에 도착한 1909년 12월 19일 이후부터 귀국하기 위해 동경을 출발하는 3월 13일까지 이인직은「위장병원(胃腸病院)」에 입원한 마쓰모토를 총 24회(1910년 3월 6일 부재 중 방문까지 포함) 찾아간다. 100여일 동경에 머무르면서 사흘에 한 번 정도 그를 방문한 것이다. 한일합방과 관련한 논의를 비롯해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

32) 일본 외무성 자료「伊藤公爵薨去後ニ於ケル韓国政局並ニ総理大臣李完用遭難一件」에 1909년 12월 18일부터 다음 해 3월 13일 귀국 길에 오르기 전 삼 개월 남짓한 이인직의 활동을 염탐한「이인직의 행동」이란 제목의 극비 보고서가 실려 있다. 이 후 이 문건은「이인직의 행동」으로 표기하겠다.

았겠지만, 이인직의 이러한 행보는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마쓰모토가 「위장병원」에 입원한 정확한 날자는 확인불가능하나 입원하기 직전 마쓰모토는 중국에 있었다. 1909년 9월 28일 마쓰모토는 중국에서 「차이나 타임즈」라는 영자신문과 「차이나 트리뷴」이란 주간 영자신문을 발행한다. 이와 관련한 외무성 자료[33]에 따르면 7월에 「차이나 트리뷴」 첫 호를 낸 이후, 마쓰모토는 「重患」에 걸리게 되고 또 「11월 하순 그의 아버지가 大患에 걸렸으며 동시에 의회 개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본으로 귀국한다. 마쓰모토가 걸렸다는 중환이란 야마구치 고겐의 기록에서는 「맹장염」이었다[34]. 어쨌거나 1909년 12월 24일 아버지 마쓰모토 우시타로(松本丑太郎)의 사망 후 「위장병원」에 입원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12월 19일 동경에 도착하고 얼마 안 된 시점, 즉 마쓰모토 아버지의 사망 나흘 후인 28일 이인직은 마쓰모토를 병문안 간다. 고마쓰 미도리에 대한 이인직의 지극한 태도로 미루어 짐작컨대, 동경정치학교 교장이자 「경제학」 「신문학」 등을 가르쳤던 마쓰모토의 병실을 이인직이 열심히 출입한 것 또한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른다.

한 가지 더 러일전쟁 기간 이인직의 귀국과 관련하여 두 사람의 행동에 좀 더 세심하게 주목해 볼 여지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인직은 1904년 2월 22일 러일전쟁 당시 일본 육군성 제1군 사령부 한어 통역(韓語通譯)으로 참전했고 같은 해 5월 청나라 봉황성(鳳凰城)에서 해고[35]된다. 2~3개월 남짓한 짧은 참전[36] 후 이인직은 마침내 귀국하는 것이다.

그런데 「육군성 인사국 보임과 업무상보」[37]에 이인직의 통역 참여와 관련한 몇 가지 단서를 파악할 수 있다. 러일전쟁 기간 동안 불비하여 개정, 또는 새롭게 정한 규정 등을 정리한 것이 이 문서인데, 러일전쟁에 통역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인은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러일 전쟁 당시 한어 통역자는 주임관(奏任官) 대우가 총27명, 판임관(判任官) 대우는 93명이었다. 그 중 주임관 대우로 직접 한국인을 채용한 인원은 한명도 없었다. 경력 있는 일본인 무시험으로 채용한 통역관이 총 10명, 일반지원 유시험(有試驗) 채용 인원이 1명이었다. 또 외국어학교 졸업생 및 생도, 즉 한국어과를 졸업 또는 재학 중인 통역이 각각 9명과 7명이었다. 반면 판임관 중 한국인 직접 채용 통역은 총 13명이었다. 가장 많은 급료를 받는 이가 40엔이었으며 인원은 4명이었고, 나머지 9명 중 1명이 35엔, 7명이 30엔, 1명이 25엔이었다. 러일전쟁 동안 통역으로 채용한 전체 120명 중 13명이 한국인이었고, 이 중에서도 일본 국내에서 채용된 인원은 극소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 주35) 자료에서도 잠깐 소개했지만, 다른 자료[38]인 「戦時各部隊通訳配属定員表」에 의하면 군사령부에 배치된 한어 통역은 한국인, 일본인을 합쳐 총 6명이었다. 이 6명 중에 일본인도 아니고, 주임관도 아닌 판임관 대우 이인직이 포함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인직은 제1군 사령부 한어 통역이었다. 이를 바꿔 말한다면 이인직이 통역으로 선발된 데에

33)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新聞雑誌操縦関係雑纂／「チャイナ、トリビュン」改メ「チャイナ、アドヴァタイザー」第一巻」 (外務省外交史料館)

34) 山口孤剣『明治百傑伝 第壹編』(1911.1, 洛陽堂)

35)『大韓帝國官員履歷書』(國史編纂委員會 편, 1972),

36) 일본 육군성 자료『明治37年1月 起 人事諸達綴 大本営 陸軍副官 二冊の内１』에 수록된 「日露戦役に関し各部隊に配属すべき通訳の人員定員表」란 공문에 의하면, 당시 제1군 사령부에 소속된 한국어 통역인은 6명이었고, 그 중 「特別ノ場合ノ外清語通訳ハ清国内、韓語通訳ハ韓国内ニテ作戦スル期間附属スルモノトス」로 되어 있다. 1905년 5월 초 압록강 전투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같은 달 이미 중국 요동 반도 쪽으로 후퇴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인 이인직은 이 무렵 「해고」된 듯하다.

37)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明治３７、８年戦役 陸軍省人事局補任業務課詳報」(防衛省防衛研究所)

38)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明治３７年自２月８日至２月２６日第１号副臨号書類綴」(防衛省防衛研究所) 내 「通訳配属人員の件」

는 본인의 일본어 실력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마쓰모토 군페이나 고마쓰 미도리 같은 동경정치학교의 인맥, 일본 정치 실력자들의 조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해 마쓰모토 군페이도 주목해야 한다. 마쓰모토는 자신의 약력을 소개[39]하는 과정에서 「의회 폐회 후 곧바로 여순(旅順), 봉천(奉天)의 전장을 순시」했다고 말한다. 제21 임시의회가 1904년 11월 30일~1905년 2월 27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 시점에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다. 실제로 1905년 3월 시점, 마쓰모토 군페이는 러일전쟁 참관을 위해 여순으로의 도항[40]을 시도한다. 정확한 일정은 확인 불가능하나 최소한 1905년 5월 30일 자로 중국에서 중국 정세를 보고하는 장문의 편지를 정우회 본부에 보냈다[41]고 한다. 그 후에도 마쓰모토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일본을 종종 오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무렵 고마쓰 미도리는 요동수비군 사령부 공사관 2등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이 중국에서 마주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큰데, 그 뿐 아니라 이인직, 마쓰모토 군페이, 고마쓰 미도리,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아리가 나가오는 러일전쟁 전장이라는 역사적 현장을 함께 체험했다는 점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각별했을 것이다.

그 만큼 앞에서 언급한 1910년대 「이인직의 행동」에 나타난 이인직의 마쓰모토에 대한 열성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그와 동시에 한일 합방 정국 속에서 이인직이 행했던 여러 정치적 역할은 물론, 마쓰모토의 문학(소설)의식, 혹은 신문 제작 및 언론에 대한 태도가 이인직의 문학과 그 언론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2) 마쓰모토 군페이의『신문학』

마쓰모토의『신문학』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동경정치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의 구성이 체계적이지 않고 중첩되는 내용도 많다. 그럼에도 근대 일본 최초로 신문을 학문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는 크다. 동시에 이인직의 귀국 후 행적을 연구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인직은 한일합방 당시 소위 이완용의 비서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회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이인직이『만세보』나『대한신문』등 언론활동을 거치고 뒤이어 정계에 진출하는 과정은 마쓰모토가『신문론』에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언설과 맞닿아 있다. 즉 「신문기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공무(公務)를 맡기에 훨씬 더 잘 적합」한데, 신문기자야말로 정치 이론과 운용에 정통해야만 기사를 쓸 수 있고 그렇게 수 년 간 쌓은 정치적 지식, 경험 지식 때문에 「정부 관리가 되고 공직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42].

또한 마쓰모토는『신문학』에서 여러 나라의 신문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본인이 신문기자로서 활약했던 미국 신문을 주요하게 소개한다. 그는 미국 신문이 다른 여러 나라의 신문에 비해 정치, 사회, 경제, 문학, 그리고 현실적인 발행 부수 차원에서 독보

39)『徳教とは-現代人の新しき宗教』(1935.11, 社団法人 青年教団)수록 「青年教団総長松本君平略歴」

40) 「明治37~38年 戦時書類 巻126 艦船便乗 便乗許可登記簿 便乗に関する諸件」(海軍省)에 의하면 1905년 3월 8일 「戦地視察」 허가를 요청하나 해군성에서는 전지 방면의 왕복 배편이 적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부정기적이란 점을 들어 육군성의 허가를 받아 「大阪商船株式会社」의 정기 배편을 이용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41) 成瀬公策의 논문 「民衆政治家松本君平の中国認識」에서 재인용.

42) 松本君平의 『新聞学』, 제25장「職業としての新聞記者」과 제26장「公人としての新聞記者」의 내용이 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인 지위에 있다면서, 「소위 『지상(紙上)의 국민교육 대학교』로 정치, 문학의 취미를 국민 최하층까지 보급시킨다는 점」에서 미국 신문은 세계 최고라 꼽는다. 신문은 「여론의 선도자인 동시에 또한 여론의 창조자」라는 인식을 마쓰모토는 「양키 저널리즘」이라 부르면서 신문의 대중적 계몽성과 독자 대중의 정치적 파괴력에 주목한다.

마쓰모토는 「신문」이란 입법, 사법, 행정 다음 가는 제4의 세력이라 부를 만큼 강력한 권력이라고 주장한다. 그 권력은 독자의 지지에 의거하는데, 독자 대중의 힘, 마쓰모토의 용어를 빌린다면 「민중의 세력, 땅을 뒤흔들며 등장하니 신문기자가 그 최선봉이 되었고, 사회의 여러 세력은 모두 근세 신문사업 앞에 무릎을 꿇는다.」[43]며 여론에 힘입은 신문의 정치적 파급력을 부각시킨다. 이 때 신문기자는 신문기사를 대중적 언어로 「민중」을 설득해야 하고 독자를 매료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독자 대중의 신문구독이 신문 존립의 절대 전제조건이기에 마쓰모토는 신문의 상업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 신문지는 상업적(商業的, 비즈니스)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신문발행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원칙인데 만일 이 원칙을 잊었을 때는, 설령 그 목적이 제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하더라도 결코 영속할 가능성이 없다. 게다가 그 경륜을 천하에 펼치고자 한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중략) 신문은 일종의 안정적인 상업으로, 가능한 한 세상과 세상에서 떠드는 영업 부진의 원인을 피하고 공허한 논의를 없애도록 노력하며, 착실하게 신문사의 자본 이득을 늘림으로써 사원도 풍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 이렇게 해야 신문 발행부수도 많아지고, 따라서 사회에서 세력을 얻게 된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문은 이익 있는 신문이어야 한다. 이렇게 신문사업도 다른 모든 영업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44]

그렇다고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려는 대중추수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당연히 공명정대한 신문기자로서의 윤리의식 또한 중시한다. 그렇지만 마쓰모토가 동경정치학교 설립할 때, 교육의 실용성을 강조했던 것처럼 신문의 상업적 이득과 현실적인 실효성 또한 강조한다. 『신문학』에서는 이런 대중적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신문사 조직, 신문 편집, 신문사 구성원의 역할, 그리고 「공인(公人)으로서의 신문기자」라는 사명, 그리고 그 보수까지 꼼꼼하게 제시한다. 그리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신문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며 설명한다.

이런 마쓰모토의 신문 이해 방식에는 독특한 점이 있다. 그것은 신문기사 작성을 소설 창작과 유사하다고 이해하는 점이다. 마쓰모토 자신은 미국 유학 이전에 로마의 시저를 다룬 전기소설 『영웅경(英雄経)』(1891.11)[45]을 발표한 바 있고, 또 문집 『춘풍추우록(春風秋雨録)』(1902.5)에는 「태고 소설(太古の小説)」이란 설명과 함께 「칠천 년 전 사랑 이야기(七千年前の恋の物語)」, 소설 「가키쓰바키노기미(燕子花の君)」, 「부채(負債)」를 수록한다. 앞의 두 소설은 창작 시점을 1897년이라 표기하는 반면, 마지막 「부채」는 발표시점이 확실하지 않다. 이 중에서 「가키쓰바키노기미」란 소설, 즉 제비붓꽃이란 이름을 지닌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듀마의 소설 『춘희』를 개작한 작품이다.

소설 창작에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표출하는 마쓰모토는 신문 기사거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패사(稗史) 소설가의 좋은 재료」[46]라고 말한다. 또 현장감 있는 표현이 신문 기사에서 가

43) 위의 책 304쪽.
44) 위의 책 14쪽. 이러한 상업성을 위해 마쓰모토는 『신문학』에서 편집 등 신문제작의 전문 기술의 필요성 강조는 물론, 삽화나 신문소설의 필요성 등 다양한 시도를 제안한다.
45) 1901년 4월 21일에 간행된 『核撒伝』(警醒社)은 『英雄経』의 「訂正再版」한 책이다.
46) 위의 『新聞学』 144쪽.

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방문기사」, 즉 직접 탐방 기사나 혹은 직접 인터뷰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방문기사는 살아있는 소설」[47]인 것이다.

> 기사를 작성할 때 반드시 당대 유행하는 소설 창작의 필법을 써야 한다. 우선 주위의 광경, 주인공의 용모, 거작(擧作)을 잘 그려 그 사람이 마치 신문 위에서 생생하게 보임으로써 독자의 심경에 환영처럼 나타나야 한다. 재미없는 대화, 전후의 관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사태가 장황하여 독자의 권태를 초래할 우려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빼고, 응대의 언어는 가능한 한 단축시켜 그 요령을 잃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로써 능숙하게 문장 한편을 만든다면 완연한 활소설(活小說), 그것도 황당무계한 사실을 섞지 않았으면서도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니 반드시 애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48].

인용문은 인터뷰 기사의 작성 요령을 설명하는 문장이지만, 그대로 소설의 배경묘사, 인물 조형 방법, 그리고 지문과 대사 표현 방법으로 읽힐 수 있다. 신문을 꼼꼼하게 읽지 않는 오늘날, 독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표현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한 상업적 글쓰기는 신문기사 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그런데 소설 또한 신문기사와 마찬가지로 독자의 관심을 우선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당세 문학자의 명성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 길을 벗어나서 달리 좋은 방책이 없다」[49]고까지 단언한다.

그리고 이미 선행연구[50]에서 소개된 바 있는 것처럼 마쓰모토는 제임스 앨렌(James Lane Allen)의 단편소설론을 『신문론』에서 인용한다. 「잡지 및 신문 문학자의 주의(注意)」란 항목에서 앨렌이 말했다는 소설 창작의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인직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 단편소화가(短篇小話家)의 빠른 길(捷徑)은 특종(特種)한 사회를 연구 주체로 삼고, 그 사회의 특종한 생활에서 생긴, 성격이 특종한 모형, 역사적 구비, 풍속, 습관 등을 모두 모으고, 이들 재료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아 그 정신 있는 바를 소화한 후,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題目)을 포착해 그 사회 고유한 벽성(癖性)을 가지고 상상으로 이를 수식하는데 있다. 이렇게 완성된 한편의 소화 안에서 그 사회의 정신과 특색을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일반 소설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한 지방 또는 한 사회의 특종한 경우에서의 기이한 인정, 세태를 묘사하는 것이 세속의 주의를 환기하기 쉬운 것이다. 그렇지만 제 아무리 그 그려내는 바가 묘묘괴괴(妙妙怪怪)하고, 제 아무리 그 묘사하는 바가 신기, 기발하더라도 보통 일반의 인정과 도리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51].

단편소설가는 독자들을 위해 「특종」한 인정과 세태를 묘사하되, 그 사회의 「정신과 특색」을 그려내라 주문한다. 그리고 단순한 흥미 본위의 「신기, 기발」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일반적인 「인정」과 「도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특종」한 인정, 세태와 관련하여 이인직이 『미야코 신문(都新聞)』 습작시절 발표한 「과부의 꿈(寡婦の夢)」(1902.1.28.~29)이란 소설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13년 동안 수절하며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과부를 그린 이 소설은 조선인의 풍속이나 습관을 설명해 가며 조선 사회가 얼마나 「특종」한지 소개한다. 예를 들어 『과부의 꿈』 도입부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

47) 위의 책 100쪽.
48) 위의 책 104쪽.
49) 위의 책 148쪽.
50) 구장률(2006), 다지리(2015)
51) 위의 책 160~161쪽.

서산에 지기 시작한 석양은 이제 막 조각구름 주변에 금빛 동정을 덧붙였고, 그 사이에서 새어 나오는 한 줄기 광선은 담 높고, 규방 깊은 집안의 서쪽 창 난간을 비추고 있다. 그 속에서 유별나게 눈부신 흰 색을 뽐내는 것은 춘풍(春風)의 백목단(白牧丹)도 아니오, 눈 속 한매화(寒梅花)도 아니니, 그냥 소복 입은 부인 한 사람이 초연히 난간에 기대어 서녘 하늘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조선 사람은 남녀 구별 없이 부모의 상을 당하면 소복을 삼 년 간 입는다. 단 출가한 여성은 그 부모의 상에는 일 년 동안 소복을 입고 일 년 후에는 담청색 옷을 입으며 삼 년 후에는 평상시처럼 화려한 옷을 입는다. 과부만큼은 평생토록 소복을 입는다)

『미야코 신문』6면 2단에 「조선 문학」이란 제목으로 소개된 이 작품은 제목 자체의 「특종」성 때문에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유교적 윤리를 강조하는 조선 사회의 특징을 평생 소복을 입고 수절하며 살아가는 여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낸 것[52]이다. 청일전쟁 이후, 그리고 러일전쟁 직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조선의 「특종」한 인정과 풍속은 일본 일반 독자들의 호기심과 내재해 있는 제국주의적 욕망을 끌어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마쓰모토가 『신문학』으로 알려준 세계 신문의 독자 지향성, 그리고 그 기사가 신문독자에게 끼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이인직은 놓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이인직의 문장 표현은 마쓰모토가 『신문학』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독자 위주의 상업적 글쓰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것은 계몽성과 상업성 사이를 넘나드는 위험한 글쓰기이기도 했다. 동시에 이는 이인직 문학이 빚어내는 「상업성」, 혹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통속성」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4. 나오며

52) 이는 다른 한편으로 『혈의 누』에서 남편의 사망 후 곧바로 재가(再嫁)를 추진하던 군의관 정상의 부인과 절묘한 대조를 이룬다. 즉 「조선 풍속 같으면 청상과부가 시집가지 아니하는 것을 가장 잘난 일로 알고 일평생을 근심 중으로 지내나, 그러한 도덕상의 죄가 되는 악한 풍속은 문명한 나라에는 없는 고로 젊어서 과부가 되면 시집가는 것은 천하만국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정상 부인이 어진 남편을 얻어 시집을 간다.」(『한국신소설선집01 「혈의누」「귀의성」「치악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2, 29쪽)와 같은 모습은 역으로 한국인 독자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이인직의 고안인 셈이다.

【토론문】

“이인직 문학의 주변 –동경정치학교와 마쓰모토 군페이(松本君平)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손미란(경일대)

표세만 선생님의 「이인직 문학의 주변-동경정치학교와 마쓰모토 군페이(松本君平)를 중심으로」는 한국근대문학의 서두를 장식하는 이인직의 문학 주변과 그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인직의 문학을 읽는 방법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고자 한 글이었습니다.

이인직이 동경정치학교를 다녔으며, 당시 일본에서 유행했던 정치소설에 큰 영향을 받았음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경정치학교라는 구체적 공간과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영향관계를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작가 이인직 문학을 읽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세만 선생님의 이번 논문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1. 많이 알려졌으나,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동경정치학교 재학시절과 관련된 사항들은 당연히 작가 이인직에게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경정치학교와 그 교우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이인직의 문학을 읽는 방식, 혹은 방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전까지 이인직의 문학을 읽어본 방식과 다른 독법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다른 시각을 가지는 것과 다른 의미를 도출하는 것은 때때로 다르게 작동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 동경정치학교의 교장이었던 마쓰모토 군페이(松本君平)를 살펴본다는 것은 동경정치학교가 지향한 교육 방식을 이해하는데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요한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사회인식은 교육관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교과적 측면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인직이 1912년에 조선 「청년교단」 조선지부를 설립했음을 생각할 때, 마쓰모토 군페이에게서 이인직이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마쓰모토 군페이에 대한 설명과 교과과정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청년교단」 조선지부를 열었던 이인직의 인식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이인직을 논하는 논문인 경우에 동경정치학교와 그 관계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게 사실인지라, 마지막에 마쓰모토의 신문관과 소설관을 통해 이인직의 「과부의 꿈」을 논하는 부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 혹시 마쓰모토의 소설과 비교분석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우선 “이인직이 받은 교육의 전체 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 도항 전후한 이인직의 행보를 알기 위해서는 이들 강사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있다는 선생님의 의견에 일견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께서는 이인직에게 핵심적 영향력을 가진 마쓰모토 군페이 뿐만 아니라 스에마쓰 겐초(末松謙澄), 쓰즈키 게이로쿠(都筑馨六), 쓰루하라 사다키치

(鶴原定吉), 하라 다카시(原敬), 호시 도오루(星享)를 비롯해 오다 준이치로(小田純一郎),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 아사히나 지센(朝比奈知泉), 스즈키 미쓰요시(鈴木充美) 등 수많은 '주변 인물'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문학의 주변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문학의 새로운 탐색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선생님의 꼼꼼한 고찰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 결론이 더욱 궁금합니다. 문학의 주변을 본다는 것은, 결국 그 주변이 문학에 영향을 끼쳤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변 읽기를 토대로, 선생님께서 고찰하고자 하는 이인직 문학 읽기의 방향성을 좀더 알려주신다면 후학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이해력에 기반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근대 번역문학과 일본
-1920년대 홍난파 번역서의 서지적 연구를 중심으로-

윤경애(영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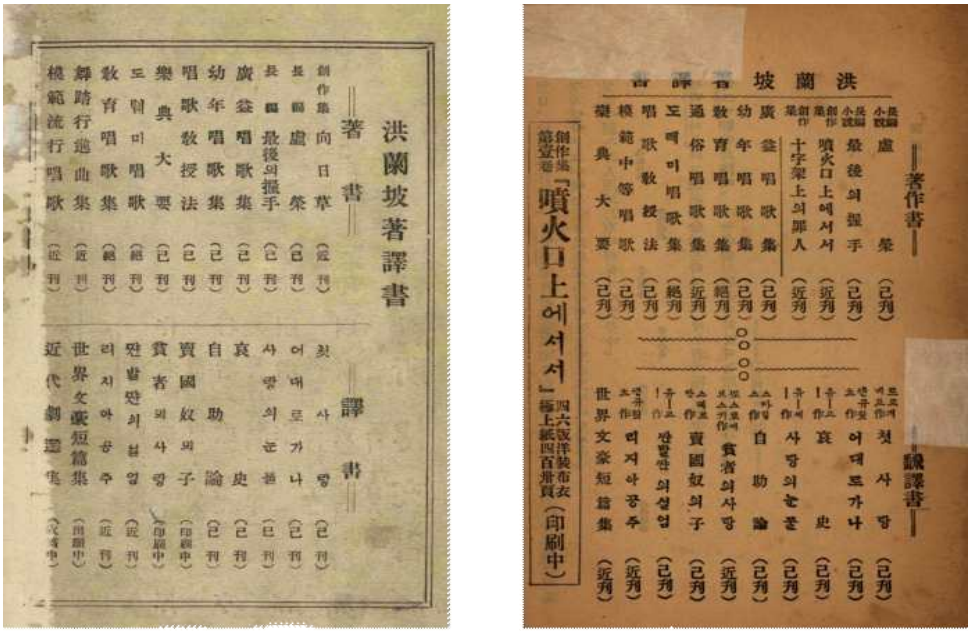
〈 차 례 〉

1. 연구 목적
2. 홍난파 번역서와 일본어 저본
2.1 첫사랑
2.2 어대로가나
2.3 사랑의 눈물
2.4 애사
2.5 매국노의 자
2.6 청년입지편-자조론
2.7 청춘의 사랑
2.8 나나
3. 결론

1. 연구 목적

홍난파(본명 홍영후)는 한국 양악 1세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 최초의 기악곡을 작곡한 작곡가, 최초의 음악평론가, 최초의 교향악단 지휘자로 폭넓은 활동을 하며 한국 근대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다[1]. 하지만 그가 1920년대를 대표하는 번역가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2]. 1920년대 초반에 출판된 홍난파의 문학 저술은 <그림1>의 저역서 목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최소한 창작 4편, 번역 9편에 이르며 실제 출판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번역은 12편에 이른다[3].

1) 김창욱. (2002).「홍난파 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음악사학보 29, 193-194.
2) 홍난파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8년 출생, 1918년 4월, 관립 동경음악학교 예과(현 동경예술대학)입학. 1919년 경성악우회를 조직하여 염상섭, 황석우, 유지영 등과 잡지『삼광』창간. 1920년 동경음악학교 본과 진학 좌절 후 니혼대학 문과에 입학했으나 곧바로 자퇴하고 연주활동과 집필활동에 매진. 1926년 동경고등음악학원 입학(현 구니타치 음악대학). 1927년 동경관현악단 입단하여 제1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고 이듬해에는 도쿄 신교향악단 (현 NHK 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 1929년 동경고등음악학교 졸업. 1931년-32년 미국 셔우드 음악학교 수료. 1941.8.30. 늑막염으로 사망(김양환. (2009).『홍난파 평전 - 일제강점기의 삶과 예술-』 남양문화. 참조).
3) <그림1>은『청년입지편-자조론』(1923, 박문서관)과『매국노의 자』(1923, 회동서관) 뒤편 광고에 실린 홍난파의 저역서 목록이다. 저역서 목록에 실려 있는『허영』은 강현조(2011.「<보환연> 과< 허영>의 동일성 및 번안 문학적 성격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4, 87-116.)의 연구로 일본 소설의 번안 작품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번역서 목록의『리지아 공주』,『세계문호단편집』,『근대극선집』은 출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저역서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김병철(1975)의 근대 번역서 조사로『나나』(1924, 박문서관)가 발견되었다.



<그림1> 홍난파의 저역서 목록

1960년대부터 홍난파의 번역서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 번역서를 조사하여 발굴하고 한국어 번역서의 저본을 조사한 김병철(1975)은 1920년대 번역문학에 공적이 많은 역자로 김억이 질과 양에서 수위를 달리며 그 업적을 과시하고 있지만 홍난파의 업적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홍난파가 번역한 9편의 작품은 일본어 번역본을 바탕으로 번역한 중역(重譯)이지만 그 모두가 세계명작에 드는 작품들이라는 면에서 홍난파의 작품 선정 능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다[4]. 1920년대 대표적 번역가인 김억, 홍난파, 이상수의 생애와 작품 활동을 연구한 박진영(2011) 또한 홍난파를 1920년대 초반 최대의 전문 번역가로 평가하고 있다[5]. 이와 같은 번역가로서의 업적과 평가에도 불구하고 번역가로서의 홍난파에 주목하고 그의 작품을 소개한 연구로 박진영(2011, 2013)의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매일신보』에 연재된 홍난파의 작품 연구로 이희정(2007)의 연구가, 그리고 『허영』에 대한 연구로 이재춘(1989)과 강현조(2011)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6].

김병철(1975, p.690)은 1920년대 출판된 단행본 124편을 연구하여, 김억에 의한 직접역을 제외한 거의 전부가 일본어 번역본을 저본으로 번역한 중역이며 번역 태도에서 완역, 직접역 40편과 미상 29편을 제외한 55편이 번역문학의 정도(正道)상에 있지 않은 초역, 경개역, 번안, 의역 등 역자의 주관에 의해 좌우되는 방법으로 옮겨졌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홍난파의 번역본에 대한 평가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근대번역사와 번역 작품 연구가 아직도 김병철(1975)의 선구적이며 방대한 서지 연구인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

이 외에 음악가들과 그들의 주요 작품에 대한 글을 모은 음악 산문집 『음악만필』(1938, 영창서관)을 집필하였고, 1915년부터 1940년까지 백여 편이 넘는 수필과 평론을 각종 신문, 잡지에 발표하였다(외솔회 편. (1984).「난파 작품 목록 ②」나라사랑 52. 참조).

4) 김병철. (1975).『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을유문화사, pp. 690-691

5) 박진영. (2011).「홍난파와 번역가의 탄생」코기토 71, p. 61.

6) 박진영. (2013).「번역가의 탄생과 문학청년 홍난파의 초상」근대서지 8, 181-202; 이재춘. (1989).「홍난파의 [허영] 연구」우리말글 7, 143-154; 이희정. (2007).「1920년대 초기의 『매일신보』와 홍난파 문학」어문학 98, 239-268.

번역본 각각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서 김병철의 1920년대 번역에 대한 평가는 정설로 인용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이하『근대번역사』)에 저본 미상으로 되어 있는 홍난파의 일본어 번역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난파 번역본의 저본으로 기술되어 있는 일본어 번역본들조차 대부분 실제 저본이 아닌 다른 일역본으로 잘못 조사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필자가 발견한 일본어 저본과 홍난파의 한국어 번역본을 비교한 결과 번역 방법에서도 김병철의 평가와 달리 문단과 문장, 어휘 수준에서까지 저본을 충실하게 번역한, 현대의 번역 방식과 흡사한 저본 중시의 번역 방법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본 미상이나 잘못 조사된 저본을 바탕으로 한국어 번역본과 ‘원본’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한국어 번역자의 번역목적과 번역 방법, 그리고 그 ‘仲譯’ 너머 서구문학의 번역의 계보와 배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근대번역사 연구에서 정전과 같이 인용되고 있는 김병철(1975) 연구의 오류를 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더불어 원본으로부터 영어번역-일본어 번역-한국어 번역으로 이어지는 번역의 계보를 더듬어 ‘세계문학’이 정전화 되는 과정으로 일본과 한국에서의 번역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홍난파가 번역한 9편의 번역서는 <표1>과 같다.

<표1> 홍난파의 번역서 목록

번호	제목	출판사	출판시기	원작자
1	첫사랑	광익서관	1921	투르게네프
2	어듸로가나? 어대로가나?	매일신보 광익서관	1920.3.20-1920.5.5 1921	시엔키에비치
3	사랑의 눈물	박문서관	1922	뮈세
4	애사	박문서관	1922	위고
5	매국노의 자	회동서관	1923	주더만
6	장발장의 설음	박문서관	1923	위고
7	청년입지편-자조론	박문서관	1923	스마일스
8	청춘의 사랑	신명서림	1923	도스토옙스키
9	나나	박문서관	1924	졸라

김병철(1975)이 1960년대부터 조사하여 발굴한 홍난파의 번역서 아홉 편 가운데『장발장의 설음』은 국한문 혼용체로 번역한『애사』를 순한글로 옮긴 것이므로 일본어 저본이 존재하는 것은 여덟 편이다. 이 가운데 김병철(1975)은『첫사랑』,『애사』,『청년입지편-자조론』,『매국노의 자』,『나나』까지 다섯 편의 일본어 저본을 찾아내었고 세 편은 찾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애사』와『매국노의 자』의 일본어 저본은 실제 저본과 다른 일역본이고 나머지 세 편의 저본 또한 다른 일역본을 참고하여 번역한 것이다.

2. 홍난파 번역서와 일본어 저본

2.1 첫사랑(1921, 초판. 1922, 개역판, 한일서점)

『첫사랑』의 원작은 이반 투르게네프(1818-1883)가 1860년에 발표한 동명의 소설이다.『근대번역사』에는 이쿠타 슌게쓰(生田春月)가 번역한『初戀 ツルゲエネフ全集 ; 第3編』(1918, 新潮社)이 홍난파 번역서의 저본으로 기술되어 있다. “개판까지 나온 것으로 보아 이 책은 상당

히 애독된 것 같다. 전체가 22장으로 장별되어 있다.....1면에 First Love-Turgeniev 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역의 중역인 것 같으나 예문을 대비해 보면 우리말 역본의 직접 대본은 일역본임에 틀림 없다. 영역을 중역한 이쿠타 슌게쓰의 일역본을 대본으로 했음이 그 文例의 대비에 의하여 알 수 있다[7)]"고 하였는데 이쿠타의 몇몇 오역이나 누락된 번역이 홍난파의 번역본에서 수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번역사』에 홍난파 『첫사랑』의 저본으로 되어 있는 이쿠타 슌게쓰의 번역과 필자가 또 다른 저본으로 추정하는 후지나미 스이쇼(藤浪水処)의 『初戀・散文詩』(1919, 有朋堂書店) 번역, 영일 대역본인 후지나미의 일역본에 함께 실려 있는 콘스탄스 가넷의 영어 번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써-ㄹ게이・니코라에옛취는얼골이던몸이던동그랏코體小한男子인대主人을쳐다보다가다시天井으로 눈을向하면셔、「내게는・・・」(홍, p.1)
>
> セルゲイ・二ユラエキッチと云ふのは、丸くふくれた顔をした肥つた男であつたが、まづ主人を眺めて、それから眼を天井へ向けた。『私には・・・』(이쿠타, p.3)
>
> セルゲイ・二ユラエヴィッ千と云ふのは、明るい顔色をした、顔も、體も丸まるつこい小男であつたが、先づ主人を見詰め、それから眼を上げて、『私には・・・』 (후지나미, p.3)
>
> Sergei Nikolaevitch, a round little man with a plump, light-complexioned face, gazed first at the master of the house, then raised his eyes to the ceiling. 'I had...' (Constance, p.2)
>
> 엇더케하면그사람들과親하게될가?ㅡ이것이아츰에이러난後의나의첫生覺이엿다。茶를마시기前에나는쓸노나갓다。그러나담밋흐로밧삭가지는안엇다。쏘한사람도맛나보지못햇다。
>
> (홍, 3장, p. 11)
>
> どうして彼女と知合になつたものだらう？ーこれが朝起きたときの私の最初の考であつた。
> お茶の前に私は庭へ行つた、けれども垣根にはあまり近寄らなかつた。私は何人をも認めなかつた。 (이쿠타, p. 13)
>
> 「何うすれば、あの人達と眤懇 (ちかづき) になれるだらうか」と云ふのが、翌る朝眼を醒ました時に第一に私の頭に浮んだ考へであつた。
> 朝のお茶の前に私は又庭へ降りて行つた。併し例の垣の方へは餘り近寄らなかつた。又誰も見え なかつた。 (후지나미, pp. 21-22)
>
> 'How can I make their acquaintance?' was my first thought when I waked in the morning. I went out in the garden before morning tea, but I did not go too near the fence, and saw no one. (Constance, p.20)

긴 말줄임표로 첫 문장을 시작하는 점에서 이쿠타 슌게쓰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한 것처럼 보이나 한자 번역어, 이쿠타 번역본의 오역이나 누락이 수정된 점으로 보아 적어도 후지나미 스이쇼의 번역을 함께 참고하여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일본어 번역본에서 흥미로운 점은 영어 번역본과의 호응이다. 이쿠타 슌게쓰의 번역본에 일부 오역이나 어휘 차원의 번역 누

7) 김병철, pp.537-538.

락이 보이기는 하지만, 두 일역본 모두 콘스탄스 가넷의 모든 문장을 충실히 번역하였다. “원문에 매우 충실한 콘스탄스의 번역은 영미의 독자뿐만 아니라 일본 독자에게도 행운이었다[8]” 고 평가받는 콘스탄스 가넷은 러시아문학이 영미문학계에서 세계문학의 정전으로 자리 잡는데 큰 업적을 세운 번역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영미 문학계에서 러시아문학의 열광적인 인기는 콘스탄스 가넷의 번역과 흐름을 같이한다. 투르게네프 번역은 1894년부터 1899년, 톨스토이는 1901년부터 1904년, 도스토예프스키는 1912년부터 1920년, 체호프는 1915년부터 1926년, 고골은 1922년부터 1928년, 게르첸은 1924년부터 1927년까지 번역하였고, 곤차로프(1894), 오스트롭스키(1899), 고리키(1902)의 작품도 번역하였다[9]. 독서계 뿐만 아니라 작가들에게도 러시아문학의 영향은 매우 컸다. “러시아 소설이 영국 소설에 끼친 영향은 너무도 커서 단지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당시의 작품들 전체에 끼친 영향을 알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영향을 받은 콘래드,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로런스, 체호프의 영향을 받은 캐서린 맨스필드 등, 이들은 단지 그들 작품의 뿌리를 러시아 소설들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작가들보다 좀 더 큰 영향을 받은 작가들일 뿐이다...버지니아 울프의 여러 에세이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Bloomsbury[10] 또한 콘스탄스 가넷의 놀라운 번역 업적에 큰 영향을 받았다[11]”

콘스탄스가 영국에서 번역한 영역본들은 거의 동시에 미국에서도 출판되었다. 미국에서 출판된 콘스탄스의 70여 권의 러시아 소설 번역서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모든 소설들을 포함하여 수백 편의 체호프 단편과 두 권의 희곡, 투르게네프의 주요 작품들, 톨스토이의 거의 모든 작품들, 곤차로프, 오스트롭스키, 고리키 등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콘스탄스 가넷이 없었다면 19세기의 러시아 소설들이 그렇게 빠르게 20세기 초의 미국 문학에 영향을 끼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12].

콘스탄스 가넷의 영역은 영미 문학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러시아문학 수용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888년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가 트루게네프의 연작 단편집 『사냥꾼의 일기』 중 「밀회(あひゞき)」와 「만남(めぐりあひ)」을 번역하여 소개한 이후, 메이지문학계의 트루게네프 수용은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와 더불어 콘스탄스의 번역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이 일찍이 지적되어 왔으며, 다이쇼와 쇼와 시기까지 도스토예프스키와 체호프의 영역 저본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다[13]. 단, 근대 일본 문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영역본은 콘스탄스 이전에 1885년 프레드릭 휘쇼(Fredrik Whishaw)가 번역하고 비제텔리(Vexetelly)사에서 출판된 것이다[14]. 우치다 로안(内田魯庵)이

8) 野村孝夫. (1992).「ガーネット訳『罪と罰』 管見：センナヤ広場、水晶宮、豌豆王」 中京大学教養論叢 33(2), p.404.

9) Gorge Jefferson. (1982). *Edward Garnett: A Life in Literature*. Jonathan Cape Ltd, p.160.

10) 버지니아 울프와 포스터를 비롯하여 당시의 작가, 평론가, 철학자, 예술가들의 모임. 인용문 번역은 필자에 의함.

11) Peter France(Ed.). (2007). *The Oxford Guide To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591.

12) David Remnick. (2005.11.7). *The Translation Wars*. THE NEWYORKER.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05/11/07/the-translation-wars 2018. 10.25 검색)
콘스탄스 가넷의 영문 번역을 비판하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으로 망명해 강의 및 저술활동을 했던 나보코프는 자신의 강의에서 가넷이 러시아어의 아름다운 수식어구들을 생략하고 단순화하여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비난하며 훌륭한 러시아문학 번역이 무엇인지 자신의 번역으로 보여주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어로 쓴 자신의 소설 외에 다른 러시아문학을 번역하지는 않았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이혜승 역. (2012). 나보코프의 러시아 문학 강의. 을유문화사, p.282, 360.

13) 野村孝夫, 1992, p. 385.

『죄와 벌』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번역, 소개하였을 때 사용한 저본이 바로 휘쇼의 영역본이다[15]. 1892년 11월과 1893년 2월에 각각 제1권, 제2권 형태로 간행된 로안의 『죄와 벌』은 비참소설 및 암흑소설과 같은 메이지 20년대 후반기 문학에 중요한 토양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6].

일제 강점기 조선의 작가들도 역시 러시아 문학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삼천리 제12권 6호(1940.6.1.)의 「「作品 愛讀」年代記」 기사에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20, 30, 40 전후의 시절에 심취한 작가, 작품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가 실려 있는데, 김억, 박영희, 모윤숙, 김기진, 함대훈, 이석훈, 김기림, 이광수, 김동인 등 거의 모든 작가들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투르게네프, 체호프 등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애독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투르게네프가 식민지 조선에서 애독된 작가이고, 그가 소설 속에 담아낸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현실과 적절하게 삽입된 작가의 메시지가 식민지 현실의 질곡 속에 빠져 있던 조선의 작가들에게 쉽게 공명할 수 있는 요소로 다가왔다는 평가[17]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번역되어 단행본으로 출판된 투르게네프의 소설은 홍난파의 번역본이 최초이고 해방 이전까지 단 세 편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방 이전까지 단행본으로 번역되어 출판된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은 홍난파의 『청춘의 사랑』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 작가들이 어떤 문학장 안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2 어대로가나?(1920.3.20.-1920.5.5, 매일신보/1921, 광익서관)

『어대로가나』는 헨리크 시엔키에비치(Henryk Sienkiewicz)(1846-1916)의 소설 『쿠오바디스 네로시대 이야기』(Quo vadis Powieść z czasów Nerona)를 번역한 것이다. 『매일신보』에 연재하다 도중에 중단하였고 1921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쿠오바디스』는 폴란드의 삼국분할 당시 특히 제정 러시아의 식민지배에 고통 받는 폴란드의 상황을 네로에게 박해 받는 기독교인에 빗댄 민족주의 문학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저자의 모국 폴란드가 삼국분할 하에 있던 1895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바르샤바(러시아령), 크라쿠프(오스트리아령), 포즈난(프로이센령)의 신문에 연재하였다.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은 1896년 4월이다. 단행본으로 출판된 해에 미국의 제레미아 커틴(Jeremiah Curtin)이 번역하였고 영역본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곧 30개 언어로 번역되며 영미에서만 80만부 이상이 팔렸다[18].

---

14) "*Crime and Punishment: A Russian Realistic Novel*은 'Vixetelly's one-volume novels' 시리즈 중 하나로 출판되었다. 번역자 이름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러시아 태생의 영국 소설가이자 아동문학가인 프레드릭 휘쇼로 알려져 있다... 비제텔리는 수많은 프랑스와 러시아 소설들을 영어로 번역, 출판하였고 6실링 이하의 염가로 판매하여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Taryn Plater. (n.d.). *A Russian Realistic Novel*. UNIVERSITY OF CAMBRIDGE.)(필자 역)
(https://exhibitions.lib.cam.ac.uk/crimeandpunishment/artifacts/04/ 12.1 검색)

15) 로안은 휘쇼의 『죄와 벌』을 읽었을 때 "마치 광야에서 낙뢰를 맞은 것처럼 눈이 부시고 귀청이 울리는 듯 하였다...문학을 그저 시간 때우기에 불과한 유희로 생각했던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고, 나와 같은 빈약한 사상과 옅은 신념을 가진 자가 문학을 말한다는 것이 어쩐지 두려워졌다"고 당시의 감상을 밝히기도 하였다. 内田魯庵 . (1932) .「二葉亭余談」『おもひ出す人々』 春陽堂, pp. 313-314.

16) 최범순. (2014). 「'세계문학'의 상상과 번역 ー 우치다 로안의 번역과 근대 일본의 내셔널리즘ー」 일본학연구 41, p.167.

17) 권영민, 박중소, 오원교, 이지연. (2016).『한국근대문학의 러시아문학수용』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59; 박성창. (2016). 번역의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기: 한국근대문학과 러시아문학 수용. 한국민족문화 61, p.605.

『쿠오바디스』가 일본에 처음 소개된 것은 1897년 7월로, 『帝国文学』의 잡지란 「海外騒壇」에 우에다 빈(上田敏)이 「読書界の近刊書」라는 글에서 『쿠오바디스』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로마 제정의 사치와 향락, 초대 기독교가 받는 박해를 그린 이야기라는 것을 짧게 소개하였다. 그 후 1899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가 주재하는 잡지 『東京独立雑誌』(23호, 2.25)에 S.S라는 필명으로 「『クオ、バデス』を読む」라는 글이 줄거리와 더불어 게재되었다. S.S는 우치무라 간조의 문하에 들어간 저널리스트 사토 메이요(左藤迷羊)이다. 그가 읽은 영역본은 *How I became a Christian* 등으로 유럽과 미국에 이름이 알려진 기독교 사상가 간조에게 영역자 제레미아가 직접 기증한 책으로, 그것을 메이요가 물려받아 읽었다는 것이다[19].

일본에서 『쿠오바디스』는 부분역, 초역, 전역, 완역, 개역 포함하여 1900년대에 3편, 1910년대에 15편, 1920년대에 6편, 1930년대에 1편, 1940년대에 2편이 번역되었다[20].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번역으로는, 최초로 『쿠오바디스』 전편(全篇)을 번역한 마쓰모토 운슈(松本雲舟)의 『何處に行く』(전편 1907.12, 후편 1908.4, 昭文堂)[21]와, 영어 번역본을 충실히 완역한 기무라 기(木村毅)의 번역본 『クオ・ヴヂス』(1924, 新潮社)라고 할 수 있다[22]. 마쓰모토의 번역본은 출간 직후부터 1910년대에 이례적인 붐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23]. 이는 최초의 전역본이기도 하지만 당시 일본 문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던 다카야마 초규(高山樗牛)가 『쿠오바디스』 영역본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찬하는 서평을 씀으로써 젊은 문학가들 사이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은 이후 1905년 시엔키에비치의 노벨상 수상으로 재차 조명 받던 시기에 출판되었고[24],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遥)가 마쓰모토의 번역본에 두 차례에 걸쳐 추천

18) 久山宏一, 2012, 日本における 『クオ・ヴァディス』: どのような文脈で受容されたか. *創価大学ロシア・スラヴ論集*, (5), p.31, p.48; 八木光昭. 1987. 「ポーランド文学が日本近代文学に与えた影響」『ポーランド入門』三省堂, p.13.

19) 八木光昭, 1987, pp.10-11.

20) 久山宏一, 2012, p. 33.

마쓰모토의 번역본은 『쿠오바디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하기는 했지만 서사와 큰 관련 없는 묘사 등은 생략하여 번역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초역(抄譯)이라 할 수 있으나 저본의 서사는 매우 충실히 번역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마쓰모토의 번역본을, 저본을 빠짐없이 번역한 완역(完譯)이나 필요한 부분만을 추려서 간략하게 번역한 초역과 구분하여 전역(全譯)으로 표기하였다.

21) 1907년과 1908년의 번역본 제목은 『何處に行く』였으나 1915년 개역판부터는 『何處へ行く』로 바뀌었다.

22) 기무라 기는 번역본 서두에 시엔키에비치의 다른 소설과 폴란드 역사의 관계에 대해 자세한 해제를 실었다. “<쿠오바디스>는 로마의 폭군 네로 시대 초기 기독교도의 순교를 그린 이야기이다. ...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면, 거기에는 쟁투가 있다. 정의에 대한 박해가 있다. 그리고 최후에는 정의의 승리가 있다. 폴란드 검열관의 엄중한 감시 아래에서 러시아나 프로이센의 억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폴란드 작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이 시엔키에비치가 그의 눈을 과거로 향한 이유이다”(필자 역)라며 『쿠오바디스』가 단순히 종교소설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木村毅. 1928.『クオ・ヴヂス』新潮社, p.5).

23)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어디에 가?(何処へ行く)”라고 물으면 “쿠오바디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유행이었으며 『청년이여 어디로 가나』『일본이여 어디로 가나』 등의 표제를 붙인 서적들이 대거 출판되기도 하였다(松本雲舟. 1942, 12,「クオヴヂス翻訳当初の思い出」『書物展望』138, pp.44-48).

24) 「小説も玆に到れば、歴史よりも確かなる事実也、哲学よりも知識也。....小説家諸君よ、甚だ失礼なる申分ながら、諸君は小説てふものを余りにやすく見くびり居るには非ざるか」(소설이 이 정도에 이르면, 역사보다 확실한 사실이요, 철학보다 현명한 지식이 된다...소설가 제군이여, 상당히 실례되는 말이겠으나, 제군들은 소설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얕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필자 역)(高山樗牛. 1923.「小説の意義」『樗牛全集第二巻 文藝評論』博文館, pp.770-771. 초출은 1900. 6.『文學評論』).

메이요와 친분이 있던 다카야마는 그에게 영역본을 빌려 읽은 후 소설에 대한 감흥과 더불어 일본의 젊은 소설가들을 향해 다소 고압적이고 센세이셔널한 비평을 썼으며 이 비평의 출간 직후 서양서 전문 서점인 마루젠(丸善)에는 영역본 『쿠오바디스』 주문이 쇄도하여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사를 써줌으로써 번역본의 가치를 보증해주었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25].

한국에서는 백대진이 처음으로 <쿠오바디스>를 번역하여「夜半의 警鐘」이라는 제목으로 잡지『신문계』(1916.6, 4권 6호)에 발표하였다[26]. 백대진은 번역 서문에서 "羅馬衰亡의 原因을 엇지 그다지 拱手同感케 記錄ᄒᆞ엿던고! 新鮮ᄒᆞ며 또ᄒᆞᆫ 淸快ᄒᆞᆫ 基督敎思潮가 爛熟ᄒᆞᆫ 希臘羅馬의 문명을 壓倒ᄒᆞᄂᆞᆫ 그 光景....余ᄂᆞᆫ 本書一讀으로 말미암아 神의 子됨을 覺醒ᄒᆞᄂᆞᆫ 同時에 基督敎가 千秋萬世에 빗잇기를 掌을 合ᄒᆞ고 祈禱ᄒᆞ엿도다"라고 밝혀, 폴란드의 역사적 배경이나 세계문학으로서의 의의보다는 종교적 감흥이 번역의 계기임을 밝히고 있다. 서문에 저본과 관련하여 상중하 세 편으로 되어있는 것을 상하 두 편으로 역출하겠다고 밝힌 점, 그리고 본문의 번역을 검토한 결과 마쓰모토 운슈의 1915년 개역판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백대진의 하편 번역은 발견되지 않았고 상편 번역은 마쓰모토 개역판의 상편 1장「邸宅」, 2장「訪問」을 각각 번역한 '베트로뉴스의 집'과 '보러감'이다.

191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번역된 세 편의 <쿠오바디스> 가운데 백대진의 번역을 제외한 두 편의 번역이 모두 홍난파의 번역이다. 김병철(p,557)은 두 편의 홍난파 번역에 대해, 일본어 저본은 찾지 못하였으나『매일신보』에 37회 연재 후 중단한 번역은 완역의 시도였고 1921년 광익서관에서 출판된 단행본은 내용을 많이 축소한 초역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필자의 조사 결과 두 번역본은 저본이 모두 일본어 번역본이기는 하지만 각기 다른 번역본을 저본으로 충실히 번역되었다.

2.2.1『매일신보』연재분「어듸로가나?」

1920.3.20.-1920.5.5.까지 연재 후 중단하였다.『매일신보』연재분의 일본어 저본은 마쓰모토 운슈의『改譯縮刷 (クオヴアヂス) 何處へ行く』(1915, 三陽堂)이다. 번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페트로뉴스가잠을깨인째ᄂᆞᆫ거의正午頃이엿다前夜에도네로의饗宴에參席ᄒᆞ야夜深ᄒᆞ도록잠을못잔까닭에이날도亦是몹시疲困ᄒᆞ얏다요사이그ᄂᆞᆫ健全치못ᄒᆞ다아츰이되면全身이棒木과갓해셔조금도生覺을鎭定ᄒᆞᆯ수가업다고ᄒᆞᆫ다그러나沐浴을ᄒᆞᆫ後熟練ᄒᆞᆫ奴隷의손에抱擁되면血液의循環이잘되여셔心神이爽快ᄒᆞ고全身의疲勞가回復된다그ᄂᆞᆫ公共浴場에ᄂᆞᆫ잘가지안ᄂᆞᆫ다그까닭으로말ᄒᆞ면네로도稱讚ᄒᆞ듯이훌융ᄒᆞᆫ自己의浴場을가진째문이다 (홍, 1920.3.20. 1회)

> ペトロニウスの目醒めたのは漸く正午頃であつた。例の如く大變疲れてゐる。前夜もネロの饗宴に侍して深更まで起きてゐたのだ。近頃彼は健全でない。朝になると躰軀が疲れて棒のやうに、尠しも考想が纏らぬと言つてゐる。けれども沐浴をして、熟練な奴隷の手にて介抱されると、血の循環が善くなつて心爽かに、全く生れ更つたやうになる。彼は餘り公立の浴場には往かぬ。その譯はネロも讃めたほど贅澤な自分の浴場を持つてゐるからである。 (마쓰모토, p.1)

(八木光昭, 1987, p.12).

25) 1907년에 출간된 초판의 전편(前編)과 1915년의 개역판에 쓰보우치의 서평이 실려 있다. 서평 작성일이 전편의 경우 메이지 40년(1907) 11월 하순으로, 개역판의 경우 메이지 41년(1908) 4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후편에 실을 예정이었던 서평을 개역판에 실은 것으로 보인다.

26)『夜半의 警鐘』은 필자가 '백낙천자(白樂天子)'라는 필명으로 되어있다. 한국의 폴란드문학 번역사를 개관한 이민희(2002.「폴란드문학 번역사 개관」비교문학, 28, pp.35-61)와 최성은(2014.「한국에서 폴란드 문학 번역의 현황과 출판의 문제점」통번역학연구, 18(2), pp.145-189)은 김병철(1975)을 인용해 신원미상의 역자라고 하였으나, 주승택(1996.「백대진 연구」성곡논총, 27(4), pp.731-774)과 김복순(1999.『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소명출판, pp.181-231)은 백대진이 '백낙천자(白樂天子)' '낙천자(樂天子)' 등의 필명으로 활동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홍난파는『매일신보』번역에서 일본어 저본의 11장「報告」까지만 번역하였다. 일본어 저본에 충실하게 번역을 시도했으나 완역하지는 못했다. 마쓰모토의 일역본은 상편 17장, 중편 20장, 하편 30장 총 6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브리키우스 베이벤토의 일화, 전차경주에 대한 페트로니우스와 비니키우스의 대화 등, 주요 등장인물의 특징이나 관련 사건을 서술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삭제되었다. 홍난파의『매일신보』번역 목차와 마쓰모토의 상편 목차를 비교해 보면 <표2>와 같다.

<표2> 홍난파의 매일신보 번역본과 마쓰모토의 일본어 번역본 목차 비교

매일신보 연재회수	홍난파 한국어 번역본	마쓰모토 운슈(松本雲舟) 일본어 번역본
1	一 邸宅(一의 一)	上篇 一 邸宅
2	一 邸宅(一의 二)	
3	一 邸宅(一의 三)/二 訪問(二의 一)	
4	一 邸宅(一의 三)	
5	二 訪問(二의 三)	二 訪問
6	二 訪問(二의 四)	
7	二 訪問(二의 五)	
8	三 召喚(三의 二)	三 召喚
9	三 召喚(三의 三)	
10	四 饗宴(四의 一)	四 饗宴
11	四 饗宴(四의 一)	
12	四 饗宴(四의 三)	
13	四 饗宴(四의 四)	
14	四 饗宴(四의 五)	
15	四 饗宴(四의 六)	
16	四 饗宴(四의 七)	
17	四 饗宴(四의 八)	
18	五 煩悶(五의 二)	五 煩悶
19	五 煩悶(五의 三)	
20	五 煩悶(五의 四)	
21	六 別離(六의 二)	六 別離
22	六 別離(六의 三)	
23	六 別離(六의 四)/七 奪取(七의 一)	
24	七 奪取(七의 一)	七 奪取
25	八 搜索(八의 一)	八 搜索
26	八 搜索(八의 二)	
27	八 搜索(八의 三)	
28	九 搜索(九의 一)	
29	九 劃策(九의 二)	九 畫策
30	十 劃策(十의 三)	
31	十 劃策(十의 二)	
32	十 似而非哲學者(十의 三)	十 似而非哲學者
33	十一 報告(十一의 二)	十一 報告
34	十一 報告(十一의 三)	
35	十一 報告(十一의 四)	
36	十二 奸計(十二의 二)	十二 奸計
37	十二 奸計(十二의 三)	

		十三 教唆
		十四 力士
		十五 彼得の說教
		十六 追跡
		十七 活劇

2.2.2 단행본『어대로가나』

홍난파의『쿠오바디스』번역 단행본은 1921년 광익서관에서 출판되었고 일본어 저본과 동일하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어 저본은 구와야마 세이세이(桑山菁々)의『何處へ行く』(아카기 총서(赤城叢書) 제49편, 1914, 赤城正蔵) 이다. 홍난파는 서문에서『쿠오바디스』를 우리말로 옮기기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밝혔는데 아마도『매일신보』번역을 중도에 그만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문에서 출판계의 사정상 일본어 번역본과 영어 번역본을 대조하여 간략히 초역하였다고 밝혔으나, 홍난파 본인의 초역이 아니라 구와야마가 초역한 번역본을 충실히 번역하였다. 그리고 권말에 지명과 인명의 영어명을 정리해 두었다. 홍난파의 번역에서 보이는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영어 번역본과 비교하여 고유명사의 영어명을 본문에 병기하거나 권말에 정리해 두었다.

홍난파의 번역과 구와야마의 번역본 본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豪奢와榮華를極하던羅馬의貴族들은放縱한生活노그날ㄱ의快樂을貪하기에無暇하엿다페트로뉴스는前夜의宴會에셔夜深ᄒᆞ야도라온後남어지疲勞로因하야日高三丈하도록寢床을써나지안엇다。이윽고起寢한페트로뉴스는奴隸들에게擁護되야、肥大한그의裸體에香油를발을째에朝風이산들ㄱ하게身邊으로부터오매觸鼻하는香氣는그의心神을愉快히하엿다。
> 그째에甥姪되는뻬니튜스가오래간만에차저왓다。뻬니튜는血氣旺盛하고風采조흔美男子인바오래동안亞細亞方面에出陣하엿다가도라왓던터이다。
> 『아졋시、그동안 安寧히계섯슴닛가』
> 『오-너왓늬、그래 別노 苦生이나하지안엇늬』
> 戰爭하던이약이와氣候에關한이약이가한판끗나자、페트로뉴스는다시금正色하야무럿다
> (홍난파, 1921, p.1)

> 豪奢を極めたローマの貴族達は放縱な日を送つて居た。ペトロニウスも昨夜の宴會で今朝はぐつすり寢込んで終つた。日がもう餘程高くなつた時やつと寢床を離れて例の奴隸達に香油を運ばせた。肉付きの好い肌を朝風に思ふ存分吹かせて香油を擦りこむとそれが魂の底まで浸つてゆく様で又うつとりとする。
> 所へ甥のヴィニチウスが久しぶりで訪ねて來た。ヴィニチウスは華やかな若者で長い間アジアの方面へ出陣して居たのである。
> 「叔父さま。御變理もありませんか。」
> 「いや相變らずさ。」
> 戰爭の話や気候の話が一通り濟むとペトロニウスは急に氣を更へて (구와야마, 1914, p.1)

2.3 사랑의 눈물(일명 세기병자의 고백)(1922, 1924(재판), 博文書館)

『사랑의 눈물』은 프랑스 작가 알프레드 드 뮈세(Alfred de Musset, 1810-1857)의『세기아의 고백 *La Confession d'un enfant dui siècle*』을 번역한 것으로, 뮈세가 남긴 유일하게

완성된 소설이며 그의 삶과 작품의 총결산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이다. 1835년 9월에 1부 2장만이 출판되었고 1836년 2월 『양세계평론 *La revue des deux mondes*』에서 완성된 형태로 출판되었다[27].

일본어로 출판된 뮈세의 작품으로 노가미 야에(野上彌生)의 「근대인의 고백(近代人の告白)」(1912.10-12, 『青鞜』 10호-12호), 노가미 규센(野上臼川)의 「마담 윌슨(マダム・ビィルソン)」(1913, 『邦訳近代文学：小説と戯曲の翻訳集』 p.219)등이 있다[28]. 노가미 야에의 번역은 6쪽 내외에 3회 분량으로 『세기아의 고백』 일부만이 번역된 것이며, 전역(全譯)된 것은 소마 교후(相馬御風), 노지리 호에이(野尻抱影)가 번역한 『戀より戀へ／世紀病者の告白』(1915, 新潮社)이다. 다이쇼 시기에 주로 시와 희곡 몇 편만이 번역된 상황에서 소마 교후(相馬御風)와 노지리 호에이(野尻抱影)의 소설 번역은 매우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마 교후는 서문에서 프랑스 원문을 참조하며 영역본을 저본으로 번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욱 높고 영구적인 행복의 희구, 무한무궁으로 펼쳐진 동경-즉 세기병자가 가진 모든 우수와 의혹에 갇힌 뮈세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소개하여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추구했던, “사랑과 음탕의 기괴한 반복, 조르주 상드와의 연애사”가 이 소설의 주요 모티브였다는 점에서 제목을 원문이나 영어 번역본과 다르게 번역했다고 밝혔다[29]. 한국에서 뮈세 소설의 번역은 해방 이전까지 홍난파가 유일하다.

김병철(p.606)은 저본을 찾지 못했으나 일역본의 중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자의 조사 결과 일본어 저본은 소마 교후(相馬御風), 노지리 호에이(野尻抱影)의 『戀より戀へ／世紀病者の告白』(1915, 新潮社)이다. 일본어, 한국어 번역본 모두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문은 다음과 같다.

> 엿흔봄三月初旬에 밧겻헤는細雨가솔々뿌리며뜰(庭)노부터는아름다운香氣가써오르는房안에서 나는쎄게늬-와함씩이春節을엇더케보냇스면 조흘가하고이약이하고잇을제 나는沙漠을그리운마드레느의印畫압헤서잇다가 그憂鬱한表現缺點이잇다고批評을하기始作하야 이로부터또다시感傷的눈물을흘니며放逸한生活을咀呪하야 나를그러한곳으로 誘引한親友를원망햇다。 그때에一人의從僕이뛰여드러와셔나의손을붓잡고 房한구셕으로끌고가셔『서방님 저는椿丈어룬의危篤하신急報를알녀드리랴고왓슴니다。睡眠狀態에빠지섯난데醫師의말이아모希望도업다고함니다』하고耳語햇다。
>
> (홍, pp.40-41)

> 春も浅い三月の初、外には雨が降つて庭から快い香の漂つて來る部屋で、私はデジェネィと此春を如何暮さうかと話し合つて居たが、其の中私は沙漠に於けるマドレーヌの印畫の前に立つと、其の憂鬱の表し方に缺けて居る處があると難じ初めて、夫れから曳いて例もの感傷性の誘ふまゝに涙を流し乍ら放逸生活を咀ひ、私を其處へ導いた友を恨むだ。其處へ一人の從僕が驅け込んで來て、私の手を取り、側へ連れて行つて、『貴方、私はお父様が危篤で居らつしやる事をお知らせ申しに來ました。卒中に罹りなさいましたので、醫師はもう見込がないと申して居ります』と耳語した。
>
> (소마, pp.83-84)

---

27) 김미성. (2003). 「시인의 소설: 뮈세의 [세기아의 고백]」 한국프랑스학논집 41, p.223; 安藤はる子. (2003). 「ミュッセ『世紀児の告白』について< その 1>:ー第 1 部・第 2 部の作品分析ー」 日本フランス語フランス文学会中部支部研究報告集 27, p.61.

28)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조사. http://dl.ndl.go.jp/search/searchResult?searchWord=%E3%83%9F%E3%83%A6%E3%83%84%E3%82%BB&featureCode=all&filters=4%3A11&viewRestrictedList=0%7C2%7C3 11.20 검색.

29) 相馬御風, 野尻抱影. (1915). 『恋より恋へ／世紀病者の告白』 新潮社, pp.2-3.

2.4 애사(1922, 박문서관)

『哀史』는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 1802-1885)의 『레 미제라블』을 번역한 것이다. 위고가 1845년부터 1861년까지 집필한 소설로 5부 48편 365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서사를 담고 있다. 1848년 정치적인 이유로 잠시 작업을 중단하고 1851년 망명지로 원고를 가져가 1860년에 다시 집필을 시작해 1861년 6월 30일 완성했다. 1862년 『레 미제라블』 초판이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동시에 출간되었을 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고 출간과 동시에 영국은 물론 미국의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되었다[30]. 최초로 출판된 영어 번역본은 1862년 뉴욕의 George Carleton이 간행한 다섯 권짜리 찰스 윌보어(Charles E. Wilbour)의 번역본과 런던의 Hurst and Blackett이 간행한 세 권짜리 레셀레스 랙설(Frederic Charles Lascelles Wraxall)의 번역본이다. 위고는 영어 번역 판권을 런던의 Hurst and Blackett에 팔았고 이 출판사는 세 권짜리로 완역하여 1862년 출판하였다. 정식으로 판권을 사들여 출판한 것은 영국의 출판사이지만 다섯 부로 구성된 열 권짜리 프랑스어 초판 원본을 다섯 권으로 편성한 미국의 영역본이 수십만 권의 판매고를 올리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영국의 번역본은 출판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법[31]의 엄격한 시행으로 인해 책값은 매우 비쌌고 원저자의 동의를 얻은 정식 번역본임에도 번역의 질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874년에 저렴하면서도 훌륭하게 번역된 윌보어의 번역본이 영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하자 Hurst and Blackett은 저작권 기한이 남아 있었지만 완역본의 출판을 중단했다[32].

1885년 위고가 사망하자 국제적으로 그의 저작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났다. Carleton은 1885, 1886, 1887년에 잇달아 『레 미제라블』의 새로운 판을 내놓았고 크게 성공하였다. 1887년에는 윌보어의 번역본 외에 새로운 세 종의 『레 미제라블』 영역서가 등장하였는데, 뉴욕 출판사인 Thomas Y. Crowell이 다섯 권으로 출판한 이사벨 햅굿(Isabel F. Hapgood)의 번역본, George Routledge and Sons 출판사가 1862년에 출판된 랙설의 번역본을 보충하여 다섯 권으로 새롭게 구성한 번역본, 보스톤의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가 랙설의 번역을 기초로 자신들이 수정한 다섯 권짜리 번역본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1880년대 중반 이후 각종 시리즈와 전집류에 포함되어 축약본이 출판되었으며 20세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윌보어, 랙설, 햅굿의 번역본이 판을 거듭하고 구성을 달리하며 계속 출판되었다[33].

일본의 근대 번역가들은 미국의 영역본을 기점 텍스트로 번역하였지만 일본과 빅토르 위고의 첫 만남은 당시 민권운동파인 자유당 총리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가 위고를 방문하면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당시 위고는 이타가키와 만나 구미의 정치론과 소설류를 일본의 신

30) Hoffheimer. (2013). *Copyright, competition, and the first English-Language translations of Les Miserables (1862)*. Marquett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17(2), p.164

31) 1710년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최초의 저작권법인 일명 앤여왕법(the Statute of Anne)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법이라기보다 출판업자의 배타적인 출판권(copy right)을 보장해주는 법이었다. 14년간의 비교적 짧은 기한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출판업자들은 유명 저자의 저작권을 비싸게 사들인 후 짧은 기간 이윤을 얻기 위해 비싼 값에 책을 판매하였다. 앤여왕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1886년 체결된 국제적 저작권 보호 협약인 베른협약의 기초가 되었다(Lessig. (2004). *Free culture*, New York: The Penguin Press, p.86). 일본은 1899년에 베른협약에 가입하였고 미국은 1989년, 한국은 1996년에 가입하였다.

32) Hoffheimer(2013) pp.175-179

33) Hoffheimer. (2012). *Translations of Les Miserables for law libraries*.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31(3-4), pp.272-273.

문지상에 번역, 게재하라는 충고를 하였다고 한다. 메이지 15년(1882) 연말부터 다음해 4월 하순까지 이타가키는 파리에 체재하였고 이 사이에 위고와의 회견이 실현되었다고 한다[34].

일본에서 메이지와 다이쇼 시기에만 『레 미제라블』은 27건 이상 일본어로 번역되어 왕성했던 당시 일본의 번역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35]. 이 시기 일본어 번역본에는 기점 텍스트를 적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메이지 시대에 『레 미제라블』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모두 영일 번역자라는 점에서 영어 번역본을 기점 텍스트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이쇼 시기에 들어와 불문학자 도요시마 요시오(豊島與志雄)가 1918-1919년에 번역한 4권짜리 『レ・ミゼラブル』가 최초로 프랑스어 원본으로 완역을 시도한 일본어 『레 미제라블』 번역이다. 대부분의 일본어 번역자가 원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반면, 1915년 영역본을 저본으로 『레 미제라블』을 완역한 도가와 슈코쓰(戸川秋骨)는 서문에서 「ヴキルボア」와 「ハップグウド」의 서사 구조 그리고 프랑스어 원문을 참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ヴキルボア」는 찰스 윌보어(Charles E. Wilbour) 이며 「ハップグウド」는 1887년부터 미국에서 『레 미제라블』을 영역한 번역자 이사벨 햅굿(Isabel F. Hapgood)을 말한다. 윌보어와 햅굿의 영역본은 모두 프랑스어 원본을 완역한 것이다.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레 미제라블』인 최남선의 「歴史小說 ABC契」는 하라 호이쓰안(原抱一庵)이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일본 잡지 『쇼넨엔(少年園)』에 연재한 뒤 내용을 크게 수정하여 1902년 단행본으로 출간한 『ABC組合』을 충실하게 번역한 것으로 『레 미제라블』의 내용 중 ‘ABC의 벗’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파리봉기의 원인과 전개과정만을 다루었다. 그 후 1914년 최남선이 다시 번역한 「너참불상타」는 『레 미제라블』의 내용 중 장발장을 중심으로 매우 짧게 초역한 것이다. 민태원이 1918년 번역하여 『매일신보』에 연재한 「哀史」는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涙香)의 『噫無情』(1906, 扶桑堂)을 완역한 것으로 일본어 번역본과 같은 15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922년에 홍난파가 『레 미제라블』을 번역한 단행본 『哀史』와 이듬해 이를 순국문체로 바꾼 『쌴빬쟌의설음』을 발표하였다. 홍난파의 『哀史』는 지금까지 구로이와 루이코의 『噫無情』을 축약하여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어왔다. 하지만 필자의 조사 결과 도쿠다 슈세이(徳田秋聲)가 1914년과 1918년에 번역, 출판한 『哀史』를 단락의 구분까지 동일하게 충실히 번역한 것이다. 일본어, 한국어 번역본 모두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36].

도쿠다 슈세이(徳田秋聲, 1871-1943)는 이즈미 교카(泉鏡花), 무로 사이세이(室生犀星)와 함께 가나자와(金沢)의 삼대 문호(三文豪)로 평가받는 문인이다. 오자키 고요(尾崎紅葉)의 문하를 거쳐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등과 더불어 메이지 말기 일본의 자연주의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문단에 이름을 알렸으며 메이지(1868-1912), 다이쇼(1912-1926), 쇼와(1926-1989) 시대에 걸쳐 문단의 제1선에서 활약한, ‘대가’라는 호칭에 어울리는 작가라고 평가받고 있다[37]. 이와 같은 소개에 걸맞게 야기쇼텐(八木書店)에서 2006년 완간된 『徳田秋聲全集』에는 그의 소설, 수필, 평론, 번역 등이 마흔 두 권에, 서간, 일기 등이 별권 한 권에 실릴 정도로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하지만 그는 지방 신문에 연재한 소설이

34) 稲垣直樹(2009) pp.207-208

35) 屋木瑞穂(1999), 梁艶(2010), 田熊渭津子(1989), 일본국립국회도서관(日本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http://dl.ndl.go.jp/) 조사.

36) 도쿠타 슈세이의 일본어 번역본은 마지막 장이 26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8장(p.62, p.72)을 두 번 반복하여 적은 편집상의 실수이고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14년 번역본에 나타난 실수를 1918년 출판할 때도 수정하지 않았다.

37) 徳田秋聲記念館, (n.d.).「"自然主義文学"の大家　徳田秋聲」
(http://www.kanazawa-museum.jp/shusei/about/index.html)

나 번역 작품의 경우 제자나 무명작가의 작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대필 의혹 또한 무성한 작가이기도 하다. 슈세이의 대필 의혹에 대해서는『徳田秋聲全集』의 편집위원이자 슈세이의 대필 의혹 작품을 조사한 고바야시(小林修, 2007)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바야시(2007)는『徳田秋聲全集』의 완간 직후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그의 전집에 대작(代作)이라고 의심받는 작품도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대필 작가의 필적이 남아 있는 원고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용, 문체, 어휘 등의 특징으로 대작(代作)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의심스러운 작품을 제외하면 슈세이의 진짜 작품까지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슈세이의 작품은 문고판으로도 접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많으므로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의심스러운 작품이라도 전집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집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38]. 그리고 당시에는 문하생들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신의 작품을 서로 매매하는 관례가 있었고 슈세이의 경우 지방신문 연재물은 대필 작가에게 전적으로 맡긴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단편 소설의 경우 슈세이가 직접 첨삭과 개작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적으로 대작(代作)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보고서 말미에 “대작(代作) 문제를 생각하면 슈세이(秋聲)라는 이름은 단지 고유명사가 아니라 많은 대필 작가들의 ‘声’을 흡수하여 작품을 이어간 복합적인 소설가의 별명과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39]는 말로 글을 맺음으로써,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슈세이 연구자로서 그의 비윤리적 작품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도쿠다 슈세이(徳田秋聲)는 두 차례『레 미제라블』번역본을 출간했는데 첫 번째 번역본은 1914년에『西洋大著物語叢書第三編 哀史(レ・ミゼラブル)』, 1918년에는『哀史物語』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각각「新潮社」에서 출판되었다. 1914년의 번역본에는 서문으로「『哀史』 解題」가 실려 있고 1918년의 번역본에는 이전 번역본과 다른 내용의 서문인「序」가 실려 있다. 본문의 내용은 동일하다. 도쿠다 슈세이는 1914년의 서문인「『哀史』解題」에서 빅토르 위고가 1862년 초판에 실은 서문을 소개하였는데 이 서문 번역이 구로이와 루이코의 번역과 일치한다.

> 法律と習慣とを名として、社會の呵責が此文明の眞中に人工の地獄を作り、人の天賦の宿命をば人爲の不運を以て妨ぐることの有る限りは、この種の書も必要無きこと能はず
>
> (도쿠다,『哀史』解題)

> <u>法律と習慣とを名として、社會の呵責が此文明の眞中に人工の地獄を作り、人の天賦の宿命をば人爲の不運を以て妨ぐることの有る限りは</u>
>
> 現世の三大問題、即ち勞働世界の組織不完全なるに因する男子の墮落、　饑渇に因する女子の滅倫、養育の不足の爲の兒童の衰殘、を救ふの方法未だ解釋せられざる限りは
>
> 心の饑渇の爲に衰死する者社會の或部分に存する限りは
>
> 以上を約言して廣き見解に從ひ、世界が貧苦と無學とを作り出す限りは
>
> 則ち<u>此種の書は必要無きこと能はざる也</u>

38) 小林修. (2007).「『徳田秋聲全集』完結について」日本近代文学 76, pp. 243-244.

39) 小林修, (2007), p.247, 필자 역.
도쿠다 슈세이의 이름인「秋聲」의 발음을 이용한 일종의 언어유희이다.「秋聲」에서「秋」의 일본어 음독 발음 ‘슈’는 ‘거두어들이다,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収」의 발음과 같다. 그리고「聲」은 현대 일본어에서는 간단히「声」으로 표기한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슈세이’라는 이름이 대필 작가들의 소리(声=작품)를 그러모았다(収)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구로이와, 小引)

또한 도쿠다 슈세이의 번역본은 구로이와 루이코의 번역본에 등장하는 한자 번역어, 에피소드, 등장인물, 대화로만 구성되어 있다. 원문의 방대한 분량 중에서 10분의 1의 분량에도 못 미치는 구로이와 루이코의 번역문에만 등장하는 인물과 에피소드, 대화 내용만이 도쿠다 슈세이의 번역본에 등장한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1914년에 도쿠다 슈세이의 번역본과 비슷한 130여 쪽으로 『레 미제라블』을 축약하여 번역한 히로쓰 가즈오(廣津和郎)의 『장발장(ジャン・ヴァルジャン)』을 보면 구로이와 루이코의 번역본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과 대화 내용이 번역되어 있다. 같은 저본을 번역했다고 해도 방대한 원문에서 어떤 내용을 선택하여 번역할 것인가는 번역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쿠다 슈세이의 번역본은 구로이와 루이코의 번역본을 축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홍난파의 『哀史』 서문인 ‘머리의말’ 내용으로 미루어 홍난파는 도쿠다 슈세이의 1918년 번역본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哀史」は、原名を「レ・ミゼラブル」といふ。佛蘭西の大作家ユウゴオの代表的傑作と知られて居る作品である。ユウゴオは一八〇二年に生まれ、一八八五年に死んだ。佛蘭西浪漫派の大立物として、詩人としても劇作家としても、一世を曠うするの巨匠である彼は、文學者としてのみならず、高節の國士敏腕の黨人として當時の政界に獅子吼し、王室の怒りに觸れて國外に追放された事もある。「レ・ミゼラブル」は、彼が六十歳の時、藝術家としての手腕の最も爛熟した時の作品で、之を邦文に譯すれば四千枚を越ゆべき一大叙事詩的作品である。彼は此書の中に於て、社會問題、政治問題、婦人問題、その他あらゆる方面に亘る見解を述べて、當時を批評した。而して、その雄大なる規模、その複雑なる結構のうちに、力强く鳴り響くものは、熾烈なる彼の人道主義的精神である。トルストイは本書を以て十九世紀第一等の書となし、西歐諸國は新しい聖書として、相傳へ相誦してゐる。今、全篇の梗概をとつてこの物語を編む。幸にして原作の俤を髣髴するを得ば幸甚である。

(도쿠다, 1918, 序)

『哀史』는 原名을 『레、미제라불』“Les Miserables” 이라하야 佛國文豪『유-고-』(Victor Hugo)의代表的傑作이다。이것을우리의말노全譯하랴면 原稿紙四千餘枚를超過하는一大敍事詩的作品인바、作者가六十歲되던時、藝術家로서의手腕이 가장爛熟한째에지은것이다。그는本書中에서 社會問題、政治問題、婦人問題、其他의諸方面에밋처서 餘地업는見解를述하고當時를批評하엿다。杜翁은本書를 推賞하야 十九世紀의第一良書라하엿스니 이엇지偶然한일이리오、譯者는曩日에『센큐웟츠』의『코、빠듸스』를紹介할째에도말한바이지만은、우리出版界의엇지할수업는事情에拘碍되야이全文을完全히紹介하지못하고原作의梗概를拔粹함에지나지못하게됨은、甚히遺憾으로생각하는바이다。그러나多幸히原作의俤를髣髴할수잇다면 譯者의本意는다한쥴노아노라。 (홍난파, 머리의 말)

김병철(p,567)은 “이 역서의 대본에 관하여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의 일역서라는 것을, 번역솜씨와 어투 또 낱말의 동일 및 유사, 부연어와 어순 등의 유사에서 알 수 있다. <噫無情> 黒岩涙香 譯 후소도(扶桑堂). 1906. 문례로 장발장이 미리엘 승정의 은식기를 훔쳐간 후에 벌어진 그 유명한 장면을 들어본다”고 하였는데 도쿠다 슈세이의 문례와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翌朝에僧正은前例에依하야뜰에나가셔散步하고잇스랴니싸老女가숨이턱에차셔달녀오며顔色을變해가지고昨夜의客이銀皿을훔처가지고逃亡한事實을告햇다。僧正은조곰도氣色을變함업시、「아무렴엇덧소、至今싸지내가너머愛之重之한것이잘못이지、그것은當然히貧寒한사람의所有인데、昨夜의客은確實히貧寒한사람이오」
老女는主人의너머冷情한對答에오히려反感이생긴듯이「저희들이야勿論相關업지오만은當場오늘아츰부터라도령감씌셔는엇던그릇(器)에국을써잡숫겟슴닛가?」「銀器가업스면錫器라도좃치」「錫器는내암새가나지안슴닛가」「그럿커던鐵器라도」「鐵器는쇠녹이난담니다」「앗다그러면木器라도씁시다그려」 (홍, 1922, p.15)

翌朝僧正が例のやうに庭に出て散步してゐる處へ遽しく馳せて來た老女は、顔色を變へて昨夜の客が銀の皿を盗んで逃げた事を告げたが、僧正は些とも意に介せぬやうに、「まあいゝではないか。今迄私が惜んで居たのが悪かつたのぢや、あれは當然貧しい人の有なのぢや。昨夜の客は確かに貧しい人であつたわ。」
老女は餘りの事に惜しさうに、「私共は構ひませんけれど、貴方様はこれから何の器でお汁を召上るのでせう。」「何か錫の皿でも有るだらう。」「錫は臭ひます。」「では鐵の皿」「鐵は味がつきます。」「では木の皿」 (도쿠다, 1918, p.24)

翌朝僧正は毎もの如く庭に出て散步した其の所へ遽しく來たのが老女である「貴方様は銀の皿を入れた籠を御存じ有リマせんか」僧正は静に「知て居る、コレ茲に」とて昨夜戎瓦戎の捨て行た籠を取上て示した。老女「アレ籠では有りません。籠の中の銀の皿をですよ」僧正「皿ならは知らぬ」と云ひ、少しも氣に留めぬ躰で、籠に敷かれて折れて居た草花を起し初めた。老女は狂亂とも云はまじき程の狀で直ぐに馳せて家に入たが、無論戎瓦戎の寢た室を見廻はつたのだらう。間も無く又馳せて來て「盗まれました。銀の皿を。昨夜の人は早や立ち去つた後ですよ。銀の皿を盗んで行きました」とて虚呂々々と四邊りを見廻し「先ア驚いた。塀の彼所を乗越えてい逃たのです。足痕も残て居ます。何と云ふ呆れた奴でせう。貴方様の大恩を仇で返して」とて、悔しげに言葉に力を入れた。僧正は又も静かに振向て「爾う云はずに先づ考へねば—第一那の皿は此家の物だらうか。今まで私が惜んで居たのが悪かッた。那れは當然に貧い人の物である。昨夜の客は確に貧い人だらう」貧い人が持つて行くのは當り前だとの意味が現はれて居る。何たる宏量な心だらう。何十年來、僧正の徳に服して一言も批評らしき言葉を吐た事の無い老女だけれど、餘り残念だ「盗まれたとて私し共は構ひません。お妹御もお構ひは無いのでせう。けれど貴方様が直にお困り成さるでは有りませんか。今朝は何の器でお汁をお召上りに成りますか」僧正「何か錫の皿でも有るだらう」老女「錫は臭ひます」僧正「では鐵の皿」老女「鐵は味が附ます」僧正「では木の皿」 (구로이와, 1906, 上, pp.34-35)

홍난파의 한국어 번역 방법만 보자면 원문에 충실한 현대의 번역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경개역 혹은 초역된 일본어 번역본 중에서 선택하여 저본에 충실하게 번역했던 것이다. 게다가 저본이 되는 하나의 텍스트만을 충실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이나 영역본과도 꼼꼼히 비교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을 하기도 하였다.

홍난파가 번역 과정에서 영역본을 참고하여 수정했다는 점은 다음의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ドミニツク街十七番地、ウルビン·フオシエルバン留守宅にてフオシエルバン嬢と宛名を書かせて、テナルディーエは妻にその手紙を渡し、(도쿠다, p.152)

또미니크(Dominique)十七番地、우르쌴、빠부르(Urbain Fabre) 家內、빠부르孃이라고쓰게 한後、테나-틔에는 그 妻에게이편지를내여주며 (홍난파, p.89)

코제트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공원에서 마리우스는 알파벳 ‘U’와 ‘F’가 수놓인 손수건을 줍고 그 손수건이 코제트의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손수건은 윌팀 포셀방(Ultime Fauchelevent)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장발장의 것이고, 테나르디에의 협박으로 장발장이 코제트에게 쓴 편지에는 가짜 주소와 함께 어반 파브르(Urbain Fabre)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도쿠다 슈세이의 잘못된 인명 번역을 홍난파는 영어 번역본을 참고하여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2.5 매국노의 자(1923, 滙東書館)

『매국노의 자』는 독일 작가 헤르만 주더만(Hermann Sudermann, 1857-1928)의 『외나무다리』를 번역한 것이다. 주더만은 독일의 극작가이자 소설가로 『우수부인(憂愁夫人, Frau Sorge)』(1887),『외나무다리, Der Katzensteg』(1890)등의 소설과 희곡『명예, Die Ehre』 등의 작품이 있다. 『외나무다리』는 일본의 독문학자 도바리 지쿠후(登張竹風)가 『小説賣國奴』(1904, 金港堂書籍株式會社)라는 제목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처음 번역하였다. 20장의 원문을 15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를 1905년 중국의 오도(吳梼)가 『賣國奴』(1905, 商務印書館)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1908년 『매일신보』에 「ᄆᆡ국노(나라ᄑᆞᆫ놈)」(1908.11.25.-1909.4.28.)으로 번역된 『외나무다리』의 저본은 일본의 번역을 거친 중국어 번역본이다[40].

김병철(p.587)은 제목의 유사점이나 일본식 한자 번역어 등으로 홍난파의 번역서 저본을 도바리 지쿠후의 번역본으로 추정하였다. 15장으로 구성된 일역본을 홍난파가 축약하여 번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조사 결과 홍난파는 11장으로 구성된 무라카미 세이진(村上静人)의 「猫橋」(1918, 泰西傑作集 第七, 佐藤出版部)를 충실히 번역한 것이다[41].

『근대번역사』에 제시된 홍난파와 도바리 지쿠후의 예문에 무라카미의 해당 예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日千八百十四年一平和條約이締結되야、나폴레온은콜시카의一孤島에敗竄의몸이되던이해八月獨逸하이데村의엇던農家의속방에는、戰場으로부터도라온血氣의勇士들이둘너안저셔酒盃를相交하며戰場의逸話를吐하엿다。그中에오직一人、赤葡萄酒를마시고잇는靑年士官은이村에사는사람과는갓지아니한風采로、年齡은二十二歲內外쯤되여보이고、一座中에서第一年少하기는하나、그의顔上에는愁色이갓득씨여서、넓직한前額에는意志와力이넘치는것갓고、푸른눈초리는過去의歷史를말하는것갓햇다。

귀(耳)우흐로부터前額에達하는斜線의瘡痕은아직도鮮血이흐르는것갓흔대、이傷痕을닷치지(觸)안키爲하야뒤로벌썩잣처쓴軍帽에는、後備兵의徽章이光輝를發하엿다。 (홍, pp.2-3)

一千八百十四年一實に、平和條約が締結されて、ナポレオンは、コルシカの一孤島に敗竄の

40) 김병철, p.939; 박성호. (2014). 「『대한미일신보』의 번안소설 수용과 ‘기록’으로서의 소설-미국노와 『賣國奴』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2, pp.58-59.

41) 일본어 번역본 제목이 「猫橋」가 된 것은 영역본의 제목을 직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890년 「외나무 다리」가 출판된 해에 미국의 출판사 P. F. Collier에서 영역본 *The Cats' Bridge; tr. from the German*이 출판되었다. 번역자 이름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https://babel.hathitrust.org/cgi/pt?id=mdp.49015001220418;view=1up;seq=11 12.2 검색)

身となつた此の年の八月、獨逸ハイデ村のある農家の奥座敷に、戰場から歸つてから、まだ間も無い血氣の勇士達が、酒くみ交して、熾んに語り興じてゐた。中に、唯一人、赤葡萄酒を飲んでゐる青年士官は、此村の人とは思はれない風采で、年齢は廿二歳を越えぬ位、一座の内の最年少者とも見えながら、其の顔には陰い影が漲つて、小皺一つ無い額には、意志と力とがあふるゝばかり、綠色の眼は、過去の暗い歷史を物語つてゐた。

耳の上から、額みかけて斜に、まだ癒え切らない刀痕が鮮かに見えた。その痕に觸れない爲めに、日蓋を少し擧げて、阿弥陀に冠つた軍帽には、後備兵の徽章が光つてゐた。

(무라카미, pp.14-15)

時は一千八百十四年と四月一日。そして猛威を逞しうした奈破翁大帝も佛蘭西の王位に望を絶つて、平和條約を締結された。...중략...

その一

この年の八月。土も焼く土用の暑さを涼しい農家の奥座敷に避けて酒酌みかはす若者の一隊がある。麥酒と火酒に醉は廻つて吹き飛ばす煙草の煙までが面白さうに舞ひ躍るので、戰場から故郷に歸つてから、まだ間もない血氣の勇士たちが、戰を偲ぶ盛宴の最中で有る。

見渡す限り勇士の面々、何れも似通うた面影がある。同族同血の人といふでもないが、素性も習慣も思想も同じなみに揃うた跡は、歷々とその顔に現れて居る。戰の名残は彈痕刀傷にあはれを留めて、腕にはまだ繃帶を施して居るものも二三人。一座の人は何れも灰出村の農夫であるが、さてこゝにこの家唯一の安樂椅子に腰をかけて、唯一人赤葡萄酒を飲んでる青年は此村の人とは思はれない風采である。年齢は廿二歳を越えぬ位で、一座のうちの最年少者とも見えながら、あはれこの世に望を絶つたのかと見ゆるほどの陰鬱な容貌。小皺一とつ無い額には、意氣地を張り抜く勢を光らせ、綠色の眼窩には年月積つた怨恨物言ひたさう。

上衣は灰色。耳の上から高額にかけて、斜に一線を畫いた刀傷がまだ癒えないためか、日蓋を上に擧げて、阿弥陀に冠つた軍帽には、後備兵の徽章が著いて居る。 (도바리, pp.1-8)

2.6 청년입지편-자조론(1923, 博文書館)

『자조론』은 영국의 사무엘 스마일즈가 1859년 저술한 *Self-Help*로, 개인의 노력, 근면과 인내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의지로 성공한 인물들의 사례를 제시한 수양서이다. 스마일즈의 자조론은 출판 직후 미국은 물론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에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866년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례를 첨가"[42]한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일본에서는 1870년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가 『西国立志編』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번역하였다. 나카무라는 1866년 영국유학생파견 책임자로 영국에 파견되어 1868년 귀국했다. 영국 체류 당시 친분을 맺은 프리랜드로부터 귀국 선물로 스마일즈의 *Self-help*를 선물받았고 귀국하는 배 안에서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번역을 시작, 메이지 3년인 1870년 출간하였다[43]. 초판은 11권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여러 출판사에서 각기 다른 판본으로 출판되었

42) "The appearance of this edition has furnished an opportunity for pruning the volume of some superfluous matter, and introducing various new illustrations, which will probably be found of general interest." Smiles, Samuel. 1881. Preface. *Self-help : with illustrations of character, conduct, and perseverance*. Chicago: Belford, Clarke.
(https://babel.hathitrust.org/cgi/pt?id=uc1.b4897020;view=1up;seq=9 에서 2018. 11. 3 검색)

43) 藤原暹. (1982). 「日本における S. Smiles 「自助論」 受容の思想史的研究-1」. アルテスリベラレス, (31), p7.

다. 1877년에는 초판에서 번역하지 않은 부분을 보충한 『改正 西国立志編』이 七書屋臧에서 출판되었고, 博文館에서도 1877년 판권면허를 얻어 1894년『改正 西国立志編』이 출판되었다. 博文館에서는 1915년 표기법을 바꾸어 새롭게 개정판을 출판했는데 1916년판의 판권지에 17판으로 표기되어 있어 1910년대에도 여전히 인기 있는 텍스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카무라 번역본 외의 주요 『자조론』 번역으로 1906년의 아제가미 겐조(畔上賢造)의 번역본, 1912년 오사나이 가오루(小山内薫)와 나카무라 도쿠스케(中村徳助)의 공역 등이 있다.

한국어 번역으로 1906년『朝陽報』1호부터 3호까지『자조론』일부가 번역되어 있다. 번역자의 이름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1편 1장부터 23장 리처드 콥든의 사례까지 매우 짧게 축약한 초역이다. 특히 1장 번역에는 유교 경전인『大學』의 구절을 인용한 해설이 삽입되어있어 번역이라기보다 역술(譯述)에 가깝다. 『朝陽報』1호에 실린 『자조론』 번역은 『대한매일신보』(1907.10.25.-10.27)에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되었다. 1907년 12월에 발행된 서우학회의 『서우』 13호와 1908년 1월 발행된 14호에도「自助論」번역이 실려있다. 1918년 간행된 최남선의 『자조론』은 13편 중에서 1-6편까지만 상권으로 번역되었고 하권은 미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남선의 번역은『매일신보』의 신간소개란에「自助論 崔南善氏譯」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기도 하였다[44].

홍난파의 번역은 『청년입지편-자조론』이라는 제목으로 1923년 박문서관에서 출판되었다. 김병철(p.637)은『청년입지편』의 저본에 대해 “Samuel Smiles 의 Self-Help에서 나왔으며, 그 대본은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의 일역서임을 알 수 있었다. <西国立志編> スマイルズ, 中村正直, 漢装本, 1871.”이라며 문례의 대비를 통해 확증하고 있다. 하지만 홍난파의 번역본에 실린 서문『自助論原序 스마일스自序』는 스마일즈의 1859년 초판 서문이며 나카무라의 1870년 초판에는 실리지 않은 서문이다. 1870년 출판된 나카무라의 초판에는 스마일즈가 1866년 개정판에 쓴 서문만이『自助論原序』라는 제목으로 실려있고 1877년 일본어 개정판인 『改正西国立志編』에 스마일즈의 1859년 초판의 서문과 1866년 개정판 서문이 함께 번역되어 실려있다.

> THE origin of this book may be briefly told. Some fifteen years since, the author was requested to deliver an address before the members of some evening classes, which had been formed in a northern town for mutual improvement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스마일즈, 초판 서문, p.5)[45]

> THIS is a revised edition of a book which has already been received with considerable favor at home and abroad. It has been reprinted in various forms in America; translations have appeared in Duch and French, and others are about to appear in German and Danish. (스마일즈, 개정판 서문, p.5)[46]

---

44)“英國스마일쓰博士의世界的名著를譯ᄒᆞᆫ것이라原書가靑年訓話로世界不朽의大著임은定論이自在ᄒᆞ니..... 明治初年에中村敬宇의手에西國立志篇이란名으로譯出되여新日本建設의一切役軍에게最高唯一ᄒᆞᆫ行爲上準的이되고靈活深遠ᄒᆞᆫ精神的源泉이된것은가장顯著ᄒᆞᆫ事實이로다...”
「自助論(崔南善氏譯)」『매일신보』(1918.5.9.), 4면.

45) Smiles, Samuel. (1859). *Self-help : with illustrations of character and conduct*. London: Ward Lock.
(https://babel.hathitrust.org/cgi/pt?id=mdp.39015009082283;view=1up;seq=9 에서 2018. 11. 3 검색)

46) Smiles, Samuel. (1881). *Self-help : with illustrations of character, conduct, and perseverance*. Chicago: Belford, Clarke.

> 此書ハ、既ニ英國幷ニ他國ニ博ク行ルヽモノヲ再校スルモノナリ、彌利堅ニ數種ノ版アリテ印行シ、和蘭、法蘭西、日耳曼、領墨ノ人、各ソノ邦語ヲ以テ譯セリ、ユノ書ハ前人ノ行狀ヲ載タレバ、讀者必ズ前人ノ勞苦ヲ經、試驗ヲ積ミ、難事ニ耐ヘテ大業ヲ成就スルヲ觀テ奮發ノ意ヲ生スベキナリ、(나카무라, 1871, 自助論原序)[47]

따라서 홍난파는 1877년부터 출판된 일본어 개정판을 저본으로 번역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15년 표기법을 바꾼 개정판이 1년만에 17판을 발행할 정도로 판매된 것으로 보아 1915년판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48].

> この書を著す所以の原由は、如何にといふに、去ぬる十五年前の事なりし、北方の村落に於て、有志の者、數輩相會ひ、夜中議談を聽かんとて、我を招き請ひし事あり、その詳は、次に敍するが如し、極めて卑賤なる少年二三人、或年の冬の夜、相會し、互ひにその知るところを語り合ひ、學問を交易して、知識を開き、進益を得ばやと思ひ立ちたり、
>
> (나카무라, 1916, 自助論第一版序 斯邁爾斯(スマイルス)自序)[49]

> 此書를著한바原因에就하야一言할진대, 距今十五年前에北方의村落에셔有志者數輩가相會하야, 夜中講談을聽코저하야予를招請한事一有하니、今에其詳細를述하건대下와如하도다。極히卑賤한小年二三人이或年冬夜에相會하야、各々自己의識見을吐하야써、學問을交易하고知識을開發하야進益을得코저한事一有하였다。
>
> (홍난파, 1923, 自助論原序 스마일스自序)

『자조론』 번역에서 홍난파는 드물게 초역을 시도하였다. 나카무라의 『자조론』은 13편 32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홍난파의 『자조론』은 13장 193절로 구성되어 있다. 나카무라의 번역본에서 무려 131장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홍난파의 일역서 저본의 선택 기준이 쪽수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애사』의 경우 129쪽, 『매국노의 자』 111쪽, 『첫사랑』 118쪽, 『청년입지편』 171쪽, 『청춘의 사랑』 154쪽, 『사랑의 눈물』 117쪽, 『나나』만이 예외적으로 295쪽에 달할 뿐이다. 홍난파가 서문에서 늘 '우리 출판계의 사정상 경개역(혹은 초역)을 하였다'고 한탄하는 이유가 실제로 번역본의 쪽수에 대한 출판사 측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청년입지편』을 제외하고 일본어 저본을 충실히 번역하여 200쪽을 넘지 않는 번역을 했다는 것은 자신이 번역하고자 하는 소설의 여러 일역본 가운데 쪽수가 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조론』의 경우 일역본 쪽수가 대략 400-600쪽에 달하기 때문에 부득이 홍난파 본인이 초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https://babel.hathitrust.org/cgi/pt?id=uc1.b4897020;view=1up;seq=9 에서 2018. 11. 3 검색)

47) 中村正直. (1871).『西国立志編　原名自助論』須原屋茂兵衛
(http://dl.ndl.go.jp/info:ndljp/pid/1907628 에서 11.3 검색)

48) 나카무라의 1916년 개정판 판권지에 다이쇼 4년(1915) 2월 18일 발행하여 3월에 재판을 발행하고 다이쇼 5년(1916) 10월 20일에 17판을 발행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http://dl.ndl.go.jp/info:ndljp/pid/1907628 에서 11.3 검색)

49) 中村正直. (1916). 『改正西国立志編 原名自助論』 博文館.
(http://dl.ndl.go.jp/info:ndljp/pid/1907628 에서 11.3 검색)

2.7 청춘의 사랑(1923, 신명서림)

홍난파의『청춘의 사랑』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데뷔작『가난한 사람들』이다. 1846년 발표한 서간체 소설로 중년의 마카르 제부슈킨이라는 하급관리와 바르바라라는 소녀가 주고받는 편지로 이루어진 소설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공병사관학교에 다니면서 프랑스 소설을 읽고 습작을 하던 시기에 쓴 것인데 당시 러시아에서 최고의 시인이던 네크라소프와 최고의 비평가 벨린스키에게 걸작으로 격찬을 받아 일약 유명해진다[50].

『청춘의 사랑』은 홍난파 자신이 발행인 겸 편집을 맡은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의 기관지『三光』(창간호-3호, 1919.2.10.-1920.4.15.)에 먼저 연재되다 중단된 것이다. 창간호와 2호에는「사랑하는 벗에게」로 되어 있으나 3회부터는 원제와 유사한「貧人」으로 고쳤다. 김병철(p.366)은 “도뤠미 번역의 오역 여하는 논외로 하더라도 초역 또는 縮譯이 아니라 완역이 시도된 것만은 알 수 있다. 이 작품에 관한 한 당시 우리나라에 이식될 때 굴절과 왜곡이 배제된 완전한 모습으로 투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홍난파가 초역이 아닌 완역을 한 것으로 김병철에게 높이 평가받는 작품은『청춘의 사랑』과『첫사랑』,『매일신보』에 연재된「쿠오바디스」이다. 앞의 두 작품 모두 원작의 길이가 길지 않아서 완역을 하더라도 200쪽을 넘지 않는 작품들이다. 홍난파가 저본에 충실히 번역하는 것을 기본적인 번역 방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번역사』에는 저본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필자의 조사 결과 저본은 히로쓰 가즈오(広津和郎)의『貧しき人々』(天弦堂, 1915)이다. 일본어와 한국어 번역본 모두 전체 57장, 55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홍난파와 히로쓰 가즈오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 第一信 마-칼이 우아링카에게 四月八日
>
> 가쟝親愛한우아링카氏여-어제나는얼마나깃벗섯는지、實노무엇이라고말할수업는幸福이엿습니다。사랑하는벗이여! 그대는그럿케도내말이라면固執을세우더니。이번에는내말을드러주엇지오? 어제밤에나는八時頃에눈을쓰고(譯者曰-마-칼은事務를맛친後초저녁잠을잠이常習이다) 燭불을켜노은後、펜과紙片을쓰내여무엇을조곰쓰다가偶然히머리를번적드니心臟은벌덕〈쒸노더이다。당신은나의願하는것을아섯지오? 나의希望하는것을깨다르섯지오? 올슴니다、그대의門帳의한끗이축써러저서=내가豫想하던대로=鳳仙花분우에살작〈싯치는거을나는보앗슴니다。그래고나는그대의사랑스런玉顔이門帳틈을내여다보이는것을보앗슴니다。나는그대가窓밧그로나의房을건너다보며나를生覺하시는줄을알엇슴니다。(홍, p.1)

> 第一信　マーカルよりウァルウァラに　四月八日。
>
> 最も親愛なるウァルウァラ・アレキゼイエウナ、一昨日私はどんなに幸福だつたでせう、實際限りなく、何とも彼とも云へないほど幸福だつた！　可愛らしい意地張やさん、あなたはやつとこさで今度だけは私の云ふ事を聞いて呉れましたね！　昨夜私は八時に眼をさまして、(例によつて、私は役所から歸つて來ると少しばかり晝寝をするのが好きなのです！)蠟燭をともして、ペンと紙とを一緒に取り出して、ペンをひたしてゐるうちに、不意に、偶然にも顔を上げて見ました、と心臓がドキンとはげしく躍つた。あなたは私の欲したところのものを知つてゐなすつた、望んだところのものを知つてゐなすつたのだ！　さうです、あなたの窓掛の片隅が引き下されてゐて、それが私の注文通りに、鳳仙花(バルサム)の鉢の上に優しく垂れてるのを見たのです。それから又私はあなたの可愛い小さな顔をも窓際にほんのチラリと見ましたよ。私はあなたが自分の部屋から私の部屋を見ながら、私のことを考へて

50) 이현우, 2014, p.193.

ゐられるのを知りました。 (히로쓰, p.1)

2.8 나나(1924. 博文書館)

『나나』는 프랑스의 자연주의 소설가 에밀 졸라의 *Nana*(1880, Les Rougon-Macquart series 9)를 번역한 것이다. 메이지 20년대부터 일본에 에밀 졸라의 작품이 번역되기 시작하여 42편 이상 번역되었다. 일본어로 번역된 졸라의 첫 작품은 1889년 우치다 로안이 『목로주점』을 번안한 「酒鬼」(『女学雑誌』 1889.5월-7월)이다. 이후 오자키 고요(尾崎紅葉)가 3편 이상의 졸라 작품을 번역하였고, 도가와 슈코쓰, 나가이 가후 등 여러 유명 작가들이 졸라의 작품을 번역, 번안하였다. 당시 졸라의 작품과 그가 주창한 자연주의는 새로운 문학적 화두로 논의되는 주요 주제였다[51]. 하지만 그의 소설의 모티브나 묘사는 소위 포르노 문학으로 모리 오가이(森鷗外) 등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오가이는 「文学と自然と」(『柵草紙』 28, 1892.1)에서 "음란하고 추잡한(淫悪醜穢) 것을 거리낌 없이 소설로 나타내는 에밀 졸라는 실로 유럽에서 자연주의를 주창한 주요한 인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사건조차도 소설로 표현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 『나나』의 음란한 서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52].

한국에서는 1920년대에 들어서 논의나 소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자연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라기보다는 사회의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는 일종의 사회비평가의 관점에서 소개되었다[53]. 『나나』의 경우 해방 이전까지 두 번 번역되었는데 홍난파의 번역본이 최초이고 단행본으로는 유일한 번역본이다. 그리고 『조선일보』(1929.10.22.-25)에 일부가 연재되어 있다[54]. 김병철은 홍난파 번역본의 저본이 우다카 신이치(宇高伸一)의 『ナナ 世界文藝全集第七編』(1922, 新潮社)이며 길이로 봐서 우리말 역본이 초역이 아니면 축역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필자의 조사 결과 홍난파는 사사무라 시게루(笹村茂)의 『ナナ(近代名著物語叢書; 2)』(1922, 上方屋出版部)를 저본으로 번역하면서 우다카 신이치의 일역본을 참고하였다. 우다카의 번역본이 완역이고 630여 쪽에 이르기 때문에 240여 쪽에 불과한 사사무라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사사무라의 번역본은 도쿠다 슈세이의 경우와 같이 우다카 신이치의 번역본을 축약해 놓은 것이다. 『애사』의 번역과 다른 점은 사사무라의 번역을 충실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사사무라의 번역을 바탕으로 우다카의 번역을 참고하여 내용을 보충했다는 점이다. 세 번역자의 번역본 모두 2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홍난파의 번역본은 사사무라의 모든 문장에 단지 우다카의 일역본에서 몇몇 문장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홍난파, 사사무라, 우다카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빠라에태라는연극쟝에서는、오후아홉시에개막을한다고광고를햇스나、그시간이되여도연극쟝안은、여전히텅비여잇섯다。주악쟈(奏樂者)의좌셕에는아직한사람도낫타나지안엇다。다만턴졍(天井)과맛다흘만치놉흔삼층쏙닥이에서、즐거히웃고짓거리는소리가들닐쑨이엿다。그들은로동쟈의모쟈를쓴、남녀

51)田熊渭津子(編). (1989)「明治飜譯文學年表」『明治飜譯文學集』筑摩書房 pp.411-435;川戸道昭; 榊原貴教. (1998).「明治翻訳文学年表 ゾラ編」『明治翻訳文学全集 ゾラ集』大空社, pp.1-4.

52)酒井美紀. (2010).『尾崎紅葉と翻案: その方法から読み解く 「近代」の具現と限界』 花書院, pp. 146-148에서 재인용.

53) 박성창. (2006).「1920년대 한국 자연주의 담론에 나타난 에밀 졸라의 표상과 자연주의적 묘사」한국현대문학연구 20, pp.186-187.

54) 김병철, p.624.

의무리한쎄엿섯다。 좌석을맛허보는녀쟈가、각금ㄱ손에입쟝권을들고분주히오락가락햇다。그리할쌔마다남녀의손님을한쎄식인도해드렷다。남쟈는모다훌늉한야회복(夜會服)을닙엇스며、녀자는극히사치한날신ㄱ한사람들이엿난대、좌셕에안즌후에그녀자들은반드시쟈긔의주위(周圍)를고요히휘도라보앗다。……

『그거보게、엑토르、내말이올치안은가、너머일즉이온모양이야、담배를다태우고오더라도넉々할걸-』

『글세、그럿치만오늘아츰에、크라리스의말이、아홉시에는ㅅ곡개막을한다기에그말을밋엇지』

『자네는그쟈의말을꼭신용하나? 흥、올치、크라리스의말이면틀님은업겟지』(홍, p.1-2)

ヴアリエテ座は開幕九時といふ廣告であつたが、その時間になつてもがらんとしてゐた。しかし、忙し氣席係りの女は切符を手にして時々現はれた。そして、その度に一組の男女を案内して來た。男は何れも夜會服で、女は華奢な、嫋々とした人達で、席に着く時、女は屹度自分の周圍を靜かに見廻した。……

『エクトル、僕が言つた通りだ。馬鹿に來かたが早かつたぢやないか一』

『さうさ、でもたつた今朝の事、一座のクラリイズは、正九時には屹度開けますなんて言つてゐたんだが』

『フン、成程あれの言ふ事に間違ひはないなあ』 (사사무라, p.3-4)

九時になつても、まだヴアリエテ座はがらんとしていた。バルコンやオルゲストルにゐる三四人の人々も、眞紅の天鵞絨の椅子の間や、ぼんやりした燈火に吸ひ込まれてしまつてゐた。素晴らしく大きな緋の緞帳には柔かな陰影が浮いて、其の褶の蔭からは何の音も聞こえては來ない。脚光は下向きになつてゐて、一奏樂者の座席にはまだ一人も着いてはゐなかつた。たゞ、天井一……一に屆いてゐるかと思はれるばかりに高い三階から、楽げに談笑する聲が聞えた。それは勞動者風の帽子を冠つた、男女の一群れであつた。忙しげな席係りの女が切符を手にして時々現れた。そして、其都度一組の男女を案内して來た。男は何れも夜會服で、女は華奢な、嫋々とした人達で、席に着く時、女は屹度靜かに自分の周圍見まはした。……

『ェクトル、僕が言つた通りだ。ばかに來かたが早かつたぢやないか。あの葉卷を喫つて了つたつて可かつたんだ』

……

『ぢや、なぜ正九時開幕なんて廣告を出したんだい。』と、ェクトルは、その痩せた顔に、さも倦き倦きしたと云ふ表情を漲らせて、『而も今朝の事だ。一座のクラリイズは、誓つて正九時には開けますなんて言つてゐたんだが。』 フオーシエリーは肩を竦めて、

『クラリイズの言ふ事なんか眞に受けてるのかい。フン、成程あれの言ふ事に間違ひはないなあ。』

(우다카, p.3-4)

3. 결론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체함)

【토론문】

“한국 근대 번역문학과 일본 -1920년대 홍난파 번역서의 서지적 연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안영희(계명대)

번역에 있어서 1920년대 초반은 삼일 운동 직후 언론과 출판문화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홍난파는 1920년대 초반의 최초의 전문 번역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 이후 번역이 급감하고 출판시장도 위축되었으며 홍난파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안정적인 문장의 번역을 선보일 때에 번역도 창작에서도 손을 때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논문은 1920년대 초반에 출판된 홍난파 번역서의 서지적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홍난파는 작곡가, 지휘자, 음악평론가로만 알고 있었지만 1920년대를 대표하는 번역가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홍난파의 번역이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홍난파의 번역서와 원문, 그리고 저본으로 사용한 일본어 텍스트를 분석하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난파 번역서와 일본어 저본, 그리고 원문에 대한 자세한 텍스트 분석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자는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에 대한 번역입니다. 발표자는 아래의 번역에 대해 “긴 말줄임표로 첫 문장을 시작하는 점에서 이쿠타 슌게쓰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한 것처럼 보이나 한자 번역어, 이쿠타 번역본의 오역이나 누락이 수정된 점으로 보아 적어도 후지나미 스이쇼의 번역을 함께 참고하여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쿠타 슌게츠의 번역이 1918년, 후지나미 스이쇼의 번역이 1919년, 홍난파의 번역이 1921년에 출판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책을 저본으로 사용했을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긴 말줄임표로만 홍난파의 번역서가 이쿠타의 번역을 저본으로 했다고 하기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말줄임표 이외에 과거시제와 인칭대명사로 봤을 때는 후지나미 스이쇼의 번역을 저본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홍난파는 언더우드 목사가 설립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성가대 활동도 하였고 전도활동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어 실력도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또한 1918년 일본에 유학 도쿄 우에노(上野)음악학교 예과(預科)에 입학하여 이듬해 3월 수료하였으므로 일본어 실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홍난파는 성서번역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어를 저본으로 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영어를 저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와 일본어 번역서 중 어느 것을 저본으로 사용했을 지에 대한 논거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 엇더케하면그사람들과親하게될가?ㅡ이것이아츰에이러난後의나의첫生覺이엿다。茶를마시기前에나는쓸노나갓다。그러나담밋흐로밧삭가지는안엇다。또한사람도맛나보지못햇다。(홍, 3장, p. 11)
> どうして彼女と知合になつたものだらう？ーこれが朝起きたときの私の最初の考であつた。

お茶の前に私は庭へ行つた、けれども垣根にはあまり近寄らなかつた。私は何人をも認めなかつた。 (이쿠타, p. 13)
「何うすれば、あの人達と眤懇 (ちかづき) になれるだらうか」と云ふのが、翌る朝眼を醒ました時に第一に私の頭に浮んだ考へであつた。
朝のお茶の前に私は又庭へ降りて行つた。併し例の垣の方へは餘り近寄らなかつた。又誰も見え なかつた。 (후지나미, pp. 21-22
‘How can I make their acquaintance?’ was my first thought when I waked in the morning. I went out in the garden before morning tea, but I did not go too near the fence, and saw no one. (Constance, p.20)

둘째, 홍난파 번역의 서지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싶은 결론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진록>에 나타난 일본과 역사의식

김창현(공주교대)

〈 차 례 〉

1. 서
2.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평가
3. 선조와 평수길에 대한 서술에서 나타난 역사 인식
4. 조선과 일본의 신료에 대한 서술과 지도자상
5. 결

1. 서

임진년과 정유년의 전쟁은 한일사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전쟁이었다. <임진록>은 그 상처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상처의 치유를 위한 문학적 몸부림이다. <임진록>은 이 전쟁을 통해 비로소 갖게 된 일본과 일본인, 일본역사에 대한 호기심과 적개심, 그리고 그것들을 균형감 있게 통제하려는 작자와 민중의 관점이 녹아있다. 여기에 나타난 역사의식은 매우 흥미롭다. 작품은 일본의 지배자와 장수들을 만만하지 않은 내력과 능력을 지닌 존재들로 그리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 구축된 일본을 만만하지 않은 국가로 그리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노골적인 대조의 서사가 아니라도, 이 작품에서 일본과 조선이라는 두 나라의 국체와 지배자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일의 대결뿐 아니라 지배자와 백성의 대결이 서사의 이면에 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지점, 일본과의 전쟁이 만들어낸 새로운 역사의식이 허구서사의 형상화를 통해 사회의식으로, 민중의식의 고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임진록>에 서사된 일본을 살피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임진록> 서사군은 다양한 변이를 지닌 여러 이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연구목적에 맞는 이본을 골라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이 <임진록>에 나타난 적국 일본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역사의식을 사회의식, 민중의식과의 관련 속에서 살피고자 하기 때문에 대상 텍스트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구현된 허구서사가 적절하게 균형 잡힌 것을 골라야 한다. 좀 더 단순히 말하면 사실과 허구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비슷하게 혼재하는 이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에 가장 적절한 이본은 상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국립도서관 소장 한문본, 숭전대본, 경판본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한문본은 그 한문이라는 문자의 계층적 성격 때문에 민중의 사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경판은 국문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목판으로 인쇄되어 보급되었기 때문에 여러 계층에 널리 보급되었을 것이고 서민 대중을 포함한 여러 독자층의 요구를 고려하는 내용이 선택, 확장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판각본의 일반적 속성으로 볼 때 지나치게 장황한 내용은 축약하고 가급적 보편적 상식에 맞추어 가는 양상으로 서사가 정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높은 판각비용

과 판매의 용이성 때문에 가급적 적은 판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적 고려와 여러 계층의 잠재적 독자에게 모두 어필하려는 상업적 고려로 인해 이런 경향을 보이는 목판본이 적지 않다. 그런데 경판과 숭전대본은 매우 밀접한 친연성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화소가 겹치고 겹치는 화소 중 특히 사명당의 복수처럼 민중의 여망을 담은 화소들이 경판보다 숭전대본에서 더 자세히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경판에만 있고 숭전대본에는 없거나 경판이 더 자세한 화소들도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이 글은 숭전대본을 중심으로 하면서 서사의 유무와 밀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경판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 두 이본의 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글에서 <임진록>이라고 하면 이 두 이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두 이본의 차이가 확연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판 또는 숭전대본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1)]

2.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평가

전쟁을 겪었다고는 해도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일본은 여전히 미지의 나라였을 것이다.<임진록>은 그 나라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많은 백성들은 임진란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왜군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고 있었겠지만 정작 그 나라의 실체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임진록>은 이렇게 시작한다.

> 각설, 동남해(東南海)에 한 나라가 있으니 국호는 일본(日本)이라, 동서는 육십일 정이요 남북은 팔십이 정이요 팔도가 육십일 주니 삼십오 군이 일 주 되었더라. 조선국 경상도 동래(東萊) 부산포(釜山浦)로부터 수로(水路)로 일본을 가나니 대마도(對馬島) 상거가 삼백육십 리요 집마도 상거는 사백구십 리요 일기도(壹岐島) 상거는 육백사십 리요 철마도 상거는 오백사십 리요 말유관 상거는 칠백오십 리요 표화관 상거는 육백 팔십 리요 병교관 상거는 삼백리요 지우관은 사백이십 리요 오산은 삼백오십 리요 오산은 곧 일본이라, 합하여 사천육백육십 리러라.

한 나라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는 크기이다. <임진록>은 먼저 그 크기를 길이와 너비로 제시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설명한다. 그 비교의 준거는 조선이 될 것이다. ‘팔도가 육십일 주’라는 설명은 그런 준거를 작동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소 추상적이지만 어디에 어떤 산과 강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일반 독자들 대부분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고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문장은 크기와 구조에 대한 가장 짧고 요약적인 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것은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독자들 생각에는 전쟁을 했던 그 나라의 군인들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얼마나 쉽게 올 수 있는 곳인지가 가장 궁금할 것이다. 이 정보 역시 조선을 준거로 할 수밖에 없다. 부산포로부터 시작해 각 지점 사이의 거리를 제시하고, 그 합을 알려준다. 이 ‘상거’의 개념은 일본이 부산포까지 오는 동안의 거점까지 알려준다. 한 번에 오기에는 먼 거리다. 하지만 중간에 거점들이 있으면 올 수 있는 거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본에 대한 설명은 독자의 호기심을 최소한으로 하지만 효과적으

1) 이 글에는 기존연구들과 유사한 내용도 있을 것이다.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기존연구를 살펴 관련지어가며 논의를 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로 채워주는 서술이다.

여기서 일본은 대마도는 물론 집마도, 철마도 등 다른 섬은 물론, 표화관 등마저 제외한 오산으로 지정되는데, 이는 오류라기보다 당시 지방영주가 지역을 통치하고 풍신수길이 그들을 지배하는 방식의 일본 정치체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조정에서 직접 지방관을 파견하는 조선인의 시각으로 볼 때 일본의 각 지방영주는 제후에 가깝게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중일 수도 있는 평범한 독자가 다음으로 일본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은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당시에 이 질문은 그 시원에 닿아있다. 중세 조선에서는 혈통이 곧 정체성의 핵이었기 때문이다.

> 혹 이르되 진시황(秦始皇) 시절에 서불(西市) 등이 동남동녀(童男童女)를 데리고 불사약(不死藥)을 구하러 삼신산(三神山)을 찾아가 얻지 못하고 인하여 그 섬에서 살았는 고로 이제 이르되 서불의 자손이라 하더라. 그 후로 인물이 번성하여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예라 하더니 그 후 고쳐 왜(倭)라 하더라.

민중뿐 아니라 사대부에게도 이런 유래담은 단순한 설화가 아니다. 김시습이 금오신화 취유부벽정기에서 단군신화와 기자 설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처럼 그 기원은 곧 혈통이며 그것이 한 민족을 규정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인물이 번성했다는 등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된 이 내용이 나중에 사명당이 왜왕의 항복을 받는 장면에서 다시 언급되어 일본을 주관적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 왜왕은 들으라. 너희 나라가 근본 진시황(秦始皇)의 신하로 동남동녀 오백 인을 배에 싣고 방장(方丈) 봉래(蓬萊) 영주(瀛州) 삼신산(三神山)에 들어가 불사약(不死藥)을 얻으러 가노라 하고 천자를 속이고 이곳에 도망하여 거짓 신선이라 칭하고 여러 대를 평안히 지내매 또한 조선 덕택이요.

서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일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는 양상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여기서 일본은 천자를 속이고 도망해 온 거짓된 무리로 규정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창검을 맞대었던 적국에 대한 원한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사명당은 왜왕을 항복시키며 해마다 인피 삼백 장을 조공하게 한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 그는 전하 덕택으로 처분에 있삽거니와 소신이 일본 지형을 보오니 산천이 험악하옵고 인물이 간악하와 유화치 못하오매 불구에 다시 반심(叛心)을 두올지라, 그런 고로 인피를 진공하여 차후는 외람한 뜻을 먹지 못하게 함이로소이다.

산천이 험악하고 인물이 간악하다는 평은 다분히 전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 조선민중이 가진 평가를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명국인 조선과의 대비를 통해 더 선명해진다. 일본은 백성의 희생을 슬퍼하면서도 결국 장사 삼백을 뽑아 서로 싸워 죽이도록 해서 인피를 바친다. 이에 반해 조선왕은 인피를 요구했다는 사명당의 말에 '실로 중난(重難)'하다고 하는가 하면, 실제 인피를 바치자 놀라면서 어진 태도로 이를 면해주고 동래관에 번설 일본군사와 무쇠 등으로 바꾸어 준다. 전란 내내 무능하고 답답했던 선조지만 여기서는 문명국

의 왕으로서 지닌 인의의 임금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선 민중의 성정이기도 했다. 더 많은 잠재적 독자를 상정했을 경판은 이 부분을 더 축소해서 사명당이 일왕을 기롱하는 이야기로 만들어 실제로 인피를 바치라고 하지는 않는다. 생불로 일컬어진 사명당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생각했을 것이고, 더 현실적으로는 지나치게 잔인한 내용을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일본에 대해 독자들이 알고 싶은 또 하나의 정보는 그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 신라 혜공왕(惠恭王)이 처음으로 왜란(倭亂)을 보고 또 자비왕(慈悲王)[2]에 이르러 명장 석우(石尤)가 왜란에 죽고 고려왕이 왜로 더불어 결혼하더니 아조(我朝)에 이르러 호남(湖南)을 자주 침노하니 조선이 연하여 왜란에 곤하여 편치 못하더라.

혜공왕의 재위 년이 765~780년이고 자비왕이 458~479년이므로 혜공왕 때 처음 왜란을 만났다는 것은 착오이다. 경판은 이를 그냥 신라 때로 바꾸어 오류를 제거하였다. 하지만 작가가 왜란의 시초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오래되었으며 주로 그들의 침략이 우리를 괴롭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3. 평수길과 선조에 대한 서술에서 나타난 역사 인식

<임진록>이 임진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결국 평수길(平秀吉)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평수길에 대한 설명이 중국 침주의 한 인물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 대명 세종황제(世宗皇帝) 가정(嘉靖)년간에 중국 침주 땅에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박(朴)이요 명은 세평(世平)이니 기선은 박국진이라, 왜인이 자주 강남을 침범하다가 마침내 항주에 이르러 평이 왜인에게 죽고 그 처 진씨(陣氏)는 해내(海內)의 유명한 절색(絶色)이라, 왜인에게 잡힌 바 되어 인하여 살마도 땅에 있는 평신(平伸)이라 하는 사람의 아내 되니 진씨 박세평에게 있을 제 잉태 삼 삭이더니 평신에게 온지 십 삭 만에 한 아들을 낳으니 합하여 십삼 삭이라. 진씨 임산하기에 이르러 한 꿈을 얻으니 황룡(黃龍)이 공중에서 내려와 진씨 품으로 달려들거늘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그 후로 몸이 불평하더니 홀연 향내 방중에 진동하고 붉은 기운이 사면에 자욱하였다. 이윽고 일개 남아(男兒)를 생하니 용모(容貌)가 비상하여 용의 머리에 범의 눈이요 잔나비 팔이며 제비턱이니 짐짓 영웅의 기상일러라. 평신이 대희하여 이름을 수길(秀吉)이라 하고 자를 평운산이라 하니 길(吉)이 삼 세(三歲)에 이르러는 음성이 용의 소리 같고 기이한 일이 많더라. 오 세에 이르매 문장을 능통하니 보는 자 아니 칭찬할 이 없더라.

이 인용문이 평수길에 대한 <임진록> 전체의 평가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평가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평수길의 혈통에 대한 의문 제기, 둘째, 그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상찬, 셋째, 그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그것이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의 서로 상

2) 자비왕 - 신라 20대 왕으로 눌지왕(訥祗王)의 장자임. 이때 왜(倭)가 자주 침범하였음.

반된 평가의 근거에 그의 혈통이 있다. 당시의 관습에서 읽을 때 그의 어머니가 두 지아비를 섬기고 그가 양아버지에게서 자랐다는 것은 그의 어린시절이 험난했다는 것뿐 아니라 그의 인품을 의심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그의 친아버지와 양아버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그의 친아버지가 중국인이라는 이 주장의 신빙성은 높지 않다. 일본에서 들어온 여러 설 중에서 작가가 이 설을 선택했거나 전란 후 그 설들이 와전되어 조선에서 만들어진 설일 수도 있다. 그의 비범성이 일본인의 혈통에서 유래한 것이 아닐 거라는 작가의 관념이 개입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설명이 그에 대한 이중적인 평가와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평수길의 비범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작가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아낌도 없다. 황룡을 품는 태몽에서 향내와 기이한 기운 속에 태어난다는 설정은 영웅의 탄생 그 자체로, 외모를 설명할 때는 영웅의 기상이라고 직설하기까지 한다. 그의 성장 과정 역시 그의 비범한 능력을 문무겸전의 기재로 표현하고 있다.

그의 정치적 성장에 대한 정보부족도 한 이유일 수 있지만, 다른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능력이 그의 출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살마도주는 그의 비범함과 능력만 보고 그를 양자로 들여 병권을 모두 맡긴다.

> 관백이 대희하여 즉시 수길을 데리고 궁중에 들어와 좋은 의복을 입히고 주찬(酒饌)을 먹이며 시사(視事)를 의논하니 대답이 여류(如流)하여 모를 일이 없는지라, 관백이 대희하여 드디어 수길로 지의장군을 명하니 수길이 스스로 그 지략을 헤아리며 주대(周代)의 여상(呂尙)과 한대(漢代) 제갈량(諸葛亮)으로 더불어 병구할 것이요 겸하여 용력(勇力)이 절륜하니 당시 그 재주를 비할 이 없는지라. 이러므로 팔도 영웅이 망중(望重)하여 돌아오니 이로부터 일본국 육십육 주를 통령(統領)하여 위명(威名)이 크게 떨치니 해중의 모든 소국(小國)이 항복하는 자가 많은지라.

이러한 작가의 평가는 선조를 그리는 태도와 비교할 때 선명한 역사의식을 드러낸다. 작중에서 선조는 평수길과 정반대의 인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선조는 비교적 인후하지만 무능한 인물이다. 용력은 물론 지모마저 부족하여 신하들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리며 인재를 내치거나 죽이곤 한다. 작가가 직접 선조를 비난하지 않지만 그런 선조의 모습은 처음부터 매우 선명하게 서술된다. 흔히 등장하는 '상이 반신반의(半信半疑)하시더니', '상이 그 상소를 보시고 의혹하여 결치 못하시더니' 따위의 표현이 그런 이미지를 일관되게 강화시킨다. 이런 이미지는 이여송이 선조를 보고 제왕의 기상이 아니라며 회군하려고 하는 대목에서 극점을 이룬다. 선조의 통곡 소리를 들은 이여송이 용의 소리라며 회군을 멈추기는 하지만 선조의 외모에서는 왕의 기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선묘라 해도 임금을 직접 비난할 수 없던 시대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민중들이 선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선조의 모습은 평수길의 '내 어찌 조그만 나라를 지켜 제후왕(諸侯王)과 같이 하리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선을 치고 인하여 대명(大明)을 엄습하고 천하를 도모코자 하는 '야심만만하고 교만한 모습과 강렬하게 대비된다. 이는 전황이 어려워져 강화를 맺고 봉작을 받는 형편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다.

> 평수길이 처음은 위의를 갖추어 봉작(封爵)을 받으려 하다가 홀연 좌우에게 묻되,
> "조선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 소섭이 대답하되,

“이는 조선 말짜 신하 황신(黃愼)과 이봉춘이니라.”
수길이 대로 왈,
“내 일찍 조선 왕자를 돌려보내었는데 조선이 마땅히 왕자를 보내어 사례함이 옳거늘 이제 지극히 낮은 신하로 사(使)를 삼아 보내었으니 이는 나를 업신여김이라.”
하고 즐겨 왕작을 받지 아니하는지라.

평수길은 결국 사신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이를 핑계로 청정으로 하여금 군대를 데리고 부산에 가 군대를 물리지 않고 버티도록 한다. 기개와 지략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평수길의 위세는 작품의 마지막 완전한 꿈의 문법에 따른 사명당의 복수 이야기에 이르러서야 꺾인다. 이에 비해 어려운 시기 선조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은 매우 현실적이다.

상이 그 말을 옳게 여기사 즉시 좌의정 윤두수와 김명원 이원익(李元翼)으로 하여금 평양성을 지키게 하고 말에 올라 보통문(普通門)을 나실새 판부사 노직(盧稷)이 내전(內殿)을 뫼셔 대가(大駕)를 따라가니 성중이 소요하며 백성들이 노직을 꾸짖어 왈,
“네 진력하여 나라를 도와 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를 버리고 임금을 뫼셔 어느 곳으로 가려 하느뇨.”
하고 막대로 어지러이 치니 노직이 말에서 떨어져 중상하되 종자 능히 금치 못하는지라. 평안감사 송인신이 군사를 호령하여 당장 괴수자(魁首者)를 잡아들이라 하니 모든 백성들이 비로소 흩어지는지라.

평양성을 떠나며 선조 일행이 겪는 수치스러운 봉변을 여과 없이 서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진록>에는 도성을 떠나는 선조 일행을 원망하는 백성의 모습과 심지어 굶주린 군졸들이 선조가 진어할 음식을 빼앗아 먹는 이야기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술자가 이런 백성이나 군졸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당시 <임진록>의 향유자들이 지닌 역사의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백성들에게 충이라는 준거를 들이대지 않는 것은 전란의 책임이 백성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중들은 유능하고 비도덕적인 적국의 군주와 무능한 자기나라 임금 사이에 있었던 것이 자기들이 겪은 전란의 고통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며 이것은 중세적 세계관에 균열을 가하는 심각하고 중요한 역사인식이었다.

4. 일본과 조선의 신료에 대한 서술과 지도자상

평수길과 선조에 대한 평가는 한편으로 그들을 둘러싼 신하들에 대한 평가일 수 있다. 군주의 무능이나 부덕은 때로 그들을 보필하는 신하들의 태만과 부덕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임진록>은 상당히 선명하고 대조적인 서술을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장면이 왜팔장의 조선 염탐이다.

“뉘 능히 나를 위하여 먼저 조선에 나아가 허실을 탐지하여 올꼬.”
말이 마치지 못하여서 팔장(八將)이 일시에 뛰어나와 이르되,
“소장 등이 원컨대 이 소임을 당하리이다.”
하거늘 돌아보니 제일은 평조익(平調益)이요 제이는 평조신(平調信)이요 제삼은 평조강이요

제사는 안국사(安國史)요 제오는 선강정(善江丁)이요 제육은 평의지(平義智)요 제칠은 경감로(景監老)요 제팔은 송인현소라. 평수길이 대희 왈,

"경 등이 힘써 일을 이루면 반드시 중상이 있으리라."

평수길은 왕도 아니고 쇼군도 아닌 관백에 불과했다.[3] 게다가 <임진록> 서사로만 보아도 그 출신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관백의 양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신료들은 서로 공을 다투며 충성을 다한다. 또 이들은 전쟁과 전투에 능하다. 전란을 일으키기 전 위의 팔인은 저마다 한 도씩 맡아 3년간 사전염탐을 한 뒤 부산에 모여 일본으로 돌아가 평수길에게 조선의 허실을 보고하고 조선지도를 바친다. 이렇게 치밀한 준비를 한 위에 청백세와 같은 장수는 전쟁의 과정을 거의 정확히 예측하는 지모를 보여주기까지 한다.

"이제 만일 조선을 치고자 할진대 날랜 장수 넷을 뽑아 네 길로 나아가되 북해를 건너 부산지경에 이르러 두 장수는 수로로 행하여 조선국 삼남(三南)을 엄습하면 조선왕이 반드시 평안도(平安道)로 달아날 것이니 우리 군사를 거느려 그 도성을 웅거하고 일지병을 보내어 평안도를 엄습하고, 또 두 장수는 수로로 행하여 서해에 둔병(屯兵)하고 또 일지병을 보내어 압록강(鴨綠江)으로 나아가 북로를 막으면 조선이 비록 중국에 구원병(救援兵)을 얻고자 하나 어찌 능히 통하리요. 이리 한 후에 우리 능히 대병을 몰아 두 편으로 협공하면 조선왕(朝鮮王)을 능히 사로잡을 것이니 조선을 얻은 후 즉시 군사를 옮겨 평양에 둔하고 조선 군사로써 요동(遼東)을 치게 하고 우리 군사로 하여금 중원(中原)을 엄습하면 천하를 가히 도모하리라."

이 예측은 이순신이 지키는 서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들어맞게 된다. 이렇게 일본의 신료들은 유능하면서도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고 철저히 평수길의 명을 따른다. 이에 비해 일본의 방자한 국서를 받고 긴장감이 조성된 상황에서도 조선의 신료들은 무능하고 분열되어 있다. 일본을 다녀온 윤길은 전쟁의 동정이 없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유홍 같은 신료는 병기를 마련하여 변을 대비하라는 전교수 조헌의 상소마저 민심을 소요케 한다며 정배하도록 상주한다. 무능한 임금과 무능하고 분열된 신하들의 결합이 전란을 준비할 최후의 기회마저 앗아간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임진록>은 이렇게 진단한다.

수길이 비로소 큰 뜻이 원대하고 우익(羽翼)이 많음을 인하여 드디어 황제를 폐하여 신성군을 삼고 제호를 칭하며 원을 고쳐 문득이라 하니, 차시는 아국 조선 선묘(宣廟)적 시절이라. 이백 년 승평(昇平)함을 인하여 상하인민이 재물을 탐하고 병기를 다스리지 아니하니 시사의 해이함이 이에 극하더라.

이웃나라에는 야망과 큰 세력을 가진 지도자가 권력을 잡았는데, 이백년의 평화를 누려온

3) 숭전대본의 경우, 평수길은 처음에 황제위에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관백으로 지칭되고 마지막 사명당의 복수 이야기에서는 일왕과 관백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관백은 단순히 일왕의 신하로만 행동한다. 경판에서도 이런 혼선이 느껴지지만 중간에 왕과 관백이 따로 있다는 설명이 나오는 등 혼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는 <임진록>이 임진과 정유의 난에 대한 여러 서사를 아우르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각 <임진록> 이본의 최종 작가는 편집자적 역할을 했고, 각편 서사의 원작자는 여러 명이었던 것이다. 적어도 이 원작자군의 일부는 일본의 정치체재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런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조선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탐욕과 해이함에 빠져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입각한 <임진록>은 선조의 신료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전란 초기의 서사는 왜군에 저항조차 못하고 달아나거나 포기하는 장수들과 이들을 믿거나 따르지 않는 군사들의 모습을 연달아 보여준다. 심지어 용맹하다고 알려진 신립 같은 장수조차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어이없이 대패한다.

> 신립이 대경하여 진 치거늘 제장(諸將)이 왈,
> “이곳이 진칠 곳이 아니라, 적이 만일 이르면 진실로 두용에 든 파리 같은지라.”
> 한대 신립이 왈,
> “옛적 한신(韓信)이 조(趙)를 칠 제 배수진(背水陣)으로 크게 이겼으니 우리 군사 본디 전장에 익지 못하고 또한 겁이 많아 도망할 마음만 두었으니 반드시 죽을 땅에 둔 후에야 힘써 싸우리라.”
> 한대 제장이 이르되,
> “한신은 적군의 허실(虛實)을 알아 어린 아희 보듯하므로 요행히 이겼거니와 장군이 이제 조그만 군사로써 능히 무수한 적을 당하리요. 만일 이기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살지 못하리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임진록>에 담긴 조선민중의 역사관은 그것이 아니다. 용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용맹은 더 나쁘다는 게 <임진록>의 시각이다. 이것 역시 이념의 시대인 중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시각이다. 부하 장수들의 간언을 물리치고 군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신립의 모습에 <임진록>은 연민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서술태도를 보여준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가 없어 조선이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니라는 게 <임진록>의 시각으로, 일본 신료조차도 조선의 인재 많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조선을 치고 대명을 통합코자 하실진대 반드시 조선을 무사히 지난 후에야 바야흐로 중원에 들어가오리니, 조선은 본디 예의지방(禮義之邦)이라, 현인군자 많으니 가볍게 도모치 못할지라. 조선을 치고자 할진대 마땅히 지용이 겸비한 사람을 가려 먼저 조선에 가 강약의 형세를 탐지하며 산천의 험세(險勢)를 살핀 후 동병(動兵)함이 늦지 아닐까 하나이다.”

사실 <임진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용되지 못하고 은거하던 인재들의 활약상을 그린 것이다. 왜장 평의지는 염탐 단계에서 토정 이지함을 만나 목숨을 구걸하고 삼척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풀려난다. 이들 인재들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덕령이다. 그의 죽음은 무능하고 비겁한 군신이 어떻게 인재를 몰아내고 죽이는가 하는 서사의 한 전형이다. 그는 나라를 위하여 왜적을 물리쳤지만 적과 만나고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는다. 군신은 두려움에 눈이 멀어 충성스런 인재를 죽이는 것이다. 그것은 적에 대한 공포이며 동시

4) 이에 비해 탄금대 전투와 관련된 신립의 설화에서는 그의 패배를 처녀나 과부의 연정을 받아주지 않은 탓으로 돌리는 등, 신립과 탄금대 전투의 패전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임진록>이 문자로 정착된 고소설이고 또 임진년 전투의 이야기를 모아 전쟁이라는 주제를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 더 냉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 힘 있는 인재에 대한 공포이다. 이들은 스스로 나포되어 온 김덕령이 적과 내통했을 까닭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심지어 자기들 힘으로는 죽일 수조차 없어, 덕령이 스스로 자기 죽이는 법을 일러주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죽인다. 임금이 스스로 '만고충신 김덕령'이란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백성을 죽이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유능한 이를 잠재적인 적이나 경쟁자로 간주하는 풍토에서는 인재가 등용되고 성장하기 어렵다.

<임진록>에 비친 일본은 이와 다르다. 평수길이 오직 능력으로 권좌에 오른 것은 상술했거니와 왜장들은 도처에서 인재를 알아보고 대우한다. 한 왜장은 유정의 비범함을 발견하자 청정에게 그를 곁에 두고 대소사를 의논하라고 천거한다. 적국의 승려일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활용하려는 태도이다. 청정도 유정을 잘 대접하며 그에게 고금의 전란에 대해 묻는다. 유정이 일본을 대놓고 비판하자 화가 나 그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의 비범함을 인정해 돌려보내준다. 왜왕은 일본을 정벌하러 간 강홍립과 김응서에게 누이와 공주를 주면서까지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에는 물론 <임진록> 향유자들의 평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임진록>이 가장 긍정적인 필치로 묘사한 조선의 신료는 단연 이순신과 유성룡이다. 이 중 유성룡은 이순신을 천거한 인물이기도 하다. 선조의 신하들 중 충성심이나 인재를 쓰고자 하는 의지 등에서 가장 나은 인물이다. 물론 유능하지만 그의 역할은 선조를 보좌하는 전형적인 신료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순신은 다르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서 다분히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이순신은 분명하게 새로운, <임진록>이 지향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유능한 지도자이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이다. 그에게 자기의 군사와 백성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 이익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적의 간교한 책략을 이미 알고 있는 그는 부하들을 험지로 몰아넣지 않기 위해 왕과 조정의 명에도 따르지 않는다.

> 정유(丁酉) 이 월에 순신이 나명(拿命)을 만나 장차 경성을 향할새 일로의 군민이 길에 메여 이르되,
> "이제 장차 어디로 가시느뇨. 우리 등이 이로 좇아 능히 죽기를 면치 못할까 하나이다."
> 하더라. 순신이 이미 행하여 경성에 이르매 혹 이르되,
> "상이 노하시고 조정 의논이 또한 중하니 일을 가히 중량치 못하리라."
> 한대 순신이 이르되,
> "사생(死生)이 유명(有命)하니 어찌 죽기를 두려하리요."
> 하더라.

이순신은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있지만, 목숨을 걸고 잘못된 명에 따르지 않았다. 자신의 충성심과 용맹이 의심받는 상황이었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패배하지 않는 것이다. 패배는 당장은 군사들의 죽음이고 멀리는 백성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다. 우리는 앞에서 <임진록>이 충이라는 이념적 준거를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적어도 무능한 복종과 무모한 용맹보다 유능함과 책임감이 더 낫다는 게 <임진록>에 드러난 역사인식이다. 하지만 <임진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위 장면은 어쩔 수 없이 선조가 도성과 평양성을 버리고 떠날 때 모습과 비교된다. 백성들은 이순신이 없으면 자기들이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의 이념이나 용맹함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그의 유능함과 책임감에 대한 의

지이다.

> 상이 그 말을 좇아 순신을 기복(起復)하여 통제사를 삼으니 흩어진 장사 이 소식을 듣고 점점 모이는지라. 순신이 즉시 군관 십여 인과 군사 수십 명을 거느려 진주에서 급히 달려 옥과(玉果)에 이르니 도내 사민이 길이 메여 순신의 오는 양을 바라보고 건장한 군민은 그 처자에게 이르되,
>
> “우리 사또 이르니 너희들이 죽기를 면하리라, 우리는 먼저 가나니 너희 등은 차차 오라.”
>
> 하더라. 순신이 행하여 순천에 들어가니 백성이 따르는 자 부지기수라. 병기를 수습하여 보성에 이르니 군사 이미 수백여 인이라.

권력은 어떤 이에게 주어져야 하는가? 군사와 백성이 단지 이순신의 휘하에 들어가기 위해 저절로 모인다. 앞에서 권력을 잃은 이순신에 죽음을 예감하던 백성들이 이순신에게 권력이 주어지자 그를 돕기 위해 뭉치는 것이다. 그를 돕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개 무장의 모습이 아니다.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군사가 모이고 생존의 길을 열어주어야 백성이 따른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고 능력이다. <임진록>에서 이순신 서사가 차지하는 비중과 서사의 형상화 수준에서 볼 때 이순신이 <임진록>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가 임금보다 더 이상적인 지도자로 부각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임금에 의해 억울하게 나포되고 고문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다. <임진록>의 이순신 서사에 그려진 민중들의 모습마저 사실이라면 선조에게 이순신은 가장 두려운 정적이었을 것이다.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한 일부 이본이 이순신의 죽음에 자살의 의도가 있었다고 서술하는 것은 숭전대본과 경판본에서 이미 그 기초가 놓아졌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김덕령의 죽음과 궤를 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완성판이 된다. 선조는 인재를 쓸 수 없는 임금이며, 결코 백성을 지킬 수 없는 임금이며,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임금이어서는 안 되는 임금이 된다. 이렇게 <임진록>은 임금에 대한 충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5. 결

문학은 한편으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일으킨다. 그것은 작가의 의도에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당대인들의 생각과 현실을 반영하다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미학적 이데올로기가 서로 대립되는 경우가 많은 건 그 때문이다. <임진록> 숭전대본과 경판의 경우에는 전쟁과 관련한 여러 인식과 평가들이 기존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혹은 대항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충과 같은 이념이나 용맹과 같은 그런 가치를 향한 태도보다도 능력과 책임감이 더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사대부의 나라 조선의 군신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었을 것이고, 전쟁 전에 비해 전쟁 후 지배층과 민중 사이에 더 큰 의식의 차이가 생겨났음을 의미할 것이다. <임진록>의 작가들은 전쟁을 서사하면서 알게 된 또 상상해 본 일본과 일본의 지도자, 신료들의 모습과 조선의 군신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임진록>에 나타난 조선과 일본의

지도자와 군신을 비교하고, 또 이순신과 선조를 비교하면서 그것이 민중들의 역사와 지배층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 간 일단을 볼 수 있었다.

이 글은 일단 숭전대본과 경판본에 한정된 고찰을 하였다. 상상력이 더 보태어지면서 민중들이 이 두 이본에 드러난 생각을 전면적으로 확장한 이본이나 상업적 요구에 따라 통속성을 확장하면서 보수화하거나 난삽해진 이본들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가 뒤따르길 희망한다.

【토론문】

“<임진록>에 나타난 일본과 역사의식”에 대한 토론문

신태수(영남대)

발표자는 상기 제목의 논고에서 <임진록>에 나타난 일본의 형상과 필사자의 역사의식을 살폈습니다. 초점은 일본의 형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형상은 왜국이라는 국가의 정보와 의병들의 활약상과 사명당의 왜국 정벌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형상을 모두 담고 있는 이본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4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4종 가운데서 발표자께서는 <숭전대본>과 <경판본>을 가려뽑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논점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택했다고 할 만합니다.

<숭전대본>과 <경판본>은 대체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면서도 여타 이본군의 특징을 잘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용상의 이항 대립이 여타 이본군에 비해 비교적 뚜렷한 편입니다. 이항 대립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항과 조선 내부의 다양한 대립항이 그것입니다. 전자의 사례로는 선조와 평수길, 조선 군대와 왜국 군대, 조선 장수와 왜국 장수 등의 대립 상황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사례로는 상층장수와 하층장수, 비굴한 상층인과 용감한 하층인, 목소리가 뚜렷한 평민층과 목소리가 희미한 양반층 등의 대립 상황을 들 수 있다. 전자의 사례는 대체로 역사적 맥락과 궤를 같이 하고 후자의 사례는 대체로 역사의 심층적 지향가치와 궤를 같이 합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임진록> 연구에 있어서 전자와 후자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이에 입각해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께서는 대부분 전자의 사례에 치중해 있는 편입니다. 후자의 사례를 고려하면서 일본의 형상을 부각시켰더라면, 보다 치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발표자께서는 2장 말미(6쪽)에 민중들의 의식세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중들이 적국의 군주는 유능하고 자국의 군주는 무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런 인식이 중세적 세계관에 균열을 가하는 요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므로, 논증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발표요지문에서는 이 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논문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흔히들 오늘날을 제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지칭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으로는 ‘인간 같은 기계’와 ‘문제 만드는 능력’을 추구하며, 창의력, 상상력, 정보통신기술이 가미된 문화콘텐츠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임진록>은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 첨예한 이항 대립을 풍부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의 좋은 소재가 되리라 봅니다. 발표자께서 이에 대해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에 대하여

서경숙(서울대)

〈 차 례 〉

1. 머리말
2. 일본법 이식과 일본어투 표현
3. 판결서 속의 일본어투 표현
4. 결론

1. 머리말

법은 언어로 기록되고 재판은 언어로 논쟁하게 된다.[1] 법은 언어로 법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판단의 정확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결국 법은 언어라는 구조물을 통해 사법 권력을 행사한다.[2] 이렇듯 언어와 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일반인이 법의 언어[3]를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법 언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법률 용어가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이다. 어휘나 문법 측면에서 잘못된 표현이 많다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본고에서 다루게 될 일본어투 표현도 한몫 거들고 있다. 본 연구는 대법원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법체계가 성립될 무렵부터 일본법이나 일본의 법률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왔기 때문에 일상 언어 규범과는 괴리된 법 언어가 탄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법전의 충실한 해석에 기초한다는 점에서도 법전에 녹아든 일본어투 표현이 판결서에도 녹아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서에 나타난 일본어투 표현의 양상은 어떠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판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되면서 판례로서 자리 잡게 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실로 크다. 대법원에서는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을 판례 공보에 수록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일반에 알리는데 공보에 실린 판결서는 법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이나 변호사, 학계에서 참고한다. 특히 법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는 판례가 곧 교과서의 역할을 하므로 예비 법조인인 그들에게 판결서의 판결 논리는 물론 문체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논의에 앞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둔다. 대법원 판결은 부(部)와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진다. 대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사된다. 이때 부에서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이 선고된다. 그러나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대한 재판일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모두가 모여 다수결로 판결하게 된다. 즉, 헌법이나 법률에

1) 서경숙 · 니시야마 치나 공역, 『법과 언어, 법언어학으로의 초대』, 박이정, 2016, 15면.
2) 배종대·이상돈 편역, 『형법정책』, 세창출판사, 1998, 116-117면.
3) 언어학과 법의 학제적 학문을 '법의 언어학'이라 부른다. 법언어학(forensic linguistic)과 법과 언어(language and law)를 아우르는 말이다. 이 분야에서는 주로 법 언어와 사법 과정(주로 재판)의 언어를 언어학적 입장에서 연구한다.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재판이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이나 법률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열리게 된다. 최근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2018년 11월 1일 선고 2016도10912) 판결이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8년 10월 20일 선고 2013다61381) 판결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원합의체가 내리는 판결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공시적 합의라는 점에서 통상의 판결과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정치적 의미도 가지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에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배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1) 원고 2는 기숙사의 사감에게 일본에서 일한 임금이 입금되어 있던 저금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사감은 청진에 도착한 이후에도 통장과 도장을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청진에서 하루 12시간 동안 공장건설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면서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1)은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배상 판결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기숙사의 사감’은 ‘寄宿舎の舎監’을 떠올리게 한다. の가 없는 ‘기숙사 사감’이 더 국어다운 표현일 것이다. ‘입금되어 있던 저금통장’도 상당히 일본어스러운 어감을 풍긴다. ‘入金されている’가 떠오르는 것은 우연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중대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서 판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였을 것인데도 일본어 표현이 판결서 안에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판결서라는 장르적 글쓰기에 일본어 표현이 고착화되어 있다.

본고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본어투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서에 집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적인 판결을 뒤집는 판결로 새로운 판례가 되어 하급심에서 유사한 재판이 있을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서가 법조계에서 일종의 글쓰기 모범으로 답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숙련된 법 전문가들의 전형적인 글쓰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경력 20년 이상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이들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0년 이상의 법관들로 구성되며,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즉 대법원의 판결서는 법조계 전문가로, 그 영역에서 개인의 개성적 글쓰기보다는 수년간의 직업적 경험에 따른 장르적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일본법 이식과 일본어투 표현

2.1. 일제의 일본법 이식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략하면서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근대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타율적인 근대화를 경험하게 된다. 법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제 주도하의 개혁이었으므로 일본식으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예견된 결과였다. 조선의 실정에 맞는 법 제도의 개편이나 개혁이라기보다는 일본법 체계의 이식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지도 모른다.

1908년 일본 제도를 모방한 재판소구성법에 근거해 설치된 법원에 다수의 일본인이 법관으로 임명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어는 법정의 공용어가 되고 일본의 사법 제도가 한국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10년 한일합방을 계기로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본격적인 법적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일제는 '조선에시행할법령에 관한건'(1910년)을 제정하여 일본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12년 조선총독부의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에 따라 일본 민법과 상법이, 그리고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따라 일본 형법이 의용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법 체계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해방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미군정은 점령지의 통치 편의를 위해 일제의 법령을 그대로 존속시켰다. 조선은 외형적으로 일제의 압제에서는 벗어나기는 했지만 총독부가 시행한 법률의 효력은 조선 내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설치된 법전편찬위원회(法典編纂委員會)는 민법, 형법 등의 기본법제의 제정사업에 착수하였다. 1953년에는 형법이 제정되었고 1958년에는 민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다수의 일제법령들은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1960년 초까지 그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 후 5.16 군사쿠데타로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7월 15일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구법령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일제의 법령은 완전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4] 이것으로 우리는 형식적으로나마 자주적인 법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법률 용어를 들여다보면 거의 일본법 그대로였다. 결국 현행 한국 법령에 일본식 법령 용어의 영향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강화되었고 우리는 일본 법학의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그대로 계수(繼受)한 것에 불과했다.

이처럼 일본법을 충실히 번역하여 그대로 들여왔기 때문에 법전과 법률 용어는 여전히 일본 법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5] 심지어 새로운 법령의 제정 과정에서도 일본 법령을 그대로 차용하는 사례도 있으며, 오역으로 인한 잘못된 용어와 문장이 그대로 우리 법전에 정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6] 일본어식 법령 용어와 일본어투 표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국 법령의 커다란 숙제 중의 하나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일본법도 자생적으로 탄생한 것은 아니다. 메이지 시대에 영국법과 프랑스법에 독일법을 차용하였다.[7]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매우 이질적인 서구법의 계수기였으므로 법령 용어의 혼재와 번역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영어, 프랑스, 독일어의 오역과 부적합한 번역이 불가피했다.[8] 이러한 이유로 일본 법전은 일본에서조차 난해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혼합법적 성격을 띤 난해한 일본 법전을 번역 수준에서 그대로 차용한 우리의 법전은 이러한 난해함을 태생적으로 잉태하고 있었다.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4) 박병호,「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法學論文集』, 26-2, 2002, 13면.

5) 일본식 한자어(和製漢語)를 기초로 성립된 것이 많은데 상당수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引渡, 組合, 株式는 'ひきわたし', 'くみあい', 'かぶしき'와 같이 한자로 쓰기만 하고 훈독하는 순수한 일본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한자음으로 음독하여 수용하였다.

6) 일본 번역을 그대로 차용하였기 때문에 오역이 심각하다. 문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흔히 알려진 예로 『춘희』를 들 수 있다. 프랑스 사실주의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가 쓴 『춘희』는 비극적인 사랑을 낭만적으로 표현한 소설 작품이다. 실존했던 파리의 고급 매춘부를 모델로 하여 남녀 주인공의 애틋하고 애달픈 사랑을 그린 뒤마의 대표작으로, 연애 소설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이 소설의 원제목은 '동백꽃을 들고 있는 부인'이었고 일본어로 번역되었을 때도 '椿姫'였다. 일본어로는 동백나무를 'つばき(椿)'라 했으므로 춘희가 'つばきひめ', 즉 동백 아가씨를 의미한다. 훈독으로 읽던 일본어를 음독으로 읽어 차용한 어리석은 재차용 사례인 셈이다.

7) 메이지 초기의 서구법 계수의 모델은 영국법과 프랑스법이었으나 그 후 메이지 정부의 절대적 통치체체가 확립되면서 서구법 계수의 모델국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프로이센, 즉 독일로 급선회하게 된다. 절대주의적 통치체체를 확립한 메이지 정부로서는 전형적인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던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절대주의적 자본주의를 지향하던 프로이센의 법제를 모범으로 삼고자 했다.(박종호 2002: 20-21)

8) 정종휴, 「비교법적 시야에서 본 한국민법전」, 『법사학연구』, 12호, 133면

용어와 문체가 법전에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난해한 법전의 문체와 일본어투 표현은 법전을 교과서로 삼는 법률가 집단에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판결서에도 고스란히 묻어나게 된 이유이다.

2.2. 일본어 간섭과 일본어투 표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에서 일본어는 정복자의 언어로서 조선의 공식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일본어는 교육과정은 물론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제도권의 공적인 업무에 두루 사용되는 압도적인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 조선어는 민족어, 일상어의 지위에 머무르게 되었다. 즉, 제도권 교육은 일본어로 실시되었으며 행정 관청 등에서도 공식 언어로 일본어만을 사용해야 했다.

1930년대 말에는 조선어 말살 정책이 절정에 달해 일상생활에서도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일본어는 지배자의 언어로서 오랫동안 조선에 군림하면서 조선어도 일본어의 영향을 받게 된다.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어의 위치를 치지한 일본어는 더욱 비호되고 일개 민족의 언어로 전락한 조선어는 일상적인 사용조차 금지되기에 이른다. 이후 일제는 언어에 이어 성씨마저 일본어로 바꾸게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어에 일본어 간섭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일제 압제 속에서 태어난 세대의 조선어 실력은 형편이 없었다. 학생들은 조선어를 정식 글로서, 언어로서 학습한 경험은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생활이나 수업 시간에는 오직 일본어만이 허락되었고 사고의 도구어로서 조선어가 설 자리는 없었다.

> (2) (전략) 우리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공립학교였기 때문에 일본어 사용이 다른 학교보다 철저했다. 날마다 종례 때에는 ‘국어(일본어) 상용의 맹세’라는 것을 ‘황국식민의 맹서’와 함께 큰 소리로 제창하면서 우리는 별 의심도 없이 일본어를 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사립학교 학생들보다 잘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까지 했다. (중략) 그러다가 해방이 되어 우리는 10월에 이화여자대학교에 편입되었다. 일본어 교과서나 참고서의 사용이 일체 중단되고 우리말 강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한글을 전혀 안 쓰던 학생들이 갑자기 우리말로 필기를 하자니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일본 발음의 한문 술어만 들어오다가 우리말로 발음되는 말들은 생소하여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우리말 교과서가 미처 만들어지기 전이라 노트가 유일한 의지인 학생들은 필기를 하다가 못 알아들을 말이 나오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교수는 칠판에다 한문자를 써 주는데 이런 일은 몇 마디마다 되풀이되었다. 그러니 진도는 한 학기가 다 가도 예정표의 5분의 1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한문자를 못 알아들을뿐더러 우리는 철자법도 몰랐다. 학교에서 배운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언문이라고 불리던 우리 글자를 알기는 아는데 각자 자기 방식대로 되는대로 쓰고 있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개학한 지 한 달 만에 철자법특강을 전교생을 위해 열어 주었다.[9] (하략)

(2)를 통해 해방 이후 학생들이 조선어로 학습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학습 언어로 일본어가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지식인들의 조선어 구사 능력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수의 지식인이 일본 유학을 경험하였고 일본어로 고등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인이나 교육자들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은 피할 수 없이 일본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는 일본어의 기초 위에 우리말의 문어

9) 나영균,「시대와 말」,『새국어생활』,제7집 제4호, 1997, 255-256면

를 사용한 예도 많았다. 김윤식(1974)에 따르면 현대문학을 시작한 많은 작가들이 처음에는 일본어로 작품을 쓴 경험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14세에 일본 유학길에 오른 이광수, 일본 유학파인 정비석과 이무영도 모두 일본어로 첫 작품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10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고등 교육을 받은 염상섭과 전영택, 현진건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은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일본어의 토대 위에 조선어의 문어가 형성된 것이다. 정광(1995)과 김광해(1995)의 지적대로, 실상 그들은 일본어를 일본인만큼 능숙하게 다루는 이중언어 구사자였다.

(3) ㄱ. 가정교사 강 엘리자베트는 가르침을 끝낸 다음에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ㄴ. 또는 거기는 조금도 상관없는 다른 공상이 속속히 그의 머리에 왕래하였다.
ㄷ. 엘리자베트는 작은 소리로 날카로운 부르짖음을 내었다.

(3)은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에 나오는 몇 문장이다. (3ㄱ, ㄷ)은 일본어투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3ㄴ) '왕래하다'는 국어에서 자동사로 사용되어 'NP1이 왕래하다'가 된다. 혹은 타동사로 사용되어 'NP1이 NP2와 왕래하다'(그와 왕래하고 지낸 지 꽤 오래되었다.), 'NP1이 NP2를 왕래하다'(홍 씨는 중국을 왕래하며 많은 돈을 벌었다.)로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용법에서 '머리에 왕래하다'는 어색한 표현이다. 그러나 일본어에서 '往來'가 조사 'に'를 취한다는 점, 그리고 '생각 등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함.'이라는 주변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볼 때 (3ㄴ)은 일본어의 간섭으로 판단된다.

일본어가 상당히 능통했던 문인들의 작품 속에 사용된 우리말의 어휘나 구문이 일본어의 영향과 간섭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조선어로 문어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사용한 우리말 문장은 일본어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어서 문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은 문학 작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우리말 문장 언어 전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10]

광복 이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직접 차용이 어렵게 되었고 일제의 잔재 추방, 외색 문화 추방이나 우리말 순화 등의 노력으로 일본어 요소도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인적 요소가 각계 각층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11] 국어와 일본어가 접촉을 멈췄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돌아와, 법관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법관들의 조선어 실력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당시 사법권은 온전히 조선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조선의 법관들은 다수의 일본인 법관에 예속되고 법정에서는 당연히 일본어가 사용되었다. 당시 법관들도 일본 유학을 통해 법을 배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본어도, 일본 법전도 상당히 친숙했을 것이다. 해방 직후에도 법전이나 사법 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원에서 판결서를 집필하던 판사들은 해방 전에는 일본어로 실무를 보았고 해방 이후에는 동일한 재판 절차에 따라 한국어로 판결서를 작성하였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문장 구조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해방 이후에 판사들은 일본어의 간섭을 받은 우리말 문장을 통해 판결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판결서들은 큰 저항감 없이 후배 판사들에 의해 판례로서 인용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전통 아닌 전통이 관습이 되어 일상어와 동떨어진 판결서의 문체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

10) 정광,「일본어투 문장 표현」,『새국어생활』제5권 제2호, 국립국어원, 1995, 93면.
11) 송민,「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제14호, 국립국어원, 1988, 28면.

인다. 이렇게 보면 민법, 상법, 형법, 등의 우리 기본법들이 진정한 의미의 조선어 원어민에 의해 제대로 작성된 적이 사실상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12)]

요컨대, 일본어투 표현은 조선어와 일본어의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후 이중언어 환경은 사라졌지만 일본 법전을 차용한 한국 법전이 크게 변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는 법률가에게 일본어투 문체와 표현이 부지불식간에 스몄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판과 판결 업무의 특성상 선행 판결 사례와 상충을 막기 위해 선례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일본어투가 스민 판결서를 답습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작성되는 판결서에도 일본어투 표현이 침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판결서 속의 일본어투 표현

3.1. 기존 논의

어휘의 차용이 가장 손쉽게 일어나며 문법 요소나 통사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가 있다. 두 언어의 접촉에서 차용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이 어휘 층위이고 문법이나 구문 층위에서는 매우 드물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본격적인 일본어 영향을 받기 이전의 근대국어에 비하여 현대국어 문어에서 매우 다른 문장 구조와 관용적 표현이 생겼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지나친 데서 비롯된 것이다.[13)]

언어 간섭이 어휘 층위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문법이 유사한 언어에서는 통사 층위의 간섭도 일어나게 된다. 통사 층위의 간섭의 가능성은 송민(1988)에서 처음 지적되었고, 이후 정광(1995), 김광해(1995) 등에서 지지되었다.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통사 구조를 ‘-고 있다’, ‘-있을 수 있다’, ‘있어야 할’, ‘던 것이다’와 지나친 피동형과 사동형 등으로 언급되었다. 이후 홍사만(2004ㄱ), 홍사만(2004ㄴ), 김문오.홍사만(2003) 등에서 법전에 남아 있는 일본식 법률 용어나 표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도 언어 간섭은 어휘 층위는 물론 문법 층위나 표현 층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두 언어의 구조가 유사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으며, 두 언어를 모두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구사자 혹은 이중언어 구사 환경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3.2. 대상 자료와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에서 2018년 현재까지 공개한 전원합의체 판결서 199건을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도서관 인터넷 사이트에서 2006년 판결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연도별 공개 건수는 <표1>과 같다.

<표1> 연도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판결서

12) 김동욱, 「한국 민법조문의 문법표현에 나타난 일본어의 영향」, 『일어일문학연구』 제51집 제1호, 한국일어일문학회, 2004, 415면.

13) 정광,「일본어투 문장 표현」,『새국어생활』, 제5집 제2호, 1995, 87-88면.

선고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10	17	16	8	13
선고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16	28	16	11	20
선고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13	14	17		
총	**199건**				

PDF로 된 199건의 판결서를 text 파일로 모아 AntConc로 용례 검색을 하였다. 20건의 판결서를 대상으로 샘플 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일본어투 표현을 중심으로 용례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 자료에 태깅 작업을 하지 않아 정치한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일본어투 표현을 유형화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 20회 이상의 출현한 용례를 분류하여 3.2.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일본어투 표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 민법 혹은 일본국헌법을 수록하여 비교하였다.

3.2. 대법원 판결서의 일본어투 표현

3.2.1. 잘못된 어휘 사용

1. 적的의 남용

'적(的)'은 일본어투 표현의 전형으로 인식되는데 1910년대 이후 소설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퍼지게 되었다. 접미사 '-的'이 결합된 단어는 일본어에서 그대로 차용된 경우가 많으며 용법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김광해(1995:14)에서 지적하였듯이, 접미사 '-的'이 노걸대(老乞大)나 박통사(朴通事)와 같은 백화문 자료에서 사용된 몇 예를 제외하고는 개화기 이전에는 거의 출현하지 않았다. 메이지 시대 야나가와(柳川春衫)가 romantic을 浪漫的이라고 번역한 데에서 유래한다. 한자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영어 romantic의 발음과 비슷한 ろうまんてきが 되기 때문이다.[14] 특히 -tic에 발음이 유사한 '-的'을 붙여 표현한 것이 이후에 유행하면서 다양한 단어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15]

(4) ㄱ. 채권은 '소멸'을 전제로 하는 한시성을 <u>기본적</u> 성질로 하고 있고, 민법은 만족되지 않은 채권의 소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만족되지 않은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2018다22008)

ㄴ.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u>행정편의적인</u> 확장해석이

14) '낭만(浪漫)'은 한자어를 음차하여 만든 신조어다. 발음에 상응하는 한자어를 신중히 골라 조합하여 탄생한 번역어가 바로 浪漫이나 浪漫主義이다. 조합된 두 한자를 들여다보면 물결칠 浪과 질펀할 漫이 눈에 들어온다. 음차와 동시에 의미도 함께 담아 보려는 번역가의 노력을 깨닫게 된다. 낭만이라는 소리 뒤에 숨어 있는 '물결치고 질펀한 무엇', 즉 '내적으로 넘쳐나는 자아의 충동과 그것의 분출을 의미'를 '낭만'이라는 단어에 담아 내었다.

15) 안찬원, 「교과서 속 일본어투 표현」, 『한글』제315호, 한글학회 2017, 107면.

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2015두45700)

ㄷ. 평시에도 항상 전시를 대비하여 집단적 병영생활을 하는 군 임무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군사법원 체제가 전시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미리 조직·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2016초기318)

ㄹ. 이러한 항소심 실무관행은 제1심의 양형을 최대한 종중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남항소를 조장하고 종국적으로는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가 없음에도 항소 이유가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015도3260)

ㅁ. 앞서 본 것과 같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 그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인 적법성 내지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반영하여 도시정비법에 새로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2012도7190)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판결서에서는 ‘기본적’, ‘행정편의적’, ‘집단적’, ‘종국적’, ‘절차적’ 등과 같이 셀 수 없이 다양한 예가 확인된다. 판결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的’이 불필요한 부분에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4ㄱ)은 ‘기본’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며, (4ㄴ-ㅁ)의 나머지 표현들도 ‘행정편의로’, ‘집단’, ‘종국에는’, ‘절차의 적법성’으로 바꾸어 쓰면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2. 비자립 어근의 자립화

한국과 일본의 어휘는 한자의 영향으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어만 해도 거의 65% 이상이 한자어이다. 그런데 개별 한자의 자립성은 일본과 한국이 동일하지 않다. 특히 일본어는 훈독의 전통이 남아 있어서 동일한 한자어가 문맥에 따라 자립어가 되기도 하고 의존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의존성이 강한 한자어는 절대 자립명사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런데도 (5)와 같이 법문에서 사람을 지칭할 때 자립성이 없는 한자어인 ‘者’를 단독으로 사용한다. ‘者’는 한국어에서는 자립명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범죄자, 과학자’ 등과 같이 접미사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5)는 한국어의 어법상 어색하다. 반면 일본어에서는 者는 ‘もの’로 훈독하는 고유어 자립명사이기 때문에 (6)과 같이 쓰는 것이 일본어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일본 민법 조항에 ‘者’가 빈번히 등장하는데 일본 민법을 번역하여 차용하면서 우리 민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본다.

(5) 민법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16]

(6) 일본 민법

(住所)

第二十二条　各人の生活の本拠をその者の住所とする。

(居所)

第二十三条　住所が知れない場合には、居所を住所とみなす。2 日本に住所を有しない者は、その者が日本人又は外国人のいずれであるかを問わず、日本における居所をその者の住所とみなす。ただし、準拠法を定める法律に従いその者の住所地法によるべき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16) 법조문에서 ‘있다’, ‘없다’ 앞의 주격 조사가 일괄적으로 생략되는 것도 일본어투 표현의 영향이다. 판결서에서 법률의 직접 인용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문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판결서에서는 한국어의 어휘적, 형태적 지위가 무시된 채 어근의 지위를 가지는 한자들이 자립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父’나 ‘母’도 한국어에서는 비자립 명사이나 일본어에서는 자립명사로 쓰인다. 법률에서 ‘부’와 ‘모’는 한자 어근임에도 자립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고 친자 소송이나 상속법에 관련된 판결서에서는 어근인 ‘父’나 ‘母’를 여전히 자립 명사로 사용하고 있다.

(6) ㄱ. 1945. 8. 15. 이전에 사망한 자의 청구권을 청구권협정에 따라 보상하는 민간청구권에 포함시켜 그 피징용사망자에 대한 신고 및 보상 절차를 마쳤다. (2013다61381)
ㄴ. 망 소외인, 원고 2는 화로에 석단을 넣고 깨뜨려서 뒤섞거나 철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서 석탄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있고 기술습득과는 별 관계가 없는 매우 고된 노역에 종사하였는데, 제공되는 식사이 양이 매우 적었다. (2013다61381)

대법원 판결서에 등장한 (6ㄱ)의 ‘者’도 일본어의 ‘もの’의 흔적이므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바르다. (6ㄴ)의 ‘망(亡)’은 ‘망하다’의 어근으로, ‘亡子, 未亡人’ 등에서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한국어에서 단독으로 접두사 혹은 관형사로 쓰이는 용법이 없다.[17] 반면 일본어에서 ‘망(亡)’은 접두사로서 ‘亡祖父, 亡祖母’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어 용법에 이끌려 (6ㄴ)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2.2. 잘못된 조사 사용

1. ‘의’의 과도한 사용

조사가 잘못 쓰인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의’이다. 우리의 법조문에는 주격이나 목적격 자리에 ‘의’가 사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의’가 사용된 사례도 있다.[18] (7ㄱ)은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로 주격 조사가 쓰일 자리에 ‘의’가 쓰였다. (7ㄴ)은 ‘전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부터’로 목적격 조사가 쓰일 자리에 ‘의’가 쓰인 법조문이다. 이는 우리의 민법 조항이 ‘前婚の解消’ 등의 일본어 민법을 그대로 번역해 실었기 때문이다.

(7) ㄱ.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ㄴ. 제821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전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재혼후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법률 전문가들이 공식어인 일본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었고, 조선어를 말할 때도 이러한 일본어투 표현이 일종의 관습으로 허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습은

17) 아래의 국립국어원의 용례를 참고할 때 한국어에서는 일본어 ‘亡’의 용법을 ‘故’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10(故)「관형사」
((죽은 사람의 성명 앞에 쓰여))
이미 세상을 떠난. ¶ 고 ○○○ 선생의 유해.

18) 주어적 속격이나 목적어적 속격에 대한 전통은 중세국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본고는 중세국어에서 이러한 전통이 있고 이것이 현대 국어로 이어졌다고 볼 가능성도 열어두고자 한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법률전문가 집단에 정착되어 지금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를 ‘의’로 대신하여 쓰면서 명사구로 연결해 가는 방식은 일종의 규범화 경향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9]

아래 (8)은 전원합의체 판결서에서 추출한 예이다. 모두 명사구를 무리하게 ‘의’로 연결하여 정확한 판결의 의미를 읽어 내기 힘들게 작성되어 있다.

(8) ㄱ.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2010도5986)
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상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법관이 가질 수 있는 유죄의 예단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 (2009도7436)
ㄷ.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606)
ㄹ. 이와 같은 몰수 또는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 부가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 (…) (2008도5596)
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은 대법원이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 확인해 온 확립된 견해이다. (2006도4549)

(8ㄱ-ㅁ)은 명사나 명사구를 ‘의’로 편리하게 연결함으로써 문장의 간결함을 추구하였으나 그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의’의 사용을 배제하고 적절하게 풀어쓰고 동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 (8ㄱ)은 ‘재심 판결을 받았을 당시 법령’으로, (8ㄴ)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로 수정할 수 있다. (8ㄷ)은 ‘그러한 해악을 고지하여’, (8ㄹ)은 ‘이득을 박탈할 목적으로’, 혹은 ‘이득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로, (8ㅁ)은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정도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 상당어의 사용

조사와 동사 활용형이 굳어진 표현인 조사 상당어인 ‘에 있어’, ‘에 대하여’, ‘에 관하여’, ‘에 의하여’는 일본어 ‘において’, ‘に對して’, ‘に關して’, ‘によって’의 번역을 통해 한국어 문장에 들어온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판결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예이다. 이러한 일본어 번역 투는 일상생활에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럼에도 순화해야 하는 이유는 이 요소들의 문장의 의미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장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를 삭제하거나 다른 조사로 수정하여도 의미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ㄱ.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으로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2004다37775)
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중 정당한 이율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 (2004다50426)
ㄷ. 등기제도의 기능을 몹시 약화시키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9) 김동욱, 「한국 민법조문의 문법표현에 나타난 일본어의 영향」, 『일어일문학연구』 제51집 제1호, 한국일어일문학회, 2004, 413면.

(2007다15172)
ㅁ. 은밀한 방법에 의하여 전달될 필요도 없다. (2004도4899)

판결서에는 (9)와 같은 예들이 보인다. (9ㄱ) '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문맥에서 '에서'로 순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9ㄴ)은 '돈에'로 충분히 의미가 통한다. 판결서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이렇게 '에 대하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9ㄷ)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으로 반드시 '에 관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률을 인용할 때 '에 관하-'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일본어에서 법령을 지칭할 때 '에 관한 법률(-に關する法令)'과 같은 표현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데에 이끌린 것이 아닌가 한다. (9ㄹ)은 '은밀한 방법으로'로 바꾸는 것이 의미가 더 잘 통한다. 간결하고 의미가 명확히 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제처(2017)에서는 법조항을 인용할 때 일본어투 표현인 '에 의하면, 에 의하여' 대신에 '에 따르면, 에 따라'를 권장하고 있다.[20]

3. 올바르지 않은 조사 사용

판결서에는 일본어 용법에 이끌려 조사가 잘못 선택된 경우도 있다. '위반하다'는 'NP1이 NP2를 위반하다'로 쓰는 타동사이다. 그러나 일본어 '(法規)に違反する'의 'に'에 이끌려 판결서에 '에 위반하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되다'의 일본어인 'になる'에 이끌려 '에 되다', '로 되다'로 쓰인 용례도 확인된다.

(10)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원을 근로자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2007다90760)

(10)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른 한국어 문장이 된다. 한국어에서 '금속으로 된 장신구, 타원형으로 된 탁자' 등으로 '되다'가 조사 '로'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는 재료나 성분, 혹은 모양(형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조사 '로'로 표시할 수 있다. 결과가 최종 결과물일 경우에는 '물이 얼음이 되었다.' 혹은 '동생이 의사가 되었다.'처럼 조사 '가'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3. 지나친 명사절화

일본의 법조문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동사 기본형+に'는 대개 명사화소 '-(으)ㅁ', '-기'에 조사 '에'를 붙여 번역되었다.[21] 명사화소 중 '-기'보다는 '-(으)ㅁ'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으)ㅁ'과 '-기'가 [확정], [미확정]이라는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1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민법에서의 '동사 기본형+に'는 한국 민법에서 '-(으)ㅁ에'로 그대로 번역되었다.

(11) ㄱ. 일본 민법 4조(未成年者の行爲能力)未成年者カ法律行為ヲ為スニハ其法定代理人ノ同意ヲ得ルコトヲ要ス但単ニ權利ヲ得又ハ義務ヲ免ルヘキ行爲ハ此限ニ在ラス

20)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2017.
21) 김문오.홍사만, (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연구원, 2003.

ㄴ.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2018다22008
ㄱ. 소멸시효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
ㄴ. (…) 기판력의 구체적 의미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해석에 맡겨져 있다.
ㄷ. 대법원은 기판력이라고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

판결서에서 ‘-(으)ㅁ’ 명사화는 ‘하다’로 끝나는 동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하나의 판결서 안에서 대체로 5-6회 정도 상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12ㄱ)은 ‘소멸시효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혹은 ‘적용할 경우에’, (12ㄴ)은 ‘정한 것이 없어서’, (12ㄷ)은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판력이라는 것은’, ‘기판력이란’ 등으로 문맥에 맞게 바꾸어 쓸 수 있다. 최근의 명사화소의 추이가 ‘-(으)ㅁ’보다는 ‘-는 것’의 추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함’은 ‘-하는 것’으로 풀어 쓰는 것이 현대 한국어 감각에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22]

3.2.4. 지시 표현의 중복

판결서에는 ‘이’ 혹은 ‘그’ 혹은 ‘이를’ ‘그를’과 같이 지시 관형사나 지시 대명사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한 예가 보인다. 이 역시 한국어의 고유한 용법이 아니며 일본어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3)은 일본국 헌법[23] 29조로 ‘이를’(これを)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일본어에서 수동 표현은 빈번히 사용되지만 (13)처럼 ‘재산권’, ‘재산권의 내용’, ‘사유재산권’과 같은 사람 주어가 아닌 문장(이른바 물주구문)이나 영어식 수동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다. 일본국헌법를 제정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픽 구조를 도입하고 여기에 다시 ‘이를’를 사용하여 수동태 문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해서 “재산권은,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와 같이 어색한 조문이 탄생하게 되었다.

(13) 일본국 헌법
第二十九條 財産權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2 財産權の內容は、公共の福祉に適合するやう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3 私有財産は、正當な補償の下に、これを公共のために用ひることができる。

(14) ㄱ. 위 조항에서의 지령은 그 주고 받은 사람 사이에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22) 김문오.홍사만, (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연구원, 2003.
23) 일본 메이지 헌법은 에도막부가 서양 국가들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일본을 서양 국가들과 대등한 나라로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지도자들이 당시의 유럽에서 주류로 여기던 입헌군주제에 기반하여 만든 일본 최초의 근대 헌법이었다. 입헌군주제는 천황제를 중심으로 국가의 기초를 닦으려던 위정자들의 의도와 부합했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 후 미국과 연합국 군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에서 작성한 영문 초안을 바탕으로 일본국헌법이 마련되었다. 이 초안을 번역하여 일본국 헌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영어로 된 법을 일본어로 의도를 살리면서 번역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이노우에(1994) 혹은 서경숙·니시야마 치나 공역(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하지 아니함은 물론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은밀한 방법에 의하여 전달될 필요도 없다. (2004도4899)

ㄴ.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2011도15057)

ㄷ. 대법원 1993. 3. 9. 선고92다48413 판결은 타인의 불법행위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그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다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 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2011재다199)

ㄹ.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14다46211)

ㅁ.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008두17363)

(14)는 전원합의체 판결서에 나타난 불필요한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가 포함된 용례이다. (14ㄱ)의 '그'는 지시 형용사인지 지시 대명사인지 용법도 중의적이다. 이 문장에서 불필요한 요소인 '그'를 삭제하더라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의미 전달이 오히려 명확해진다. 판결서는 실제로 내용 자체가 어렵고 한 단락이 한 문장인 경우가 많아 중간 중간에 이러한 불필요한 요소들이 나오게 되면 이해에 불편을 준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말버릇과 같은 군더더기 요소라서 그 지시 관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다.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판결서 이해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므로 자제해야 한다.

4. 결론

일본어는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기를 거치면서 강제적으로 이식된 언어라는 특징이 있다. 광복 직후 국어 정화라는 대의 아래 일본어투를 우리말로 순화해 왔다. 그럼에도 지식인들에게 일본어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야지', '겐세이', '뿜빠이'가 튀어나오는 언어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 습관이라는 것은 무의식에 작동하는 것이라서 (15), (16)과 같이 판결서에 구두점을 찍는 것도 일본 법전의 규범을 따르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습관을 습관으로 여기지 말고 좋지 못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이 필요하다.

(15) ㄱ. 원심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옵션의 가치 및 수수료, 제로 코스트의 의미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착오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취소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한다. (2013다26746)

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0도5986)

(16) 일본국 헌법

日本國民は、正當に選擧された國會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

に、諸國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わが國全土にわたつて自由のもたらす惠澤を確保し、政府の行爲によつて再び戰爭の慘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權が國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중략)日本國民は、國家の名譽にか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ふ

본고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서를 바탕으로 일본어투 표현에 대해 소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어려운 판결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명사구가 반복되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결의 기저에는 ‘의’의 남용이나 일본식 조사 상당어의 사용, 빈번한 명사절의 사용 등의 일본어투 표현이 숨어 있다. 이러한 표현을 걷어 내고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고 어법에도 맞는 올바른 판결서를 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일본어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어 순화의 차원에서 학자들이 많이 지적해 왔다. 그러나 판결서에 대한 연구가 소략한 편이다. 국어학자에게는 법이라는 전문 영역이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 판결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올바른 글쓰기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글쓰기라서 관습적으로 범하고 있는 잘못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판결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 가능한 글쓰기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일본어투 표현을 바로잡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판결서가 되도록 국어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논저

강현철,「법률 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 새국어생활』 제21권 제2호, 국립국어원, 1995.

김광해,「국어에 대한 일보어의 간섭」,『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 국립국어원, 1995.

김동욱,「한국 민법조문의 문법표현에 나타난 일본어의 영향」,『 일어일문학연구』 제51집 제1호, 한국일어일문학회, 2004, 411-430.

김문오・홍사만,「(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연구원, 2003.

나영균,「시대와 말」,『새국어생활』제7집 제4호 1997, 255-262.

박병호,「현대법제의 형성과 법제의 발전방향」,『법제연구』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1995.

박병호,「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法學論文集』 26집 2호, 2002, 7-14.

박영도,『일본식 법령용어 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박종호,「한국에서의 외국법의 계수와 법률용어의 형성과정」,『법학논문집』 26집 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15-47.

배종대·이상돈 편역,『형법정책』, 세창출판사, 1998.

서경숙・니시야마 치나,『법과 언어 - 법언어학으로의 초대』, 박이정, 2016.

송 민,「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국어생활』 제14호, 국립국어원, 1988.

안찬원,「교과서 속 일본어투 표현」,『한글』제315호, 한글학회 2017.

장소원,「법률 텍스트 문장의 문법성」,『텍스트언어학』, 제27집, 2009.

정 광,「일본어투 문장 표현」,『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 국립국어원, 1995.

정종휴,「비교법적 시야에서 본 한국민법전」,『법사학연구』제12호, 1999, 33-151.

홍사만,「우리 민법에 남아 있는 일본어식 표현(1)-명사구 표현-」,『어문론총』 제41호, 한국문

학언어학회, 2004.
홍사만,「우리 민법에 남아 있는 일본어식 표현(2)-훈독고유어와 음독한자어-」,『어문론총』제 4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토론문】

“대법원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김남경(대구가톨릭대)

이 논의는 대법원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을 살펴, 용례를 제시하고 유형화한 뒤, 좀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표현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껏 일본어투 표현에 대하여는 강제적, 정책적으로 국어에 주입된 것으로, 이념적 또는 감정적으로 ‘일본어의 잔재’라는 표현과 함께 국어순화운동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와 같이 가뜩이나 해득하기 어려운 판결서에 일본어투까지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정확한 표현과 분명한 전달을 위해 국어순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의를 읽어가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7쪽에서 ‘20건의 판결서를 대상으로 샘플 검사를 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일본어투 표현을 중심으로 용례 검색을 실시’한 것으로 연구방법을 밝히셨는데, 이때 일본어투 표현은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가려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일본어투 표현에 대한 목록이나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의 참조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쪽의 ‘의’의 경우, 주18)에서도 밝히셨듯이 아래 예문(1)에서처럼 속격에 의한 전통은 중세국어 자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 일본어투 표현으로 분류하게 된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요?

(1) 經 위ᄒᆞ야 쥬의 坊의 가 안써나 셔거나 <1447석보상절19:5b>
眞觀 淨觀 慈悲 觀力의 加被ᄒᆞ샨 젼치라 <1447석보상절21:02a>
各別ᄒᆞᆫ 智慧의 비취논 用ᄋᆞᆯ 나토시고 淨光ᄋᆞᆫ<1447석보상절21:35a>
어마니미 즉자히 닐오ᄃᆡ 네의 出家호ᄆᆞᆯ 듣노라 엇뎨어뇨 ᄒᆞ란ᄃᆡ<1447석보상절21:39a>
네의 尊코 貴ᄒᆞᆫ 일후믈 헐리라<1459월인석보4:24b>

2. 2.2.의 예문 (3)ㄴ에서 ‘왕래하다’의 용법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 “(3ㄴ) ‘왕래하다’는 국어에서 자동사로 사용되어 ‘NP1이 왕래하다’가 된다. 혹은 타동사로 사용되어 ‘NP1이 NP2와 왕래하다’(그와 왕래하고 지낸 지 꽤 오래되었다.), ‘NP1이 NP2를 왕래하다’(홍 씨는 중국을 왕래하며 많은 돈을 벌었다.)로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용법에서 ‘머리에 왕래하다’는 어색한 표현이다.**”에서 현대국어의 용법에서도 <표준국어대사전>의 ‘왕래하다’의 뜻풀이를 참조하면, ‘【…에】【…으로】【…을】 가고 오고 하다’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NP에 왕래하다’, ‘NP(으)로 왕래하다’ 용법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NP에 왕래하다’ 용법은 18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2) 모두 김류·이귀의 처소에 왕래하며 편지를 전달하였고, 강득은<1785계해반정록,25a>
모의에 참여하여 신경진과 왕래하면서 계획을 세웠으므로 그의<1785계해반정록,25a>
알기는 하였으나 장단(長湍)을 왕래하였고<1785계해반정록,25a>

3. 다수의 표현이 법률 용어 및 판결문 등 구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특수한 사회계층에서 집단적으로 정착하였을 때, 다른 표현으로 변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국어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수의 바람직하지 않게 정착된 표현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할 수 있을지, 또 적절한 교육 방안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제1분과 : 고전 · 현대문학 분야

(인문관 101호)

발표자	발표시간	제목	토론자	사회자
김효신 (대구가톨릭대)	15:20~ 15:50	이상의 일본어 시와 시대적 정서	최윤정 (영남대)	서혜은 (경북대)
박선지 (큐슈대)	15:50~ 16:20	일본인의 조선기행문 －原田藤一郎의 『亜細亜大陸旅行日誌并清韓露三国評論』을 중심으로－	류희식 (경북대)	
박진아 (경북대)	16:20~ 16:50	<임진록>에 나타난 모범상으로서의 논개 연구 －'충'의 실현을 중심으로－	이현주 (영남대)	
16:50~17:00		휴 식		
김 준 (연세대)	17:00~ 17:30	鄭夢周의 日本 使行詩 창작 의미	정목주 (계명문화대)	김원준 (영남대)
최중녀 (경일대)	17:30~ 18:00	일제하 소설 속의 일본	심영덕 (영남대)	

이상의 일본어 시와 시대적 정서

김효신(대구가톨릭대)

〈 차 례 〉

1. 들어가는 말
2. 이상의 일본어 시의 정체성 문제
3. 이상의 일본어 시와 시대적 정서
4. 결론을 대신하며

1. 들어가는 말

이상은 “너무 일찍 이 지구에 온 사나이”[1]로 기사의 제목을 장식할 만큼 시대와 동떨어진 존재, 시대와 잘 부합되지 않았던 존재로 국문학사에서 예시되곤 한다. 이상은 종종 거울을 보며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묻곤 했다. “그는 퇴폐와 패륜의 표상으로, 때로는 광인(狂人)으로 오해받으며 냉대와 수모를 당하고, 병고 속에서 살다가 죽었다.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내면에 은닉된 스캔들의 원소, 존재 그 자체로 시대의 개벽을 예고하는 천둥이며 번개였던 이상! 위트와 패러독스로 무장한 천재는 너무 일찍 이 지구에 온 것인가.”[2]

이상 탄생100주년 관련 글은 김기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최초의 모더니스트 시인에게서 해학과 야유와 독설로 ‘세속에 반항하는 악한 정령(精靈)’을 보았다”고 강조한다. 바로 2010년 이상 탄생100주년을 기점으로 이상에 대한 연구의 흐름이 본격적인 ‘이상 새롭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읽기’로 나아간다. 그 중의 하나가 이상의 일본어로 창작된 초기 시들을 정확하게 다시 읽기이다. 일본어 시 관련한 글은 2010년대 이전에도 김주현의 「텍스트부터 잘못되어 있다」(문학사상, 1996.11), 김성수의 논문 「이상 시에 이르는 한가지 길 - 일문시 「眞晝」의 해석을 통하여」(1998), 하재연의 논문 「이상의 연작시 <위독>과 조선어실험」(『어문논집』, 2006) 등이 있다. 그렇지만 일본어 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2010년 이후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하여 2012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상의 일본어 시 연구 - 근대 의식과 언어 감각」을 시작으로, 2013년 여태천의 「모국어의 궁핍함과 언어적 실험 - 이상의 시와 언어에 대해」, 2013년 조해옥의 「李箱 日文詩의 새로운 번역을 위한 一考」, 2015년 김삼숙의 논문 「이상의 초기 일본어 시 「이상한 가역반응」의 전문 해석」, 2017년 김명주의 논문 「이상 문학 텍스트 오주 및 오역 바로잡기 - 일본어 시를 중심으로」, 김한성의 논문 「한국근대문학 자료의 목록화에 대한 시론-상호텍스트성과 양층언어현상을 중심으로」(『한국어와 문화』 21집) 등의 논문들이 나오면서 이상의 일본어 시에 대한 바로잡기 작업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발표는 기존의 자료들이 빚겨가는 이상의 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과연 이상의 초기 일본어 시들이 굳이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여야만 했던가를 당시 시대상황과 시대

1) 조선일보, 2010.1.12.
2) 같은 글.

적 정서를 반영하여 살펴보는 자리로 하고자 한다.

2. 이상의 일본어 시의 정체성 문제

수많은 추측과 우려를 낳았다고 할 수 있는 이상의 초기 일본어 시들은 과연 한국문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가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한국어로 쓴 문학”을 말한다. 과연 한국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문제일 수 있고, 또 다음에는 한국어의 범위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문학을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라고 규정할 때, 여기에서 언어에 문자만이 아니라 말도 포함시킬 것인가, 한글로 쓰인 문학만이 아니라 한문이나 일본어로 쓰인 것도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3] 여기서는 특히 이상의 일본어로 된 시들을 이야기하는 만큼 한국어의 범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학이라고 하면 우선 기록문학과 구비문학이 있다. “근대 이후 한국에서는 문자로 기록된 작품만을 문학으로 본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문자로 정착된 문학 작품들이 있었다. 민요나 설화 등은 만들어낸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 모두 문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후대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문학을 기록문학과 구별하여 구비문학이라고 한다. 기록문학뿐만 아니라 구비문학도 한국문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4] 여기서 그 기록한 언어가 무엇이냐가 문제일 것이다. 한국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글과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의 한자, 그리고 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문학 가운데 일본어로 쓰인 문학을 한국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외적 압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본어로 쓰인 문학은 이중 언어 상황이라는 일제강점기의 특수성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 일본어로 쓴 문학을 한국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5] 소위 이상의 초기 일본어 작품은 “우리 문화 범주의 경계에 걸쳐있는 것”[6]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1930년대는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한글 사용에 대한 지식인의 관심이 높았던 시기였다. 언어에 대한 인식이 민족의 주체성과 결부되었던 이 시기에 이상은 일본어로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상의 일본어 사용은 일본에서 이상 문학을 논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일본 모더니즘 작가와의 비교 연구가 이상 연구의 한 영역으로 자리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상의 작품이 일본 모더니즘 작품과 비교 연구 지점에 놓인 계기는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의 글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7]

또한 “1930년대는 궁핍한 모국어의 상황을 새로운 언어적 실험으로 보여주었던 이상의 시와 언어에 대해”[8]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이다. “1930년대 조선어란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였다. 조선학과 조선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조선어를 정비하고 발전시키려는 활동이 학계와 문단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당시 강요

3) 이선이,김현양, 채호석,『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한국문화사, 2012, p.12.
4) 같은 책, p.13.
5) 같은 책.
6) 김동희,「이상의 일본어 시 연구 - 근대 의식과 언어 감각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2.06. p.2.
7) 같은 글, pp. 2~3.
8) 여태천,「모국어의 궁핍합과 언어적 실험 -이상의 시와 언어에 대해」,2013, p.189.

된 '국어'였던 일본어, 그리고 한자어와 새롭게 도입된 다양한 외국어 사이에서 조선어는 매우 불안정한 형식으로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어로서의 조선어가 지니는 특성을 강조하는 것만이 모국어의 위상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모국어의 궁핍함을 회복하는 일은 모국어라는 관념을 통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이상의 시와 언어는 조선어라는 가능성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한다. 이상의 시에는 한자어와 숫자, 그리고 기호와 외국어가 혼재하고 있다. 1930년대 조선어 표준화 운동과 조선문학의 근대화 작업에 비추어본다면 이상이 사용한 언어와 조어법은 매우 특별하다. 이상은 경험과 감정을 충실히 옮기는 데 적절한 기존의 언어 대신에 숫자와 도상적 기호, 그리고 한자어를 통해서 근대의 불합리한 삶의 진실을 보여주고자 했다."[9] 여태천의 주장대로라면, 이상의 초기 일본어 시 발표 역시도 "궁핍한 모국어의 상황을 새로운 언어적 실험으로 보여주었던 이상의 시와 언어"인 것이다.

먼저 이상의 글쓰기 과정에서 살펴보면, 특히 시의 대부분을 일본어로 썼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상이 처음으로 시작품을 발표한 1931년을 포함한 1930년대는 "일본어를 사용해도 한국어를 사용해도 좋을 시기"였으므로, 이상 스스로 일본어를 택하여 초기 시작품들을 발표한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전체적으로는 1930년대가 일제강점기에 해당되는 시기이기에 직접적인 강제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상(1910~1937)[10]이 태어나면서부터 한국말보다 더 익숙하게 학습을 하게 된 일본어이다. 이상 역시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문단을 동경하여 여타의 작가들을 수용하고 모델로 삼아 습작을 해온 것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이상 문학 연구에 있어서 '이중어 글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와 있으며, 그 자신의 진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제국 일본에 대한 식민지 작가로서 일본어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 또한 간과할 수는 없는 것"[11]임은 분명하다.

이상의 일본어 시는 현재 1931년 문예지가 아닌 일본어 잡지, 조선건축회 발행 기관지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에 발표된 28편과 유고시 9편 총 37편으로 확인된다. 37편의 일본어 시는 1956년 2인 공동 번역된 것으로 (태성사, 1956), 유정이 「異常ナ可逆反応」6편, 「烏瞰図」8편을 번역했고, 임종국이 「三次角設計図」 7편과 「建築無限六面加角体」 7편 및 유고시 9편을 번역했다. 그 외 조연현에 의해 알려진 시들이 있는데 이는 유정, 임종국, 김수영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또 절친 김소운에 의해서도 2편이 번역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그의 시는 사후 다수의 번역자에 의해 번역되어 현재까지 저본으로 확정되고 정전화 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면에는 의미의 불명확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특히 오역과 오류가 지적되면서 주석 작업 또한 이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까지 제기되어 오고 있다."[12]

---

9) 같은 글.

10)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1910년 경술국치, 한일합병조약이 8월 22일 비밀리에 조인되고 이윽고 8월 29일 반포됨으로써, 조선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멸망하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봉건왕조의 몰락과 함께 김해경(金海卿) 이상(李箱)은 1910년 9월 2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태어났다. 이미 그 시작부터 뿌리 채 흔들렸던 한반도의 기운을 받으며 태어난 이상은 일제 강점기 파시즘 속에서 자라나 근대를 겪으면서 근대 문물의 충격을 받았다. 그 충격의 일환으로 이상의 시에는 근대의 표상물인 백화점과 전위 현대 미술의 키치적 환상이 자주 등장한다. 이상의 전위적 실험주의 문학이 이르고자 했던 것은 근대 넘어서기였지만, 이상은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좌절하고 만다. "수학과 건축의 기호들, 말장난과 숫자들로 조합된 시들을 써서 근대를 희롱하던 천재 시인 이상은 마침내 근대의 바다에서 난파당한 채 근대의 이단아로 떠돌다가" 1937년 4월 17일 도쿄 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만 26년 7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졸고, 「이상의 시와 시대적 저항성」, 『한민족어문학』 제61집, 2012,08, p.353.

11) 김명주, 「이상 문학 텍스트 오주 및 오역 바로잡기 - 일본어 시를 중심으로」, 『日本近代學研究』 제58집, 2017, p.152.

이상이 1931년에서 7월에서 1932년 7월까지 28편의 일문시를 발표했던 시기는 조선어의 표준화작업이 한창이었던 시기[13]이다. 그런데 그 당시 이상의 일본어 시 발표 28건 이외에 조선어로 된 시가 단 한 편도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애석할 뿐이다. “조선어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그에게 일본어란 그의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일본어가 그에게 우월한 문화적 척도가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선어를 제대로 잘 몰랐던 이상에게 일본어는 그의 특별한 생각을 잘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언어였다는 사실”[14]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는 마치 일본말로 쓴 시도 항일시일 수 있느냐는 임종국의 논의에 반박하여 김향안이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김향안은 이상이 “모국어를 내던져 둔 채 많은 시를 일본말로 쓴 것이 아니라 모국어를 쓰기 위해서 많은 시를 일본말로 공부한 것”[15]이라고 말하였음을 상기할 수 있다. 일본어가 ‘국어’이던 암울한 시기였던 만큼 일본어가 더 편하고 수월한 언어였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상이라는 작가가 이중 언어를 사용할 때, 당시에는 작가의 국적이 국제적으로 일본인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치 손기정(孫基禎)이 1936년 8월 9일 오후 3시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시작된 마라톤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한국인,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불렸고, 스타디움에 일장기가 오르고 일본 국가 ‘기마가요’가 흘러나왔음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당시 일본인 이상이 ‘국어’인 일본어로 일본어 잡지에 그것도 당시 일본 건축 기술자들이 주로 구독하는 잡지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에 발표하였다는 사실과 비교된다면 어떠한가? 아래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 후의 일화가 당시 피지배자로서의 조선인들의 마음과 정체성을 극명하게 잘 드러내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 “결승선 통과 후 손기정은 만세도 하지 않았고 환호도 부르지 않았다. 그저 레이스 내내 자신을 괴롭혔던 운동화를 벗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탈의실로 퇴장했다. 올림픽의 꽃인 마라톤의 금메달리스트가 보일 수 있는 태도는 전혀 아니었다.
>
> 시상대의 손기정과 남승룡도 마찬가지였다. 은메달을 딴 하퍼의 해맑음과 대조적으로 손기정과 남승룡은 우울해 보였다. 스타디움에 일장기가 오르고 일본 국가 ‘기마가요’가 흘러나올 때 월계관을 쓴 손기정과 남승룡은 더욱 고개를 숙였다. 손기정은 월계수 나무로 입고 있던 옷에 새겨진 일장기를 가렸다. 손기정은 의기소침했고 슬퍼 보였다. 자신이 고통스럽게 발로 뛰어 얻은 이 영광이 조국의 것이 아니라 조국의 국권을 피탈한 일본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16]

이상의 일본어 시 발표 과정도 이와 같을 수 있음이다. 피지배자로서의 조선인의 마음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상의 일본어 시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모습도 손기정의 우울한 모습, 조선인의 우울한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조선인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침통해하는 모습일 것이다. 『朝鮮と建築』에서 일본어 시 초연 레이스를 펼친 이상의 일본어 시들은 시인 자신을 중심으로 보면 이상의 ‘마라톤 중개’모습과 다르지 않다. 일장기를 달고 최선을 다하는 손기정의 모습이 바로 이상 시인의 모습인 것이다. 이상은 일본어가 ‘국어’인 당시의 ‘마라톤 트랙’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가장 적합하게 가장 앞선 모습으로 달려온 것이다. 비록 당대

12) 같은 글, pp.152~153.
13) 1930년대 이르러 문학인의 표준어와 표기법 확립의 필요성이 촉구되었다. 1933년 10월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었고 3년 뒤인 1936년 10월 표준어 사정안, 이듬해 1937년 3월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김동희, 앞의 글.
14) 여태천, 같은 글, p.193.
15) 김향안, 「이상이 남긴 유산들」, 『문학사상』, 1987.1, pp. 115~116.
16) 네이버 지식백과 (인물한국사)

의 모든 판단이 손기정의 마라톤이 그렇듯이 일본의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레이스에서 1등을 하고자 애썼던 시인의 모습을 당대의 시류를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시인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기정의 일장기를 무엇이라고 탓하는 사람이 없듯이 이상의 일본어 시도 항일시가 못된다고 비난하거나 김향안 식의 습작이라고 폄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일본어 시의 진정한 정체성은 당대의 시류를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시인의 모습[17]일 뿐인 것이다.

3. 이상의 일본어 시와 시대적 정서

이상이 일본어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즈음의 조선어와 조선문학에 대한 관심은 날로 크게 부각되었다. "식민지 통치 아래 언어에 대한 인식은 문화 - 문학적인 문제이면서 정치적인 문제[18]로, 조선어는 민족적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논의되었다. 1930년대 조선문학의 '수립'과 '건설'이 중요시되고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강력한 비평적 쟁점이 되었던 것은, 조선어가 말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정치적 상황의 부자유 속에 조선문학이 그 발달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조선문단에 퍼져나갔기 때문이다."[19] 이러한 조선어와 조선문학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상이 행한 시적 창작 활동의 행보를 살펴보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상은 1930년대 이르러 문학인의 표준어와 표기법 확립의 필요성이 촉구되어, 1933년 10월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었던 당대 시대적 시류를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 사실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건축 잡지『朝鮮と建築』에 실을 일본어 시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상은 건축과 설계에 관한 이과적인 과목의 대표인 과학과 수학의 언어로 기하학에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상은 "과학과 수학의 언어를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20]했음을 알 수 있다. 기하학에 관련된 내용을 과학과 수학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은 "주관성을 배제한 객관적 관찰을 통해서 사실에 접근"한다는 것이고, "근대적, 합리적, 보편적, 문명적이라는 말과 같은 계열에 놓이며, 근대인의 사고와 인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그것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21] 그러므로 일본어로 된 이상의 시들은 단순히 민족주의적 시대적 정서를 뛰어넘어 범국가적 정서인 과학, 근대문명에 대한 생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범국가적 과학적인 정서로만 이상의 근대문명에 대한 생각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이상의 초기 일본어 시에서 볼 수 있는 기호들은 단순한 기호들이

17) 이상의 대표작 「오감도」는 조선중앙일보에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15회 연재되다가 독자들의 항의로 중단되었다. 나머지 15회가 더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되는 사태가 생긴 일은 이상에게는 너무도 서운한 일이었다. 그러기에 이상은 연재가 중단된 뒤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數十年씩 떨어져도 마음 놓고 지낼 作定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빠지게 놀고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보아야 아니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보고서 詩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二千點에서 三十點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三十一年 三十二年 일에서 龍대가리를 떡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만두니 서운하다."

졸고, 「이상의 시와 시대적 저항성」, 『한민족어문학』 제61집, 2012,08, p.366.

18) "조선에 있어 언어상 문제란 문화, 문학적인 문제이면서 항상 현실적 정치상의 문제인 것이다."(임화, 「조선어와 위기하의 조선문학」, 『임화문학예술전집』 4, 소명출판, 2009, p.590.

19) 하재연, 「1930년대 조선문학 담론과 조선어 시의 지형」,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7, p.182.

20) 여태천, 같은 글, p.193.

21) 같은 글.

아니라 마치 암호와 같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일본 주쿄대학교의 김삼숙은 “이상의 문학은 암호화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암호화란 <의미의 소통을 거부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이다.”라고 하면서 「異常ナ可逆反応」의 전문 해석을 시도하였다. 김삼숙이 시도한 「異常ナ可逆反応」의 전문 해석[22]의 주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한 가역반응」에는 이상이 자신이 살았던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가 나타나 있다. 시의 중심점으로 보이는 세 가지를 들어 전문 해석을 시도해본다. 그 세 개의 포인트란, 「건축물」, 「직선과 원(현미경)」, 그리고 「태양」이다. 먼저, 「건축물」은 「眞眞５″(원문「眞々５″」)」이라는 기호의 의미를 찾는 중에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건축물」과 전반부의 「직선과 원(현미경)」의 공통점을 생각하면서, 후반 부분의 「태양」에까지 연결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시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이 가지고 있던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표현 양상을 밝힐 수 있다.

이 시가 조선건축학회지 조선과 건축 에 발표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건축에 관한 기술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眞眞５″의角바의羅列에서」라는 표현을 자세히 살펴봄으로 해서, 이「건축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眞眞5″」의 해석을 각도라고 생각해왔다 (이승훈1989:98, 권영민 2009:187, 최혜실1992:106 등). 「5″」는 각도로서 5초를 나타내고, 매우 작은 각도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眞眞(眞々)」이라는 것은 일본 건축용어로서, 그 의미는 「심심(心心). 재료간의 거리측정기준의 하나. 한 재료의 중심선에서 다른 재료의 중심선까지를 의미, 또는 그 길이」(일본건축대사전 建築大辞典1976:748, 인용자 역)이다. 그렇다면 「5″」가 각도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眞眞(眞々)」은 거리 측정 기준이므로 거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 ″ 」은 각도 등의 초를 나타냄과 아울러 인치를 나타낸다. 1인치는 약 2.54cm, 5인치는 약 12.7cm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眞眞５″의角바의羅列에서」라는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즉, 간격이 5인치인 각이 진 막대의 연속을 의미 한다. 다음으로, 이「角바의羅列」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해본다. 먼저, 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생각해보자. 선행연구에서는, 화장실(권영민2009:185), 공사현장(최혜실1992:106), 남녀의 만남의 장소(이승훈1989:99) 등으로 해석해 왔다. 앞의 행에서 「鉄柵의外의白大理石의建築物이雄壯하게서있던」이라고 씌어져 있다. 또, 그 다음 행에서는 「肉體에對한處分法」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런 표현들에서, 그 당시, 철책 밖에 흰 대리석 건축물이 존재하는 곳, 또 육체에 대한 어떤 행위가「처분(處分)」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해보면, 그곳은 형무소가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상이 1936년 10월 16일자의 매일신보 에 쓴 수필「추등잡필」 속 「구경」에, 「專門한것이 나는 建築인關係上 在學時代에 刑務所見學을 간일이 더러 잇다.」(김주현 주해 2009:100)라는 기술이 있다. 이상이 형무소를 상정하고 이 시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白大理石의建築物」이 근처에 있는 형무소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서대문형무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는 독립문이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당시, 서대문형무소 근처에 세워진 대리석건축물은, 독립협회에 의해서 1897년에 완성된 독립문뿐이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높이 14.28m의 문이다. 현재는 70m정도, 이동해 있지만, 지금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있는 독립공원 안에 서 있다. 그렇게 보면 「眞眞５″의角바의羅列」이란, 형무소의 창에 설치된 쇠창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현지에 가서 실제로 측정한 결과,

22) 김삼숙, 「이상의 초기 일본어 시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応>의 전문 해석」, 2015.

이 형무소에 관한 실측조사보고서와 동일하게, 서대문형무소의 창에 설치된 창살의 간격은, 약 13~15cm였다. 대략 5인치이다 (구서울구치소 실측조사보고서 2003:565<창호일람표>). 즉, 여기에 씌어져 있는 철책과 건축물은 서대문형무소와 그 근처에 있는 독립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현미경」을 축으로 해독하면, 후반 부분과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현미경의 구조를 보자. 현미경의 접안렌즈로 대상물을 보면, 그 상을 원 안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이 「任意의半徑의圓」이 된다. 「圓内의一點과圓外의一點과를연결시킨直線」에 대해서는, 입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대상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그 직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물대 위에 놓여 진 프레파라트를 접안렌즈로 응시하는 시선을 말한다. 그러면, 서대문형무소와 현미경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서대문형무소의 건축구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판옵티콘[23]이다. 판옵티콘이란 영국의 제러미 벤담이 18세기에 고안한 건축학적 형상이다. 공리주의자였던 벤담의 생각에, 판옵티콘은 최소한의 비용, 최소한의 감시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장치였다. 「'바라봄-보임'의 결합을 분리시키는 장치」라는, 이 구조가 현미경에 비유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밑에서는人工도自然과같이現象되었다.」는, 프레파라트 상태가 되어 버리면 인공도 자연의 표본과 마찬가지로 관찰당하게 된다. 위로부터의 시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보여질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관보나 조선과 건축 을 보면, 조선에 관한 온갖 것이 조사, 연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상이 누구보다도 이런 실정에 밝았을 것이다. 조선이「보는 입장」으로서의 일본에게 세세하게 관찰 되고, 식민지 조선은 마치 프레파라트 위의 표본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연의 태양이라면, 「있어야할場所」에서<은혜로운 빛>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의 「태양」은 자연의 태양과 다른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태양이 등을 비추고 있는데, 등의 전방에 그림자가 생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등을 비추면, 그림자는 사람의 앞쪽에 생기게 된다. 이상한 현상인 것이다.

「異常한可逆反應」이라는 제목의 의미. 「可逆反應」이란 화학반응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그것은 정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역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이며, 이상한 반응이 아니다. 그러나, 이 태양이 비추는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태양이 등을 비추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방향과 반대의 방향에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 곳, 그곳은 식민지화와 근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조선이 아닐까. 그러므로, 「太陽」이란 일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천황제 국가 이데올로기의 상징이 「太陽」이다. 이런 일본에 대해서, 조선의 땅 위에서는 「이상한 가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의 이 가역반응을 일으키는 주체는 일본이다. 「히노마루(日の丸)」의 태양이 닿아서 조선은 식민지화되고, 동시에 조선에서는 근대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은 일본이라는 태양에 노출되어, 감시를 당하고 있다. 바라보는 존재의 일본과 보이는 존재인 조선 사이에는 시간적 영향이 성립한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선 사람들은, 시간적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그 힘의 크기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를테면, 「무관심」하다고 이상은 말하고 있다.

23) 판옵티콘은 「'바라봄-보임'의 결합을 분리시키는 장치이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결코 보이지는 않는다」(미셸 푸코)

4. 결론에 대신하며

사실, 시인 이상의 일본어 시「異常ナ可逆反応」의 전문 해석은 오늘의 발표 자리에 서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미 2012년「이상(李箱)의 시와 시대적 저항성」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상의 시가 드러내는 반파시즘적인 요소와 시대적 저항성을 증명해보인 바 있다. 그런데 김삼숙의 일본어 시 전문 해석은 이상이 얼마나 예리하게 시를 기호화, 아니 암호화 했는가를 알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암호화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형무소와 현미경의 구조 관계라든지, 식민지 조선과 감시자 태양 일본의 관계라는 사실 등이 암호화된 저항성을 표명하기에 더욱더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조선의 근대화를 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조선이「発達」,「発展」하지 않는 것에「憤怒」, 고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의한 조선의 근대화는 식민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근대화이자, 근대화가 진행되는 것은 식민지 통치를 고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이상 자신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이 얼마나 당시 조선의 식민지 현실을 직시하고 당시대의 ‘이상한 가역반응’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일본어로 암호화 시키면서 일본인들조차 암호해독이 어려울 수 있는 현미경과 형무소 구조 해독은 과연 건축학을 배운 이상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당연히 수학적 과학적 정서가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異常ナ可逆反応」말미에서 이상은 “조선 사람이 자신의 괴로움이나 불안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을 자각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건축기사로 일하고 있던 이상 자신의 입장이 약간은 비굴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현실을 암호화 하는 자체도 김삼숙의 말대로 “의미의 소통을 거부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이기에 이상의 암호화 전략은 일본을 의식한 일본어로 표현된 시대적 정서가 아닐까? 자신이 조선총독부에서 일하면서 일본의 녹을 먹고 살고 있는 모습을 포함한 비굴한 조선인의 시대적 정서, 그리고 일본의 감시를 받는 조선의 현실에 배어 있는 순응의 정서, 독립 운동하고 옥고를 치르는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이상의 마음 아픈 감상적인 정서 까지 느끼게 한다. 바로 “심심5″의 막대의 나열에서 / 육체에 대한 처분법을 센티멘털리즘했다.”라는 시적 표현이 그 예이다.

이상의 일본어로 창작된 시 자품들을 더욱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이 부족한 발표를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되었다. 재번역과 오류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져 이상의 일본어 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도 있다. 김삼숙의 시 해석처럼 이상의 시에 대한 정확한 현대적 재해석은 늘 환영이다. 보다 더 정치한 발표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지만, 어설프게나마 이상의 일본어 시에 대한 판정이 앞으로의 이상 연구에 작은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김동희,「이상의 일본어 시 연구 - 근대 의식과 언어 감각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2.06.

김삼숙,「이상의 초기 일본어 시 <이상한 가역반응異常ナ可逆反応>의 전문 해석」,『이상 리뷰』, 2015. pp. 174~196.

김성수,「이상의 일본어 시 진주(眞晝)」,

김명주,「이상 문학 텍스트 오주 및 오역 바로잡기 - 일본어 시를 중심으로」,『日本近代學研究』제58집, 2017, pp.151~165.
김향안,「이상이 남긴 유산들」,『문학사상』, 1987.1.
김효신,「이상의 시와 시대적 저항성」,『한민족어문학』제61집, 2012,08, pp.341~377.
성인수,「이상의 시<二人…1,2…>와 조선건축회, 조선귀족회 - '아아ㄹ카아보네'와 '프록코오트'의 표상을 중심으로」,『국어국문학』, 2015, pp.115~152.
이선이, 김현양, 채호석,『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한국문화사, 2012.
임 화,「조선어와 위기하의 조선문학」,『임화문학예술전집』4, 소명출판, 2009.
조해옥,「이상 일문시의 새로운 번역을 위한 일고」,『우리어문연구』47집, 우리어문학회, 2013, pp.425~464.
하재연,「1930년대 조선문학 담론과 조선어 시의 지형」,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7.
Tsuboi Hideto,「The Crossroads of East Asian Modernism - Yi Sang's Literature and the Literature of Japan in his Age」,『사이間SAI』제5호, 2008.

【토론문】

“이상의 일본어 시와 시대적 정서”에 대한 토론문

최윤정(영남대)

선생님의 논의를 읽으면서 이상의 문학작품, 특히 시가 어렵다는 사실을 여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 텍스트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의 대상 텍스트로 끊임없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어렵지만 그만큼 깊이를 지닌 매력적인 텍스트라는 반증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의 논의는 지금이 이상 문학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하는 깨우침을 줍니다. 우선 한국문학으로서의 이상문학의 의미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상문학 전체의 의미를 보다 정교하게 천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일본어시에 대한 이해부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야 함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대상 텍스트가 어려운 만큼 선생님의 논의를 빌어 몇 가지 의문이나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1. 선생님은 이상의 일본어시의 정체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문학 가운데 일본어로 쓰인 문학을 한국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언급하면서 이상의 초기 일본어 작품이 “우리 문화 범주의 경계에 걸쳐있는 것”이라고 다른 논자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매우 모호하게 언급하고 계신데, 이상의 초기시 일본어시를 한국문학이라는 범주와 결부시켜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이상이 강제적인 상황에서 일본어를 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본어를 선택하여 초기 시작품을 제작하였음을 제시하면서 여태천의 주장을 빌어 이상의 일본어가 “궁핍한 모국어의 상황을 새로운 언어적 실험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일본어는 하나의 기호로서 이상에게 활용되었다는 것인데, 일본어라는 기표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3페이지에 보면 한국말보다 더 익숙한 것이 일본어라는 전제 하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문단을 동경하여 여타의 작가들을 수용하고 모델로 삼아 습작을 해온 것”이 틀림없다고 한 반면, “제국 일본에 대한 식민지 작가로서 일본어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논의를 이어가고 계신데, 여기서 이상의 일본어 시쓰기가 피식민자의 제국의 흉내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식민지 작가로서 제국 일본에 대한 되받아쓰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매우 헷갈립니다. 이상의 일본어 시쓰기는 어떤 정체성을 지닌 글쓰기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4. 또한 선생님께서는 이상의 일본어 시쓰기를 일장기를 달고 달린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에 비유하여 당대 시류에 최선을 다한 시인의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상의 일

본어 시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문학 활동 초기에 한글로 쓰인 소설작품 『12월 12일』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한글맞춤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시기였음을 감안한다면 손기정처럼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 나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이 아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어 시쓰기를 시류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상의 일본어 시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의미화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미흡한 읽기로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5. “이상의 일본어 시와 시대적 정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장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김삼숙의 ‘이상한 가역반응’에 대한 해석 전문만을 싣고 있어서 선생님의 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일본어로 쓴 시들의 의미를 김삼숙의 논의처럼 해석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일본어 표기로 이상이 왜 굳이 시를 썼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일본어라는 기표만이 표출할 수 있는 의미의 자장이 있는 것이라면 이상이 일본어를 쓴 의미를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異常한可逆反應」에서 “任意의半徑의圓(過去分詞의時勢)”의 한 부분만 보더라도 ‘시세’는 일본어 원본에는 ‘相場’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때 유정의 번역본에는 ‘시세’로 권영민 교수는 ‘통념’으로, 신범순 교수는 최근의 저서에서 ‘시세의 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어가 가진 의미의 자장이 조선어 표기의 의미의 자장과 달라 일본어 표기로 했을 때보다 효과적으로 이상 자신의 사유를 드러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일본인의 조선 기행문
-原田藤一郎의『亜細亜大陸旅行日誌并清韓露三国評論』을 중심으로-

박선지(큐슈대)

〈 차 례 〉

1. 머리말
2. 일본인의 조선 기행문 발간과 배경
3.『亜細亜大陸旅行日誌并清韓露三国評論』에 대한 일본에서의 반응
4. 결론

1. 머리말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서구 열방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주변국을 식민지로 삼는 전략을 세운다.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홋카이도를 개척한 뒤 조선을 식민지로 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방법으로 쓰인 것이 기행문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이전에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의 조사가 불가능하였기에 상인 , 학자, 기자 등을 통해 지리, 기후, 설화, 풍속 광물 등 다분야에 걸쳐 조사를 했다. 이러한 조사는 식민지화하기 위한 사전 조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조선 침략 과정은 유럽의 카톨릭 국가에서 선교사를 파견 해 그 나라를 조사하고 내란을 일으킨 뒤 군사를 데리고 들어가는 과정과 유사하다. 카톨릭 국가가 아닌 일본에서는 선교사에 의한 사전 조사가 불가하였으므로 이를 대신해 외국에 드나들기 쉬운 상인이나 기자, 학자를 이용했다. 본 연구는 일본인의 조선 기행문을 토대로 기행문이 발간된 역사적 배경과 기행문에 대한 일본에서의 반응을 토대로 기행문의 목적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기행문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기행문에 대한 연구는 한국인들의 한국 기행 또는 외국 기행을 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기행문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 되었으나 조선 기행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행문을 이용한 연구의 대부분은 각 분야에 따라 농업 지리 등으로 나누어져 연구가 되어 왔다.

한국과 일본의 기행문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일본인의 조선 기행문을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고에서는 原田藤一郎(하라다 토이치로)의『亜細亜大陸旅行日誌并清韓露三国評論』[1]를 중심으로 조선 기행문과 식민지 조사 사업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인의 조선 기행문 발간과 배경

1) 原田藤一郎 (1894)『亜細亜大陸旅行日誌并清韓露三国評論』東京青木嵩山堂

일본인의 조선 기행문은 桜井義之 (사쿠라이 요시유키) 의『朝鮮研究文献誌』[2)]를 참고로 하고자 한다. 桜井義之는 조선 관련 문헌을 정리 해 『朝鮮研究文献誌』를 발간하였다. 저자와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출판년도 출판사 등이 적혀 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여행기도 있을 수 있겠으나 당시 주목할 만한 책은 모두 적혀 있을 것이라 추정 되기에 본 연구에 주요한 참고문헌으로 삼는다. 『朝鮮研究文献誌』에는 １８７０년대부터 １９２０년대에 이르기까지 조선관련 문헌을 정리한 책이다. 여러 장르로 나누어 정리를 해 두었는데 지리·여행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리·여행편에는 기행문이외에 지리지도 포함되어 있기에 지리지를 제외하고 여행기만을 당시 사건과 함께 정리했다. 먼저 한국을 중심으로 사건들을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를 보면 1900년 이후는 기행문이 꾸준히 발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도의 시공과

明治9 (1876)		雲揚號事件、日朝修好条規、第1次修身使派遣
明治11 (1878)	1冊	주문진海関開館 (現在関税庁)
明治13 (1880)		第2次修身使派遣
明治14 (1881)		調査視察団을 日本에 派遣
明治15 (1882)		壬午軍亂、済物浦条約
明治16 (1883)		미국에 報罠使派遣、朝日通商章程
明治17 (1884)		甲申政変
明治18 (1885)		漢城条約、天津条約、伊藤博文의 内閣制実施
明治27 (1894)	3冊	東学農民運動、日本軍의 景福宮占領、甲午の改革
明治28 (1895)		洪範十四條頒布、乙未事変
明治29 (1896)		露館播遷
明治30 (1897)		高宗還御、朝鮮에서 大韓帝国으로 국명을 바꿈
明治32 (1899)		日本人이 朝鮮에 鉄道工事를 함
明治33 (1900)	1冊	大韓帝国은 19人의 日本留学을 명함
明治34 (1901)	1冊	
明治36 (1903)	1冊	
明治37 (1904)	3冊	大韓帝国中立国家宣言、日露戦争、日韓義定書・韓日協定締結、第1次韓日条約締結
明治38 (1905)	3冊	日本帝国独島를併合하고 竹島로 함、乙巳条約締結
明治39 (1906)	3冊	日本이 漢城府에 統監府設置
明治40 (1907)	3冊	高宗退位、大韓帝国軍隊強制解散、日本帝国이 大韓帝国의 警察権을 強奪
明治41 (1908)	1冊	東洋拓殖株式会社設立
明治42 (1909)	1冊	日本内閣日韓併合決定、伊藤博文射殺
明治43 (1910)	2冊	日韓併合条約締結
明治44 (1911)	2冊	105人事件
大正元年 (1912)		湖南線開通、京城転写運行開始
大正3 (1914)	1冊	湖南線完工
大正４ (1915)	1冊	
大正6 (1917)	2冊	
大正7 (1918)	1冊	日本이 朝鮮에 供出公布
大正8 (1919)		朝鮮의 独立宣言
大正9 (1920)	1冊	
大正10 (1921)	1冊	金益相이 朝鮮総督府에 爆弾投擲
大正12 (1923)	1冊	金尚沃이 鐘路警察署에 爆弾投擲
大正14 (1925)	2冊	

2) 桜井義之 (1979)『朝鮮研究文献誌』龍渓書店

일본인들의 조선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른 것이다. 그 내용 또한 주재원들의 여행이나 시찰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주목 할 만 한 것은 1894년에 발간된 3권의 기행문이다. 1894년 이전의 상황을 보면 일본은 미국의 페리가 일본에 한 것과 같이 일본은 운양호를 몰고 와 조선의 개항을 요구한다. 운양호 사건 이후 조선은 개항과 함께 수신사 와 시찰단을 파견한다. 임오군란을 겪으며 조선에 대한 청의 지배도가 높아졌으나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이토히로부미의 내각제가 실시된다. 이토히로부미의 내각제로 인해 일본인들의 활동이 자유로워졌고 사무라이 계급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혼돈과 잉여 인력의 탈출구이자 기회의 땅으로 일본에서 조선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일본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明治元年 (1868)		天皇을 主権者로 하는 新政権이 成立
明治9 (1876)		日朝修好条規
明治10 (1877)		西南戦争
明治11 (1878)	1冊	竹橋事件
明治12 (1879)		琉球王国滅亡、沖縄県을 設置
明治15 (1882)		済物浦条約、福島事件
明治16 (1883)		高田事件、日朝通商章程
明治17 (1884)		群馬事件、加波山事件、鉄父事件、名古屋事件、飯田事件、甲申事変
明治18 (1885)		大阪事件、日朝漢城条約、天津条約、朝鮮에 内閣制実施
明治19 (1886)		静岡事件
明治27 (1894)	3冊	東学農民運動、日本軍의 景福宮占領、甲午の改革、日清戦争
明治28 (1895)		日清戦争終結、台湾総督府設置、乙未事変、下関条約
明治32 (1899)		日本人이 朝鮮에 鉄道工事를 함 (京仁線)
明治33 (1900)	1冊	義和団의 乱을 鎮圧하기 위해 8개국이 北京占領
明治34 (1901)	1冊	
明治36 (1903)	1冊	
明治37 (1904)	3冊	日露戦争、日韓義定書・韓日協定締結、第1次日韓協約締結
明治38 (1905)	3冊	日本帝国이 独島를 併合하고 竹島로 함、第2次日韓協約 (乙巳条約締結)、日露포츠머스条約
明治39 (1906)	3冊	南満州鉄道会社設立、日本이 漢城府에 統監府設置
明治40 (1907)	3冊	第3次日韓協約、러시아와 通商漁業条約
明治41 (1908)	1冊	東洋拓殖株式会社設立
明治42 (1909)	1冊	日本内閣日韓併合決定、伊藤博文射殺
明治43 (1910)	2冊	日韓併合条約締結、土地調査事業実行、寺内正武가 総督에 任命
明治44 (1911)	2冊	105人事件
大正3 (1914)	1冊	
大正 4 (1915)	1冊	
大正6 (1917)	2冊	
大正7 (1918)	1冊	日本이 朝鮮에 供出公布
大正8 (1919)		朝鮮이 独立宣言
大正9 (1920)	1冊	
大正10 (1921)	1冊	金益相이 朝鮮総督府에 爆弾投擲
大正12 (1923)	1冊	金尚沃이 鐘路警察署에 爆弾投擲
大正14 (1925)	2冊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천황을 주권자로 하며 지방 번주들이 가지고 있던 군대를 없애고 천황의 군대로 편성한다. 이를 통해 사무라이와 그 밑에 있던 가신들이 몰락한다. 몰

락한 사무라이와 가신들의 자제들을 훈련시킨 일이 발단이 되어 일본은 마지막 내전인 서남전쟁이 일어난다. 서남전쟁으로 인해 사무라이가 흩어지게 된다. 사회 기반의 변화로 인해 사회가 전체적으로 불안정 해 져 1878년에서 1886년까지 내란이 많이 일어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 새로운 땅 조선이라 할 수 있다. 기반을 잃고 떠돌게 된 사무라이를 낭인이라 불렀는데 일본은 낭인을 조선으로 보냈다. 또한, 대학을 나오고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을 조선으로 보내기도 했다. 조선은 일본인들의 기회의 땅으로 이용되었다. 기회의 땅으로 주목을 받게 된 조선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으나 조선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다, 조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 주는 중요한 정보지가 기행문이었고, 조선으로의 이주를 장려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기행문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었다.

3.『亜細亜大陸旅行日誌并清韓露三国評論』에 대한 일본에서의 반응

3권의 기행문 중 2권은 조선만을 여행한 내용이었는데 큰 호응을 얻지 못 했다. 나머지 한 권인『亜細亜大陸旅行日誌并清韓露三国評論』은 많은 주목을 받고 저자인 하라다는 강연회까지 열었다.『亜細亜大陸旅行日誌并清韓露三国評論』이 주목을 받은 이유를 살피기 위해서 하라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라다는 사업가로서 홋카이도 개척에 참가하지만 실패를 한다. 하라다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중국 조선 러시아를 여행한다. 하라다는 여행지의 사람들의 복장, 풍습, 지형, 도로 상황, 통화에 이르기까지 일러스트를 넣어 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하라다는 의주를 통해 조선에 들어 와 한성 인천 원산을 들린 뒤 러시아로 간다. 조선의 북쪽 지역만 둘러 본 것 같은 인상이 들지만 하라다는 상인으로서 인천과 원산이 목적지였다. 부산은 일본에서도 이미 많이 알려진 항이지만 인천과 원산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 점이 다른 여행기보다 주목 받은 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행 도중에는 조선신보로부터 냉평을 받기도 한다.

其の身の為にも国家の利益とも相成間数に無用の旅行を企だて何にを為すものか速かに圖們江を去って魯領に進む可し[3]

이런 내용의 기사를 낸 것은 하라다가 조선에 들어와 유지들이 베풀어 주는 연회에만 계속 참석하며 한양에서 장기간 체재 하는 것을 못 마땅하게 여겨 낸 기사라 할 수 있다. 하라다는 이 기사에 대해 무례하다고 하며 자신은 모험적인 여행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대륙과의 무역을 통한 이익을 강구하고 일본의 이익을 위한다고 반론한다. 냉평 때문인지 하라다는 곧 자신의 목적지인 인천으로 떠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라다의 여행이 일본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행의 목적이 무역을 위한 조사 이를 통한 자신과 국가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신문사에서도 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는 여행은 그만두고 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라다의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조사 차원의 여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라다의 여행이 주목을 받고 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1893년 2월 23일 요미우리신문에서도 나타난다.[4] 요미우리 신문은 하라다의 여행을 소개하며 상해에서 조선까지 가 아시아대륙여행의 태반을 성취했다고 하며 하라다의 여행 과정을 소개 한다.

3) 原田藤一郎 (1894)『亜細亜大陸旅行日誌并清韓露三国評論』東京青木嵩山堂p195
4) 読売新聞1893年2月23日2面

1893년 12월 9일자 요미우리신문에 다음날인 10일 오후 1시부터 북해도 정담연설회에 하라다가 사사로 나온다는 기사가 있다.[5] 연설회에서 무슨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남아있지 않으나 이 기사를 통해 하라다가 정치적인 면에서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亜細亜大陸旅行日誌并清韓露三国評論』은 1894년 3월에 발간되는데 발간과 동시에 1894년 3월 27일에 아사히신문 6면에 광고가 실린다.[6] 며칠 후인 1894년 3월 30일 아사히신문에 모험적인 여행일지라는 내용으로 서평이 실리기도 한다.[7] 하라다의 기행문을 전후해 이 정도의 관심을 모은 기행문이 없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하라다의 기행문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역할은 당시까지는 미지의 땅에 가까웠던 조선이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알리고 조선으로의 이주 정책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1894년 발간된 하라다가 교탈한 중국 지도이다. 1894년 청일전쟁이 시작되자 지도가 필요했다. 하지만 1894년에는 정부에서 만든 조선과 중국의 지도가 없었다. 이에 발매 된 것이 『支那新地圖附朝鮮全圖』이다. 요미우리신문 1894년 8월 8일 자에 개전공포로 완전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광고가 실린다.[8]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구입 대상은 기사의 군인과 종군기자들로 추정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중국은 상해를 시작으로 북동쪽 해안지방만 둘러보고 조선은 북쪽의 몇 군데만 본 것이 다인데 하라다가 교탈을 햇다는 것이 의문이다. 실제 발매된 지도도 모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다가 교탈을 했다는 것은 그의 명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라다의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정치적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여행으로 일본에서 주목을 받으며 정책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4. 결론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불안한 내부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통로로 식민지 건설에 주목했다. 식민지를 하기 위해 내외부적인 명목이 필요하였고, 그 외부적인 명목이 서구 열방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킨다는 것이었다. 내부적으로는 식민지를 반대하는 여론과 미지의 나라로 가는 것에 두려움을 품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필요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선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고 정보의 제공과 함께 조선으로의 이주를 장려하는데 일약한 것이 기행문이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라다의 중국 조선 러시아 여행은 언론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일본 정부는 이를 조선 이주 정책에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여행기의 발간과 시대 배경 여행기에 대한 언론사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기행문의 내용 전반을 다루지는 못 했다. 기행문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다음 과제로 하고자 한다.

5) 読売新聞1893年12月9日3面
6) 朝日新聞1894年3月27日6面
7) 朝日新聞1894年3月30日5面
8) 読売新聞1894年8月8日4面

참고문헌

桜井義之（1979）『朝鮮研究文献誌』龍渓書店
原田藤一郎（1894）『亜細亜大陸旅行日誌并清韓露三国評論』東京青木嵩山堂
朝日新聞1894年3月27日
朝日新聞1894年3月30日
読売新聞1893年2月23日
読売新聞1893年12月9日
読売新聞1894年8月8日

【토론문】

“일본인의 조선 기행문 -原田藤一郎의 『亜細亜大陸旅行日誌并清韓露三国評論』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류희식(경북대)

박선지 선생님의 「일본인의 조선 기행문」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제가 제국주의적 기획, 다시 말해 조선 침탈을 수행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과문한 탓이겠지만, 그와 같은 기획에 기행문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일본 본국에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일본 연구자들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연구하셔서 당대(혹은 현재까지도) 일본의 의도와 그들이 눈감고 있는 무의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론자의 임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행문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일본 문학에 대해서는 더더욱 문외한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생긴 몇 가지 의문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제국주의적 기획을 시작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첩보물로 기행문을 작성하게 했다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든 의문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기 전, 오키나와나 홋카이도를 점령하기 전에도 동일한 단계를 밟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미 병합했던 지역에 대한 기행문도 있었다면, 이때 생산된 기행문에 대한 일본의 연구현황도 궁금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발표문 2면과 3면에 각각 조선 기행문 발간 연표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시대적 사건을 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표의 연대기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요?

3. 발표문에는 기행문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힘듭니다. 만약 하라다의 글(『아세아대륙여행일지병청한로삼국평론』)에 대한 당대 일본의 반응은 발표문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이 혹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행문들과 편재나 관점 등에서 어떠한 특징적인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임진록>에 나타난 모범상으로서의 논개 연구 – '충'의 실현을 중심으로

박진아(경북대)

〈 차 례 〉

1. 서론
2. 모범상의 의미
3. 임진록의 논개 형상화 양상
4. '충'의 모범상과 논개
5. '충'의 모범상으로서 논개의 의미
6. 결론

1. 서론

논개에 대해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이 함락되었을 때 일본 장수를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여 순사(殉死)[1]한 의기(義妓)라는 것이다. 논개는 관기라는 신분 때문에 전후에 간행된『삼강행실도』나『열녀전』등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나, 진주의 관민은 논개의 기억을 147년 동안 이어갔고 1740년(영조 16년)에 의기사(義妓祠)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김수업에 의하면 국가가 기녀에게 사당을 내려 제사를 올리게 한 것은 왕조사회에서 전무후무한 일[2]이었다.

논개가 누구이기에 그만큼 긴 세월에 걸쳐 꾸준히 기억될 수 있었는가? 논개의 정체에 대해서는 그녀가 실존인물이고 양반의 자손이며 기생이나 천첩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논개를 역사적 인물로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논픽션인 족보와 문집, 장계, 상소, 금석문 등을 통하여 논개의 연고를 찾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러나 논개에 대한 사회적 규정과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진록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논개는 아래에서 위로, 민중의 기억에서 조정의 인정으로 밀어올려진 영웅이다. 민중의 독서물은 사대부의 한문학이 아니라 한글로 된 소설이다. 논개가 누구의 어떤 공문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더라도 한문학은 민중의 향유 바깥에 있다. 논개가 어떻게 기억되고 평가되었는지는 임진록에 들어 있다.

임진록은 소설이지 역사의 기록이 아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에 대한 조선인의 기억과 관념, 비공식적인 논공행상을 보존하고 있다. 임진왜란에 관련된 역사적 인물의 이미지와 일화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임진록에 기반하고 있다.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여러 차례 징조가 나타났다거나 명의 청병장 이여송이 조선의 산천 혈맥을 끊었다거나 등도 임진록에 기원을 두고 있다.

1) 논개의 죽음은 흔히 '절사(節死)'라고 불린다. 그러나 절사는 배우자나 국가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수단으로서의 죽음이므로 의미가 다르다. 필자는 논개가 적장을 암살한 것이라고 이 사건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논개의 죽음을 '순사(殉死)' 또는 '순국(殉國)'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2) 김수업,『진주문화를 찾아서 1 - 논개』, 2011, 지식산업사, p.71 참조.

논개 또한 임진록이 그 죽음의 사연을 꾸준히 재생산하지 않았다면, 진주에서만 전승되는 한 전설의 주인공에 그쳤을지 모른다.

본 논의는 임진록이 논개를 형상화한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논개가 임진록의 독자이자 이본 작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었고 어떤 모범상으로 제시되었으며 어떤 모방을 창출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임진록의 이본군 중에서 진주성 함락과 논개의 순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 이본 31종[3]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4]하였다.

연번	서지	제목	언어	임철호의 분류
1	김영진본 1		국한혼용	CC영
2	김영진본 2		국문본	CD영
3	김영진본 3		국문본	CE영
4	박노춘본	임진녹	국문본	CE춘
5	이명선본	黑龍錄	국문본	CE흑
6	고려대본	壬辰錄	한문본	G고
7	권영철본		국문본	G권
8	정명기본		한문본	G명
9	원광대본		한문본	G원
10	정신문화연구원(정문연)본 1		국문본	G정
11	김기현본		국문본	G현
12	경판본		국문본	HL경
13	숭전대본		국문본	HL숭
14	국립중앙도서관(국중도)본		한문본	H국
15	정문연본 2		국문본	L경
16	소재영본	임질록 권지샹	국문본	L소
17	경북대본		국문본	M경
18	김광순본 28-1	임진록	국문본	M김
19	박순호본 83-6	임진록전이라	국문본	M박
20	박순호본 83-4	임진녹 이라	국문본	M순
21	조동일본		국문본	M조
22	연세대본	黑龍日記	국문본	M흑
23	김광순본 77	壬辰錄	한문본	추가이본
24	김광순본 78	임진록	국문본	추가이본
25	김동욱본 1	壬辰倭亂 史話 壬辰錄	국문본	추가이본

3) 김영진본 2는 논의의 대상으로서 미흡한 점이 있다. 김영진본 2는 임철호의 연구에서 <CD영>으로 분류된 최일경계 임진록이다. 최일경의 탄생으로 시작하여 사명당의 일본 정벌 후 귀국으로 끝나며, 이순신의 전공과 이여송의 단맥이 포함되어 있고 진주성 함락과 논개의 죽음은 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필사자가 개입하여 모본을 반박한 부분에서 논개가 언급된다.

> “이 칙을 보건ᄃᆡ 모호ᄒᆞ고 무식한 ᄃᆡ 만ᄒᆞᆫ지라 그 즁에 츙무공 리슌신 ᄉᆞ적이 읏지 ᄒᆞᆫ 번 싸홈에 긋쳐시리오 진쥬 통영 동ᄂᆡ 슌쳔 각 쳐의 전공이 슈다ᄒᆞ야 승젼비가 ᄌᆞ지ᄒᆞᆫ되 읏지 ᄒᆞᆫ 범 ᄊᆞ홈으로 다른 공을 가루리오 불힝이 시긔을 만나 쥭어시나 그 공이야 읏지 이지리오 **또 진쥬 촉셕루 사젹을 말ᄒᆞ면 삼장ᄉᆞ 쥭은 일과 졔일 장ᄒᆞ고 놀나온 의기 논긔의 일은 쳔만고 희한ᄒᆞᆫ 일인ᄃᆡ 읏지ᄒᆞ야 엄익ᄒᆞ고 ᄒᆞᆫ 말도 아니ᄒᆞ연난지 논긔 츙졀이 지금ᄭᆞ지 졔향을 바다도 붓ᄯᆞ럽지 아니ᄒᆞᆫ지라** 조션 ᄉᆞ람이 조션 ᄉᆞ적 긔록ᄒᆞ면셔 이ᄃᆡ지 모호ᄒᆞ게 ᄒᆞ얏난고 ᄃᆡ강 그 득실을 말ᄒᆞ여 이후에 오난 ᄉᆞ람의게 알게 ᄒᆞ노라” (임철호, 『임진록 이본 연구』 2, p.312)

필사자의 개입을 해당 이본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폭넓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므로 단언할 수 없다. 필자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김영진본 2를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4) 아래 표에서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H국)과 김동욱본 8에는 진주성 함락이 있지만 논개의 순사가 없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31종이 된다.

김광순본과 박순호본의 번호매김은 각각 『김광순소장 한글필사본고소설전집』과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의 권번과 각권 내의 수록 순서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임진록 이본 연구』 소재 이본은 계열별 특징 이해와 원문 찾기의 편의를 위해 원서의 분류를 그대로 기록하였다.

26	김동욱본 2	임진녹권지○	국문본	추가이본
27	김동욱본 3	임진녹	국문본	추가이본
28	김동욱본 6	님진녹 권지상하	국문본	추가이본
29	김동욱본 7	임진녹권지	국문본	추가이본
30	김동욱본 8	壬辰錄 임질녹	한문본	추가이본
31	김동욱본 10	임진록 (경판 권지삼 종)	국문본	추가이본
32	김동욱본 11	임진록	국문본	추가이본
33	영남대본	壬辰錄 單	한문본	추가이본

2. 모범상의 의미

모범이란 어떤 분야에서 타인이 보고 따를 수 있는 본보기를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모범을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세상의 모든 행위에는 윤리도덕적 선악이나 사회적 규범에 따른 옳고 그름과는 무관하게, 오직 행위의 결과와 그 수준에 따라 규정되는 '모범'이 존재하고, 그 모범과 같아짐으로써 같은 보상을 받으려는 모방자가 있다.

고려의 신흥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한 후, 조선의 사회제도는 유학 윤리에 그 존립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 충-효-열의 유학 윤리는 조선의 모든 제도와 질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었고, 지배질서와 함께 당위화하여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도그마가 되었다. 그리고 임진왜란 후 사회복구를 위해, 조선은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충-효-열'의 윤리를 내재화하여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유학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답게"이다. 선비는 선비다워야 선비이고 왕은 왕다워야 왕이다. 신분제도에 적용하면 노비와 주인에게는 각자의 '~답게'가 있고, 그 '~답게'를 위해 노비에게는 노비가, 주인에게는 주인이 지켜야 하는 윤리가 있다. 그러므로 계층이 다른데 같은 윤리를 적용한다면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답게"를 넘어서는 윤리의 실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이다.

춘향은 관기의 딸이므로 관기이고, 관기의 윤리는 지방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변학도는 정절을 내세워 수청을 거부하는 춘향에게 불복종과 '관정발악(官庭發惡)'의 죄를 물을 수 있었다. "~답게"의 원칙에 따르면 춘향은 정절을 지킬 자격이 없으므로 정절을 지킬 필요가 없고 나아가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선의 지배질서는, 춘향을 포상하고 정렬부인으로 봉함으로써 '정절'이 자격 조건의 하나인 사대부 신분으로 올려 주었다.

이는 관기'답게' 변학도의 수청을 들었던 관기들보다 관기'답지 않게' 이몽룡에게 정절을 지킨 춘향이, 자신이 속한 관기 계층의 윤리를 따르는 것보다 자신이 속하지 않은 사대부 계층의 윤리를 따르는 것이 더 훌륭하다고 지배질서가 공인한 것이다. 이로써 '춘향'은 관기에게 하나의 '모범상'이 된다. 관기의 윤리보다 사대부의 윤리를 지키기가 더 어렵지만 지키면 춘향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묵시적인 약속이 지배질서와 관기 사이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논개는 춘향의 15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논개도 춘향처럼 자신에게 요구되지 않는 상층의 윤리 규범을 따랐다. 그로써 춘향이 烈의 상징이 된 것처럼, 논개도 임진록을 통해 忠의 상징이 되었다. 임진록은 논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보상을 제시했는가?

3. 임진록의 논개 형상화 양상

1) 논개의 배경

논개의 이야기는 진주성이 일본군에게 함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시작된다. 임진록에서 진주성의 함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서지	시기	진주성 함락 과정	일본군 장수의 이름
김영진본 1	1차	없음	동경창
김영진본 2	없음	없음	없음
김영진본 3	1차	없음	평수길 (또는 증수길)
박노춘본	1차	없음	평수길
이명선본	1차	없음	없음
고려대본	1차	묘사함	석종노
권영철본	1차	묘사함	석종노
정명기본	1차	묘사함	석종노
원광대본	1차	묘사함	석종노
정문연본 1	1차	묘사함	석종노
김기현본	1차	전투묘사가 있고 승리함	청정 (& 부장 2명)
경판본	2차	서술(함락 후 사람을 만나는 대로 죽임)	없음
숭전대본	2차	서술(함락 후 죽이기를 개와 닭도 남기지 않음)	없음
정문연본 2	1차	없음	없음
소재영본	1차	없음	평숙의
경북대본	1차	묘사함	없음
김광순본 28-1	1차	없음	하나복
박순호본 83-6	1차	묘사함	청정
박순호본 83-4	1차	서술(진주병사 최화수가 항복)	평수길
연세대본	2차	없음	청정
김광순본 77	1차	묘사함	석종노
김광순본 78	1차	묘사함	석종노
김동욱본 1	1차	묘사함	석종노
김동욱본 2	1차	없음	평수길
김동욱본 3	1차	묘사함	석종노
김동욱본 6	2차	없음	왜승
김동욱본 7	1차	없음	없음
김동욱본 10	2차	없음	없음
김동욱본 11	1차	묘사함	석종노
영남대본	1차	묘사함	석종노

진주에서는 임진왜란 기간 전체에 걸쳐 두 차례의 큰 전투가 있었다. 1592년에 있었던 1차 진주성 전투(진주대첩)와 이듬해인 1593년에 일어난 2차 진주성 전투이다. 진주는 1차전에서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가 될 정도의 장렬한 싸움을 치렀고 임진왜란에서 최초로 일본군에 맞서 성을 지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 결과는 일본군에게 큰 충격과 치욕이 되어, 이듬해에 일본군은 1차전의 보복으로 다시 진주를 공격했다. 이로써 진주성은 끝내 함락되었고 조선측 기록으로 6만, 일본측 기록으로 2만 명이 희생되었다.

임진록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이본에서 임진왜란 발발 초기에 부산과 동래에 이어 진주가 함락된다. 성의 함락 과정은 이본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한다. 함락 과정이 서술되는 이본에서는 처절한 공성전 끝에 최경회 및 삼장사가 자결하고 뒤따라 논개가 순사하는 식으로 사건의 앞뒤와 등장인물을 뒤섞어 놓았다.

잠시간의 동ᄂᆡ을 파ᄒᆞ고 진쥬를 향ᄒᆞᄃᆡ 빅만군병을 거나리고 무닌지경갓치 쳐드러간 잇ᄯᅵ 목ᄉᆞ 최경회와 졀도ᄉᆞ 김쳔일 영장 유셰익 군병을 총독ᄒᆞ여 왜장을 방비ᄒᆞ더니[5]

이젹의 왜ᄌᆞᆼ 평슈길이 졔ᄌᆞᆼ을 각도의 노와보ᄂᆡ고 뒤을 조ᄎᆞ 진쥬셩을 다다르니 진쥬병ᄉᆞ 최화ᄉᆞ 항복ᄒᆞ거ᄂᆞᆯ 쵹셜누의 올ᄂᆞ 군ᄉᆞ을 호군ᄒᆞ고 풍악으로 길기더니[6]

잇ᄯᅵ 왜장 평슉이 이삼만군죨을 거ᄂᆞ려 경상우도를 짓쳐 진쥬셩즁의 웅거ᄒᆞ엿ᄯᅥ니 잇ᄯᅵ 본읍기싱 모란이라 ᄒᆞ난 긔집이 잇쓰되[7]

1차전과 2차전을 구분한 소수의 이본에서도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경판본에서는 큰비에 성벽이 무너지고 진주성이 함락되자 최경회 등 삼장사가 촉석루에서 자결했고 백성과 장졸 6만여 명이 도륙당했다는 등 2차전의 내용을 1차전에서 서술하였다. 정작 2차전에서는 일본군이 앞서의 패배를 설욕하려고 힘써 싸웠다 하여 모순을 일으킨다. “ᄉᆞ ᄅᆞᆷ을 맛ᄂᆞᆫ즉 쥭이더니”[8], “ᄉᆞ ᄅᆞᆷ을 만나면 쥬기려 드니”[9] 등으로 1차전에 비해 2차전에서 일본군의 기세가 악착같고 잔혹했다는 것은 서술하였지만 내용은 간략하기 그지없다.

이런 혼동이 일어나는 것은 조선 후기가 되어 임진왜란의 경험자들이 사라지고 기억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추가할 만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

젹이 임의 진쥐를 파ᄒᆞ미 계견(鷄犬)을 남기지 아니코 부산에 드러가 말을 젼ᄒᆞᄃᆡ 텬죄 만일 강화ᄒᆞ믈 기ᄃᆞ려 ᄇᆞ다흘 건너리라 ᄒᆞ더라[10] (강조 필자)

각셜 왜젹이 **처음의 진쥐ᄅᆞᆯ 치다가 이긔지 못하고 ᄉᆞ샹ᄒᆞᆫ 쟤 만흔지라** 두 번 나올 졔 부ᄃᆡ 진쥐ᄅᆞᆯ 뭇질너 젼일 원슈ᄅᆞᆯ 잡고져 ᄒᆞ여 힘써 빠화 셩을 함몰ᄒᆞ고 사ᄅᆞᆷ을 만나ᄂᆞᆫ 족족 죽이고 ᄀᆡ와 ᄃᆞᆲ을 ᄒᆞ나토 남기지 아니ᄒᆞ더니[11] (강조 필자)

숭전대본에 따르면,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군이 진주성을 점령하고 ‘닭과 개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잔혹하게 행동했다. 그리고는 재침하여 다시 진주성을 점령하고 이번에도 사람을 본즉 죽일 뿐 아니라 ‘개와 닭도 남기지 않는’ 잔혹한 짓을 저질렀다. 그 이유가 이전에 진주성에서 일본군이 참패했기 때문에 보복을 한 것이라고 하여, 앞서 진주성을 점령했다는 서술과 모순을 일으켰다. 경판본과 숭전대본은 임철호의 분류에 따르면 HL(역사계열+이순신계열)로, 역사적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성 전투를 이렇게 서술했다.

진주성 함락은 서술하였지만 논개가 나오지 않아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던 국립중앙도서관본(이하 국중도본)은, 임진록 이본군에서 가장 역사적 사실 기록에 가깝다. 그런데 국중도본은 진주대첩에 대해 한 마디도 서술하지 않았다. 진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2차 진주성 전투에서, 그것도 성이 함락된 후 일본군 병사가 하는 말로 언급만 하였다.

적병이 진주를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중략) 적병이 한진 등의 시신을 난도질하며 말하기를, **향년에 이 성에서 우리 군사가 패했을 때** 우리 병사들을 베어 죽인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우리 병사들의 원수를 갚는다 하였다.[12] (강조 필자)

---

5) 경북대본, 『임진록 이본연구』 4, p.393
6) 박순호본 83-4, p.496
7) 김동욱본 2, p.30
8) 경판본, 『임진록 이본연구』 3, p.432
9) 김동욱본 6, p.22
10) 숭전대본, 『임진록 이본연구』 4, p.90
11) 숭전대본, 「임진록 이본연구』 5, p.94
12) 국립중앙도서관본, 『임진록 이본연구』 2, p.32.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역사적 사실로 1차, 2차 진주성 전투는 각각 결과가 달랐다. 게다가 1차전에서는 진주가 함락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초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조선을 침공하는 과정을 서술하다가 진주대첩의 승리를 넣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2차전은 시기상 이여송이 등장한 이후의 사건이다. 이여송과 조선의 영웅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진주성의 처참한 함락을 서술하는 것 또한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승리한 1차전을 다루지 않고 넘어갔다가 비참했던 2차전을 서술하면서 1차전을 언급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1차전을 서술하되 처절했던 2차전의 결과를 가져와 임진왜란 초기의 절박한 상황에 맞추는 대신 2차전을 서술하지 않는 방법이다. 임진록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나타나고 이어서 논개가 등장한다.

2) 논개의 인물상

서지	이름	신분
김영진본 1	리함 또는 이암	진주 기생
김영진본 2	논개	없음
김영진본 3	노은개	본읍 기생
박노춘본	논개	본읍 기생
이명선본	모란	본읍 기생
고려대본	論可	진주(진양) 기생
권영철본	논개	진주 기생 최경호의 수청첩
정명기본	論介	진주(진양) 기생 최경회의 첩
원광대본	論個	진주(진양) 기생
정문연본 1	논개	진주기생 최경호의 수청첩
김기현본	논개	진주기생
경판본	손기	읍중기생
숭전대본	손개	읍중기생
정문연본 2	옥선	읍중기생
소재영본	옥선	그곳 기생
경북대본	논개	진주 기생 목사의 첩
김광순본 28-1	논가	본부기생
박순호본 83-6	논개	기생 진주병사의 방비
박순호본 83-4	농개	본읍 기생
연세대본	논개	본부기생
김광순본 77	論哥	진주(진양) 기생 최경회의 수청첩
김광순본 78	논개	진주기생 최경호의 수청첩
김동욱본 1	농개	진주기생 절도사의 수청첩
김동욱본 2	모란	본읍 기생
김동욱본 3	농개	진주 기생 최경회의 수청첩
김동욱본 6	손가	읍중 기생
김동욱본 7	모란	본읍 기생
김동욱본 10	손개	읍중 기생
김동욱본 11	논개	진주 기생

		최경호의 수청첩
영남대본	論個	진주(진양) 기생

논개의 이름은 ‘논개’이거나 ‘노은개’, ‘손개’ 등, ‘논개’와 글자가 비슷하거나 음상이 유사한 정도의 변화가 나타난다. ‘모란’과 ‘옥선’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는 해당 이본의 작자가 논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거나 그 이름이 드물고 기생의 이름 같지 않기 때문에 새로 작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김영진본 1에 나타난 ‘리함’ 또는 ‘이암’이라는 이름인데, 이는 논개가 죽은 장소인 남강 촉석루 옆 바위의 이름인 ‘의암’이 사람의 이름으로 잘못 전해지면서 일어난 오류임이 확실하다.

31종의 이본 대부분이 논개에게 최경회의 첩이라는 제2의 신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독자와 이본 작자들이 논개의 순국 동기에 대해 첫째로는 ‘忠’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13], 둘째로는 통속적인 흥미를 강화하기 위해[14], 진주성 함락 당시 자결한 최경회를 끌어들여서 논개가 ‘烈’을 위해 죽은 것이 되도록 윤색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논개는 보통 기생이 아니라 ‘경국지색’[15], ‘명기’[16], ‘가무절등’[17], ‘천하무쌍’[18]으로 설정된다. 이렇게 논개의 특출함을 강조하는 것은 기생으로서의 논개에 대한 미화인 동시에, 일본 장수를 유혹하여 정신을 혼란시킬 정도라면 평범한 기생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으리라는 생각에서 나왔을 것이다. 논개의 행동이 유몽인의 기록대로 바위 위에 “서 있었다”를 넘어 “춤추고 노래했다”, “거문고를 탔다”로 바뀐 것도, 논개가 기생이니까 적장을 유혹하고자 기생다운 행동을 했으리라는 생각의 결과로 보인다.

논개가 기생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그 나름의 증거와 근거를 찾아내며 제기되고 있다. 논개의 신분에 대해 정동주는 일본에 있는, 17세기 중반의 인물인 민순지(閔順之)가 썼다는 임진록 이본(한문본)을 소개하였다.

> 왜적이 성에 들어와 진주의 기생과 미녀를 다투어 노략질했다. 논개라는 여자가 일부러 예쁘게 꾸미고 있자니 적장이 좋아하며 다가왔다. 함께 촉석루 바위 위로 오른 논개는 적장을 끌어안고 절벽으로 몸을 던져 죽었다(賊入城 爭掠州妓美女 有論介者 故盛粧而媚之 賊將悅而狎之 與遊矗石樓岩上 論介乃抱賊將投崖而死).[19]

---

13) “논개의 행동을 ‘충’으로 인정하는 과정은 조선후기 사회에서 새로운 ‘충’의 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정지영, 「임진왜란 이후의 여성교육과 새로운 ‘충’의 등장」,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pp.169-170.
“여성은 적극적으로 ‘충’을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을 통해 은근하게 ‘충’을 실현할 수 있을 뿐이었다.” 같은 논문, p.171

14) 정동주, 『논개』 <운명> 달빛에 물든 전설적 사랑 pp.67-86.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이다. 그래서 많은 전설과 기록들이 시대를 뛰어넘으면서 계속 생겨나고, 새살이 돋고, 모든 사람의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 된 것이다.” pp.67-68.
“이는 논개의 최경회에 대한 절대적 존경과 흠모의 영향력으로서만 가능하다.” p.69
“이렇듯 논개와 최경회 두 사람의 달빛에 물든 전설적 사랑은 세속의 오해와 지나친 과장 혹은 터무니없이 조작된 이야기들을 자양분으로 삼아 400년 동안의 오랜 어둠과 고독 속에서 살아남았다.” p.86

15) 김동욱본 6. “그 읍즁에 손가라 ᄒᆞ는 기싱니 잇스되 경국지식이라”. p.22

16) 김기현본. “잇ᄭᅵ 진쥬 명기 잇스대 명은 논게요 나는 십팔이라 인물이 졀색이요 가무는 조션에 무쌍이라”. p.49

17) 김광순본 28-1. “원릭 논가는 비록 츤기로ᄃᆡ 인물이 절식이요 가무일등ᄲᆞᆫ 안니라”. p.403

18) 김영진본 1. “잇ᄭᅵ 진쥬 妓生 리함이은 인물리 졀ᄉᆡ이요 天下無雙이라”. p.267

19) 정동주, 『논개』, 한길사, 1998, p.28

정동주는 이에 대해, “모두 42자로 정리되어 남겨진 이 한 구절로써 400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되어 온 논개의 죽음과 신분 문제는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된 셈이다”[20]라고 하였다. 그러나 민순지본 또한 임진록의 이본 중 하나일 뿐이므로 확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동주로부터 2년 후인 2000년에는, 김수업 교수가 『太常諡狀錄』 권14에서 ‘논개는 최경회의 천첩’이라는 구절을 발굴하여 논개의 신분은 기생이라고[21] 하였다.

3) 논개의 행적

이어서 논개는 다음과 같이 행동한 것으로 제시된다.

서지	목적	계획	노래	실행	결과
김영진본 1	조선을 섬기고자	잔치 자리에서 춤추다	없음	목을 안고 강에 빠져 죽다	없음
김영진본 2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영진본 3	충절이 있는 여자라 위국충정하고자 &일편단심으로 위국충성하여 이름과 재주를 후세에 알리고자	왜장에게 청해 촉석루에서 잔치를 열고 검무를 추다	없음	대무하다가 촉석루 가에서 안고 강물로 떨어지다	왜장들이 진을 풀고 원주로 가다
박노춘본	정절이 있는 여자라 나라를 근심하여 &충성을 생각하고 이름을 후세에 알리고자	평수길을 꾀어 촉석루에서 잔치를 열어서 검무로 대무하다	없음	난간에서 안고 떨어지다	왜병이 강원도로 떠나다
이명선본	충성하고자	왜장을 데리고 촉석루에 올라 춤추다	없음	안고 떨어지다	없음
고려대본	없음	왜군의 승전연에 들어가 바위 위에서 검무로 대무하다	있음	안고 떨어지다	없음
권영철본	포로가 되어 분해서	왜군의 촉석루 승전연에서 가무하다	있음	허리를 안고 촉석루 아래로 떨어지다 &석종노가 세 번 솟아나나 논개가 놓지 않아 죽다	왜군이 흩어지다
정명기본	없음	왜군의 승전연에 들어가 검무를 추며 노래하다	있음	왜장의 허리를 안고 같이 촉석루 아래로 떨어지다 &왜장이 벗어나려 하나 논개가 "不死不捨"[22]하여 죽다	없음
원광대본	없음	왜군의 승전연에 들어가 바위 위에서 검무하다	있음	안고 물에 떨어지다 &왜장이 벗어나려 하나 논개가 놓지 않아 죽다	없음
정문연본 1	최경회를 따라 죽고자 &살신성명	왜군의 촉석루 승전연에서 권주하며 노래하다	있음	허리를 안고 촉석루 아래로 떨어지다	없음
김기현본	조선인으로서 왕의 분함을 씻고 삼장사의 원수를 갚으려고	청정의 수청을 들다가 때를 보아 꾀어서 대연을 벌이고 왜군에게 주육을 베풀어 인사를 모르게 하다	있음	수중대암에서 더불어 대무하다가 목을 안고 떨어지다 &청정이 솟아나려 하나 논개가 놓지 않아 죽다	백성과 군졸이 이를 보고 일시에 달려들어 왜군을 물리치다 &삼장사와 논개를 삼충사에 모시고 제사하다
경판본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바위 위에서 대무하면 따르겠다고 꾀다	없음	허리를 안고 떨어지다	적병이 성을 버리다

20) 정동주, 위의 책, p.28
21) 박기용, 「논개 설화의 서사 전개 양상과 의미」, 『우리말글』 32, 우리말글학회, 2004.12. 각주 61), pp.203-204. 참고.
22) 죽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숭전대본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바위 위에서 대무하면 따르겠다고 꾀다	없음	허리를 안고 떨어지다	적병이 성을 버리다
정문연본 2	없음	왜군의 촉석루 승전연에 참석하여 더불어 춤추다	없음	촉석루 아래로 떨어져 죽다	없음
소재영본	포로가 된 상태에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죽을 바에는 공을 세워 이름을 전하려고	독한 술을 만들어 권하며 검무를 추다	없음	촉석루에서 왜장과 입을 맞추다가 혀를 물고 떨어지다	없음
경북대본	없음	없음	있음	노래하고 춤추다가 왜장을 안고 강물에서 죽다	없음
김광순본 28-1	충렬로 왕에게 보답하고자 &죽더라도 왜인에게 허신하지 않으려고	하나복을 꾀어 촉석루 바위에서 가무하다	없음	하나복의 허리를 안고 난간에서 떨어지다	평수길이 애통하게 여기다
박순호본 83-6	조선인이므로 &불경이부 &만민을 구하고자	독한 술을 만들고 구리쇠 반지를 끼고 청정의 잔치에 들어가 아첨하며 권주하다	있음	청정과 같이 춤추다가 반석으로 이끌어 안고 떨어지다	
박순호본 83-4	자신이 조선인이므로	없음	없음	더불어 춤추다가 취하자 왜장 한내와 채길을 안고 강으로 굴러떨어져 죽다	평수길이 진주를 떠나다
연세대본	의리 있는 여자여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기생들과 공모하여 촉석루에서 놀다	없음	기생들이 밀고 당겨 바위에서 떨어뜨리다	없음
김광순본 77	최경회의 첩이어서	왜군의 승전연에 들어가 검무를 추며 노래하다	있음	석종노를 끌어안고 물에 떨어지다	없음
김광순본 78	포로가 되어 분해서	왜군의 승전연에 들어가 춤추며 노래하다	있음	석종노와 같이 춤추면서 물로 이끌어 허리를 안고 떨어지다 & 석종노가 세 번 솟아나나 논개가 손을 놓지 않아 죽다	왜군이 흩어지다
김동욱본 1	최경회를 따라 죽으려고 &살신성명	단장하고 왜장의 승전연에 들어가 노래하다	있음	왜장의 허리를 안고 촉석루 아래로 떨어지다	
김동욱본 2	충성하고자	평수길을 꾀어 촉석루에서 잔치를 벌이고 가무하다	없음	평수길을 안고 난간에서 떨어지다	왜군이 원주로 가다
김동욱본 3	최경회를 따라 죽으려고 &살신성명	왜장의 승전연에 들어가 검무를 추며 노래하다	있음	왜장의 허리를 안고 촉석루 아래로 떨어지다	
김동욱본 6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바위 위에서 대무하면 따르겠다고 꾀다	없음	바위끝에서 허리를 안고 떨어지다	왜졸이 성을 버리고 돌아가다
김동욱본 7	충절을 생각하고	왜장을 데리고 촉석루에서 잔치를 벌이다	없음	왜장을 안고 촉석루에서 빠져 죽다	없음
김동욱본 10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바위 위에서 대무하면 따르겠다고 꾀다	없음	적장의 허리를 안고 물에 뛰어들다	적병이 성을 버리고 돌아가다
김동욱본 11	최경회를 따라 죽으려고 &살신성명	석종노의 승전연에 단장하고 들어가 검무를 추며 노래하다	있음	왜장의 허리를 안고 촉석루에서 떨어지다	없음
영남대본	없음	없음	있음	왜장 석종노를 안고 강에 떨어져 죽다	없음

논개는 왜 죽음을 결심했는가? 최경회를 따라 죽는 것과 일본군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나라에 대한 충성만을 동기로 하는 이본도 있다. 김영진본 1, 3, 박노춘본, 이명선본, 김동욱본 7인데, 이 중 김영진본 3과 박노춘본이 눈에 띈다.

본읍 기싱 논은기난 츙쳘리 인난고로 **위국츙셩** 싱각ᄒᆞ고 한 모칙을 ᄂᆡ여 (중략) 진쥬 기싱 노은기는 창우지비라도 왜장 평슈길이을 다리고 쵹셜누의셔 한가지 칼츔 츄다가 왜장을 안고 강물의 ᄯᅥ러져 쥬거 싸온니 **열여**츙열을 장문ᄒᆞ난니다[23] (강조 필자)

본읍 기싱 논기라 ᄒᆞᄂᆞᆫ 기집이 잇스되 본ᄃᆡ **정절**리 잇ᄂᆞᆫ 기집이라 **국가의 근심**을 두어 (중략) 논기은 비록 쳔인이ᄂᆞ **정절지심**이 지극ᄒᆞ야 (중략) 논기 충절를 못니 칭찬ᄒᆞ더라[24] (강조 필자)

김영진본 3에서는 논개의 동기가 충절과 위국충정이라고 밝혔는데 논공행상 단계에서 ‘열녀 충렬’로 바뀐다. 박노춘본에서는 논개의 동기가 국가에 대한 근심이라고 하였지만 ‘정절’과 ‘정절지심’이라는 개념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라를 위하는 충성을 열녀의 행동이고 정절을 지키는 마음이라고 평가한 것[25]이다.

정지영[26]에 의하면 ‘열’과 ‘충’의 주체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이다. 忠은 남성의 것이고 烈은 여성의 것으로 구분했는데, 두 차례의 전쟁을 겪고 ‘왜’, ‘청’과 구분되는 ‘조선’ 국가의 건설이 엘리트 남성의 ‘충’만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달으면서 ‘열’과 ‘충’을 요구하는 대상을 확장시켰다[27]는 것이다. 그로써 논개는 ‘충’을 실천한 최초의 ‘기녀’[28]일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논개가 최경회의 첩으로서 ‘열’을 행했다는 주장 또한 계속 이어졌다. 논개의 동기와 평가에서 나타나는 충과 열의 엇갈림은 그 흔적일 것이다.

논개는 언제 순사했는가? 진주성이 함락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촉석루에서 일본군이 승전연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논개가 춤추는 척하며 의암까지 일본 장수를 유인했다가 함께 투신하여 순사했다는 이야기가 31종의 이본 중 11종에서[29] 나타난다. 잔치 설정이 없거나 승전연이 아니라면 일본 장수가 논개를 희롱하며 친압하려 했다는 것이 먼저 등장한다. 논개는 얼마간 그의 총애를 받다가 촉석루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서 거사를 실행한다.

특이하게도 김동욱본 6, 7, 10에서는 논개가 일본 장수에게 “바위 위에서 對舞하면” 그의 뜻대로 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되어 있다. 유몽인의 기록과 비슷하나 “對舞”가 조건인 것을 보면, 이 또한 논개가 기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윤색한 결과인 듯하다.

논개의 춤은 ‘劍舞’였다고 특정한 이본이 8종이다. 진주 기녀의 검무가 본래 유명했으므로 덧붙은 설정으로 보이는데, 검무 자체가 갖는 이미지가 있는 만큼 논개에게는 다른 춤보다 검무가 어울린다고 생각한 이본 작자도 많았을 것이다.

적장이 논개를 뿌리치려 했지만 논개가 굳게 붙잡아서 끝내 죽게 되었다는 부연은 논개의 결의가 그만큼 굳다는 것을 강조하는 장치이다. 이를 위한 준비물로서 논개의 상징[30]이 된 ‘가락지’는 박순호본 83-6[31]에서 등장한다.

특이한 것은 소재영본과 연세대본이다. 한문본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이본에서 논개는 일본

23) 김영진본 3,『임진록 이본 연구』2, pp.333-334.
24) 박노춘본,『임진록 이본 연구』2, pp.373-374.
25) “삼강을 실행하는 주체를 보면 충신, 효자, 열녀로 되어 있는데, 성별에 따라 삼강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가 명확히 설정되었다. ‘충’은 남성에게, ‘열’은 여성에게 할당되어 있는 것이다.” 정지영, 「임진왜란 이후의 여성교육과 새로운 ‘충’의 등장」,『국학연구』18, 한국국학진흥원, 2011.6. pp.159-160.
26) 정지영, 같은 논문 참조.
27) 정지영, 「‘논개와 계월향’의 죽음을 다시 기억하기」,『한국여성학』23-3, 한국여성학회, 2007.9. pp.170-172. 참조.
28) 정지영, 2011, p.177 참조.
29) 김영진본 1을 포함하면 12종이다.
30) “진주로 진입하는 톨게이트 앞에는 금색 쌍가락지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금가락지는 진주교의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다. 진주에서 금가락지를 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금가락지는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을 때 손가락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했다는 이야기에 연유한 것이다.” 차철욱, 「진주지역 논개 재현방식의 다양성」,『지역과 역사』31, p.63
31) 박순호본 83-6. “독흔 슐 오십 ᄌᆞᆫ을 벙의 너허 ᄎᆞ고 손의 구리쇠 지환을 짓고 칠보단장의 얼골을 곱거 ᄒᆞ야 거즛 쳥증을 달니 왈”, p.638

장수와 어울려 춤추다가 끌어안고 투신하는데, 소재영본에서는 옥선(논개)이 일본 장수와 입을 맞추다가 혀를 물고 투신하는 것[32]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일본 장수의 음란을 강화하려는 각색이기보다, 혀를 무는 것이 도구 없이 자살하는 방법[33]으로 인지도가 높은 만큼 논개가 일본 장수를 죽이고자 스스로 죽었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연세대본이다. 연세대본에서는 논개 혼자가 아니라 여러 기생이 공모하여 일본 장수를 죽인다. 이는 목숨을 대가로 일본 장수를 죽일 정도의 결의와 기개가 논개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기생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설정으로 보인다. 더구나 연세대본에서 일본 장수는 기생들의 손에 떠밀려 강에 빠진다.

이 ᄯᅵ 왜장 청졍이가 본부 기싱 논긔에 화용월ᄐᆡ를 보고 흠모ᄒᆞ야 ᄆᆡ일 슈쳥을 식이며 노닐ᄉᆡ (중략) 숀을 마쥬잡고 츔을 츄며 구경ᄒᆞ다가 여러 기싱이 셔로 눈쥬어 밀거니 쑬거니 바위에셔 써러져 쳔장만장 슈즁 고혼을 만드니[34]

논개가 일본 장수를 죽인 결과, 일본군은 흩어지거나 다른 장수의 지휘를 받아 진주를 떠난다. 실제로 2차 진주성 전투 후 일본군은 함락된 진주성에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났는데, 2차 전투는 1차 진주대첩의 보복으로 전쟁 수행과는 상관없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것을 논개의 순사와 결부시켜 장수를 잃은 병사들이 절로 흩어지거나 성을 버리고 돌아갔다고 윤색했을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김기현본이다. 다른 이본에서는 일본군이 진주성을 떠났다는 간단한 서술로 마무리되지만, 김기현본에서는 논개의 순사를 본 백성과 군졸들이 일시에 공격하여 일본군을 격퇴한다. 진주성을 되찾은 군민이 제사를 올리자 삼장사와 논개의 혼령이 생시의 모습대로 나타나 감사를 표한다.

이젹에 죠션 군사 삼쟝을 일코 쥭기 되엿드니 왜쟝이 방츌함에 명을 의지하야 피란한 빅셩이 불길ᄒᆡ제 삼만이요 명쟝 십여 원이라 논개를 구경하드니 왜장 안고 물에 쓰르지그늘 쟝졸이 일시에 고함하고 달여들어 왜장 죠충을 죽이고 군죨을 몰아 자충우돌하니 적졸이 대취하야 인사를 몰어드라 왜죨을 씨업시 소멸ᄒᆞ고 논개 신채를 모셔 근저 삼충사에 모시고 이러한 연유로 젼하쌔 장쌔한지라 잇흔날 대연을 ᄇᆡ설ᄒᆞ고 우양을 잡아 호군하고 군위를 ᄇᆡ푸러 삼충사에 가 차래로 잔을 들이며 금곡을 울니고 잔을 들이니 술잔이 말어고 한풍이 일어나며 오방긔치 아래 삼쟝이 엄신갑에 은연이 셧서니 위음이 추산갓ᄒᆞ여 금곡을 울니난 듯하며 잇째 논개의 혼빅이 설부화룡에 완연히 섯드라 최경ᄒᆡ 치사왈 무도 외죨을 다 소멸하고 우리 원슈를 갑고 쥬육을 만이 포식하니 구천하일에 은ᄒᆡ를 읏지 다 갑푸리요 하드니 간대 업난지라 제장군죨이 뉘 안니 신기라 하리요 셩을 슈호하고 근읍 빅성을 문훌하드라[35]

이렇게 하여 논개의 순사가 완성되고, 평가로 이어진다.

4) 논개의 평가

논개의 순사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32) 소재영본. “슈빅 즌을 먹이고 거무를 츄어 길기다가 왜중의 입을 ᄒᆞᆫᄃᆡ 하여 길기다가 셔를 물고 쵹셕누 아ᄅᆡ 나려지니”. p.212
33)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34) 연세대본 <흑룡일기>, 『임진록 이본 연구』 4, pp.76-77.
35) 김기현본, 『임진록 이본연구』 3, p.51

서지	평가자	평가내용	평가형태
김영진본 1	진주병사&왕	충열이 천추의 으뜸이다	충열비를 세워 전하다
김영진본 2	없음	제일 장하고 놀라운 의기이며 그 충절은 지금까지 제향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다	의기의 이름을 얻고 제향을 받다
김영진본 3	왜군&진주목사&왕	충절&열녀충열&크게 칭찬	정열부인으로 봉하여 촉석루 앞에 정문을 세워 천추에 전하다
박노춘본	왜병	정절지심이 지극하며 그 죽음이 불쌍하다	왜군이 시신을 건져 장례하고 충절을 칭찬하다
이명선본	진주목사&왕	이런 충성은 전고에 없다	촉석루에 비를 세우다
고려대본	없음	없음	없음
권영철본	왕	천첩이나 국사를 위해 불쌍하게 죽었다	원당을 짓고 부호를 상급하여 춘추제향하다
정명기본	없음	없음	없음
원광대본	없음	없음	없음
정문연본 1	서술자 & 왕	슬프다 (서술자)	정렬부인으로 봉해 만세유전케 하다
김기현본	경상절도사	(전투결과만 전달)	왕이 그 충성을 칭찬하다
경판본	서술자 & 후인	강개한 마음과 민첩한 지혜는 고인에게 부끄럽지 않다	바위를 의암이라 하다
숭전대본	서술자 & 후인	강개한 마음과 이 같은 지혜는 고인에게 부끄럽지 않다	바위를 의암이라 하다
정문연본 2	없음	없음	없음
소재영본	본읍병사 & 왕	만고의 충신	촉석루에 충열문을 짓고 사연을 기록하여 춘추제향하며 만고에 전하다
경북대본	없음	없음	없음
김광순본 28-1	서술자 & 평수길	논개의 충열은 천고에 드물며 지혜는 청정의 누이[36]보다 못하지 않다 & 요망한 계집	없음
박순호본 83-6	조섭의 처[37]	조선의 충성(忠星)	천상 항아 옥섬이 되다
박순호본 83-4	평수길	요망한 계집이나 일개창녀로서 충열이 있다	없음
연세대본	서술자	조선의 수백 명장을 부끄럽게 하다	바위를 낙화암이라 하다
김광순본 77	없음	없음	없음
김광순본 78	없음	없음	없음
김동욱본 1	서술자	장하고 슬프다	없음
김동욱본 2	진주목사 & 왕	이런 충절은 천고에 없다	촉석루에 충열비를 세워 봉하다
김동욱본 3	서술자	슬프다	없음
김동욱본 6	서술자 & 후인	강개한 마음과 민첩한 지혜가 고인에게 부끄럽지 않다	바위에 새겨 천추의 충열로 전하다
김동욱본 7	진주목사 & 왕	이런 충절은 천고에 없다	촉석루에 충열비를 세워 봉하다
김동욱본 10	후인	강개한 마음과 민첩한 지혜가 고인에게 부끄럽지 않다	바위에 새겨 일대장강이요 천추의 열이라 하다
김동욱본 11	서술자	충신열녀	없음
영남대본	없음	없음	없음

평가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일이든 목격자와 증인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특히 영웅적 행위는, 목격자와 증인과 평가자가 있어서 그 행동이 가치 있고 영웅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 평가자가 명망이 높고 지위가 높을수록 그 평가의 의미가 깊어진다. 적대자가 인정한다면 말할 것도 없다.

김광순본 28-1에서는 논개로 인해 아끼던 부하를 잃게 된 평수길이 논개를 “요망한 계집”

36) 이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37) 이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라고 욕한다. 박순호본 83-4에서는 마찬가지로 평수길이 요망한 계집이라고 논개를 욕하지만 곧이어 일개 창녀이면서도 충열이 있다는 놀라움 또는 두려움[38]을 표시한다. 박노춘본에서는 사건을 목격한 일본 병사들이 감동하여, 일본 장수만이 아니라 논개의 시신도 찾아서 장례하고 그 충절을 칭찬한다.

김기현본에서는 군민이 봉기하여 진주성을 되찾고 삼장사와 논개의 원한을 풀었다는 결말부가 평가의 역할까지 넉넉히 하였기에, 임금이 칭찬해 마지않았다는 식의 간단한 서술로 끝나지만 허무하지 않다. 박순호본 83-6에서는 "조셥의 부인이 ᄒᆞ로난 쳔기을 보다가 돌탄왈 불상ᄒᆞ도다 조션의 츙셩이 써어진이 반다시 천상 항아 옥셤이 죽어도다 쳔도 엇지 무심ᄒᆞ니요"(p.638)라고 하여, 천상의 적강자라는 설정까지 논개에게 붙이고 있다.

논개는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하여 일본 장수를 죽였으나 당시에는 열녀의 이름을 얻지 못하고 충신이 되지도 못했다. 그러나 임진록에서는 논개의 순사가 즉각 그 보답을 받는다. 아무리 늦어도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군이 철수하고 논공행상을 벌일 때 논개도 다른 영웅들과 함께 포상을 받는다.

ᄯᅩ ᄒᆞ고ᄒᆞ시ᄃᆡ 평안도 (기)ᄉᆞᆼ 화월이 ᄯᅩ 진쥬 기ᄉᆞᆼ 논ᄀᆡ 등은 비록 쳔쳡이라도 국ᄉᆞ을 위ᄒᆞ여 불ᄉᆞᆼ이 쥭어신니 그지두지 못ᄒᆞ리라 ᄒᆞ시고 화월과 논ᄀᆡ의 원당을 짓고 부호 시결식 ᄉᆞᆼ급ᄒᆞ여 츈츄로 제향ᄒᆞ라 ᄒᆞ신다 이후로부텀 조션니 ᄐᆡ평일네라[39]

잇ᄯᅵ 진즁의셔 장문이 왓거날 왕니 ᄀᆡ택ᄒᆞ여 보신니 ᄒᆞ여시되 진쥬 기ᄉᆡᆼ 노은ᄀᆡ는 창우지ᄇᆡ라도 왜장 평슈길이을 다리고 쵹셜누의셔 한가지 칼츔 츄다가 왜장을 안고 강물의 써러져 쥬거싸온니 열여츙열을 장문ᄒᆞ난니다 왕니 남필의 ᄃᆡ경층찬ᄒᆞ시고 시졀 ᄐᆡ평ᄒᆞ거든 츙열 봉ᄒᆞ고 졍열부인을 봉하고 촉셜누 압희 졍문을 셰워 쳔츄유젼ᄒᆞ리라 ᄒᆞ시더라[40]

천기(賤妓)[41]이고 "천한 창녀"[42]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던 논개가 "천고에 없는 충절", "충신열녀", "천추의 으뜸" 같은 칭찬을 받는 것은 물론이며, 비록 죽은 이후이기는 하나 임금이 명을 내려 정렬부인에 봉해지고 비석을 세우며 춘추제향을 받고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대대손손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것으로 임진록에서 논개의 이야기가 끝난다. 이렇게 형상화된 '의기' 논개는 누구에게 어떤 모범상을 제시하는가?

4. '충'의 모범상과 논개

1) 태생적 당위에 의한 충 실현의 모범상

앞서 정지영의 논의를 인용하여, 논개는 '열' 아닌 '충'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기녀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충'을, 논개는 무엇에 바쳤는가? '충'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행위가 '충'인지 '열'인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이본에서 논개는 자신이 여

38) 설화에서는 평수길이 이 사건을 통해 '조선 여자가 무서운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
39) 권영철본,『임진록 이본 연구』2, p.484
40) 김영진본 3,『임진록 이본 연구』2, p.334
41) 숭전대본. "ᄂᆡ 몸이 비록 쳔ᄒᆞᆫ 기ᄉᆡᆼ인들". p.95
42) 박순호본 83-6. "ᄂᆡ 아무리 쳔ᄒᆞ 창어질라도". p.637

자이고 기생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임을 자각하면서 항거를 결심한다.

ᄂᆡ 몸이 비록 녀ᄌᆞ나 **나라 슈토를 먹고 지ᄂᆡᄂᆡ 우리 대왕에 분하심을 만분지일이나 싯치고** 삼쟝에 원슈를 갑흔 후에 구쳔에 도라간들 무삼 원이 이스리요[43]

비록 츤ᄒᆞᆫ기집이나 **조션에 자라나서 왕상어 덕찍으로 신명을 보존ᄒᆞ얏거니** 엇지 분의를 몰어리요[44]

ᄂᆡ 아무리 쳔ᄒᆞ 창어질라도 **셰디로 나라 슈토을 먹고 어지 ᄂᆡ 임군을 ᄇᆡ반ᄒᆞ고** 도젹을 셤기리요[45]

ᄂᆡ 비록 츤누ᄒᆞᆫ 충여라도 **죠션 수토을 먹고 우로의 져져신이** 읏지 이련 ᄭᆡ을 당ᄒᆞ여 일분 군직을 ᄉᆡᆼ각ᄒᆞ리요[46]

논개가 투신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는 14종의 이본에서 가사까지 서술된다. 이 노래를 실제로 논개가 불렀을 가능성은 없고, 이본 각편 작가의 창작이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통해 작가 의식을 찾을 수 있다.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네 계열로 나뉜다.

한시 계열

이본명	노래의 내용
김광순본 77	風飄飄兮舞袖飜 彼狡童兮 江水淸兮 (擧)目凄 不與我(好) 嗚呼哀哉 日暮逢窮 此何天 世事悲
경북대본 M경	풍표표혜여 무슈변니로다 강ᄉᆞ이여혜 지목참이로다 픠조아혜 ᄂᆡ불여아호혜로다[47]
영남대본	風飄飄兮舞袖飜 江山異兮擧目凄 彼狡童兮 不與我好兮 嗚呼哀哉 此何天地 日暮道遠 世事悲
원광대본 G원	風飄飄兮舞袖飜 江山異兮擧目凄 彼狡童兮 不與我好兮 嗚呼哀哉 此何天地 日暮道遠 世事悲
정명기본 G명	風飄飄兮舞袖飜 江山異兮擧目凄 彼狡童兮 不與我好兮 嗚呼哀哉 此何天地 日暮道遠 世事悲
고려대본 G고	風飄飄兮舞袖飜 江山異兮擧目凄 彼狡兒兮 不與我 好 嗚呼痛哉 此向皇天 日暮道遠 世事悲

허무 계열

이본명	노래의 내용
권영철본 G권	바람이 포포ᄒᆞ니 츔츄난 소ᄆᆡ을 흔드난ᄯᆞᆫ 강산이 변히여시ᄆᆡ 기갓튼 오랑ᄏᆡ난 만고의 원슈로다 실푸다 국가의여 군운이 이리 된니 ᄂᆡ ᄉᆞ ᄅᆞ 무엇ᄒᆞ리요
김광순본 78	바람이 포포ᄒᆞ니 츔츄난 소ᄆᆡ을 흔든나ᄯᆞᆫ 강산이 변히여시ᄆᆡ 기갓튼 오랑ᄏᆡ난 만고의 원슈로ᄃᆞ 실푸ᄃᆞ 국가의여 군운이 이리된니 ᄂᆡ ᄉᆞ ᄅᆞ 무엇ᄒᆞ리요

충성 계열

이본명	노래의 내용
정문연본 3 G정	한중이 표표하니 츔츄난 ᄉᆞᄆᆡ을 쓸치난도다 몸이 안여ᄌᆞ 되여시나 장부를 급ᄒᆞ리요 남만이 강셩ᄒᆞ니 동국이 쇠밀ᄒᆞ도다 분분한 쳔지ᄋᆡ 국왕을 바리고 으ᄃᆡ로 도라가리오 저 장ᄉᆞ 실펴도다 셔쳔이 일모ᄒᆞ니 갈길리 밧부도다 젹젹ᄒᆞᆫ 심야쥼이 황쳔으로 읏지갈고 남ᄌᆞ 몸 비르나셔 ᄉᆡ상을 동심ᄒᆞ여 국왕을 도으리라
김동욱본 11	향풍이 소실ᄒᆞ여 츔츄ᄂᆞᆫ 소ᄆᆡ 날리ᄂᆞᆫᄯᆞ 한몸이 아녀ᄌᆞ 되여시나 엇지 장부을 겁하리요 남한이 강셩ᄒᆞ야 동국이 위미ᄒᆞ엿ᄯᆞ다 부요ᄒᆞᆫ 텬지ᄋᆡ 국왕을 바리고 어ᄃᆡ로 가리요 셰상ᄉᆞ ᄉᆡᆼ각ᄒᆞ니 셔텬의 일모ᄒᆞ여 갈길이 만리로다 젹젹ᄒᆞᆫ 장강슈ᄋᆡ 황텬으로 엇지갈고 남ᄌᆞ 몸 비러나셔 셰상을 동심ᄒᆞ여 국왕을 도으리라
김동욱본 1	한풍이 소실ᄒᆞ니 무슈를 썰치난듯 남적이 강성ᄒᆞ니 동국이 소멸ᄒᆞ도다 아여ᄌᆞ의 몸이로셔 장부를 급널손냥 분분한 천지간에 군왕을 바리시고 어ᄃᆡ로 도라가리 서천에 일모ᄒᆞ니 갈길이 말리로다 적적한 깁픈밤에 항천을 어이갈고 이ᄂᆡ몸 죡은후에 염ᄂᆡᄃᆡ왕 원정ᄒᆞ여 남ᄌᆞ몸을 비러와셔 난세국왕도 의리라

43) 김기현본, 『임진록 이본연구』 3, pp.49-50.
44) 김광순본, 『김광순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 전집』 28, pp.403-404.
45) 박순호본 83-6,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83, pp.637-638.
46) 박순호본 83-4,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83, pp.496-497.
47) 경북대본에서는 논개가 이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 삼장사가 자결을 결심하고 "쳔운이 여ᄎᆞᄒᆞ니 인군을 어이할고 황쳔이 머다 ᄒᆞ니 어ᄃᆡ로 가ᄌᆞᆫ 말고"라는 시를 지어 부른다.

김동욱본 3	양풍이 소소히여 츔츄난 사미 랄리노다 니몸이 여ᄌᆞ되야시나 엇지 장부을 겁ᄒᆞ리요 남한이 강성ᄒᆞ여 동국이 희미ᄒᆞ엿또다 부운쳔지의 국왕을 발이고 시장사을 싱각ᄒᆞᆫ니 쳔지가 일모ᄒᆞ고 갈길리 말이로다 적적ᄒᆞᆫ 장강수의 황쳔으로 엇지 갈고 남ᄌᆞ몸을 빌여나서 ᄉᆡ상을 동심ᄒᆞ여 국왕을 도어지라

기타 계열

이본명	노래의 내용
김기현본 4 G현	국운이 불힝하야 쳔추강히는 늘 풍진이요 사회의 장부기슈인고 세당누지익희여 쳥혀싱하인간에 제슈하회에 단단심사불원을 만고부당희여 개시슈기로다 진새쟝강슈라 미제라 삼장사충희여 슈연슈귀련고 일편단심 보슈희여 일필노 난조로다
박순호본 83-5 M박	(시조) 동산의 뜬 달은 사랑치 안이ᄒᆞ머 셔산의 지ᄂᆞᆫ 히을 뉘라셔 붓듯리요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모두 전쟁, 우국충정, 특히 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논개의 자각이 곧 왕에 대한 충성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조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라 수토(水土)'를 먹고 자란 것은 오직 조선 임금의 은덕에 의한 것이기에 당연히 조선 임금에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논리이다. 논개에게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나 현실적 조건을 찾기 이전에 제시되는 당위적 전제이고, 그 전제에 따라 목숨을 바쳤다. 이로써 논개는 당위적 '충'의 모범상으로 자리 잡았고, 논개를 모방하면 국가로부터 논개와 같은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묵시적인 약속이 성립되었다.

2) 신분 상승을 위한 충 실현의 모범상

논개의 서사는 서술자가 칭찬하고 후세의 칭송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목사나 병사가 사건 내용을 왕에게 장계로 올리고, 왕이 '대경'하거나 '대희'하며 칭찬하는 것까지 나옴으로써 끝을 맞이한다. 왕의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임진록에서 모든 사건이 최종적으로 왕에게 보고되어 논공행상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왕은, 벼슬을 내릴 뿐 아니라 비석과 정문 등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기념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평가자이다. 증거의 유무로 전설과 민담이 나뉘는 것을 생각하면, 사건에 대한 물리적 형태의 기념물은 평가 그 자체만큼 중요하다. 후세 사람들이 바위에 의암이나 천추의열 등을 새겨서 전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대상 이본 31종에서 물리적으로 실존하는 평가의 증거는 모두 왕이 부여한 것이다.

서지	평가자	평가내용	평가형태
김영진본 1	진주병사&왕	충열이 천추의 으뜸이다	충열비를 세워 전하다
김영진본 3	왜군&진주목사&왕	충절&열녀충열&크게 칭찬	정열부인으로 봉하여 촉석루 앞에 정문을 세워 천추에 전하다
이명선본	진주목사&왕	이런 충성은 전고에 없다	촉석루에 비를 세우다
권영철본	왕	천첩이나 국사를 위해 불쌍하게 죽었다	원당을 짓고 부호를 상급하여 춘추제향하다
정문연본 1	서술자 & 왕	슬프다 (서술자)	정렬부인으로 봉해 만세유전케 하다
김기현본	경상절도사	(전투결과만 전달)	상이 그 충성을 칭찬하다
소재영본	본읍병사 & 왕	만고의 충신	촉석루에 충열문을 짓고 사연을 기록하여 춘추제향하며 만고에 전하다
김동욱본 2	진주목사 & 왕	이런 충절은 천고에 없다	촉석루에 충열비를 세워 봉하다
김동욱본 7	진주목사 & 왕	이런 충절은 천고에 없다	촉석루에 충열비를 세워 봉하다

임진록 바깥에서 논개를 기생으로 여기든 그렇지 않든[48], 임진록에서 논개는 어디까지나 기

생이고 천민이다. 그러나 ‘충’을 실현함으로써 면천되어 정렬부인에 봉해졌다. 그 정도로 신분이 바뀌지는 않았더라도 ‘의기(義妓)’로서 제향을 받으며 이름을 역사에 남기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논개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 평범한 죽음이 아닌 순사를 결심했다고 보는 이본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편단신이 위국츙셩만 싱각ᄒᆞ여 일홈을 죽빅의 올이고 ᄌᆡ쥬를 뉘랴셔 알이요[49]

ᄉᆞ상을 싱각지 안니ᄒᆞ고 충심만 싱각ᄒᆞ야 일홈을 죽빅의 올이여 후셰으 젼코ᄌᆞ ᄒᆞᄂᆞᆫ 뜻을 뉘라셔 알이요[50]

기싱 옥션니가 싱각ᄒᆞ되 아무리 기싱인들 왜젹의게 허신ᄒᆞ여 후세의 누츄ᄒᆞᆫ 말을 젼ᄒᆞ리요 져놈드리 죠션 인명을 봉지즉살지(逢之卽殺之)ᄒᆞ는 놈이라 임의 쥭을진ᄃᆡ 공을 일우여 일홈을 후세의 젼ᄒᆞ리라[51]

여러 이본에서 논개는 최경회의 죽음을 보고 따라 죽을 각오를 할 때 ‘살신성명’이라고 한다. ‘명(名)’을 위해 살신(殺身)하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최경회를 따라 죽어 ‘열녀’의 이름을 얻는 것일 수도 있고, 어차피 최경회를 따라 죽을 것이니 그 죽음을 수단으로 삼아 일본 장수를 죽여서 후세에 ‘충렬’이라 불리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 모두이든 상관없이 ‘명’은 ‘인(仁)’과 동등한 위치에서 목숨 이상의 값어치를 인정받고 있다.

무보수적이고 절대적인 동기에서 순사하는 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기는 하지만, 사적인 공명심에서 순사했더라도 공적으로 ‘충’을 인정받고 영원히 의로운 이름을 얻는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논개는 죽음으로써 목적을 이루었고 신분 상승에 성공했다. 이로써 논개는 ‘충’을 통한 신분 상승의 사례로서 모범상으로 자리 잡았고, 논개를 모방하면 국가로부터 논개와 같은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묵시적인 약속이 성립되었다.

5. ‘충’의 실현자로서의 논개의 의미

임진록 이본군에서 선조의 이미지는 그리 좋지 못하다. 임진록에서 선조는 왕으로서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王相’을 갖추지 못한 왕이다. 최문정[52]은 조선의 대신을 유능하게 표현하려고 선조를 무능한 인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최문정은 임진록의 바탕에 재상중심주의가 있으며, 선조에 대한 비판은 민중의 생각이 아니라 사대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53]. 그러나 능력은 애초에 왕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다. 지혜는 문신이, 용맹은 무장이 담당하면 된다. 왕에게 필요한 것은 체제 전체를 유지할 수 있는 ‘권위’이다.

48) “그런데 그 논개님을, 여기 참배하로, 생가를 참배하로 오는 사람들 중에,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땐 많이 와요, 그 사람들 중에는 참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보면 술을 묵고, 벌써 여 들어오기 전에 술을 묵어 가주고 얼굴이 벌겋게 해 가주고 취해서는 술을 가주고 와서 술을 요 앞에 놓고 ‘술 한 잔 따라라, 이 기생아 술 따라라’ 하면서 그래는 걸 보면, ‘그런 행동할라거든 다시는 여 오지 마소, 어데 논개님이 기생인가’ 하고 막 욕을 해줍니다.” 박기용, 「논개 설화의 서사 전개 양상과 의미」, 『우리말글』 32, 우리말글학회, 2004.12. p.35

49) 김영진본 3(CE영), 임철호, 『임진록 이본연구』 2, p.333

50) 박노춘본(CE춘), 임철호, 『임진록 이본연구』 2, p.393

51) 소재영본(L소), 임철호, 『임진록 이본연구』 3, p.212

52) 최문정, 『임진록 연구』, 박이정, 2001.

53) “국왕의 악정이며 실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왕조 교체 즉 역성혁명을 주장하는 천명론이 대두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문정, 같은 책, p.96

임진록에서 왕의 권위는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지혜나 용맹, 지략 같은 전쟁 수행 능력과는 동떨어진 영역에서 온다. 왕은 종묘와 사직으로 현현되는 왕조사회의 당위적 질서에 속해 있고, 그 당위적 질서는 현실의 어떤 사건으로도 의심이나 침범을 받지 않는다.

임진록에서 왕은 영웅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영웅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왕의 '명초'가 필요하다. 왕이 먼저 그의 존재를 알고 불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김덕령처럼 명초 없이 움직인 역적이 되고 만다. 이여송이 청병장으로 조선에 도착한 후에는 조선의 영웅들이 앞다투어 찾아오지만 '왕의 명초'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명초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모두 이여송의 '부하 장수'로서 왕의 명초를 받을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왕은 국가의 화신이고, 음조의 근원과 연결되는 유일한 존재이다. 관운장계 임진록에서 관운장은 왕과 천자의 꿈에 현몽하여 경고할 뿐 아니라 일본 장수 청정에게 나타나 호통을 쳐서 떠나게 하고, 왕의 환궁을 도우며, 청정의 앞을 막아 이여송에게 죽도록 한다. 관운장이 이렇게 조선을 돕는 이유는 명 천자와 조선 왕의 전생이 유비와 장비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조선에 의탁하는 이유 또한 그저 조선이 동생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명 천자가 조선으로 원병을 보내는 이유 또한 오직 전생에 자신이 유비이고 조선 왕이 장비였으므로 형이 동생을 돕는다는 개인의 윤리적 당위에 있다. 농사철, 타국 원정, 전쟁 수행의 부담, 명장을 외국에 보내는 불안함 같은 현실적 조건은 이 윤리적 당위 앞에서 무력해진다. 왕과 왕의 관계는 곧 나라와 나라의 관계이니, 관운장계 임진록에서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은 왕 한 사람의 존재인 것이다.

(이하 미완성)

6. 결론

(미완성)

【토론문】

“<임진록>에 나타난 모범상으로서의 논개 연구 – ‘충’의 실현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현주(영남대)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이 논개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실로 뜨거울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임진록의 논개형상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된 점 감사드리며 단견이나마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려 합니다.

첫째, 논개담에 대해서 이본의 계열별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본에 따른 논개형상의 변화양상을 고려하여 그 추이를 따라 논개담의 교차지점이나 선후관계를 밝혔으면 합니다. 임진록에서 논개형상에 대한 이본별 특징을 정리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적인 지점도 좀더 선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최문정은 “역사계열의 국한본과 최일영 계열 일부에는 논개의 행적과 죽음이 서술되지 않는다. 역사계열 변형1, 2는 논개의 업적이 과장되어 있고 논개의 행적이 문헌에 실린 1831년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관운장 계열 임진록에는 논개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보아 왜곡됨 없이 서술되고 있다. 임진록에 실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후기로 갈수록 과장되는 것이 보통인데 논개담에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변이가 이루어져 있다.”(최문정, 『임진록연구』, 박이정, 2001, 372～373쪽)고 하여 논개담이 이본별로 다르게 서술된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고의 도표에서도 계열별 이본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더 가독성 있게 정리해 주신다면 후학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논개가 최경회의 첩이거나 관기이거나 혹은 양첩이라는 여러 논의가 분분합니다. 실제로 논개의 서사는 최경회의 서사와 겹치기도 하고 때로는 일정부분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임진록에서 최경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같이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존인물 혹은 소설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는 오롯이 객관적이기 보다는 당쟁의 결과이거나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인물상에는 어느 특정시대 대두되던 명분론과 이념 등이 투영될 수 있다는 것인데 특히 인물상 중에서도 ‘모범상’으로서의 논개를 볼 때 논개와 함께 언급되는 최경회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표현상의 문제를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들자면 먼저 한문학과 국문학에 대한 예단입니다.

“민중의 독서물은 사대부의 한문학이 아니라 한글로 된 소설이다. 논개가 누구의 어떤 공문서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한문학은 민중의 향유 바깥에 있다. 논개가 어떻게 기억되고 평가되

었는지는 임진록에 들어있다."(1쪽 3문단)

그러나 사실 임진록의 이본은 한문본과 국문본, 국한문혼용문이 있으며 국문본이 민중의식을 더 잘 대변한다고 일방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례로 "종전 후 이여송이 조선 산천의 맥을 끊으려다 노인의 인도로 태백산에 들어가 청의동자(靑衣童子)를 만나고 크게 질책당하는 구성은, 한문본 계통의 작품에 더 강화되어 있어 민중 속의 배명의식의 뿌리가 깊음을 말해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임진록에 한정되지 않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18세기 유통된 한문단편과 국문본 장편가문소설을 비교해보아도 문자로 그 내용을 예단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鄭夢周의 日本 使行詩 창작 의미

김준(연세대)

〈 차 례 〉

1. 머리말
2. 사행의 과정
3. 사행시 분석
4. 맺음말

1. 머리말

정몽주(1337~1392)는 1377년 9월부터 1378년 7월까지 報聘使 자격으로 일본에 사행을 다녀오게 된다. 고려 조정에서는 당시 왜구의 잦은 침략이 문제가 되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한 것이다. 『高麗史』의 기록에 따르면 1377년경에는 대략 43여 차례에 걸쳐서 왜구가 침입했는데, 당시 왜구는 해안 지방에 피해를 입히면서[1] 동시에 내륙 지방에서도 민간인은 물론 해당 지역의 관리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2] 게다가 일정 이상의 규모를 군사력을 갖춘 왜구가 조직적으로 협공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왜구의 침입에 맞서서 국방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3] 이처럼 왜구의 침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정몽주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몽주는 일본과의 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시를 통한 교유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사신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한 정몽주는, 이후에 『谿谷集』, 『東槎日記』, 『芝峰類說』, 『鶴峰集』, 『海槎日記』,등과 같은 기록에서 회자되곤 하였다. 이들 기록에서는, 지금껏 일본으

1) 당시 왜구가 창궐하여 바닷가 州.郡들이 모두 황폐하게 되었다.(時倭寇充斥, 濱海州郡, 蕭然一空),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 고려사』 26권, 도서출판 민족문화, 2006). 앞으로 제시되는 인용문 중 『고려사』에 대한 부분은 동아대학교의 원문과 번역을 참고로 했다.

2) 왜적이 洪州를 도륙하고 불사르고, 목사 池得淸의 처를 죽이며, 判官의 처자를 사로잡았다. 양광도 원수 왕안덕 등이 蘆峴에서 싸워서 패하였다. 이튿날 적이 또 溫水縣(충남 온양)을 침범하고, 伊山營을 불태웠다. 원수 印海 등이 薪橋에서 싸웠는데, 밤에 적이 사면으로 포위하자 군사들이 놀라 무너져서 많이 살상되었다. 적이 또 鎭浦에서 韓州로 들어오니, 안덕이 장수를 보내어 싸움을 돕기를 청하였다. 우가 商山君 김득제, 밀직부사 목충ㆍ왕빈에게 명하여 가게 했다.(倭，屠燒洪州，殺牧使池得淸妻，虜判官妻子，楊廣道元帥王安德等與戰于蘆峴敗績，翌日賊又寇溫水縣，焚伊山營，元帥印海等戰于薪橋，夜，賊四圍，士卒驚潰，多被殺傷，賊又自鎭浦，入韓州，安德，請遣將助戰，禑，命商山君金得齊，密直副使睦忠，王賓，赴之)

3) 경상도 원수 우인열이 보고하기를, "왜적이 대마도로부터 바다를 덮어 와서 돛과 돛대가 서로 이어질 정도입니다. 이미 군사를 보내어 요해처를 나누어 지켰으나, 적이 형세가 성대하고 방어할 곳이 많아서, 한 도의 군사로써 나누어 지키기에는 형세가 심히 위태롭고 약하니, 조전원수를 보내어 요해처를 방비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때에 강화에 있는 왜적이 서울에 아주 가까이 밀어닥쳐서 국가에서 방비하기에 겨를이 없는데, 또 이 보고를 받자 어찌 할 바를 몰랐다.(慶尙道元帥禹仁烈，報倭賊自對馬島蔽海而來，帆穡相望，已遣兵分守要衝然，賊勢方張，防戍處多，以一道兵分軍而守，勢甚孤弱，請遣助戰元帥，以備要害，時江華之賊，逼近京都國家備禦不暇，又得此報，罔知所爲).

로 사행을 다녀온 사신 중에서 정몽주를 선례로 꼽거나, 정몽주의 외교 활동 모습, 교유한 인물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정몽주는 일본 사행을 갔을 당시에「洪武丁巳奉使日本作」11수와 倭僧들과의 교유를 보여주는「日東茂上人惠以石硯以詩爲謝」,「次牧隱先生詩韻贈日東茂上人」,「贈嵒房日本僧永茂」(2수),「贈日本洪長老」등을 지었는데, 이 중「洪武丁巳奉使日本作」11수 중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인식한 작품이 4수가 있는 반면에 '사신'이라고 인식한 작품이 1수에 불과한 것이다. 정몽주의 이와 같은 한시를 음미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정몽주는 엄연히 공적인 임무를 띠고 온 '사신'이라는 신분적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다. 상대국의 환대가 있었음에도 그는 한시 창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로움과 고독감 등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를 '사신'이라기보다는 '나그네'로 인식하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시를 통해 이와 같은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수용되었으며 기억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몽주의 한시에서 이와 같은 작가의 내면의식이 드러나게 된 과정과 정몽주에게 있어서 한시 창작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 사행의 과정

정몽주가 일본 사행을 가게 된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살펴볼 것이다. 정몽주가 보빙사로 파견된 계기, 일본 사행에서의 활동 양상, 고려로의 귀환의 과정이 그것이다.

정몽주가 보빙사 자격으로 일본에 사행을 가게 된 계기는, 자발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외부적인 압력 및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사실 정몽주가 일본 사행을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홍사범을 따라서 서장관 자격으로 명나라 사행길을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그때 배가 난파당하는 사고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요인은 왜구 침략을 중단시켜야하는 중대한 외교적인 임무를 떠안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 (A) 금상 전하 즉위 4년째 되는 해(1377, 우왕3)의 가을 7월에 경상도의 帥臣이 驛傳으로 보고하기를 "일본국 霸家臺의 사자가 와서 …… 朝臣이 안에 들어가서 아뢰니, 전하가 이르기를 "패가대는 일본의 巨鎭이다. 사자가 어찌 공연히 왔겠는가. 郡縣으로 하여금 숙식과 거마 등을 잘 대접해서 올려 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사자가 국서와 예물을 바치고 나서 앞으로 나아와 아뢰기를 "섬 오랑캐가 도발하여 남의 가옥을 불태우고 남의 자식과 부인을 고아와 과부로 만드는가 하면 심지어는 近畿의 지역까지 침범한다는 말을 우리 主將이 듣고는 한편으로는 분격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마침내 이 자들을 섬멸하려고 결심하고서 미천한 이 사신을 보내 군사 작전 시기를 알려 드리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전하가 재상을 불러서 이르기를 "報聘을 하는 것이 예법에 맞는 일이다. …… "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成均大司成 鄭達可가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4](밑줄, 인용자)

4) 殿下之四年秋七月.慶尙道帥臣驛聞曰. 日本國霸家臺使者至矣. …… 朝臣入告于內. 殿下若曰. 伯家臺. 日本巨鎭也. 使者來夫豈徒哉. 其令郡縣飭厨傳以送. …… 使者獻書幣訖. 進而告曰. 主將聞島夷竊發. 焚蕩人室廬. 孤寡人子婦. 至或憑陵近地. 且奮且耻. 遂欲殄殲之. 遣賤介以報師期. …… 則殿下召宰相

(B) 우왕 3년(1377), 권신들이 지난번 상소에 원한을 품고 정몽주를 報聘使로 천거하여 하카다로 가서 왜적의 침구를 금지시켜줄 것을 요구하게 하니, 사람들은 모두 위태롭게 여겼으나 정몽주는 전혀 난색을 나타내지 않았다.[5](밑줄, 인용자)

(C) 고려 말엽에 패가대(覇家臺)의 사신이 와서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를 보빙(報聘)으로 보내주기를 청하였다. 전에 왜구를 근심하여 나흥유(羅興儒)를 보내어 화친하기를 유세하다가 그가 억류되어서 죽을 뻔하였다. 그래서 그때 와서 사람들이 모두 포은을 위해 위태롭게 여겼더니, 공은 조금도 어려워하는 빛이 없었다. 패가대에 이르러서 교린(交隣)의 이해를 갖추어 말하였더니, 오랜 뒤에는 왜장이 감화하여 존경하고 마지막에는 호송하였다 한다. 모두 다 이곳에서 있은 일이다.[6](밑줄, 인용자)

(D) 아아, 두 나라가 우호를 맺는데 사신이 중간에 끼어 있으니 그 책임이 또한 중하지 않습니까. 원망을 해소시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그 임무이고,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그 책임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동안에 적의 향배가 달렸고, 행동 한 번 하는 사이에 자신의 영욕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찌 조심하지 않아서야 되겠으며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7]

위의 인용문 (A), (B), (C)를 통해서 정몽주가 일본 사행을 가게 된 계기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우왕 3년인 1377년에 일본국 패가대의 사신이 와서 왜구의 고려 침략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 우왕은 외교적인 예법에 따라서 보빙사 파견을 결정하게 되는데 정몽주가 발탁된다. 정몽주가 발탁된 이유는 인용문 (B)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인 반목 관계가 작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海槎日記』인 인용문 (C)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국 패가대에서 보빙사로 파견할 인물로 정몽주를 요청했는데, 이러한 점도 그가 일본 사행을 가게 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인용문 (D)에 따르면, 사신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임금을 높이고 백성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언행에 따라 외교적인 교섭은 물론 자신의 영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때문에 사신은 막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몽

曰. 報聘. 禮也. …… 於是遣成均大司成鄭達可以行.(『陶隱集』)(번역과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DB를 따랐다. 이하 본고에서 인용한 한국문집 자료의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DB를 따랐음을 밝힌다.)

5) 時倭寇充斥, 濱海州郡, 蕭然一空. 國家患之, 嘗遣羅興儒使覇家臺說和親. 其主將拘囚, 興儒幾餓死, 僅得生還. 三年, 權臣嗛前事, 擧夢周報聘于覇家臺請禁賊, 人皆危之, 夢周略無難色. 及至, 極陳古今交隣利害, 主將敬服, 館待甚厚. 倭僧有求詩者, 援筆立就, 緇徒坌集, 日擔肩輿, 請觀奇勝.『高麗史』

6) 高麗末霸家臺使者至. 以鄭圃隱夢周報聘. 前患倭寇. 遣羅興儒說和親. 被拘幾死. 至是人皆爲公危之. 公略無難色. 及至霸家臺. 備陳交隣利害. 久之倭將感化尊敬之. 末乃護送云. 幷皆此地也.(『海槎日記』)(『陶隱集』)

7) 噫. 兩國交好. 使在其間. 其任不亦重乎. 解怨釋. 其任也. 尊主庇民. 其責也. 片言之頃. 敵之向背係焉. 一動之間. 身之榮辱隨之. 可不愼乎. 可不懼乎. …… 如日本者. 雖曰夷狄. 有君臣上下之分. 有賓主交接之禮. 性且伶俐. 善解人意. 非可以禽獸待之. 是故. 我朝待之以隣國. 館接之數. 有加於北狄. 時或通聘. 以敦交隣之義. 簡選使价. 以責專對之任. 此前代之所已行. 本朝之所不廢者也. 國之重輕. 係乎使命. 故烏川爲使. 則夷人感悅. 禁侵掠而還俘獲. 羅興儒銜命. 則非徒不得其要領. 其身亦不免囚繫. 使乎一身. 不亦重乎. 爲使臣者. 必也尊其體貌. 動必以禮. 使夷狄不敢生慢易之意. 又當開心見誠. 情意交孚. 使夷狄自能起愛慕之心. 然後方盡使乎之責. 而不辱君命矣.(『鶴峰集』)(『陶隱集』)

주가 일본 사행에 직접 나섰다는 기록을 찾기 어려운데, 그도 이러한 요인들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고려의 일본통신사들은 때로 평화교린의 상황에서 사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8]는 점도, 그가 일본 사행에 자발적이지 않았던 이유로 들 수 있다.

정몽주가 일본 사행에서 성취했던 바는, 왜구 침략을 방지할 수 있는 외교협상을 맺는 것이었다. 『高麗史』의 기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다 면밀하게 살피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高麗史』를 비롯해서 『鶴峯集』, 『芝峯類說』, 『江關筆談』 등에 나오는 기록들을 함께 참고해서 정몽주의 일본 사행에서의 활동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A) 하카다에 당도해 역사적으로 외교상의 이해관계를 상세히 들려주자 主將이 敬服해 매우 후하게 접대했다. 왜승들이 시를 얻으려고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어주니, 승려들이 날마다 가마를 메고 모여들어 경치 좋은 곳을 구경하라고 청하였다.[9]
>
> (B) 일본 같은 나라는 비록 오랑캐라고는 하나 군신과 상하의 분별이 있고 손님과 주인 간에 접대하는 예법이 있다. 또 성질이 영리해서 남의 의사를 잘 아니, 금수와 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 나라 체모의 경중이 사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오천(烏川) 정몽주(鄭夢周)가 사신으로 가게 되자 왜인들이 감복해서 침략하는 것을 금하고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나흥유(羅興儒)가 사명을 받들고 가서는 한갓 교섭하는 요령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제 몸도 잡혀 갇힘을 면치 못했으니, 사신의 한 몸이 또한 중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사신으로 간 자는 반드시 그 체모를 중하게 하고 행동을 예법대로 해서 오랑캐들이 감히 만홀히 여기는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흉금을 털어놓고 성의를 보여 정의(情誼)가 서로 통하게 해서 오랑캐들로 하여금 사모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바야흐로 사신된 책임을 다하여서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10](밑줄, 인용자)
>
> (C) 예전에 일본에 봉명사신으로 간 자 중에는 鄭夢周와 申叔舟가 가장 倭奴의 감복한 바 되어서 지금까지도 칭찬하여 마지않는다. 근년에 黃允吉·金誠一이 같이 日本에 사신으로 갔을 때에는 倭의 추장이 호방하고 거만스러워서 일의 不測한 것이 많았다. 黃은 두려워하고 겁내어 每事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金은 성질이 剛强하여서 바른 것을 지키고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니, 왜인들이 매우 존경하고 두려워하였다고 한다. 아마 비록 異類(금수와 같은 무리)일망정

8) 엄경흠, 「麗末 日本通信使의 使行과 送詩」, 『동양한문학연구』 25, 동양한문학회, 2007, 246-247쪽.

9) 時倭寇充斥, 濱海州郡, 蕭然一空. 國家患之, 嘗遣羅興儒使覇家臺請和親. 其主將拘囚, 興儒幾餓死, 僅得生還. 三年, 權臣嗛前事, 擧夢周報聘于覇家臺請禁賊, 人皆危之, 夢周略無難色. 及至, 極陳古今交隣利害, 主將敬服, 館待甚厚. 倭僧有求詩者, 援筆立就, 緇徒坌集, 日擔肩輿, 請觀奇勝.(『高麗史』)

10) 噫。兩國交好。使在其間。其任不亦重乎。解怨釋紛。其任也。尊主庇民。其責也。片言之頃。敵之向背係焉。一動之間。身之榮辱隨之。可不愼乎。可不懼乎。…… 如日本者。雖曰夷狄。有君臣上下之分。有賓主交接之禮。性且伶俐。善解人意。非可以禽獸待之。是故。我朝待之以隣國。館接之數。有加於北狄。時或通聘。以敦交隣之義。簡選使价。以責專對之任。此前代之所已行。 本朝之所不廢者也。國之重輕。係乎使命。故烏川爲使。則夷人感悅。禁侵掠而還俘獲。羅興儒銜命。則非徒不得其要領。其身亦不免囚繫。使乎一身。不亦重乎。爲使臣者。必也尊其體貌。動必以禮。使夷狄不敢生慢易之意。又當開心見誠。情意交孚。使夷狄自能起愛慕之心。然後方盡使乎之責。而不辱君命矣.(『鶴峰集』)

옳다 그르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던 모양이다.[11](밑줄, 인용자)

(D) 평천이 물었다. "신 문충공은 바로 저의 외조상이십니다. …….”[12] …… 청평이 말하기를, "…… 신 문충공(申文忠公)의 말씀은 천고의 격언이요, 지금 두 나라의 주상(主上)은 어질고 시대는 화평하니 우호 관계가 자연히 돈목(敦睦)하겠거늘, 조금이라도 서로 막힌 생각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13] …… 백석이 또 말하기를, "오늘 이 관중(館中)에서 포은(圃隱) 정공(鄭公 정몽주(鄭夢周))의 후손을 만난 것이 뜻밖입니다. 옛날 본국의 영화(永和) 2년은 바로 대명(大明) 홍무(洪武) 10년(1377, 우왕 3. 그러나 영화 2년은 홍무 9년이 옳음) 인데, 그때 정공이 고려(高麗)의 사신으로 여기 오셔서 우리 구주절도사(九州節度使) 원요준(源了俊)과 만나 두 나라의 화평을 의논했고, 귀국이 개국(開國)하던 날에는 박공 돈(朴公敦 공은 존칭)이 왔으니 곧 고려의 옛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일에 궐중수서관(闕中受書官)인 근위소장(近衛少將) 원공(源公)이 또 요준(了俊 원요준)씨의 후손이고 보니 어찌 기이하지 않습니까? 혹시 근위소장이 다음날 이 관중에 온다면 제가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14](밑줄, 인용자)

(E) 일본에 간 사신으로 누구를 첫째로 손꼽을까 / 殊邦奉使誰堪道
앞에는 문충이요 뒤에는 포옹일세 / 前有文忠後浦翁
대체로 오랑캐란 순치(馴致)하기 어려운 법 / 大抵夷情不易馴
예로부터 이역의 봉명 사신 엄선했네 / 古來異域重啣綸
그저 만맥에 행할 것은 충신한 언행 / 只應忠信行蠻貊
더구나 왕의 위령(威靈)으로 심복시켜야 함에서랴 / 況有王靈服遠人[15]

(F) 맑은 조정의 사절이 멀리 오랑캐와 통하는데 / 淸朝信令遠通夷
호당의 제일가는 인물을 골라 보내니 / 簡送湖堂第一奇
……
오랑캐의 전권사절로 우리 공이 뽑혔으니 / 專對蠻邦屬我公
천추의 사령이 문충의 다음일세 / 千秋辭令繼文忠[16]

위에서 인용문 (A)는『高麗史』의 기록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정몽주가 양국의 이해관계를 말해주자 주장이 감복했다고 한다. 또한 왜승들이 정몽주의 한시를 얻고자 하는 했던 모습도 부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정몽주와 실질적으로 외교 협상을 벌인 인물로는 원요준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용문 (D)인『江關筆談』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몽주가 패가

11) 在前奉使日本者. 鄭夢周申叔舟最爲倭奴感服至今稱之. 不容口夏年黃允吉金誠一同. 使日本時倭酋桀驁事多不測. 黃畏怯每事依違. 而金性剛步五不少撓. 倭人甚敬憚之盖雖異類. 而是非之心亦不泯也.)『芝峰類說』)(『陶隱集』)
12) 平泉曰。申文忠公.『江關筆談』(東槎日記坤序)
13) 靑坪曰。…… 申文忠之言。千古格言。而卽今兩國主聖時平。隣好自然敦睦。何可有一分相阻之念乎. 『江關筆談』(東槎日記坤序)
14) 白石曰. 今日於館中. 得邂逅圃隱鄭公之遠孫. 在昔本朝永和二年. 實是大明洪武十年也. 鄭公以高麗氏之使. 來我九州. 節度使源了俊相逢. 以議兩國之和. 貴國開國之日. 朴公敦之來. 乃是修麗氏舊好也. 前日闕中受書官近衛少將源公. 卽了俊之遠孫. 豈不奇哉. 近衛少將. 他日或有來於客館中. 不佞爲之媒. 『江關筆談』(東槎日記坤序)
15)『谿谷集』(送辛榮吉從事奉使日本)
16)「東槎日記」(林世弼弼卿)

대 주장의 감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신으로서의 지켜야 할 계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례는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이다. 따라서 어떤 상대국이든 그 나라가 요구하는 의례에 대한 대응은 외교적 소통에 있어서의 상호 양해 및 일체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17] 인용문 (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이라는 국가는 오랑캐이지만 나름의 예법을 갖추었으며 사람들은 영리하여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몽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소홀이 하지 않고, 사신으로서의 예를 다했으며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몽주와는 대조적으로 나흥유는 교섭하는 방법을 숙지하지 않아서 교섭을 실패함과 동시에 본인도 붙잡히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정몽주의 이러한 태도는 인용문 (C)인 『芝峰類說』에 나와 있듯이 수 세기가 지난 후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용된 한시 (E)와 (F)에도 나와 있듯이 조선시대에도 정몽주를 일본으로 가는 사신 중에서 첫 번째로 꼽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정몽주는 고려로 돌아오게 된다. 이때 고려의 포로들은 물론 일본 패가대측의 사신과 승려도 함께 대동한다.

> (A) 귀국할 때 九州節度使가 周孟仁을 보내 함께 왔으며, 또 포로가 되었던 尹明.安遇世 등 수백 명을 데리고 왔다.[18]

> (B) 정몽주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올 적에 大有라는 자가 함께 배를 타고 왔는데, 달가가 그의 사람됨을 극구 칭찬하면서 나에게 만나 보라고 권하였다. …… 대유는 사람들과 지낼 적에 그들에게 순종할 뿐 거스르거나 어기는 법이 없으며, 질박해서 재주를 부리거나 속이는 법이 없으니, 참으로 순종하고 신의가 있다고 할 것이요, 여기에 또 搢紳을 이처럼 간절하게 사모할 줄을 아니 참으로 현인을 숭상한다고 하겠다. …… 게다가 거듭해서 아뢰기를 "이번에 主將이 포악하게 굴고 난동을 부리는 자들을 엄히 단속하여 선린의 우호를 통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급급하게 신의를 지키며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으니, 하늘이 도와주는 길한 복을 대유가 반드시 주장과 함께 공유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대유는 힘쓸지어다.[19](밑줄, 인용자)

위의 인용문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정몽주는 구국절도사(원요준)이 보낸 주맹인과 함께 오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 있던 윤명과 안우세 등 수 백명을 데리고 온다. 또한 『陶隱集』의 기록인 인용문 (B)를 참고로 하면, 大有라는 일본의 스님도 함께 데리고 왔음을 알 수 있다. 여섯 차례에 걸쳐 명나라 사행을 간 것과는 달리 정몽주는 일본 사행을 한 번밖에 가지 않았기에, 大有는 이때 같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인용문 (B)에서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정몽주는 일본 사행에서 외교적 협상에 성공했으며 동시에 大有는 외교적 차원에서 파견된 승려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

17) 엄경흠, 「鄭夢周의 明 使行에 나타난 外交的 疏通 方式」, 『포은학연구』 1권, 포은학회, 2007, 179쪽.

18) 及歸, 與九州節度使所遣週孟仁偕來, 且刷還俘尹明以遣, 賊魁見書辭懇惻, 還俘百餘人.(『高麗史』)

19) 成均大司成鄭君達可奉使其國. 其還也. 有大有者同舟而來. 達可亟稱其爲人. 且使予見之. …… 大有與人處. 頹乎其無所拂戾也. 質乎其無所巧詐也. 信乎其順且信矣. 而知慕晉紳若此其拳拳也. 信乎其尙賢也. …… 重爲告曰. 今玆主將. 戢暴亂通隣好. 汲汲乎信順之務焉. 吾知天祐之吉. 大有必與主將共之也. 大有勖之哉.(『陶隱集』)

3. 일본 사행시 분석

정몽주가 보빙사로서 일본 사행을 갔을 당시 11수의 「洪武丁巳奉使日本作」을 지었는데, 11수의 한시 가운데 10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가 鄕愁다. 그의 사행 동기나 당시 고려와 일본의 관계를 보아서는 당시 사행이 그에게 쉬운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그의 심경이 짙은 향수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20] 다시 말해서 정몽주의 사행은 자발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 사행을 가게 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당시 고려와 일본은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던 만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여러 가지 위험한 변수가 존재하는 낯선 곳에서 지내야 했던 정몽주는 정신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고국과 가족 등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했을 것이다.

(A) 평생동안 남과 북에 분주했지만/ 마음먹은 일은 자꾸 빗나가도다
고국은 바다 서편 언덕에 있고/ 외로운 배는 하늘 이쪽에 있네
매화 핀 창가에는 봄빛 이르고/ 판잣집엔 빗소리 크게 나누나
홀로 앉아 긴 해를 보내거니와/ 집 생각의 괴로움 어찌 견디랴[21](밑줄, 인용자)

(B) 박다진(博多津)의 요새지 패가대에/ 가을에 누선이 거울 속에 왔네
푸른 먼 산 솟아 화려한 비단처럼 나타나고/ 편편하게 펼쳐진 흰 모래는 눈서리 무더기 같네
매창의 좋은 시는 천 사람이 읊조리고/ 선죽교에 뿌린 충신의 혼은 만고에 슬프구나
술 한 잔씩을 부어 올리고 곧 돛대를 치니/ 바다 하늘이 가없는데 석양이 열리누나[22](밑줄, 인용자)

(C) 임제가 끼친 향기 멀리 퍼져 나가서/ 부상의 석자가 종풍을 떨쳤네
감실에 고요히 앉아 마음이 찬 재처럼 되었다가/ 만 리를 유람하니 안계가 텅비었네
마도의 뜬 구름빛 고향 나무 밖에 두고/ 곡령의 가을빛을 객창에서 맞이했네
정회는 매양 시를 읊어 풀었고/ 언어가 다르니 번역으로 통할밖에
바다가 넓으니 봉호(신선이 사는 산)가 아득하고/ 하늘이 물에 닿아 별들이 헤엄치네
괄목하여 대할 수많은 벗들/ 옛 절의 소나무 가지가 모두 동을 가리켰으리[23](밑줄, 인용자)

---

20) 엄경흠, 「麗末 日本通信使의 使行과 送詩」, 『동양한문학연구』 25, 동양한문학회, 2007, 236쪽.
21) 平生南與北/ 心事轉蹉跎, 故國海西岸/ 孤舟天一涯, 梅窓春色早/ 板屋雨聲多, 獨坐消長日/ 那堪苦憶家.『圃隱先生集』(포은학회, 한국문화사, 2007)
22) 博津形勝霸家臺/ 秋日樓船鏡裏來, 遠峀攢靑雲錦出/ 平沙鋪白雪霜堆, 梅窓秀句千人誦/ 竹血忠魂萬古哀, 酹罷一盃仍擊楫/ 海天無際夕陽開.「扶桑日錄」(七月 二十六日戊申早發一歧次副使韻望長崎島有感過霸家臺弔兩賢藍島)
23) 林濟遺芬遠不窮/ 扶桑釋子振宗風, 一龕靜坐心灰冷/ 萬里游觀眼界空, 馬島雲光鄕樹外/ 鵠峯秋色客窓中, 情懷每向詩篇寫/ 言語須憑象譯通, 海闊蓬壺連浩渺/ 天低星斗漾沖融, 故人刮目知多少/ 舊壑松枝盡指東.(『東文選』)(送日本國釋大有還國, 權近)

위에 제시된 한시 (A)는 「洪武丁巳奉使日本作」의 네 번째 작품이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리저리 분주하게 지내는 동안 느끼는 외로움과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잘 표현되어 있다. 정몽주는 사신이었기에 분명 동행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인들의 대접이 호의적이었다는 기록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24] 그러나 '홀로 앉아 긴 해를 보내거니와'라는 구절을 통해서, 객지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심회를 풀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벗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몽주의 이러한 처지는 앞서 살펴본 大有와 비슷하다. 인용문 (C)는 권근이 大有를 보내며 쓴 한시이다.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대유는 정회를 매번 시로써 풀었다고 한다. 大有도 사신이었기에 고려 조정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대접을 해주었을 것이다. 또한 大有는 정몽주가 귀환할 때 같이 왔기에 周孟仁과 같은 자국의 동행인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의 응축된 생각을 끌어내고 풀어내는 것은 한시를 창작하는 일이었다.

고독과 그리움이야말로 포은으로 하여금 시를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든 원천이[25]었다. 大有 또한 타국에서 자신의 심사를 풀 수단은 결국 한시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독과 그리움에 의해 촉발된 정몽주의 한시 창작은, 마음속에 얽혀 있는 복잡다단한 심경을 꾸밈없이 내보이면서 그 모든 것을 들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유일한 벗을 만드는 것이었다.

덧붙여서 한시 (A)인 「洪武丁巳奉使日本作」의 네 번째 작품에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이 있다. 밑줄 친 부분은 '일본에서 절창이랍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26] 이러한 평가는 일본 사람들이 이 구절을 특별히 선호했다고 볼 수 있다. 인용문 (B)의 밑줄 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약 3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정몽주의 이 구절을 여러 일본인들이 읊고 있는 것이다.

정몽주의 『圃隱集』에는 일본 승려에게 준 한시는 다섯 편이 있다. 「日東茂上人惠以石硯以詩爲謝」, 「次牧隱先生詩韻贈日東茂上人」, 「贈嵒房日本僧永茂」(2수), 「贈日本洪長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大有의 경우와 같이 당시 일본 승려는 불교적인 수행만을 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다.[27] 정몽주가 일본 승려와 교유한 것은 친분을 쌓기 위한 측면도 있었

24) ① 왜승들이 시를 얻으려고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어주니, 승려들이 날마다 가마를 메고 모여들어 경치 좋은 곳을 구경하라고 청하였다.(倭僧有求詩者, 援筆立就, 緇徒坌集, 日擔肩輿, 請觀奇勝)(『高麗史』).
② 해도에 천년 이래로 고을이 열렸는데/ 배타고 여기 와서 오래 배회하니/ 산승은 매양 시를 구하러 오고/ 지주는 때로 술을 보내어 오네/ 인정 외려 의뢰할 만도 하거니/ 풍물이 다르다고 꺼리지 마라/ 타국에 좋은 재미 뉘 없다더냐/ 날마다 가마 빌어 조매를 찾네(海島千年郡邑開, 乘桴到此久徘徊, 山僧每爲求詩至, 地主時能送酒來, 却喜人情猶可賴, 休將物色共相賴, 殊方孰謂無佳興, 日借肩輿訪早梅.(「洪武丁巳奉使日本作」1)

25) 하정승, 「圃隱詩에 나타난 經國意志와 歸鄉意識」, 『한문학보』 제10집, 우리한문학회, 2004, 46쪽.

26) 홍만종, 『小華詩評』, 頃歲倭僧能詩者, 吾我國使臣曰, 圃隱 梅窓春色早, 板屋雨聲多之句, 爲日本絶唱云.(근래에 시를 잘하는 일본 중이 우리나라 사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은의 매화 핀 창가에는 봄빛이 일찍 찾아오고 판옥 지붕엔 빗소리가 요란하다의 구절은 일본에서 절창이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절창'의 의미가 한시의 형식적인 율격에 부합했기 때문이었는지, 또는 내용에 따른 평가인지는 분명하게 알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27) 일본 불교는 鎌倉 時代에 이른바 新佛敎로서 山間佛敎에서 民間佛敎로 進出하였고, 當時에 외교 문서를 草하고 또한 外國人과의 對談 交涉을 할 수 있는 者는 오직 僧侶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또 僧侶는 外交의 使節까지 겸하였으므로 그에 수반된 대의 貿易의 巨利를 취득할 수 있었고, ……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鎌倉 시대 이전부터 승려들의 漢文學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것이었고, 실제로 日本固有文學이 아닌 한문학을 그 중에서도 특히 漢詩를 할 수 있는 계층은 거의가 僧侶가 隱者들에 국한되어 있었다.(엄경흠, 「鄭夢周 日本 使行詩 硏究」, 『동아어문논집』 1, 동아어문학회, 1991, 7쪽 참조.)

겠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내재해 있었다. 아래에 인용된 한시가 이러한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 흰 구름이 무슨 일로 푸른 산을 나왔나/ 다만 오래 가뭄 맛본 백성을 위해설세
> 막대 짚고 오가는 데 뜻이 있을 터이니/ 곁에서 사람들은 등한하게 보지 마오[28]
>
> * 이때 홍승은 잡혀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29]

정몽주는 捕虜들을 送還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洪僧을 가뭄에 비를 몰고 오는 구름으로 비유하며 대단히 칭송하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외교적 교린을 위한 호의의 표현으로 생각한다.[30] 하지만 정몽주가 일본 승려에게 준 5편의 한시 중 4편은 永茂 스님에게 준 것이고 1편만이 洪僧에게 준 것이다. 여기서 永茂 스님의 한시에는 洪僧의 경우에서처럼 포로를 풀어주었다던가 하는 외교적인 행위와 관련된 부차적인 기록이 없다. 다만 오대산을 유람하고자 했다[31]는 정도의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로 보아 승려 내에서도 외국 사신을 접대할 때 역할 분담과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왜승들에게 준 한시도 교유시 또는 외교시와 같은 특정한 개념으로 어느 한쪽으로 범주화할 수 있지는 않다. 교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작품과 다른 의도가 함의된 목적이 있는 작품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몽주는 중국어에도 능통했으며[32] 한시 창작에도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었다.[33] 그러나 일본 사행을 하는 중에 지은 정몽주의 使行詩에는 用事를 비롯한 修辭가 거의 없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많다. 그 이유는 그의 고전에 대한 지식이나 문학성 결여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그의 억제할 수 없는 감정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34] 이처럼 정몽주는 자신이 처해 있

---

28) 白雲何事出靑山, 只爲蒼生久旱乾, 一杖往來應有意, 傍人莫作等閑看.(포은학회, 앞의 책)

29) 時洪僧率還我國被擄人口.(포은학회, 앞의 책)

30) 엄경흠,「鄭夢周 日本 使行詩 硏究」,『동아어문논집』1, 동아어문학회, 1991, 18쪽.

31)「牧隱先生詩韻贈日東茂上人」의 한시에 이때 일본 스님 영무가 오대산을 유람하고자 하였다.(時日本僧永茂欲遊五臺山) 기록이 있다.

32) 황제가 표문을 읽은 후 날을 꼽아보더니, “그대 나라 신하들이 필시 변고를 핑계로 오지 않으려고 서로 미루다가 날이 임박하자 그대를 보낸 것이구나. 그대는 전날 촉蜀지방을 평정한 것을 축하하러 왔던 자가 아니냐?”라고 힐문했다. 정몽주가 파선해 표류했던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자 황제는, “그렇다면 응당 중국말을 알겠구나.”라고 하며 각별히 위로했다. 예부에 명해 그를 우대해 전송하도록 했으며 황상재 등도 석방해 귀국시켜 주었다.(帝覽表畫日曰, “爾國陪臣, 必相托故不肯來, 日迫乃遣爾也. 爾得非往者以賀平蜀來者乎?” 夢周悉陳其時船敗狀, 帝曰, “然則應解華語.” 持賜慰撫. 勑禮部優禮以送, 遂放還尙載等)(『高麗史』)

33) 연전의 여름에 나의 벗인 감부(監簿) 주운장(周雲章 주탁(周倬))이 삼한(三韓)에 사신으로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나에게 말하기를, “동방의 나라가 오래도록 중국의 교화를 입었으므로 문학에 재능이 있는 인사들이 앞뒤로 서로 줄을 이어 배출되었다. 그들의 시문을 살펴보면, 일을 논하고 이치를 분석하는 것이나 글을 엮는 것이 정대할 뿐더러, 왕왕 작자(作者)의 법도를 취하면서 화하(華夏)의 유풍(遺風)을 보여주는 점이 있다. 가령 목은(牧隱) 이씨(李氏)와 포은(圃隱) 정씨(鄭氏)와 도은(陶隱) 이씨(李氏) 같은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면에서 거벽(巨擘)이라고 할 것인데, 그중에서도 목은은 특히 선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하였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공(歲貢)의 일로 경사(京師)에 온 포은을 후관(候館 외국 사신의 관소)에서 해후(邂逅)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꺼내 보여준 기행시(紀行詩)를 보고는 운장의 말이 나를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다.(往歲之夏, 余友周監簿雲章出使三韓, 其還也. 嘗爲余言東方之國久被聲敎, 而文學才藝之士後先相望. 其見乎篇章簡什者, 論事析理與屬詞之雅正, 往往取法作者, 有華夏之遺風. 若牧隱李氏, 圃隱鄭氏, 陶隱李氏皆其巨擘, 而牧隱尤爲先達也. 亡何, 圃隱以献驥京師, 解后于候館. 出示其紀行詩, 余固信雲章之言不我欺矣.)(『陶隱集』)

는 환경에 반응한 자신의 심경을 한시를 통해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정몽주의 한시가 이와 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를 사신의 선례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음 점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4. 맺음말

본고는 정몽주가 일본 사행을 갔을 때, 한시를 창작하는 일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몽주가 일본 사행을 가게 된 과정을 먼저 살펴보았고 이후에 일본 사행시 분석을 하였다. 정몽주가 왜구 침략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사행을 가게 된 계기는 明나라에서 보여주었던 외교적 능력과 일본국 패가 대측의 요청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정몽주는 자신의 의지가 개입되기보다는 외부의 힘에 떠밀려서 사신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정몽주가 자발적으로 사신을 가지 않은 이유는, 明나라 사행을 갔을 당시 난파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중대한 외교임무를 떠안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몽주는 외교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다시 귀환하게 된다.

정몽주가 일본에 사행을 갔을 때 쓴 한시는 모두 16수인데,「洪武丁巳奉使日本作」11수와 왜승들과의 교유를 보여주는 작품이 5수 있다. 그러나 정몽주의 일본 사행은, 본인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사행을 가서도 '사신'으로서의 대접은 받았지만, 자신의 심회를 풀 수 있는 곳이나 들어줄 수 있는 인물이 마땅히 없었다. 따라서 타국에서 느끼는 고독감의 반사작용으로 생긴 고국과 가족 등에 대한 그리움을 한시로 짓게 되는데,「洪武丁巳奉使日本作」11수의 주요 정서가 '향수'인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정몽주에게 한시 창작이라는 것은 자신의 심경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었으며 타국에서 자신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벗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왜승들과의 교유를 보여주는 한시는 모두 5수가 있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승려의 위치는 중요했는데 洪僧에게 준 작품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5수의 작품 중 永茂 승려에게 준 작품 4수에서는 외교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왜승과 교유했던 한시는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범주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사행시에서 정몽주의 작품에서는 뛰어난 수사 기법이나 전고를 활용하는 경우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는 한시 창작에 있어서 정몽주의 능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그가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았음이 컸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기에 작품 내용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두드러졌던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편,『국역 고려사』, 도서출판 민족문화, 2006.
박수천,「鄭夢周論」,『한국한시작가연구』2권, 한국한시학회, 1996.
卞鐘鉉,「圃隱 鄭夢周 漢詩의 風格과 題材」,『한국한문학연구』15, 한국한문학회, 1992.

34) 엄경흠,「鄭夢周 日本 使行詩 硏究」,『동아어문논집』1, 동아어문학회, 1991, 18-19쪽.

엄경흠,「麗末 日本通信使의 使行과 送詩」,『동양한문학연구』25, 동양한문학회, 2007.
_____,「鄭夢周 日本 使行詩 硏究」,『동아어문논집』1, 동아어문학회, 1991.
_____,「鄭夢周의 明 使行에 나타난 外交的 疏通 方式」,『포은학연구』1권, 포은학회, 2007.
王力 著, 裵奎範 譯,『한시 율격의 이해』, 도서출판 보고사, 2004.
포은학회,『포은선생집』, 한국문화사 2007.
하정승,「역대 詩話集에 나타난 정몽주 시에 대한 비평과 그 의미」,『포은학 연구』7권, 포은학회, 2011.
_____,「圃隱詩에 나타난 經國意志와 歸鄉意識」,『한문학보』, 제10집, 우리한문학회, 2004.
한국고전번역원 DB(http://db.itkc.or.kr/)

【토론문】

"鄭夢周의 日本 使行詩 창작 의미"에 대한 토론문

정목주(계명문화대)

먼저 멀리서 본 학술대회에 발표하러 오신 김준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의 논문을 잘 읽었고 저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포은 선생이 일본 사행(使行)을 가게 된 계기와 그 과정, 그리고 일본 사행에서 한시를 창작하는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의 소임에 임할까 합니다.

1. 본 학술대회의 큰 주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가 '한국어문학 속의 일본'이니,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포은 선생의 사행시 작품 분석을 통해 그가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작품 속에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또 작품 속에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어떻게 그려지며 양국의 영향관계(가령, 왜구 문제, 통신사 파견 문제)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논문에서는 포은 선생이 일본으로 사행(使行) 갔을 때 한시를 창작한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은 선생의 '일본 사행시'라 일컫는 16수 중에 그의 개성이 드러나는 일본에 대한 독특한 인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 오늘날 유학, 유학사상이 깃든 문학작품 연구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토론을 의뢰 받기 하루 전에 공교롭게도 임고서원(臨皐書院)을 다녀왔습니다. 서원은 국고 지원을 받아 단장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외 탐방객도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 탐방객이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고 상당히 고무적(鼓舞的)인 일이라 흐뭇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은 선생의 유물전시관을 둘러보고 방명록을 작성하려다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이름으로 추정건대, 중국인이 <남기실 말씀>란에 "핵 재미 없음."이라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외국인만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미 없는 이학지조(理學之祖)의 사상과 삶이 현대인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또 이에 대한 연구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 3장의 구성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 논문에서 3장은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는 곳입니다.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포은 선생이 일본 사행을 갔을 때, 그의 작품을 통해 한시 창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명(究明)해야 할 곳입니다. 그냥 "일본 사행시 분석"이라 소제목을 붙이고 서술하기보다는 한시 창작의 의미를 몇 가지 항목으로 뽑아서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전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창작의 의미도 보편성과 특수성이 잘 조화되어 보편성 속에서 특수성이 잘 발현되는 방향으로 고찰해보시길 제안합니다.

4. 번역된 인용문과 각주의 원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고, 한자 오기(誤記)도 있으니

다시 검토하여 바로잡으시면 좋겠습니다.

- □ 1쪽. 각주 2번
- □ 3쪽. 각주 5번
- □ 4쪽. 각주 9번, 각주 10번
- □ 5쪽. 각주 12번
- □ 6쪽. 각주 18번, 각주 19번

일제하 소설 속의 일본

최중녀(경일대)

〈 차 례 〉

1. 머리말
2. 다이쇼 데모크라시·엘렌 케이 사상과 자유연애
3. 식민지 근대 사회의 이면
4. 제국주의 모성론의 변용
5. 맺음말

1. 머리말

1910년 8월 15일 국권피탈 이후부터 1945년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35년 동안 일제강점하의 식민통치 시기는 우리 근대사에서 착취와 탄압으로 점철되어 있다. 식민지 조선에게 일본은 저항의 대상이자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서구 문물을 수용하고 경험한 일본의 근대적 사상과 이념은 우리 문학 속에 투영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통치기구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제1기: 무단통치시기(1910～1919), 제2기: 문화·정치시기(1919～1931), 제3기: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시기(1931～1945)로 구분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가 실시한 식민지 지배 정책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이념과 사상이 당대 사회적 상황과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문학 작품을 통해서 관계사적 접근을 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문학 작품은 역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즉 역사적 소산물(所産物)이다. 따라서 “어떤 작품이든지 그것을 낳게 한 역사적 배경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1]“예술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2]작가의 생산물이며 그것은 또한 어떤 역사적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나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적 맥락 속에 놓여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3] 작가는 역사적·사회적 주체로서 작품이 생산된 당대 사회적 상황을 작가로서 직시하게 되고 단지 형상화하는 데 머물지 않고 대변자이자 비판자로서 작품에 구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기영 소설에 등장하는 서사 담론을 중심으로 당대 식민지 정책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이념과 사상이 어떻게 변용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기영은 ‘체험 작가’로 명명이 될 정도로 체험적 요소를 작품의 소재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로서 일제하 식민지 조선인들의 현실을 밀도 있게 형상화한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1924년 7월 단편소설 「옵바의 祕密片紙」로 『개벽』지에 응모하여 3등으로 등단한 후 월북하여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장편소설 『한 여성의 운명』(1963~1965)에

1) 박철희, 『문학개론』, 형설출판사, 1988, 355면.
2) 윌프레드 L 게린 외, 『문학 비평 입문』, 제 3판, 한신문화사, 1994, 16면.
3) 장도준, 『현대문학비평론』, 정림사, 2011, 11면.

이르기까지 40여 년간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본고에서는 이기영 작품 중 1920년대 「옵바의 祕密片紙」를 통하여 1905년부터 1925년까지 일본에서 일어난 다이쇼 데모크라시 분위기와 여성해방운동의 사조인 엘렌 케이 사상이 식민지 조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1930년대 프로문학 대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향』을 통하여 식민지 근대 사회의 이면을 살펴봄으로써 당대 여성들에게 어떻게 변용되어 서술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1940년대 『생활의 윤리』를 통하여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여성에게 실시한 ‘제국주의 모성론’ 정책이 여성해방운동에 어떠한 양상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다.

프로 작가로 평가 받고 있는 이기영 작품은 당대 식민지 현실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매개체 노릇을 한다. 따라서 이들 세 작품의 분석을 통해 식민지 시기 한국어 문학에 끼친 일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다.[4]

2. 다이쇼 데모크라시·엘렌 케이 사상과 자유연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인 1876년 2월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후 개항 정책을 취하게 된다. 그 뒤 수신사나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관비 유학생 파견과 사비 유학생[5]이 급증하게 되고 이들에 의해 국내에 신문물이 적극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일본에서 1910년대부터 1920년대(주로 다이쇼 시기- 大正-)에 걸쳐 정치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의 발전, 자유주의 운동, 풍조, 사조를 총칭하는 말이다.[6] 유학생들은 제국주의 국권피탈을 비판하고, 무너진 조선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념과 사상의 돌파구가 절실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학생들은 일본 사회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7]그러나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정치, 사회 체제로 정착하지 못하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쇠퇴하였지만 양국의 근대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근대적 사고와 문화를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 내면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4) 본고는 식민지 시기 한국어 문학에 끼친 일본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일본에서 유입된 이념과 사상에 집중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5) 〈표 1〉 일본 유학생 수(1897-1911)조선유학생학우회, 『日本留學生史』, 『學之光』 6, 1914, 204면.

	1897	1899	1900	1901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기존	150	161	152	141	140	148	102	197	430	554	702	739	595
新渡	160	2	6	7	12	37	158	252	153	181	103	147	5
합계	310	163	158	148	152	185	260	449	583	735	805	886	600

6) 일본은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등국 의식이 고양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1912년에 다이쇼 천황 요시히토 (嘉仁)가 메이지 천황의 뒤를 이어 즉위했다. 어린 시절 뇌막염을 앓아 병약한 천황의 이미지가 있었던 다이쇼 천황은 1921년부터 황태자 히로 히토(裕仁)에게 섭정을 맡기고, 26년에 사망했다. 그러나 일본사회에는 ‘다이쇼’라는 연호를 인용하여 ‘다이쇼 데모크라시’시대라 부른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일본 사회의 다양성과 긴장, 경제적 호황과 장기침체가 혼재되어 있는 시대였다. 유지아, 「1910-20년대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제국주의의 변용」, 한일관계사연구 57, 2017, 433-434면 참조.

7) 조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본지식인들이 유학생들을 자신들의 활동에 참여시켰기 때문이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론의 핵심이론가 요시노 사쿠조 (吉野作造)와의 연결을 통해 김우영, 장덕수 등이 여명회, 신인회와 같은 대표적 지식인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였고, 반대로 요시노 사쿠조, 우치무라 간죠 등의 유명 지식인들이 유학생단체 행사의 연사로 초대 되었다. 유학생들 스스로 대학의 여타 수업보다 다이쇼 데모크라트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회고할 정도로 그 영향은 지대하였다. 이태훈, 「1910-20년대 초 신지식층의 민주주의 인식과 현실활용-일본유학생과 동아일보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6, 2017, 74면.

사회적 변화였다.[8)]

1911년 엘렌 케이 자유연애 사상[9)]은 봉건적 가족제도 아래서 연예가 터부시되고, 또한 자유이혼 등도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었던 당시 일본 여성들에게 큰 방향을 일으키게 된다. 엘렌케이의 자유연애론은 삼종지도, 칠거지악 등 봉건적 질서에 억압당해 온 식민지 조선 신여성들에겐 일종의 여성해방이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했다. 개인의 인격 존중, 개성의 자각, 여성 해방으로 인식된 자유연애는 근대적 이상[10)]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1920년대는 일본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서도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함께 경제적·사회적 변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3·1운동을 기점으로 촉발된 민족, 사회운동은 근대교육을 받고 돌아온 일본 유학생을 주축으로 새로운 이념과 사상이 유입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문단이 형성되고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이념과 사상이 식민지 조선에 전파되기 시작한다. 그 중에서 일본 유학을 통해 근대 경험을 한 신여성들은『新女子』등의 잡지를 출간하고 자유연애와 여성해방을 공론화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다.[11)] 하지만 일본에서 건너온 이념과 사상은 '근대'라는 이름으로 지식층들에게 문화적 변용의 형태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함께 일본에서 건너온 이념과 사상이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이기영은 1922년 4월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갔다가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 대지진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1924년 7월『개벽』의 창간 4주년 기념 소설·희곡 현상 공모전에 응모하여 단편소설「옵바의 祕密片紙」[12)]가 3등으로 당선된다. 이 작품은 작가의 상상의 소산물이 아니라 당대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이기영은「나의 처녀작을 어떻게 썼는가」[13)]에서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주인집 딸들이 "저의 부모보다도 오빠를 더 무서워하"고, "그가 이 집에서 독판을 치기 때문"에 "오래비 앞에서 기를 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전도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집 아들은 주일마다 예배당에 다니고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것은 습관적 형식에 불과하"고 "봉건 유습"이라 생각한다. "시대착오적인 남존여비의 사상을 가지고 여성을 희롱하려는 가짜 연애군들"과 "신여성과 여학생들 중" "자유연애"라는 이름으로 "불순한 애정관계를 맺는" "폐단"을 "사회적 문제로 취

8) 이호규 외,「다이쇼 데모크라시와 한·일 근대 작가의 개인주의적 주체 비교 연구-염상섭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비교를 통해-」,『한국문학논총』54, 2010, 210-211면 참조.

9) 엘렌 케이는 연애란 종교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한 사랑이 있는 커플만이 결혼할 수 있으며 그들의 사랑에 의한 결합은 우수한 이세를 낳는다고 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사랑이 식으면 결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혼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법적 결혼이라 해도 생명 없는 연애로 유지되는 부부는 부도덕하다고 했다. 천성림,「모성의 발견-엘렌케이와 1920년대의 중국-」,『동양사학연구』87, 2004, 196-197면 참조.

10) 김은희·안혜련·안노 마사히데 외,『신여성을 만나다』, 새미, 2004, 171면 참조.

11) 신여성은 남성중심의 전통적인 인습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그 당시의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권리운동, 남녀평등에 대한 적극적인 여성해방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정의되었다. 신여성은 시부모에게 절대 복종하는 현모양처의 입장에서 자유평등과 자유연애를 외치는 여성상, 즉 여권존중과 여성독립 확립에 앞장서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봉건적 시대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롯되는 어머니, 아내, 며느리와 같은 가족 공동체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개별적인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독립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규,「일제강점기 신여성과 일본유학에 관한 고찰」,『일본근대학연구』58, 2017, 226-227면.

12) 본고에서는 1937년 2월 사해공론사에서 발행한 월간종합문예지『四海公論』에 실린「옵바의 祕密片紙」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13) 이기영,「나의 처녀작을 어떻게 썼는가」,『청년문학』, 1964.12.

급해”서 작품을 구상하게 된다. 작가는 ‘마리아’라는 여성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이를 비판하고 있다.

1920년대는 전체 여성 인구 92%가 문맹[14]인 현실에서 마리아는 중산층 가정에서 여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으로 등장한다. “마리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평등사상을 근간으로 여성해방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독교인이다. 이처럼 마리아를 둘러 싼 외적 상황은 근대적이지만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이념과 사상은 남존여비로 인한 이중적 성규범이었다.

마리아 어머니는 딸을 “게집애”로 부르고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에게만 일을 시킨다. 마리아가 조금만 잘못하면 “게집애가 칠칠찬키두 하다”라고 질타하고 오빠는 “사내가 엇더타”[15]라는 식으로 넘어간다. 즉 딸과 아들을 생물학적 성(性)인 계집애와 사내로 이분화하고 딸에게만 집안일을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남녀차별을 하는 인물이다. 마리아 어머니의 인물 형상화 속에는 관습적으로 내재되어 오고 있는 남존여비 의식을 기저로 하는 이중적 성규범과 일제식 호적제도인 ‘조선민사령’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호주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식 호적제도가 식민지 조선에 이식됨과 동시에 호주인 남성은 가부장으로서 사법상 가의 주재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호주는 집안의 어른이라는 상징적 존재였으며, 실질적으로 가장의 의무와 권리는 법률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형벌법에 직·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호적제도 하에서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거의 무제한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있었다.[16]

‘조선민사령’에 따라 상속에서 장남은 전 재산의 절반을 가졌고 나머지 절반은 차남 이하 남자 형제들이 균등하게 나누었다. 하지만 딸이나 처에게는 분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친정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결혼한 여자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 보증을 서는 일, 부동산 또는 중요한 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할 때는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 갖고 온 재산도 남편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 결과 여성은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법적인 무능력자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영향권 아래에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마리아 어머니는 남성이자 장남인 아들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17]이혼제도의 경우에도 축첩한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혼을 하였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보증, 부동산 등의 권리행사에서도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약화되고 남성에게 종속적인 지위로 고착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18] 기성세대인 어머니의 이중적 성규범은 봉건적 남존여비의식과 함께 여성을 법률적 무능력자로 만든 일제식 호적제도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습적 봉건 의식이 잔존한 상황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엘렌 케이 사상은 마리아 오빠를 “례배방”에서는 “남녀동등”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근대적 사상을 가진 인물로 집에서는 남성으로서 여동생에게 억압과 지배를 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1920년대 ‘연애’는 근대를 모방하는 표상으로 절대적인 동경의 대상이었다. 자유연애가 남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동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고로 인해, 연애에 대한 동경은 ‘연애 자체를 연애’하는 강박적 관념에 의해 추동되고 있었다. 즉 연애의 실체와 무관하게 연애 자체가 연애의 대상이 되어 추구되는 형태였던 셈이다.[19]

---

14) 변정화,「이기영 작품에 나타난 여성현실과 그 전개방식-초기 경향소설을 중심으로」,『아시아여성연구』29, 1990, 64면.
15) 이기영,「옵바의 祕密片紙」,『四海公論』, 1937, 90-91면.
16)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277면.
17) 최중녀,「이기영 소설의 여성의식 변모 양상」, 대구가톨릭대 박사논문, 2018, 40면.
18)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같은 책, 277-283면 참조.

마리아 오빠는 영순에게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옥진과는 키스를 하는 등 과감한 애정행각을 벌인다. 마리아의 폭로로 두 여성과의 진지하지 않은 만남인 이중연애는 발각되고 만다. 오빠의 이중연애를 통해서 자유연애란 명분아래 “여성을 희롱하려는 가짜 연애”를 비판하고 있다.

「옵바의 祕密片紙」에서는 봉건적 가부장제 영향과 일제식 호적제도인 ‘조선민사령’에 의해 이중적 성규범이 강화된 상황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엘렌 케이 사상은 빗나간 자유연애로 변용되어 그려지고 있다. 또한 작가는 일련의 현상들을 마리아 시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불합리한 사회 현상에 대해 여성인물이 각성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3. 식민지 근대 사회의 이면

이기영의 대표작으로 평가 받고 있는 『고향』[20]은 1933년 11월 15일부터 1934년 9월 21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소설이다. 이 작품은 지주와 소작인과의 계급투쟁을 심층적으로 그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작품 전반에서 주동적 인물로 서술되고 있는 안갑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안갑숙은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인물이면서 제사공장에 노동자로 그려지고 있다. 그녀를 통해서 1930년대 식민지 근대교육의 이면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안갑숙은 원터 마을의 신흥지배계급인 마름 안승학의 딸로 서울에 있는 여자보통고등학교를 다니는 인물이다. 그녀는 남자로서 호감을 갖고 있던 경호에게 강제로 ‘처녀성’을 잃게 되자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나의 광명은 벌써 등 뒤로 지나갔다”며 비관하고 첩을 네 명이나 둔 아버지의 성향을 유전 받아서 “음란한 여자”라고 자책한다. 경호가 강압적으로 접근할 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만 후회한다. 갑숙은 항거불능 상황에서 정조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을 책망하는 인물이다. 또한 김희준을 사모하지만 “그이는 벌써 아들까지 두었다지 그리고 나도 처녀가!……‘라며 정조를 잃었다는 것과 그가 유부남이란 현실에 다가가지 못한다. 갑숙이가 지식인이면서도 보수적이며 수동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 배경에는 관습적 봉건 의식과 함께 당대 여성에게 행해지는 근대 교육이 그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초의 관립 근대여성교육기관은 대한제국정부가 고등여학교령을 공포하고 1908년 4월 설립한 한성고등여학교이다.[21] 그러나 1908년은 일제의 대한제국 침탈이 가속화 되던 시기로서 교육과정은 식민지 교육정책이 내포될 수밖에 없었다.[22]여성교육이 본격화된 것은 1911년 공포된 제 1차 ‘조선교육령’에 의거한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이었다. 이 규칙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고등한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 부덕을 기르고 국민 된 성격을 도야하며 그

19) 임정연,「식민지 지식인의 연애와 일상: 1920년대 연애서사의 담론적 특성을 중심으로」,『이화어문논집』 24, 이화여대한국어문학연구소, 2007, 25-26면.

20) 본고에서는 1936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발간한『현대조선장편소설전집』『고향』제1권(상)·제2권(하)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1) 최초의 근대여성교육기관은 1886년 선교사 스크랜튼이 세운 사립 초·중·고등과정 이화학당이고 최초 민간 사립 여학교는 1898년 설립된 중등과정 순성여학교이다.

22) 정치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 여성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양처현모주의 여성교육을 실시하였다. 민족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지식교육을 배제하였으며, '여자에게 적절한 실제적 지식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사, 재봉, 수예 등의 기예교육에 치중을 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문화원형백과 신여성문화-최초의 여학교」, 2004 참조.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고 하였다.[23] 여고보용 교과서에서는 전통적인 여필종부의 도를 가르치거나 정절과 부덕 있는 여성을 소개하고 있다. 반면 남고보용 교과서에는 한문의 비중을 크게 높여 인문고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업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근대적인 제도권 안에서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은 제외하고 가정에서 순종과 정조 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여성상 즉 현모양처[24]상이 여성교육의 주요 목표였음을 말해준다.[25]

제 2차 조선교육령(1922~1938)에 제시된 신교육령에서 여성교육은 “여학생의 신체적 발달과 부덕(婦德)의 함양에 유의하여 덕육(德育)을 실시하고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교수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고 일본어를 숙달”[26]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부덕을 기반으로 일제가 원하는 식민여성을 주입하는 교육 환경에서 갑숙이 능동적인 사고방식은 갖는 데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갑숙은 경호와의 일이 아버지에게 발각되자 도피의 수단으로 가출하여 제사공장 여공이 된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독립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이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절박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 시기 지식인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선택이었다. 1930년대 여학교 졸업자들의 현황을 보면 전업주부를 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27] 중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선인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았고, 전문적 직업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여성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의 사회진출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 결과 사회진출이 좌절된 여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를 ‘가정’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외 졸업자는 소수의 전문직과 하급 서비스 직종을 점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고보도 졸업하지 않은 식민지 여성인 갑숙이가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28]

옥희(갑숙)[29]는 친구 인순이가 일하고 있는 제사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부당하게 쫓겨난 여공의 복직과 “대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노동쟁의를 일으킨다.

1920년대 일본의 제사업자들은 일본에 비해 싼값에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조선에 대규모 제사공장을 세우게 된다. 청결하다고 소문난 제사공장의 환경, 전체 여성의 8퍼센트에 해당되는 교육수준[30], 치열한 경쟁률을 통한 선발 조건은 제사여공 스스로도 자의식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들은 봉건적인 여성관이 잔존해 있는 가족과 분리되어 남성들과 똑같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으므로 근대적인 자아의식을 점차 가지게 되었다. 근대적 자아의식과 자신과 같은 부류와의 공동생활, 그리고 공동생활을 통한 정보교환은 이들에게 어떤 계기

23) 이송희, 「한말, 일제하의 여성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16, 2005, 17면.
24) 현모양처에 대한 해석은 ‘현모양처=유교적 여성관’, 일제에 의해 의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이식된 ‘여성교육 이데올로기’, 근대적인 여성상으로 나뉘고 있다.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현모양처가 아니라 ‘烈女·孝婦’였다. 홍양희, 「일제시기 조선의 여성교육」, 『한국학논집』 35, 2001, 220-223면 참조.
25) 이수연, 「일제 식민지 시기 여성교육과 사회진출」, 전남대 석사논문, 2010, 7면.
26) 김재우,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87, 66-67면 참조.
27) 1931년 여고보 졸업생의 현황과 진로 자료에서 진로가 ‘가사 종사자’가 전체 60.0%나 달했고, 상급학교 진학자는 31.1%, 취직자는 6.6%로 나타났다. 공제욱 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509면.
28) 최중녀, 같은 논문, 62면.
29) 갑숙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제사공장에 들어가기 위해 ‘옥희’로 개명한다.
30) 제사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이학교는 졸업해야 들어 갈 수 있었으며 더 경쟁이 치열한 곳은 보통학교 졸업 이상이었다. 윤정란, 「식민지시대 제사공장 여공들의 근대적인 자아의식 성장과 노동쟁의의 변화과정」, 『담론 201』 9, 2006, 40면.

가 주어지면 스스로 노동쟁의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기가 이들이 처한 노동환경이었다. 사회적 위상과 너무 다른 노동환경은 이들 스스로 노동쟁의를 일으키게 된다.[31]일본인 감독과 교사 태도 개선 및 해고, 작업시간 단축, 대우개선, 체불 임금 반대, 강제저축폐지, 단오, 음력설에 휴업할 것 등 무리한 노동조건의 개선 등이 파업 동기가 되[32]었다.

인순이가 "시름없이 부르"는「여공의 노래」에는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 노동자의 고된 삶을 여실이 보여 주고 있다. 공장 현실에 대한 독백은 식민지 시대 여성 노동자의 현실이었다.

> "이렇게 하루를 시달리고 나면 두손이 홍당무처럼 익고 눈은 아물아물 하고 귀에서는 전보때 우는 소리가 나고 목에는 침이 마르고 등허리는 붙어 지는 것 같이 아프다. 수족은 장작같이 뻣뻣해서 도무지 자유를 듣지 않었다. 손등은 마른논 터지듯 터졌다.
> 이것은 참으로 노동XX이 아닌가!

어린 제사 여공들은 작업환경과 장시간의 노동으로 제대로 발육하지 못하였고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일본에서 여학생과 제사여공 간의 체중, 신장에 대한 비교 자료를 보면 13세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해가 갈수록 발육이 뒤떨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3]

옥희(갑숙)와 경호, 희준 사이의 미묘한 연애는 그녀가 사회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녀 간의 감정적 사랑이 아닌 '동지'라는 이념적 관계로 변한다. 동지적 관계란 남녀 간의 관계에서 육체적인 사랑의 관계만이 아닌 새로운 평등관계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옥희(갑숙)의 의식 변화는 1920년 대 말엽 식민지 조선에 본격으로 유입된 콜론타이 연애관[34]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콜론타이 연애관은 여성이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지위를 갖추면 양성평등에 도달할 수 있고, 이상적인 연애는 남녀가 사상적으로 연대한 동지적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수용되었다.[35] 옥희(갑숙)는 희준의 도움으로 인순, 경호와 함께 노동쟁의를 성공으로 이끌고 원터마을의 소작쟁의에도 적극적으로 조력하게 된다.[36]

---

31) 윤정란, 같은 논문, 57면 참조.
32) 윤정란, 같은 논문, 59면.
33) 윤정란, 같은 논문, 56면 참조. 이기영의『땅』에서 곽바위 동생 분이와 강경애의『인간문제』에서 선비도 제사공장에서 일하다가 병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34) 1927년, 일본에서 콜론타이의 대표적 저서인『붉은 사랑(Vasilisa Malygina)』이 마쓰오 시로(松尾四郎)에 의해『붉은사랑(赤い恋)』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후부터 일본에서 유학하던 조선인들이나 일본에서 화제가 되는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조선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콜론타이의 이론이 점차 수용되기 시작한다. 콜론타이와 관련된 당시 조선의 논의들은 콜론타이가 문제제기했던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이상적인 이성애관계라든가 여성의 사회진출 방식보다, 사회주의적 연애란 정조를 경외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기에 바쁘거나, 콜론타이의 이론을 연애 같은 사적인 일보다 혁명과 같은 대의에 여성들을 복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새로운 이성애 관계를 상상할 감을 촉진시키기는커녕,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위협으로, 혹은 연애 같은 사적인 임무보다 공적인 임무를 더 강조하는 보수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수용된다.
일본에서 1920년대 중반 이후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콜론타이의 논의가 1920년대 말엽에 조선에 건너온 정확한 경위는 알기 어렵다. 다만 일본 책을 취급하던 서점에 콜론타이의 책이 유입되었을 가능성과, 카프 진에서 활동하던 서광제가 이 책이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우연히 소개 하게 되었을 가능성만을 추측해볼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콜론타이 논의의 수용방식을 둘러싸고 일본 사회주의 운동진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논자들에 의해 갑론을박이 이루어졌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가부장적 입장에서 여성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콜론타이론을 이용한다는 공통점과 함께 유용론과 무용론은 경합한다. 배상미,「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의 수용과 그 의미」,『여성문학연구』33, 2014, 299-304면 참조.
35) 최중녀, 같은 논문, 71면.

『고향』에서는 근대적 교육을 받고 있는 지식인 여성이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의해 보수적이며 수동적인 의식을 갖게 되지만 근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에 들어가면서 열악한 노동현실에 자각하여 노동쟁의를 일으키는 인물로 성장한다. 사랑이 중심인 자유연애에서 탈피하여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남녀관계를 동지적 관계로 승화시켜 노동쟁의와 소작쟁의를 성공으로 이끈다.

4. 제국주의 모성론의 변용

이기영의 『생활의 윤리』[37]가 출간된 1942년은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인해 파시즘 체재가 강화되면서 작가들에 대한 탄압은 한층 고조되어 신념에 근간을 둔 작품 활동이 제약을 받는 시기이다. 1935년 카프 해체, 1936년 사상범보호관찰령, 1941년 조선사상범예비구속령 등을 통한 카프 출신 작가들에 대한 일제의 지속적인 탄압은[38]사상과 이념을 반영한 작품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 대부분의 프로 작가들은 사회적 실현 모색이 차단된 상태에서 점차 전향의 길을 걷게 된다. 이기영 같은 경우에도 검열을 의식하면서 창작활동을 한 까닭에 당시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핍진한 묘사가 불가능했다. 이에 국책문학이 가지는 홍보계몽이라는 체제 권력의 주문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그때까지 해오던 자기 나름의 순수한 계몽담론을 편승시켜 재문맥화하는 방식 이를테면 위장협력 글쓰기[39] 형태인 『생활의 윤리』를 출판하게 된다. 이 작품은 1930년대 후반부터 국가총동원령이 전개되면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전방위 수탈과 탄압에 대한 현실은 언급되지 않고 흥미 위주의 연애사가 전개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통속소설로 분류하여 긍정적 인물 이상화로 작가의식이 구체화되어 나타나지 않고 생산을 찬양하고 소비를 억제하라는 파시즘 이데올로기를 재현하고 있다는 등의 평가[40]를 내리고 있다.[41]그러나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작품 곳곳에서 당대 조선인들이 추구해야 할 윤리의식과 사고방식 등의 계몽담론을 읽어 낼 수 있다.

---

36) 작품에서는 노동쟁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고 해결되었다는 설명만 짧게 제시되고 있다. 이상경(1994)은 이에 대해 두 가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첫 번째는 『고향』이 《조선일보》에 1933년 11월 15일부터 1934년 9월 21일까지 연재되었는데, 이중 “연재본 213회(1934년 8월 3일) 처음에 2회분이 빠졌다”는 견해이다. 여공들의 파업과 관련된 장면이 검열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p.801). 이러한 견해는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여공들의 노동쟁의가 단순한 파업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고향』이 창작된 시기는 1930년대이지만 시간적 배경은 192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1920년대 중반은 “대중운동에서 노농동맹의 초보적 단계”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들어 이상경은 “안갑숙의 고육계로 소작쟁의가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도 초기 단계의 운동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최중녀, 같은 논문, 68면.

37) 『생활의 윤리』는 단행본으로 1942년 대동출판사 초판본, 1944년 성문당에서 또 한 번 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문당본을 참조하였다.

38) 당시로서는 치안유지법 위반자가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게 되는 경우 ‘전향자’로 공인되는 것이 일반적 감각이었다.(김동환, 「1930년대 한국 전향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11면.) 이기영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35년 12월 2년 징역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39) 김흥식, 「일제말기 이기영 문학의 내부망명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47, 2015, 367면. : 김재용은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사, 2004, 45-46면.)에서 일제말기 문학을 ‘협력과 저항’이라는 양극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0) 이선옥, 「이기영 소설의 여성의식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5, 118면. : 이원동, 「일제강점기 이기영 소설의 담론적 실천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05, 137면.

41) 최중녀, 같은 논문, 85-86면 참조.

이 장에서는 일제가 강요한 제국주의 모성론을 부정을 않으면서 조선 여성이 가져야 할 미래지향적인 모성과 진취적 가치관을 가지는 과정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1930년대 말기에 접어들면서 일제의 파시즘 체제에 영합하는 '제국주의 모성론'이 등장한다. 일제는 1937년의 중일전쟁, 1941년의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침략전쟁으로 준(準) 전시체제 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만 중요시하던 현모양처론은 '제국주의 모성론'으로 바뀐다. 제국주의 모성론에서는 전쟁지원을 위한 황국신민을 출산하고 키우는 모성으로서의 역할과 실제적인 가족 부양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현모양처론과 제국주의 모성론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더 컸다. 즉 둘 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강요된 여성해방 운동으로서 식민지 체제 또는 전시 체제에 여성을 동원하기 위한 논리였다.[42]

응주 어머니는 남편의 반대와 주변의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부인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딸인 응주가 서울에서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 돈 많은 병태가 처가에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며 응주를 자신의 후처로 달라는 제안에 남편이 넘어가자 밤길을 달려가 위험에 처한 딸을 구해낸다. 자식을 위한 모성과 교육자 역할을 강하게 연출하고 있는 응주 어머니를 보면 일제가 식민지 조선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제국주의 모성론'을 선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응주 어머니의 딸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은 일제가 요구하는 모성담론과는 다르다.

> 가) 반도의 일반 부인은 오랜 사회적 관습으로 늘 내방에 있는 편이 많아서 시대의 변천과 일가 경제의 합리화에 대하여도 자칫하면 무관심한 태도에 처하기 쉬운데 현대는 이미 일대 전회를 하고 있어 부인이라고 해도 언제나 소극 무자각한 생활을 감수하고 있을 것 아니다……가족제도의 원활한 운용으로 신분상 법률상의 것은 제외하고 남녀가 모두 경중의 차는 없다. 또 戰地에서 모든 고난을 다하는 황군 장병에게 부인의 총후 후원이 얼마나 힘차게 용기를 돋두는가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비상시 국가의 부인으로서의 중대 사명을 자각하여 각오를 새롭게 할 것을 소망하는 바이다.[43]

> 나) 모친의 가리칠 열성이 없었다면 그역 하잘것없는 산꼴 계집애로 파묻처혀 벌써 몇해전에 밑며누리로 주었든지 아무렇게나 시집을 보냈을것이라는 점이였다. 그것은 또한 지금세상은 공부를 잘하기만하면 아무리 여자라도 돈버리를 잘하고 남과같이 살수있다는-말하자면 이해타산(利害打算)으로 보는 공리심(功利心)이 앞서게도 하였다.[44]

가)를 살펴보면 일제가 요구하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상은 '家'의 역할을 중요시하면서 "황군 장병에게" "총후 후원"을 하고 비상시에는 "국가의 부인으로서"의 역할이었다. 나)에서 응주 어머니는 "공부를 잘하기만하면 아무리 여자라도 돈버리를 잘하고 날과 같이 살수있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전시체제 여성을 동원하기 위한 논리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 오히려 전통적 모성상에서 탈피하여 미래 지향적 가치관관을 가진 신 모성상을 추구하고 있는 인물이다.

응주는 "산꼴 계집애로" "밑며누리"나 "아무렇게나 시집을" 갈 운명이었지만 여자도 공부를 해서 "돈버리를" 잘하면 남과 같이 살 수 있다는 어머니의 신념에 의해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

42) 최중녀, 같은 논문, 25면.
43) 「지구절을 삼가 마저 반도 부인의 각성을 촉함-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조선일보』, 1939.2.26.
44) 이기영, 『생활의 윤리』, 성문당, 1942, 42면.

하고 취업과 함께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게 된다. 응주의 경제적 자립은 아버지의 봉건적 가부장제에 의한 강제 결혼을 무산시키고 가족들을 서울로 이사시켜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자유연애로 준구에게 먼저 청혼을 하고 자신의 집에 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한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봉건적 가부장제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한다. 남녀관계에서는 남성에게 존속되는 위치가 아니라 남성을 여성의 세계로 유도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응주의 형상화 양상에는 두 가지 취사선택이란 명제를 던진다. 첫 번째는 ‘제국주의 모성론’이 헤게모니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능한 가장인 아버지를 대신에 가족을 부양하고 남성인 준구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등의 가족 부양자 역할은 일제가 요구하는 여성상 설정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제적 자립, 봉건적 가부장제 대한 타파의식, 고난에 대해 투쟁할 수 있는 “뱃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응주라는 인물을 통해 역설 하고 있다. 즉 여성도 미래를 위해 주체적이며 진취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계몽담론을 피력하고 있다.

『생활의 윤리』에서는 응주와 응주 어머니를 통해 일제가 요구하는 ‘제국주의 모성론’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작가의 계몽담론을 재문맥화하는 ‘위장협력 글쓰기’를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이기영 소설을 중심으로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식민지 정책과 더불어 일본에서 유입된 이념과 사상이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일제식 호적제도는 여성들에게 이중적 성규범을 강화 시켰고,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엘렌 케이 사상에 영향을 받은 자유연애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를 통해 여성이 자신의 위치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었다. 근대 교육을 받고 있는 지식인 여성은 일제의 현모양처의 교육목표로 인해 보수적이며 수동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지만 근대의 표상인 공장에 들어가 경제적 자립을 꾀할 수 있게 되면서 근대적 자아의식을 가지게 된다. 남녀관계에서 애정에 한정되어 있던 의식은 콜론타이 연애관의 영향을 받아 동지적 새로운 평등관계를 갖게 되고 쟁의를 성공적으로 이끈다. 제국주의 모성론은 자식을 위한 미래 지향적 가치관이란 신 모성상을 제시하고, 남성을 배제한 경제적 자립은 여성을 주체적이며 진취적인 여성으로 거듭나게 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일본에서 유입된 이념과 사상은 식민지 조선에서 길항과 갈등을 통한 헤게모니 투쟁을 거듭하면서 재구축되어 변주되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기영, 「옵바의 祕密片紙」, 『四海公論』, 1937년.

_____, 「나의 처녀작을 어떻게 썼는가」,『청년문학』, 1964.12.

_____, 『고향』 제1권(상)·제2권(하),『현대조선장편소설전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36.

_____, 『생활의 윤리』, 성문당, 1942.

2. 단행본 및 논문

공제욱 외,『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509면.

김동환,「1930년대 한국 전향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11면.

김은희·안혜련·안노 마사히데 외,『신여성을 만나다』, 새미, 2004, 171면.

김재용은『협력과 저항』, 소명출판사, 2004, 45-46면.

김재우,「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87, 66-67면.

김흥식,「일제말기 이기영 문학의 내부망명 양상 연구」,『한국현대문학연구』 47, 2015, 367면.

박철희,『문학개론』, 형설출판사, 1988, 355면.

배상미,「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의 수용과 그 의미」,『여성문학연구』 33, 2014, 299-304면.

변정화,「이기영 작품에 나타난 여성현실과 그 전개방식-초기 경향소설을 중심으로」,『아시아여성연구』 29, 1990, 64면.

유지아,「1910-20년대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제국주의의 변용」, 한일관계사연구 57, 2017, 433-434면.

윌프레드 L 게린 외,『문학 비평 입문』, 제 3판, 한신문화사, 1994, 16면.

윤정란,「식민지시대 제사공장 여공들의 근대적인 자아의식 성장과 노동쟁의의 변화과정」,『담론 201』 9, 2006, 40면.

이선옥,「이기영 소설의 여성의식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5, 118면.

이원동,「일제강점기 이기영 소설의 담론적 실천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05, 137면.

이태훈,「1910-20년대 초 신지식층의 민주주의 인식과 현실 활용-일본유학생과 동아일보의 논의를 중심으로-」,『한국사상사학』 56, 2017, 74면.

이경규,「일제강점기 신여성과 일본유학에 관한 고찰」,『일본근대학연구』 58, 2017, 226-227면.

이송희,「한말, 일제하의 여성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여성연구논집』 16, 2005, 17면.

이수연,「일제 식민지 시기 여성교육과 사회진출」, 전남대 석사논문, 2010, 7면.

이호규 외,「다이쇼 데모크라시와 한·일 근대 작가의 개인주의적 주체 비교 연구-염상섭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비교를 통해-」,『한국문학논총』 54, 2010, 210-211면.

임정연,「식민지 지식인의 연애와 일상: 1920년대 연애서사의 담론적 특성을 중심으로」,『이화어문논집』 24, 이화여대한국어문학연구소, 2007, 25-26면.

장도준,『현대문학비평론』, 정림사, 2011, 11면.

조선유학생학우회,『日本留學生史』,『學之光』 6, 1914, 204면.

천성림,「모성의 발견-엘렌 케이와 1920년대의 중국-」,『동양사학연구』 87, 2004, 196-197

면.
최중녀,「이기영 소설의 여성의식 변모 양상」, 대구가톨릭대 박사논문, 2018.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277면.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문화원형백과 신여성문화-최초의 여학교」, 2004.
홍양희,「일제시기 조선의 여성교육」,『한국학논집』35, 2001, 220-223면.
「지구절을 삼가 마저 반도 부인의 각성을 촉함-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조선일보』, 1939.2.26.

【토론문】

“일제하 소설 속의 일본”에 대한 토론문

심영덕(영남대)

이기영의 「고향」은 조선 농민 생활에 대한 대서사적 작품으로 농민소설의 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기영의 작품들은 식민지하 조선의 농촌 현실을 무대로 한 것으로 농촌의 현실과 그 모순의 극복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는 작가가 농촌에서 나서 그곳에서 자라면서 모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응 방식 창출에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이기영 [李箕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자께서는 한 작가의 작품은 역사적 배경을 떠날 수 없기에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맥락이라는 것에 분석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대에 발표를 주로 한 작가의 경우는 당대 식민지 정책이나 당시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사상이나 이념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은연 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기영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라는 큰 표제 속에서 일방적인 고찰이 많았기에 본 논문에서처럼 10년을 단위로 다른 각도에서 조망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위의 인용문처럼 ‘모순을 극복’하고, 모순에 ‘적극적인 대응방식 창출’이라는 일반적인 평가에서 다른 곁가지를 제시한 점도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론자의 책무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이기영의 소설 중에서 이 세 편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동안의 연구사를 바탕으로 선별된 것이라 하더라도 설득력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 각각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자주인공을 바라보는 관점을 ‘인간’에 맞춘 것인지 ‘사회’에 맞춘 것인지가 불명확하게 보입니다. 「고향」에 등장하는 안갑숙의 경우는 인간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생활에 적극성을 띠고 있기에 성격상의 측면에서 인물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둘째, <표1>을 참고할 때 1897년(310)명을 보이던 일본유학생이 1910년대(886명)를 기점으로 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계몽사상의 측면에서 많은 평가를 받는 이광수의 「무정」이 1917년도에 발표된 경우라면 ‘여성인권’이나 ‘이중적 성규범’의 문제를 「옵바의 祕密片紙」 이전으로 볼 수도 있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발표자께서는 이전의 논문에서 현모양처론과 제국주의 모성론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더 크다고 해석하셨습니다. 혹시 「생활의 윤리」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작품에도 이런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장 협력 글쓰기’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식으로 이어지는 모든 작품들을 ‘친일문학’이라고 단순화시켜도 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넷째, 마지막에서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일본에서 유입된 이념과 사상은 식민지 조선에서

길항과 갈등을 통한 헤게모니 투쟁을 거듭하면서 재구축되어 변주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맺음말을 볼 때 아직 완결되지 않는 논문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기영의 연보를 바탕으로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엘렌 케이 사상과 자유연애, 그리고 ‘콜론타이 연애관’과 관련시켜 주인공의 정신과 행동적 측면에서 본 논문과 동일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2분과 : 국어학 · (한)국어교육 분야

(인문관 101호)

발표자	발표시간	제목	토론자	사회자
주민재 (명지대)	15:20 ~ 15:50	디지털 쓰기에서 작용하는 고정 독자의 활동 양상 분석	김진웅 (연세대)	김억조 (동국대)
서 만 (서울대)	15:50 ~ 16:20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 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	김민호 (대구한의대)	
민지영 (대구한의대)	16:20 ~ 16:50	비언어행동(몸짓·손짓언어)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엄진숙 (영남대)	
16:50~17:00		휴 식		
박향숙 (경북대)	17:00 ~ 17:30	Discourse Analysis: Request Strategies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박준범 (영남대)	이철우 (대구한의대)
배혜진 (동의대)	17:30~ 18:00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의 표준어화와 방언 인식	김지숙 (경성대)	

디지털 쓰기에서 작용하는 고정 독자의 활동 양상 분석

주민재(명지대)

〈 차 례 〉

1. 서론
2. 연구 방법
3. 연구 결과
4. 결론

1. 서론

최근 디지털 쓰기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외 없이 필자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뿐, 독자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는다. 디지털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다. 아날로그 쓰기에서도 독자는 쓰기 수행에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지만 디지털 쓰기에서는 '실제 독자'가 쓰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독자에 대한 연구는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독자가 텍스트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필자 또는 다른 독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과 수행 양상 그리고 필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고 실현하는 방식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독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는 첫째, 적절한 연구 대상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둘째, 텍스트 작성 주체가 필자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연구자들이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쓰기에서는 쓰기 주체가 필자에 한정되지 않고 독자 역시 또 다른 주체이며, 필자가 지속적으로 독자들의 반응을 인식하고 이를 쓰기에 적용하는 양상들이 확인(주민재, 2013)된 것을 볼 때 독자에 대한 연구는 디지털 쓰기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가 텍스트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선호하는 텍스트 작성 방식, 필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점 등 독자의 읽기-쓰기 양상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분석이 이루어질 때, 디지털 쓰기 연구의 내실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독자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디지털 독자의 디지털 텍스트 수용 및 상호작용의 양상 분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1 디지털 쓰기의 특성과 기존 연구의 한계

디지털 쓰기에서는 필독자(Wreader)[1] 현상으로 인해 읽기와 쓰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1) 일부에서는 Wreader를 작가와 독자 개념을 결합한 작독자로 번역한다. 디지털 매체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직업 작가 등의 특정한 직업군에 한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작가(作家)는 대개 "문학작품, 사진, 그림, 조각 따위의 예술품을 창작하는 사람"(네이버 사전-국립국어원 제공)으로 이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독자라는 단어는 어색한 부분이 있다. 이에 비해 '글을 쓴 사람, 또는 쓰고 있거나 쓸 사람'을 가리키는 필자라는 단어는 보다 비전문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러한

다. 독자는 시공간에 상관없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텍스트에는 대부분 댓글과 같은 독자의 피드백을 포함되므로 인쇄 텍스트와 달리 텍스트에서 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매체의 특성은 쓰기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필자는 빈번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자신이 쓴 텍스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미지의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계적 사고(thinking in Network, 주민재, 2013:140-146)를 한다는 점도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기존의 쓰기 방식에서도 필자가 지닌 독자에 대한 인식이 쓰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필자와 독자의 거리가 이격(離隔)되어 있고 그로 인해 필자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 독자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 즉, 인쇄 매체의 필자는 독자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필연적으로 독자를 상상하게 되고 이러한 상상은 추상화를 거쳐 집단적 개념으로 형성된다(Ong, 1982/2009:210-215). 또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 필자들에게 쓰기 과정에서 독자 상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실제 글쓰기에서는 교수자가 유일한 독자가 되는 근본적 한계로 인해 독자를 고려하는 방식이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디지털 글쓰기는 필자는 독자(들)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독자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갖게 되고 이는 글쓰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디지털 매체의 필자는 지속적으로 실제 독자를 접하게 되므로 쓰기 과정에서 독자가 추상적 존재가 아닌 개별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쓰기 과정에서 독자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디지털 쓰기의 특성은 인쇄 매체의 쓰기가 지닌 필자의 자기중심성(egocentrism)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로 독자와의 반복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되는 독자와 연계된 감각은 독자의 관여(involvement)를 활발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독자의 관심과 호응 그리고 적극적 참여가 쓰기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디지털 쓰기에서 독자들의 요구가 콘텐츠 선택과 텍스트 작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주민재, 2013). 따라서 디지털 쓰기의 특성들은 독자가 필자의 쓰기를 원활하게 하는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쓰기의 또 다른 주체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필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필자 중심적 시각에서는 독자를 필자의 텍스트 작성을 원활하도록 조력하는 도구적 위치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시각은 독자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쓰기에서는 쓰기의 과정을 왜곡하여 해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쓰기 행위를 대체로 인지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내 학계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를 “자신의 인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외로운 개인”(정혜승, 2013:34)으로 해석하는 인지주의적 관점은 형식주의에 비해 독자를 의미구성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필자 중심의 시각에서 쓰기를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필자와 마찬가지로 독자 역시 개별적인 존재로서 ‘필자의 쓰기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국내 작문 연구에서 인지주의적 관점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2], 필자 중심적 시각이 강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필자가 독자를 상상해야 하고 그로 인해 ‘필자의 독자는 항상 허구’라는 월터 옹(Ong, W)의 관점이

차원에서 본고는 Wreader를 필독자로 번역하고 이를 사용한다. 주민재(2013), 블로그 쓰기와 블로거의 독자인식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8면 참조.

2) 특히 국내 대학 작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대학의 교양과정이 재편되면서 핵심 교과 과정으로 설정된 ‘글쓰기’는 린다 플라워와 헤이즈의 인지주의적 작문 이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후 국내의 대학 작문 연구자들은 인지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들을 수행했고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용되는 인지주의적 관점으로는 독자를 의미구성의 주체로 상정해야 하는 디지털 쓰기 ngod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하기 어렵다.

1.2. 필자 중심적 시각의 대안 : 대화주의적 관점

대화주의적 관점은 필자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독자를 의미구성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바흐친(Bakhtin, M.)의 언어와 담화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 대화주의적 관점에서 쓰기는 필자와 독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수행되는 의미 구성으로 파악한다. 바흐친에게 의미 구성은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텍스트는 잠재적 의미체로서만 기능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의미 구성은 텍스트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언어의 상호작용, 즉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대화는 필자와 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미 협상과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바흐친의 다성성(ployphony)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하나 이상의 다양한 의식이나 목소리들이 완전히 독립된 실체로 존재함으로써 필자와의 대화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다성성의 개념은 디지털 쓰기 그리고 디지털 쓰기를 통해 작성되는 복합양식 텍스트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복합양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잡종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양식들은 특정한 텍스트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구현하기 위해 복합화되지만 그와 동시에 각자 독립된 위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갖는다. 필자는 복수의 양식들을 조합한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양식들이 지닌 고유의 특성과 개별적 내용을 자신의 의도와 균형을 이루도록 텍스트를 구성하는 각 양식의 요소들로 최적화된 조합을 해야 한다. 바흐친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필자는 각 양식의 요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바흐친은 이 대화가 내적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에게 내적 언어는 아직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의 언어로 인간의 사고를 가리키는데 타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외적 언어와는 대립적인 개념이다(김욱동, 1990:356). “내적 언어 또한 (외적 언어와 마찬가지로) 청취자를 필요로 하며 그 구성에 있어서 그 청취자에게 지향되어 있다. 내적 언어는 외적 언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표현”(김욱동, 1988:55)이다. 즉, 인간의 사고 역시 청취자를 필요로 하는 상호작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쓰기가 기본적으로 독자 지향적 행위라는 개념은 글쓰기가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내적 언어에서의 청취자 지향은 글쓰기에서 독자 지향성과 연결된다.

디지털 쓰기에서는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의 정도가 강해질수록 필자가 자신의 의도를 텍스트에서 완벽하게 관철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텍스트는 웹에 게시되는 순간부터 독자들에게 노출된다. 텍스트가 자주 게시될수록 그리고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독자들의 유입 정도는 높아지고 콘텐츠[3]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된다. 독자의 관심[4]은 디지털 필자에게 쓰기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필자는 독자에 대해

3) 본고에서 텍스트는 쓰기의 결과물, 콘텐츠는 텍스트 또는 텍스트의 연속체가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개념어로 사용했다.

4) 필자는 독자의 피드백에 대해 이중적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다루는 어느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와, 조우씨 정말 멋지네요. 다음엔 더 기대할께요!”라는 식으로 돗자리를 깔아주면 오히려 못합니다. (…) 이 부담감이 계속되면 결국 중간에 휴재를 하게 되죠. (…) 4/4 지점이 크리에이터의 제작 열정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가정한다면, 이 순간에는 크리에이터의 열정에 기름을 붓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관심’입니다. 어떤 독자가 “이제 연재 안하나요?”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테니까요.“(장근우, 2017:44-45)

‘(지나친) 부담과 관심(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이중적 감정을 갖게 된다.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독자들 중 일부는 차츰 콘텐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업데이트 주기(cycle)와 같은 필자의 쓰기 방식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필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독자들과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일정한 관계(rapport)가 형성되면 콘텐츠나 쓰기 방식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일부나마 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후의 텍스트는 필자의 의도만으로 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필자가 설정한 링크나 다른 콘텐츠들은 필자가 의도한 방향과는 다른 측면으로 이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시 말해 디지털 쓰기는 독자와의 상호작용[5]을 통해 활성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화주의적 관점은 인지주의와 달리 디지털 쓰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필자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독자를 의미 구성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디지털 쓰기에서 의미 구성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교육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필자 그리고 담화 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는 대화주의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2.1.1. 대상 블로그 선정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의 2014년 파워블로그 리스트[6]에서 추출한 파워블로그의 고정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네이버>는 2017년 현재 국내

---

5) 상호작용은 원칙적으로 독자들이 댓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상호작용에 독자 반응의 적극성 개념을 고려한다면 소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조회수나 구독자수와 같이 수치화된 지표도 상호작용의 범주에 넣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회수나 국독자수 역시 독자가 직접 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뿐, 필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독자의 관심 정도를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 역시 필자의 쓰기 동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6) <네이버>의 2014년 파워블로그 리스트는 ‘문화·예술 리뷰/여행·레저·지역/맛집·식도락/사진·창작·수집/IT·스포츠·자동차/학술·시사·경제·교육/일상·육아·자연/요리·인테리어·DIY·뷰티’ 등 총 8개의 카테고리, 총 152개 블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파워블로그는 블로그 활동지수 분석을 토대로 파워블로그 선정위원회 평가와 본인 서약을 거쳐 선정된다. 블로그 활동 지수 분석은 ‘블로그 활동성 지수’, ‘블로그 인기도 지수’, ‘포스트 주목도 지수’, ‘포스트 인기도 지수’ 등 계량적 활동 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파워블로그 선정위원회에서는 “블로그의 기본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용의 충실성’, ‘소통의 노력’, ‘활동의 신뢰성’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네이버>는 블로거들의 인위적인 조회수 높이기와 댓글 생성 등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2014년을 마지막으로 파워블로그 선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http://section.blog.naver.com/PowerBlog.nhn?currentPage=1)

2014년까지의 파워블로그 선정 기준은 다음 URL을 참조
(http://section.blog.naver.com/sub/PowerBlogSelectionGuide.nhn)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네이버 파워블로그 리스트를 참조한 이유는 독자의 유입이 많은 블로그들을 선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나 토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파워블로그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 독자의 유입이 많은 블로그에서 고정 독자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 차원에서 파워블로그를 고정 독자 탐색 대상으로 선정했을 뿐이다.

포털 시장 점유율 1위로 일평균 방문자수, 일평균 페이지 뷰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의 국내 포털에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경우 검색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림1]과 같이 일반적으로 통합검색, (동영상), 이미지, 관련 뉴스, 블로그, 카페, 지식iN 순으로 검색된다. 동영상과 이미지를 제외하면 사용자는 뉴스 다음에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게 된다. 블로그는 일반적으로 SNS에 속하지만 트위터 등의 마이크로 블로그(Micro blog)나 페이스북과 같은 관계 지향형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된 플랫폼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매체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포털 사이트에서 블로그를 주요한 관련 정보 제공처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여전히 가장 주요한 플랫폼인 것은 분명하다[7]. 많은 디지털 플랫폼들이 탄생과 사멸을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블로그가 기능을 수행하며 존재하는 것은 "끊임없는 대화의 형태로 주장하고,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Papacharissi, 2007/2009:29)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장과 반박'의 개념으로 사람들은 블로그를 매개로 매우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네이버 검색시 제시되는 메뉴

2.1.2. 선정 절차

블로그의 고정 독자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이론적 표집법(theoretical sampling) 중의 하나인 판단표집(judgement sampling) 방법을 활용했다. 판단표집은 이론적 논의와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가장 적절하게 반영된 연구대상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의도표집(purposive sampling)[8]의 한 유형[9]이다.

고정 독자인 연구 참여자 선정은 1, 2, 3차 단계를 거치는 체계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1차 선정을 위해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네이버>의 파워블로그 리스트에 접속하였다. 1차 선정에서는 블로거의 독자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판단되는 댓글

7) 최근 <다음>의 브런치(brunch.co.kr)는 상당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플랫폼으로서의 블로그가 지닌 생명력과 활용성을 잘 보여준다.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으로 개념화된 브런치는 형태와 기능이 블로그와 동일하다. 브런치가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된 이유는 블로거의 질 확보, 상업성의 인위적 배제, 오프라인 퍼블리싱 시스템 제공 등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오래된 플랫폼으로 인식되는 블로그가 플랫폼의 지향점을 바꿈으로써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8) 의도표집은 질적 연구에서 쓰이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현장과 개인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느냐를 기준으로 표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9) 민속지학적 내용분석은 의도적(purposive)이고 이론적(theoretical) 표집 방식을 활용한다. 판단표집은 일반화의 오류만 경계 한다면 표집의 크기가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모집단의 특성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Corbin & Strauss, 1990; 유민봉·심형인, 2011; 한선, 2006 참조).

커뮤니케이션 및 트랙백의 활성화 정도와 텍스트(포스트) 구성방식 등을 기준으로 해당 사이트 파워블로그 리스트 전체에서 필터링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실시한 이유는 고정 독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로그의 콘텐츠 작성 및 관리 정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정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차 선정에서는 층화된 의도표집(Stratified purposeful sampling)(Miles & Huberman, 1994 Crewell, 2007/2010:182에서 재인용) 방법을 활용하였다. 파워블로그 리스트의 하위분류 항목에 따라 분포된 블로그들을 표집하는데 댓글 상호작용, 댓글 커뮤니케이션[10] 측면에서 최대 편차(Maximum variation[11])를 적용했다. 3차 선정에서는 2차에서 추출된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댓글을 남김으로써 블로거 및 다른 독자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독자들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1주일 단위로 최소 1회 이상 접속하여 댓글을 남기는 경우가 5회 이상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독자를 ‘고정 독자’로 개념화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고정 독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기적으로 방문(1주일에 최소 1번)하여 게시되는 포스트들와 관련된 댓글 상호작용 및 댓글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관찰했다. 최종 선정된 명단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명단

순번	분야	블로그 이름	블로그주소	고정 독자	고정 독자블로그	최종 선정
1	책	천천히 ***	http://blog.naver.com/ljb1***	서기***	http://blog.naver.com/jjco***	
				Hoya***	http://blog.naver.com/bibimgu***	○
				클럽 ***	http://club_dubu.blog.***	
				파리 **	http://blog.naver.com/ybjan***	
2		동네 ***	http://blog.naver.com/vitoj***	허***	http://guana76.blog.***	○
				빨강***	http://red0524.blog.***	
				데구***	http://inae1215.blog.***	
3		고흐, 그 쉼없는 내면 ***	http://blog.naver.com/hiphopd***	레몬***	http://blog.naver.com/moon2***	○
				우렁***	http://speed4491931.blog.***	
				올***	http://blog.naver.com/jjpink0***	
4		야밤산책(冊) :	http://blog.nav	리***	http://blog.naver.com/	

10) 본 연구에서는 댓글 상호작용과 댓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였다. 댓글 상호작용은 블로거와 독자 사이에 서로 문답의 형태로 댓글이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반면, 댓글 커뮤니케이션은 댓글 상호작용과는 달리 특정 블로그에서 (블로거를 제외하고) 독자들이 서로 댓글을 통해 상호작용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이렇게 블로거와 독자 사이에 문답의 형태로 댓글이 발생하는 경우와 독자들 사이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댓글이 발생하는 경우를 나누지 않으면 댓글 수로 단순 표집을 하게 되어 표집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1) 최대 편차는 다양한 편차를 통해 중요하고 공통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집 전략이다.

		리듬의 ***	er.com/nayana0***		akwldrkz***	
				시***	http://blog.naver.com/ley6***	○
5		일상***	http://blog.naver.com/dlxu***	닭***	http://blog.naver.com/bnm9***	
				초***	http://marykchoi.blog.***	
6		단예의 ***	http://blog.naver.com/keith1***	김***	http://blog.naver.com/moon1***	○
				미***	http://blog.naver.com/shop2s***	○
7		도서관을 ***	http://blog.naver.com/th***	요술***	http://blog.naver.com/jienee0***	
				김***	http://blog.naver.com/coolbo***	○
				지안***	http://tistou.blog.***	
				미***	http://blog.naver.com/shinny***	
8		혼자크는 ***	http://blog.naver.com/japanb***	쉼터***	http://blog.naver.com/sida7***	
				킴***	http://blog.naver.com/prm***	○
				모***	http://blog.naver.com/sand***	
9		가오대 ***	http://blog.naver.com/koolp***	허***	http://blog.naver.com/dus4***	○
				포***	http://folktale.blog.***	
				간***	http://blog.naver.com/h***	
				마***	http://blog.naver.com/macha***	○
				또***	http://blog.naver.com/ddob***	
10		개츠비의 ***	http://blog.naver.com/sret***	진***	http://blog.naver.com/shangha***	
				베***	http://happysohh.blog.***	
				쭌***	http://blog.naver.com/wiim***	
11	영화	한마루의 ***	http://blog.naver.com/cradma***	꿀***	http://blog.naver.com/oticonha***	
				멸치***	http://blog.naver.com/vivo02***	
				틱***	http://blog.naver.com/tict***	○
12		Sci-Fi 스***	http://blog.naver.com/leonju***	긍정***	http://blog.naver.com/iwis***	
				최***	http://upturn0820.blog.***	○
				거룩한뼈다귀***	http://blog.naver.***	
13		토마스모어의 ***	http://blog.naver.com/cine212***	박***	http://blog.naver.com/psouk1***	

				소***	http://blog.naver.com/clipper0***	
				리얼***	http://blog.naver.com/junep***	○
14		더필름***	http://blog.naver.com/filmclas***	최***	http://upturn0820.blog.***	
				소설가***	http://blog.naver.com/hanhyei***	
				블루***	http://blog.naver.com/an***	
15		바테스의 ***	http://blog.naver.com/arte***	꿈꾸***	http://manzanilla.blog.***	
				빨강***	http://dokkebi.***	
				가***	http://blog.naver.com/thinf***	
16	음악	CALIFORNIA ***	http://blog.naver.com/ireneb***	su***	http://blog.naver.com/gooooo***	○
				모***	http://blog.naver.com/san***	○
				닥터***	http://junglx.blog.***	
				black***	http://blog.naver.com/black***	
17		쉼과 음악 그리고 ***	http://blog.naver.com/davinchi0***	트***	http://blog.naver.com/2003***	○
				모***	http://blog.naver.com/rosema611***	
				이***	http://inessa9.blog.***	
18		음악조***	http://blog.naver.com/mss1***	감***	http://blog.naver.com/hansh9***	
				Co***	http://blog.naver.com/shgy***	
19		논의 뮤직***	http://blog.naver.com/kata***	서쪽***	http://blog.naver.com/0d***	
				쥬***	http://blog.naver.com/or_***	○
				할***	http://blog.naver.com/kimks20***	
20		ice-J의 ***	http://blog.naver.com/ice***	ar***	http://reinvention.blog.***	
				난***	http://blog.naver.com/fur***	
21		델리키트의 ***	http://blog.naver.com/funky***	iv***	http://ivan-anakia.***	
				사****	http://blog.naver.com/marilyncr***	
				라***	http://blog.naver.com/formytra***	
22	공연전시 무화예술	호모아카데미 ***	http://blog.naver.com/wjdwjd9***	빛살***	http://bitsal.***	
				느꽃***	http://blog.naver.com/kwwoo***	
23		사람과 ***	http://blog.naver.com/humani	샘이***	http://blog.naver.com/asim3***	○

			ti***	산골***	http://blog.naver.com/pas***	
24	드라마방송	해왕성에서***	http://blog.naver.com/hoja***	any***	http://blog.naver.com/h***	
				친구***	http://friendsera.blog.***	
				Lun***	http://blog.naver.com/minjeong1***	
25		일드랑 ***	http://blog.naver.com/dustnr***	쯔***	http://xiaoliu.blog.***	
				pow***	http://blog.naver.com/liljackho***	○
26	여행	쓸쓸한 ***	http://blog.naver.com/jcj***	fogy***	http://blog.naver.com/to***	
				블***	http://hongje5233.blog.***	
				방***	http://blog.naver.com/ich***	○
27		Journey***	http://blog.naver.com/pook***	블***	http://s1993_blue.blog.***	
				방***	http://dudwn0218.blog.***	
28		마리안의 ***	http://blog.naver.com/ann***	고***	http://bingohwan.blog.***	
				김***	http://kim_senti.blog.***	
29		페이지의 ***	http://blog.naver.com/shbae3***	만***	http://thatha74.blog.***	
				동***	http://blog.naver.com/taizzang***	
30		주로 떠나는***	http://blog.naver.com/olive***	flight***	http://blog.naver.com/fightc***	
				미스***	http://blog.naver.com/nam***	○
31		샤련의 ***	http://blog.naver.com/sexysha***	블***	http://hongje5233.blog.***	
				방***	http://blog.naver.com/ichmo***	
				아침***	http://blog.naver.com/ykahn***	
32		여행과 ***	http://blog.naver.com/imga***	소금***	http://blog.naver.com/folkart0***	
				동키***	http://blog.naver.com/jes***	
33		꿈지킴이와***	http://blog.naver.com/hwajun89	펜***	http://blog.naver.com/dae***	
				고***	http://tangkong16.blog.***	○
34	시사경제인문	한성안 교수의***	http://neoyoung78.blog.me/220200001***	프로메테우스의***	http://blog.naver.com/promethe***	
				신지***	http://blog.naver.com/i	

					ljkw***	
35		시장을 ***	http://blog.naver.com/hong8***	행복***	http://blog.naver.com/goodboy16***	
				새벽***	http://blog.naver.com/song121***	
36		안녕하세요?***	http://blog.naver.com/josephk***	또비***	http://blog.naver.com/john9***	
				아테네***	http://blog.naver.com/jessivi***	
37		대사의 ***	http://blog.naver.com/imkcs0***	붉은***	http://blog.naver.com/spartac***	○
				돈키***	http://blog.naver.com/pops***	
38		푸른***	http://blog.naver.com/fishes1***	또***	http://blog.naver.com/john9***	
				용***	http://blog.naver.com/skkimys1***	
39		...허공의 ***	http://blog.naver.com/racc***	핑크***	http://blog.naver.com/ljb1***	
				웅***	http://blog.naver.com/rozxwo***	
40		삶의 ***	http://blog.naver.com/just6***	독***	http://blog.naver.com/kyu99***	
				지****	http://blog.naver.com/jinili***	○
41	육아	꼬마김***	http://blog.naver.com/dag***	에***	http://blog.naver.com/py***e	
				히***	http://pjiyooon.blog.***	
				다***	http://blog.naver.com/pink0***	○
42		아빠와 ***	http://blog.naver.com/k2***	삼색***	http://blog.naver.com/eunha***	
				kalle***	http://blog.naver.com/kal***	
43		보꼬의 ***	http://blog.naver.com/dpwls***	곰세***	http://siyou2001.blog.***	
				항상***	http://blog.naver.com/k2***	○
				경***	http://blog.naver.com/k2***	
44		마음을 ***	http://blog.naver.com/nari_n***	kall***	http://blog.naver.com/kal***	
				깜***	http://blog.naver.com/dag***	
				아***	http://yoonahjp.blog.***(	○

2.1.3. 연구 방법

① 분석 유목의 활용

본 연구에서는 사전 조사 형식으로 민속지학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블로그 텍스트(포스트)와 댓글 상호작용 및 댓글 커뮤니케이션을 관찰하면서 분석 유목을 설정하였다[12] (Chandler, 1998; 권상희, 2005). 구체적인 분석 유목은 [표 3]과 같다.

[표 2] 추출된 분석 유목

분석유목	추출 내용
블로그의 내용과 목적	블로그가 다루는 주된 주제나 대상, 블로그의 목표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 (트랙백 포함)	필자-독자의 댓글 상호작용 양상, 독자-독자 사이의 댓글 커뮤니케이션 양상
각종 시간 변수	특정 독자의 댓글 게시 횟수 및 게시 주기
기타	네트워크성(댓글 상호작용/댓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른 블로그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이동하는 경우)

②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결과 도출 및 심층적 분석을 위해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혼합하여(combin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활용한다. 먼저 고정 독자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관찰을 통해 활동 방식을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어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양적 방법을 활용한다. 양적 방법은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고정 독자의 심리나 블로그 선호도, 특정한 활동 방식의 이유 등 결과의 구체성을 도출하는 데는 양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는 이러한 한계는 질적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을 선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블로그 고정 독자의 특성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블로그 고정 독자들이 연구자가 처음 예상했던 것에 비해 그 수가 많지는 않았으며 모든 블로그에 고르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즉, 고정 독자의 형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블로그에서 고정 독자가 쉽게 형성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12) 민속지학적 내용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이나 분석유목 등을 참고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 이미지, 의미 그리고 미묘한 차이(nuances)와의 끊임없는 비교 및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범주와 분석유목을 설정하고 발전시킨다(Altheide, 1996:17).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먼저 블로그 콘텐츠 소비에 상당한 인지적 부담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SNS의 특성 중의 하나는 자신이 생산한 콘텐츠를 '전시'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 있다. 중요한 것은 '전시'의 주요 방법으로 최근 이용자들이 많아진 인스타그램(Instagram)의 경우 사진과 같은 '시각 이미지의 제시'를 통해 콘텐츠를 전시한다. 따라서 방문자들은 제시된 시각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보기'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므로 인지적 부담이 적다. 하지만 블로그의 전시 방법은 '문자 텍스트 제시'이다. 즉, 방문자들에게 문자 텍스트를 '읽고 사고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방식은 방문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비해 콘텐츠를 쉽게 소비할 수 없다. 이러한 소비 방식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는 고정 독자 형성이 쉽지 않다. 즉, 특정 블로그 콘텐츠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콘텐츠의 소비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서 고정 독자가 형성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정 독자 중 댓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경우에만 고정 독자로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고정적으로 블로그에 방문하는 독자라고 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해 반응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단순 방문만 하는 경우 가시화되지 않는 구조도 실제 고정 독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블로그 고정 독자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첫 번째 특성은 전문적인 콘텐츠를 다루는 블로그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블로그 콘텐츠 소비는 '텍스트 읽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당한 인지적 부담이 소요된다. 따라서 고정 독자는 특정한 콘텐츠가 주는 인지적 부담을 '지적 즐거움'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 분야에 대해 일정한 수준을 갖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블로그에서 고정 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블로그는 일시적으로 특정 정보나 지식의 필요로 인해 '검색'을 통해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취급하는 콘텐츠에 따라 방문자수가 많은 경우는 종종 있지만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독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전문적인 콘텐츠를 다루는 블로그 중에서 운영 시기가 길고 꾸준히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관련 지식이 풍부한 이용자들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블로그 운영 시기가 길수록 특정 콘텐츠가 축적되면서 이른바 아카이브(archive)가 형성되므로 검색을 통해 쉽게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블로그에서 다루는 특정 콘텐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이중의 일부가 댓글 등을 통해 블로거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고정 독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다루지만 콘텐츠의 밀도가 높지 않거나 콘텐츠가 축적되지 않은 블로그에서는 고정 독자 형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블로그 고정 독자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특성은 고정 독자가 매우 적극적인 성향을 띤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 블로그에서 고정 독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정 독자 중에서 댓글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피력하는 사람만 가시화될 뿐이다. 따라서 고정 독자는 해당 블로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독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정 독자가 특정 블로그의 콘텐츠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일부 고정 독자는 블로거의 주장이나 견해 혹은 제시하는 정보의 결함 등을 지적하거나 노골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콘텐츠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고정 독자들은 결과적으로 블로거가 생산하는 콘텐츠의 밀도를 높이도록 자극을 가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쓰기 수행에 긍정성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블로거와 갈등을 보이는 경우에는 블로거의 콘텐츠 생산 의욕을 꺾을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3.2. 블로그 고정 독자의 활동 양상

3.2.1. 블로그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 반응

블로그가 '전시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전시한 콘텐츠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서 블로거를 자극하는 독자는 블로그의 지속적 운영에 필수적인 존재이다. 방문자수와 댓글 등의 반응이 블로거의 콘텐츠 생산에 가장 큰 동력이라는 점은 관련연구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한선, 2006; 주민재, 2008; 김지연, 2013; 주민재, 2013). 대부분의 고정 독자는 블로그 콘텐츠에 대해 [그림 2]처럼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블로거의 근황을 묻거나 개인적인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림 2] 블로거와 고정 독자의 상호작용(1)

[그림 3] 블로거와 고정 독자의 상호작용(2)

그러나 일부 고정 독자는 상당히 고강도의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블로거의 입장과 거리가 멀거나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고정 독자의 의도적 오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블로그 운영 경험이 많은 블로거들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들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주민재, 2013:82). 이러한 현상이 블로거에게는 괴로울

수 있으나 항상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 역사 등 블로거의 견해와 관련 사안에 대한 해석이 중심 콘텐츠가 되는 오피니언 블로그의 경우에는 부정적 반응이 더 많은 독자들을 유입하거나 콘텐츠의 밀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부정적 고정 독자(antagonist)가 블로그에서 활동이 너무 두드러지는 경우, 블로거에게는 블로그 운영에 심리적 장애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고정 독자(들)의 반응이 거센 경우 블로거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림 4]는 부정적 반응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 고정 독자에 대해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블로거의 대응을 볼 수 있으며 [그림 5]는 고정 독자를 포함한 적극적인 독자들로 인해 발생한 댓글 논쟁에 대해 블로거의 공식적 대응의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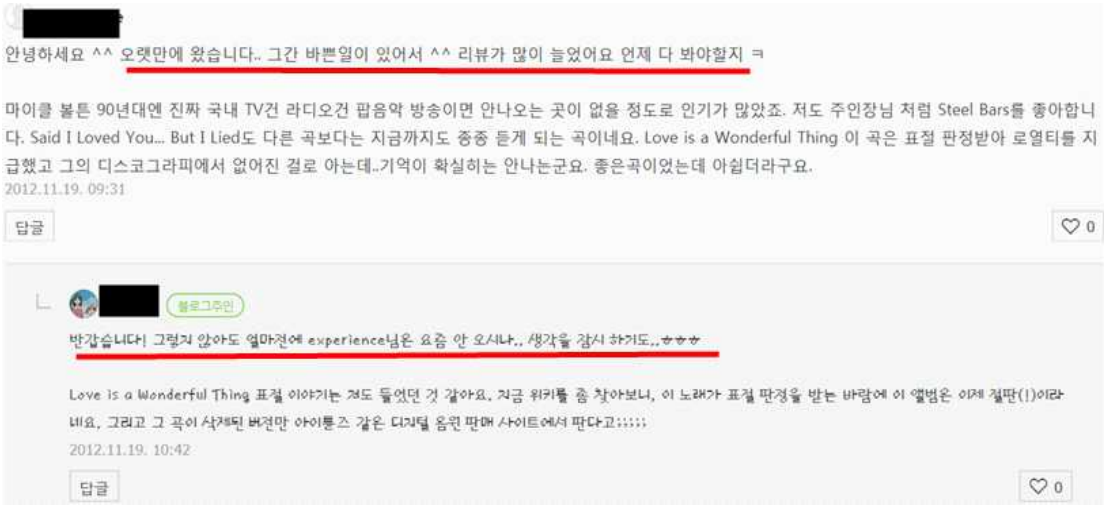
[그림 4] 블로거와 고정 독자의 상호작용(3)

[그림 5] 블로거와 고정 독자의 상호작용(4)

3.2.2. 콘텐츠 보완의 역할

블로거보다 관련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고정 독자들이 댓글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거나 교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블로그 문화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블로그 중 일부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를 다룬다. 블로그에서 다루는 전문 콘텐츠가 만화(애니메이션), 프라모델, 게임, pop 등 이른바 덕후(오타구, 매니아) 문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지만 실제로는 역사, 국제 정치, 고전영화, 한국현대사 등 학술적인 영역을 다루는 블로그도 상당수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블로그의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정 독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블로그에서는 블로거보다 고정 독자(들)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는데 이 경우 고정 독자가 쓴 댓글이 그대로 콘텐츠의 밀도를 높이게 된다. 이후에 방문하는 독자들은 블로거가 작성한 포스트(post)만이 아니라 독자들의 댓글까지 하나의 콘텐츠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늘어날수록 블로그는 일종의 '공론장'(김익현, 2008)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수록 블로거 역시 콘텐츠 생산에 보다 신중을 기하거나 보완을 위해 더 많은 자료들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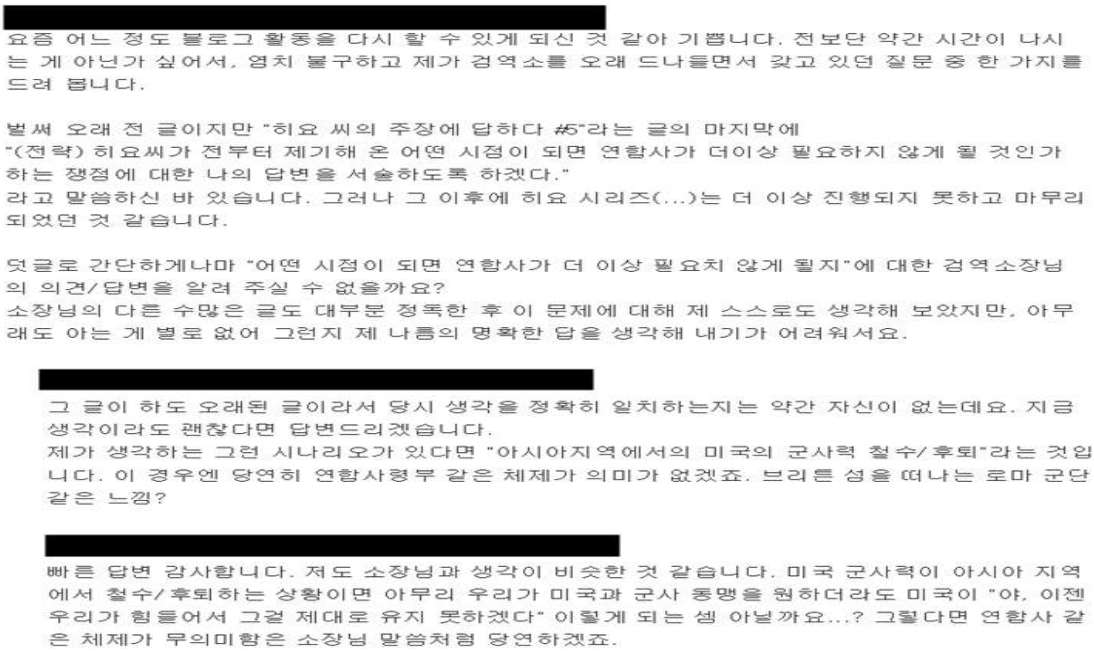
[그림 6]은 음악 분야의 리뷰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블로그에서 고정 독자와 블로거의 상호작용을 캡쳐한 것이다. 간단한 안부를 통해 친근함을 표하면서 고정 독자가 특정 포스트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으며 블로거가 이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확대 생산되고 있다. 이후 방문하는 독자들은 본래 포스트와 더불어 이러한 상호작용까지 하나의 콘텐츠로 인식하게 된다.



[그림 6] 블로거와 고정 독자의 상호작용(5)

[그림 7]에서는 고정 독자가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블로거와 고정 독자의 반응이 반복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포스트에서 미처 언급되지 못한 부분이 보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고정 독자의 질문이나 콘텐츠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는 해당 문제에 대해 블로거에게 더 깊은 조사를 요구하면서 블로거에게 콘텐츠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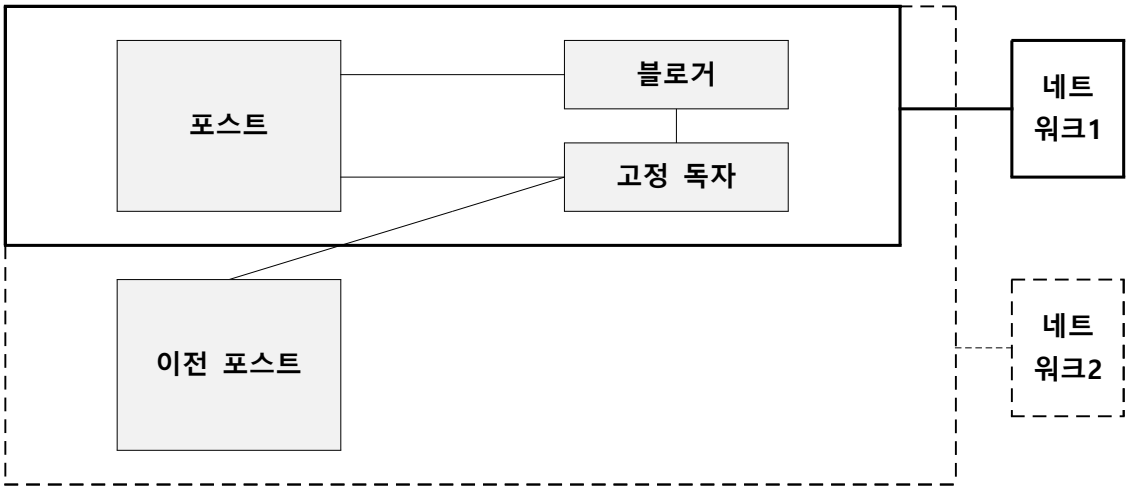
[그림 7] 블로거와 고정 독자의 상호작용(6)



[그림 7] 블로거와 고정 독자의 상호작용(6)

[그림 8]에서는 고정 독자의 질문과 블로거의 대응이 모두 매우 진지하다. 고정 독자는 블로거가 이전에 연재하다가 중단했던 콘텐츠에 대한 보충 설명 요청과 블로거의 답글 그리고 독자의 의견이 보인다. ‘한미연합사’ 존치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다른 블로그와는 달리 블로거와 독자가 매우 진지한 태도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그들의 질문과 답변이 하나의 포스트 내용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블로거가 이전에 장기간 연재했던 특정 콘텐츠에서 다뤘던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댓글을 통한 블로거

와 독자의 '대화'는 이전 포스트와 연결되면서 내용적인 차원에서 [그림 8]처럼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블로거와 고정 독자는 댓글을 교환하면서 특정 포스트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만 고정 독자가 이전 포스트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댓글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제 3의 독자는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고정 독자가 언급한 이전 포스트를 방문할 수도 있다. 블로그의 포스트 간 네트워크 형성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블로거이다. 새로운 포스트에서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언급을 하거나 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림 7]의 경우는 블로거가 아니라 독자가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링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전 포스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네트워크를 복합적으로 확장시킨다. 이러한 역할은 블로그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방문한 고정 독자만 할 수 있다. 블로그의 콘텐츠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8] 블로거-독자의 댓글 교환으로 형성된 이중 네트워크

4. 결론

그간 디지털 쓰기와 관련된 연구들에게서 연구의 초점은 항상 디지털 필자였다. 작독자(wreader) 개념 역시 필자에만 적용되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디지털 쓰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점에 입각하면 디지털 필자만큼 독자의 역할과 기능 역시 동일한 비중으로 분석되어야 관련 연구 결과가 충실해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그간 도외시 되었던 디지털 독자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디지털 독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실제 고정 독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독자들의 심리를 분석함으로써 가시적인 활동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참고문헌

김성숙(2014), 학부생의 디지털 저자성 측정 문항 개발, 작문연구 23집.
김성희(2009), 인터넷 매체언어의 읽기와 쓰기 특성과 효과적 통합 지도 전략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2010), 인터넷 매체 텍스트의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 전략, 국어교육학연구 36집.
김영만(2003),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성과 한국어 작문 교육 방향, 한국어 교육 14권 3호.
김욱동(1988),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김욱동 편(1990), 바흐친과 대화주의, 나남.
김익현(2008). 뉴스공론장으로서 블로그의 가능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기(2012), 소셜 미디어와 소셜 커뮤니케이션, 소셜 미디어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정자(1999), 잡지 기사의 구어성 분석 -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잡지를 중심으로, 텍스트 언어학, 7권.
김종윤·서수현·옥현진(2015), 디지털 리터러시 태도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탐색, 국어교육 150집.
김지연(2013). 디지털 필자의 문식 실행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지연 외(2015).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적 영역 평가 도구 개발 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0집 2호.
옥현진(2010). 컴퓨터 글쓰기의 쓰기 교육과정 반영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청람어문교육 41집.
_____(2013). 디지털 텍스트 읽기 능력과 디지털 텍스트 읽기 평가에 대한 일고찰, 새국어교육 94집.
윤경원.나미수(2005). 문화 지역화와 미디어 수용자 하위문화, 한국 언론학보 49권 1호.
윤여탁 외(2008).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윤영민(2010). e-Carnivalesque로서의 온라인 공중 대화: 바흐찐적 모형의 탐색, 사회와 이론 통권 16권.
이정복(2000). 바람직한 통신언어 확립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관광부.
임천택(2001). 컴퓨터 작문교육의 배경과 연구동향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19집.
장근우(2017). 콘텐츠의 정석, 예문아카이브.
정혜승(2013). 독자와 대화하는 글쓰기, 사회평론
정현선(2013). 읽기 쓰기의 진화, 사회평론.
주민재(2008). 블로고스피어 형성과 담론공간의 구조, 작문연구 11호.
_____(2013). 블로그 쓰기와 블로거의 독자인식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 선(2006). 블로그 커뮤니케이션의 생산과 실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ltheide, D.L.(1996). Qualitative Media Analysis, Sage.
Bakhtin, M.M.(1927). Freidizm: kriticheskii ocherk; 김윤하 역(2011), 프로이트주의, 문학에디션 뿔.

Bakhtin, M.M.(1986).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Emerson, C & Holquist, M.(eds), Dialogic Imaginatio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Bakhtin, M.M. & Medvedev, P.N.(1985), The Formal Method in Literary Scholarship: a Cri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Poetics. (trans., 1978) Wehrle, A.J. Baltimore:Johns Hopkins Univ. Press; (Rev. Ed, 1985).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28.)
Bakhtin, M. Dialogic Imagination: Four Essays by Mikhail Bakhin. (trans.) Vadim Liapunov, V. & Brostrom, K., (ed) Holquist, M.(1982).Univ. of Texas Press.
Bolter, J.D. & Grusin, R.(1999).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MIT Press, 이재현 역(2006). 재매개 : 뉴미디어의 계보학, 커뮤니케이션북스.
Bolter, J.D.(2001). Writing Space : computers, Hypertext, and the Remediation of Print,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김익현 역(2010). 글쓰기의 공간 : 컴퓨터와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인쇄의 재매개, 커뮤니케이션북스.
Carol Berkenkotter(1981). Understanding a Writer's Awareness Audience,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Vol.32, No.4.
Ong, Walter J.(1982).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New york: Routledge); 이기우·임명진 역(2009).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Papacharissi, Z.(2007). Audience as Media Producers: Content Analysis of 260 Blogs.

【토론문】

“디지털 쓰기에서 작용하는 고정 독자의 활동 양상 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진웅(연세대)

주민재 선생님의 「디지털 쓰기 과정에서 작용하는 고정독자의 활동 양상 및 기능 분석」은 디지털 쓰기의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독자와 필자의 관계가 변화를 겪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을 뛰어넘어 디지털 쓰기에서 필자의 역할에 대해 본격적으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 논문입니다. 디지털 글쓰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에, 특히 독자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향후 동일 분야의 연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여쭤봄으로써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왜 블로그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1.에서 블로그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비해 블로그가 중요한 플랫폼인가도 역시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으나 독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블로그가 가장 주목할 만한 플랫폼인가에 대한 합의 역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매체적 특성이 전통적으로 “텍스트의 작성 주체를 필자로 보는 관념”에 더욱 가깝기 때문에 고정독자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더욱 전통적 역할에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요? 요약하자면, 왜 트워터의 팔로워보다 블로그의 고정독자를 연구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고정독자의 활동 양상으로 “블로그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 반응”과 “콘텐츠 보완의 역할”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양상은 모두 댓글에 나타나는 고정독자의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댓글 활동 자체가 쓰기 과정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문의 제목에 의하면 필자가 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정독자의 역할에 주목하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필자가 고정독자와의 상호 작용(댓글)을 통해 새롭게 생성하는 텍스트(새로운 포스팅)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 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

서만(서울대)

〈차 례〉

1. 머리말
2.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의 의미 기능
3. '-던'과 '-았던'에 대한 한·중 대조분석
4. 결론을 대신하며

1. 머리말

한국어 학습자는 교실에서 다양한 문법항목들을 배운다. 그들이 교실에서 목표 문법 항목을 배운 직후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문형 연습에서 목표 문법항목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의사소통에서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형태적, 의미적, 통사적 오류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2언어 환경에 노출되면서 스스로 고쳐 나가거나 교사나 모어 화자의 수정을 거쳐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래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법 항목이 있기 마련이다. 본고에서 일반적으로 초·중급 단계에서 배우게 되지만 중·고급 학습자들에게도 낮은 사용률과 동시에 높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는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을 주목하고자 한다.[1] '-던'과 '-았던'은 관형사형 어미로서 단순히 과거 회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던'과 '-았던'의 통사적 규칙과 형태적 결합 규칙이 복잡한 편이 아니지만 그 의미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학습자들의 습득이 쉽지 않다.

본고에서 이 점을 감안하여 기존 논의를 참고하여 결합되는 용언별로 '-던'과 '-았던'이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던'과 '-았던'이 각 의미 기능을 드러낼 때 문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부사어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던'과 '-았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던'과 '-았던'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향후 학습 내용으로 도입된다면 학습자에게 '-던'과 '-았던'을 쉽게 구분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관형사형 어미 '-던'과 '-었/았/였던'을 다룬 연구는 성지연(2002), 이은기(2005), 정대현(2008), 강승혜(2009), 최서원(2010), 남주연(2012), 한송화(2015), HE MEIPING·홍종선(2016), 김수정·박덕유(2017)등이 있다.

성지연(2002)에서는 22명의 일본인 한국어 중급 학습자들이 작성한 문어 자료 중에 나타난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오류 양상을 언어 간 오류와 언어 내적 오류로 나누었다. 그리고 오류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였지만 그 이유는 모두 학습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

1) '-던'과 '-았던'의 사용율에 대하여 선행 연구에서도 다룬 바가 있다. 최서원(2010)에서 'A-은>-을>V-는>-은>-었을>-었던' 순으로 학습자들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율을 제시하였다. 한송화(2015)에서도 관형사형 어미 평균 사용율 순을 '-은>-을>-는-던'으로 제시하였다.

아니라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과 추측에 의한 것도 있는 데서 아쉬움이 남았다.

이은기(2005)은 57명의 일본어권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관형절 시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는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고급 학습자에게 답을 쓰게 하였다. 하지만 고급 학습자라 해도 목표 언어인 한국어로 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대로 기술할 수 있냐는 점에서 연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또한 고급 학습자들의 인식은 모든 수준의 학습자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점을 지닌다.

강승혜(2009)는 기존에 나와 있는 한국어교재와 문법책에 나타난 ‘-더-’와 관련된 문법 항목을 분석하고 각 항목들을 해당 기관 교재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6종 한국어교재에서 ‘-던’과 ‘-았던’을 다룬 교재는 5종이며 대체로 초급 단계에서 ‘-던’과 ‘-았던’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더-’의 중심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종결어미를 먼저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중급에서 관형사형 어미, 고급에서 연결어미류를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서원(2010)에서 말뭉치 분석을 통하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관형사형 어미들 간에 서로 대치되는 오류 양상과 각 양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가 쓰인 구조 유형별로 관형사형 어미 사용률과 오류율을 제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았던’의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모국어에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들의 의미를 변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돕는 문법 표지가 발달되지 못한 것과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들이 문법 범주와 의미 기능에 있어서 복잡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학습자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는 것과 구조 유형별로 오류 분석 연구를 하였다는 것에서 기존 논의와 차별성을 지니게 된다.

남주연(2012)은 ‘-던’과 ‘-았던’의 의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 말뭉치를 분석하였다. 그는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와 결합될 때 ‘-던’과 ‘-았던’이 각자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한송화(2015)는 영어권 및 유럽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산출한 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관형절 사용과 관형사형 어미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하여 등급이 올라갈수록 수식 기능의 관형절 사용도 많아진다는 것과 학습자들이 관형절의 전치 수식 구조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형절일수록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숙달도별로 학습자들의 관형절 사용 양상과 관형사형 어미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폈다는 차원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HE MEIPING · 홍종선(2016)에서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관형절 내포문을 사용하는 데 있어 나타난 오류 양상을 유형별로 살피고 그 오류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급과 고급 학습자들 모두 ‘-던’의 사용에 있어 가장 높은 오류율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학습자 모국어에서 이러한 문법 항목의 부재와 목표어 문법 항목의 복잡성으로 제시하였다.

김수정·박덕유(2017)는 과거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ㄴ’, ‘-던’, ‘-았던’의 의미 기능을 검토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 내용을 추출하였다. 학습자 작문과 설문 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의 과거시제 관형사형 어미 사용 양상을 살피고 모어 화자에게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사용 양상과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 있어서 사용률이 낮고 ‘-던’을 사용해야 할 자리에 ‘-는’을 쓴 경우가 많이 나타났고 ‘-던’이 사용된 경우에도 비교적 고정된 형태로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관형사형 어미 '-던'과 '-었/았/였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연구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던'과 '-았던'의 의미 기능을 다룬 논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 연구, 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과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실험적 연구에서는 어느 특정 언어권 학습자에게만 치우치지 않고 영어권, 유럽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등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던'과 '-았던'의 사용률이 낮다는 것과, 중·고급 학습자들조차도 '-던'과 '-았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습자가 '-던'과 '-았던'의 사용에 있어 오류를 범하는 이유를 모국어에 비슷한 문법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복잡성으로 제시하였다.

2.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의 의미 기능

2.1. 기존 논의에 나타난 '-던'과 '-았던'의 의미 기능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국어교육에서 다뤄야 할 관형사형 어미 '-던'과 '-었/았/였던'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형사형 어미 '-던'과 '-었/았/였던'은 선어말 어미 '-더-'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한 문법 형식이고, '-았던'은 '-았/었-'과 '-던'이 결합된 문법 형식이다.

신현숙(1982)에서 '-던'의 의미를 [+실현], [-완성], [+거리]로 분석하였고 그중에서 [+거리]가 다른 유사한 관형사형 어미에 존재하지 않는 의미 기능으로 '-던'의 변별기능으로 설명하였다.[2] [+실현], [-완성]은 [+거리]에 비하면 '-던'을 설명하는 데 덜 적합한 의미이지만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 의미 기능도 '-던'을 변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석규(1983)에서 '-던'이 과거시제를 나타내고 과거 일정 시간 속에서의 지속, 혹은 과거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가 완료된, 즉 현재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았던'은 '-았-'과 '-던'으로 결합된 것인데 지속 후의 완료, 혹은 완료된 후의 지속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의 범주에서는 '-던'이 과거에만 쓰이는 지속상 혹은 단속상으로 분석되고, 법의 범주에서는 '-던'이 회상법 또는 재생법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던'과 '-았던'을 사용한 문장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주절의 동작시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작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모든 경우를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주연(2012)은 한국어 모어 화자 말뭉치를 분석하여 '-던'과 '-았던'의 의미 차이를 알아보았다. '-던'은 형용사와 결합할 때 '사건 시점의 상태 회상', '과거 상태의 단절'을 나타내고, 동사와 결합할 때 '과거 상태·습관의 지속', '과거 지속적 행위의 단절'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다, 아니다'와의 결합 양상은 구어 말뭉치에서 발견하지 못하였고 문어 말뭉치에서는 '사건 시점의 상태가 습관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진행'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았던'은 형용사와 함께 사용될 때 '과거 상태의 경험', '과거 특정 시점에 초점을 둔 경험'을 나타내고, 동사와 결합될 때 '과거에 완료된 경험', '과거의 일시적 경험'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

2) 신현숙(1982)에서 분석한 '-던'의 [+실현] 의미는 화자가 생각하는 영역에서 동작이나 상태가 '-던'의 [-완성] 의미는 화자가 동작이나 상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이 아니라 그 일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던'의 [+거리] 의미는 화자가 심리적이나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거리를 느끼는 영역에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을 나타낸다.

다. 그리고 ‘이다, 아니다’와 결합할 때는 ‘과거 한 시점의 경험’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순간동사가 ‘-던’과 함께 사용되지 않는데 ‘-던’ 뒤에 시간 명사가 올 때 순간동사과 ‘-던’의 결합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송창선(2006)에서는 인식시 기준으로 ‘-던’과 ‘-았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다. 그가 ‘-던’과 ‘-더-’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면서 ‘-던’의 의미 기능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쓰인다. 둘째, 인식시를 기준으로 볼 때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문숙영(2009)에서 ‘-던’은 ‘지속’, ‘진행’, ‘반복’ 등의 비완결상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던’와 ‘-았던’에 결합할 수 있는 용언을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로 구분하였다. 행위의 끝점이 있는 동사는 한계 동사이고 중간에 행위를 종료하더라도 행위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동사가 비한계동사로 나누었다.[3] ‘-던’이 한계동사와 결합될 때는 ‘중단’ 혹은 ‘비완결’을 나타내고, 비한계동사와 결합할 때는 그런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한계동사는 ‘-던’과 ‘-았던’의 사용에 있어서 의미 차이가 존재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순간동사와 ‘-던’이 결합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던’ 뒤에 시간 명사가 오면 그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구본관 외(2014)에서 ‘-던’은 동사와 결합될 때는 미완료, 형용사와 결합될 때는 단순히 과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던’에는 ‘-더-’의 1인칭 주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영근·구본관(2018ㄱ)에서 동사와 결합되는 ‘-던’은 ‘과거 회상’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표현하거나 ‘완료되지 않은 행위’나 ‘상태의 중단’을 표시한다고 하였다. ‘-었-’과 결합했을 때는 ‘행위의 완료’나 ‘반복적인 일’을 회상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았던’은 ‘-던’에 비해 ‘동작의 완결을 구체화시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형용사나 ‘이다, 아니다’와 결합될 때 ‘-던’은 ‘과거’를 나타내는데 이때 ‘-았던’보다 과거의 상황을 더 구체화시킨다고 설명하였다.

김수정·박덕유(2017)에서 ‘-던’의 의미를 ‘미완료(동작의 중단)’, ‘-았던’의 의미를 ‘완료’, ‘과거 동작의 일회성’, ‘과거에 완료된 사실(현재와 인식의 단절)’로 분석하였다. 형용사와 결합할 때는 ‘-던’과 ‘-았던’은 모두 ‘단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던’과 ‘-았던’의 의미 유사성으로 서로 대치가 가능한 경우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사의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인 과거의 경험인 경우 ‘-던, -았던’의 대치가 가능하다.
2. 동사의 속성이 지속성의 의미를 지닌 경우 ‘-던, -았던’의 대치가 가능하다.
   (지속성을 지닌 동사류: 다니다, 살다, 알다, 지내다 등)
3. ‘반복’의 의미를 지닌 부사와 함께 쓰일 경우 ‘-던, -았던’의 대치가 가능하다.
   (반복성을 지닌 부사: 매일, 자주, 항상, 가끔, 늘)
4. 형용사의 경우 ‘-던, -았던’ 대치 가능하다.(현재와 단절의 의미 존재)
   이후 생략[4]

이상으로 기존 논의에서 ‘-던’은 과거시제, 과거 회상, 지속, 진행, 중단, 미완료, 단절, 반복, 습관을 나타내고, ‘-았던’은 과거 경험, 과거 1회적 경험, 지속, 완료, 반복을 나타낸다고

3) 한계동사의 예로 ‘짓다, 건너다, 만들다’, 비한계동사의 예로 ‘부르다, 다니다, 그리다’ 등을 제시하였다.
4) 이 내용은 김수정·박덕유(2017)를 직접 인용한 것이다. 논의에 제시된 예문은 인용에서 생략하였음을 밝힌다.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던'과 '-았던'이 동일한 사태를 나타낼 때는 '-던'과 '-았던'의 의미 기능에 대한 구분과 , '-던'과 '-았던'에 결합되는 용언에 따라 나타나는 의미 차이에 대한 분석과, '-던'과 '-았던'의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을 받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동작시', '발화시', '인식시' 등 시점에 대한 논의가 펼쳐져 왔다.

2.2. 한국어 문법서에서 제시한 '-던'과 '-았던'의 의미 기능

이희자·이종희(2006)에서 '-던'을 '과거 회상', '과거의 어느 때까지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됨', 주로 '-았던'으로 쓰여 '과거에 지속되던 행동이나 상태 등이 중단됨'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던'과 '-았던'의 의미 차이에 대한 설명과 '-던'과 '-았던'이 결합되는 용언이 동사인지, 형용사 혹은 '이다/아니다'에 따라 드러내는 의미 기능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립국어원(2005ㄴ)에서 '-던'과 '-았던'의 의미를 모두 '과거의 사건이나 행위, 상태를 회상', '과거 사건이나 행위,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중단'으로 제시하였다. 형용사나 '이다, 아니다'의 어간에 결합하는 경우에도 '단절, 미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던'과 '-았던/은 위에 제시된 공통적인 의미 외에 각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있다. 의미적으로 차이가 나타난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백봉자(2006)에서는 '-던'은 '과거 동작의 진행이나 동작의 일상성(습관적인 행위)'을, '-았던'은 '과거 시간에 완료된 동작'을 회상하거나 보고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이는 역시 '-던'과 '-았던'의 의미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이 아니었다. 그리고 동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예만 제시하였고 형용사나 '이다, 아니다'와의 결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한국어교육현장에서 '-던'과 '-았던'의 교사들이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 대한 관찰과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던'과 '-았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었고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기존에 국어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 적용시키는 패러다임을 벗어나 '-던'과 '-았던'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을 통하여 그들의 의미 기능을 보다 세부적이고 설명력 있게 정리하였다.

우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에서 '-던'과 '-았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 '-던'과 '-았던'의 의미[5)]

문법 형태	기본 의미	결합되는 용언에 따라 나타내는 의미	
		동사	형용사, '이다/아니다'
'-던'	진행 중/미완인 사태가 지각(인식)되었음을 나타냄.	[과거 지속] [반복] [미완/중단]	[현재 상태(지각 당시)]
'-았던'	완료된 사태가 지각(인식)되었음을 나타냄.	[완료] [반복] [일회성]	[과거]

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

그리고 ‘-던’과 ‘-았던’이 같은 사태를 나타낼 때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즉, ‘-던’과 ‘-았던’ 모두 허용되는 상황에서 ‘-던’이 사용된 문장과 ‘-았던’이 사용된 문장이 가지는 차이점을 구분하였다. 전자는 ‘진행 중/미완’의 사태를 지각하는 것이고, 후자는 ‘완료’된 사태를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6] 이러한 지각시의 차이를 학습 내용으로 제공된다면 학습자들이 ‘-던’과 ‘-았던’에 대한 구분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현화 외(2016)에서는 ‘-던’의 의미를 ‘과거 상황 회상’, ‘중단’, ‘지속’으로 정리하였다. ‘-았던’을 독립적인 문법항목으로 보기보다는 ‘-던’이 선어말어미와 결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책에서 ‘-던’이 다른 문장 성분과 결합하는 정보를 제시하였는데 먼저 선행절에는 ‘-(으)시-’, ‘-었-’과 결합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후행 결합 정보는 ‘-던’의 의미에 따라 다른데 ‘-던’이 회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일’, ‘날’, ‘때’, ‘것’, ‘시간’, ‘해’, ‘시절’과 같이 어떤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간 명사와 결합하고, ‘-던’이 중단이나 지속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앞말에 의해서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명사와 결합한다고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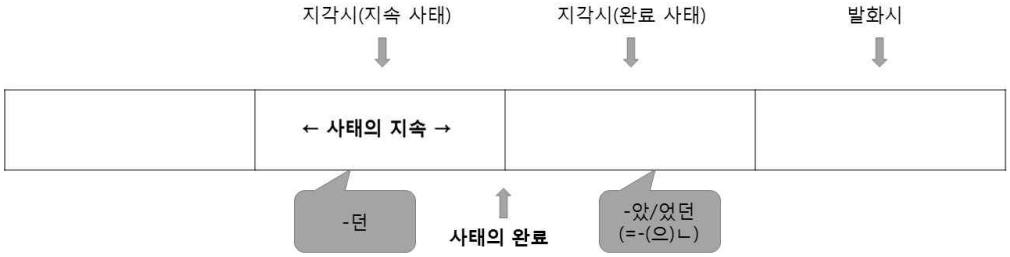
2.3. ‘-던’과 ‘-았던’의 의미 기능

기존 논의에서 제시한 ‘-던’과 ‘-았던’의 의미 기능은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 ‘-던’과 ‘-았던’이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영근·구본관(2018ㄱ)에서 ‘-던’이 기본적으로 ‘과거 회상’ 의미를 드러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던’은 기본적으로 ‘과거 회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속’, ‘반복성’, ‘미완료/중단’,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았던’도 역시 ‘과거 회상’의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외에 ‘지속’, ‘반복성’, ‘완료’, ‘단절’, ‘일회성’등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본다.[7] 이는 다음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2> ‘-던’과 ‘았던’이 나타내는 의미[8]

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에서 다음 그림을 통해서 ‘-던’과 ‘-았던’의 의미 차이를 지각시가 다른 데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가령 ‘살던 곳’이라고 하면 ‘과거의 지속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살았던 곳’이라고 하면 ‘과거 사태의 완료’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7) 그렇기 때문에 ‘-던’과 ‘-았던’의 다른 의미들을 표시할 때 ‘+’를 붙여서 ‘과거 회상’과 해당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던’과 ‘-았던’이 ‘단절’ 의미 나타낼 때도 ‘단절’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회상’과 ‘단절’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8) 이 표에서 제시한 의미 기능에 대해 다시 세분화하여 기술할 것이다.

문법항목	기본 의미	그 외의 의미				
'-던'	과거 회상	+지속	+단절	+미완료/중단	+반복성	-
'-았던	과거 회상	+지속	+단절	+완료	+반복성	+1회성

우선 용언에 따라 정리한다면 형용사나 '이다/아니다'와 결합할 때 '-던'은 '과거 회상', '상태의 지속', '단절' 나타내고, '-았던'은 '과거 회상', '상태의 지속', '단절'을 나타낸다.

(1) 가. 학생이던 옛날을 생각한다. [9]
나. 그 즐겁던 시절이 그립구나. [10]
다. 작년까지도 통통하던 아이가 오늘 보니 날씬해졌네. [11]

예문 (1가)는 단순 과거를, (1나)는 과거 일정 기간 동안에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고, (1다)는 후행절의 내용에 의하여 단절의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즉, '-던'과 '-았던'이 사용된 문장에서 후행절에 지금의 상황이나 상태가 많이 달라짐을 나타내는 내용이 이를 예문 (2)처럼 '-았던'으로 바꿔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 가. 학생이었던 옛날을 생각한다.
나. 그 즐거웠던 시절이 그립구나. [12]
다. 작년까지도 통통했던 아이가 오늘 보니 날씬해졌네. [13]

그 의미 차이에 대해 본고에서 '-던'은 '-았던'보다 '현장성'이 더 강하고,[14] '-았던'은 '-던'보다 화자와의 '거리'가 더 부각된다고 본다. 이 '거리'에는 시간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 모두 포함된다.[15] 이러한 거리로 인하여 '-았던'에 '단절' 의미가 더 부각된다고 본다.

이제 '-던'과 '-았던'이 동사와 결합할 때 드러내는 의미를 살펴보자. '-던'은 '지속', '미완료/중단', '반복성'을 나타내고, '-았던'은 '지속', '완료', '반복성', '1회성'을 나타낸다. 먼저 '-던'이 동사와 결합해서 '지속'을 나타내는 예를 살펴보자.

9) 고영근·구본관(2018ㄴ)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10) 이익섭(2005)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11) 김수정·박덕유(2017)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12) 이익섭(2005)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13) 김수정·박덕유(2017)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14) 이익섭(2005)에서 '-던'에는 '-더'처럼 현장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나 '-더'의 현장감을 살리는 면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고영근·구본관(2018)에서 '-던'은 과거 상황을 더 구체화시킨다고 제시한 바 있다.
15) 김창섭(1987), 고영근·구본관(2018ㄴ) 등에서 '-던'은 '과거', '았던'은 '대과거'를 나타낸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익섭(2005)에서 형용사가 용언으로 쓰이는 문장에서 '-던'과 '-았던'의 의미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았던'이 사태가 조금 더 옛날 사태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는 듯하다고 하였다. 본고에서 이를 화자의 심리적 거리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본다. 심혜령·이선중(2012)에서도 '-던'과 '-았던'의 의미 차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거리를 언급한 바 있다. 심혜령·이선중(2012)에서 이석규(1983)의 예문을 인용하여서 '-았던'이 '심상의 단절'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c. 여기가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집이다. (심혜령·이선중, 2012:260)
d. 여기가 어렸을 때 내가 살았던 집이다. (심혜령·이선중, 2012:260)

(3) 가. 이것이 내가 어릴 때 쓰던/썼던 책상이다.[16]
나. 여기가 내가 다니던/다녔던 초등학교이다.[17]

‘-던’과 ‘았던’은 동사와 결합해서 사용할 때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행위나 동작이 지속했음’을 드러낸다. 이때 ‘-던’과 ‘-았던’의 의미 차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던’은 더 ‘현장성’을 드러내고 ‘-았던’은 화자가 사태와의 ‘거리’를 드러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던’과 결합하는 동사가 제한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4) 가. *이곳이 내가 결혼하던 곳이다.

‘-던’이 [반복], [지속]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4가)와 같이 의미적으로 1회적 성질을 가진 동사가 쓰인 문장이 성립되지 못한다. 그러나 ‘-던’을 ‘-았던’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5) 가. 이곳이 내가 결혼했던 곳이다.

이를 통하여 ‘-았던’에는 ‘-던’에 없는 ‘1회성’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1회성’을 드러낼 때 다음 예문과 같이 ‘작년에’, ‘지난 번에’ 등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6) 가. 이 드레스는 30년 전에 어머니께서 결혼식에서 입으셨던 드레스이다. [18]
나. 작년에 갔던 바다가 생각난다.
다. 지난 번에 만났던 사람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예문(4)에서 1회적 의미를 가진 동사가 ‘-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이런 의미 제약이 해소되기도 한다. 예문(7)에서 1회적 의미를 가진 동사와 ‘-던’이 함께 사용되었다. ‘-던’ 뒤에 오는 명사를 ‘날’, ‘시절’ 등과 같은 시간 명사로 한정시키고 후행절에 그 당시의 사태나 상황에 대해 묘사한다면 ‘-던’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동사와 결합하는 ‘-던’이 ‘과거 회상’ 의미를 나타낸다.

(7) 가. 내가 결혼하던 날 눈이 내렸다.

‘-던’과 ‘-았던’이 습관적이거나 반복적인 과거 경험을 드러낼 때 사용한다는 것은 기존 논의에서도 논의된 부분이다. 그 의미를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가. 만두는 중국에서 자주 먹던/먹었던 음식이다.

마지막으로 ‘-던’과 ‘-았던’ 간에 존재하는 가장 두드러진 의미 차이를 살펴보겠다. ‘-던’은

16) 국립국어원(2006ㄱ)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17) 국립국어원(2006ㄱ)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18) 서만(2012)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미완료/중단’을 나타내는 반면 ‘-았던’은 ‘완료’를 나타낸다.

(9) 가. 아이가 먹던 케이크를 엄마가 먹고 있어요.[19]
나. 하던 일을 마저 끝내고 가려고요. [20]
다. 바람에 쓰러지던 나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21]

(10) 가.어제 먹었던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
나.지난주에 내가 읽었던 책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다.바람에 쓰러졌던 나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22]

예문 (9)과 (10)에서 볼 수 있듯이 ‘-던’은 동작이나 행위가 완료되지 않거나 중단되었음을 나타내고 ‘-았던’은 동작이나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상으로 ‘-던’과 ‘-았던’의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다음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표3> 형용사, ‘이다/아니다’와 결합할 때 ‘-던’과 ‘았던’이 나타내는 의미

[과거 회상]		단순 과거를 회상하여 말할 때 사용한다.	비고
[과거 회상]	[+상태의 지속]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상태가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던’은 ‘-았던’에 비하여 ‘현장성’이 더 강하고, ‘-았던’은 ‘-던’보다 화자가 당시 상태와의 거리를 더 잘 드러낸다.
	[+단절]	후행절에 과거 상태와 많이 달라진 지금 상태를 드러낼 때 과거 상태가 단절되었음을 나타낸다.	

<표4> 동사와 결합할 때 ‘-던’이 나타내는 의미

[과거 회상]		1회적 의미를 가진 동사가 ‘-던’과 결합해서 그 뒤에 ‘일’, ‘날’, ‘때’, ‘것’, ‘시간’, ‘해’, ‘시절’ 등 시간 명사가 올 때 ‘과거 회상’ 의미를 나타낸다.
[과거 회상]	[+지속]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행위나 동작이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반복성]	‘자주’, ‘매일’, ‘항상’, ‘늘’ 등 반복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사용해서 ‘반복’의 의미를 나타낸다.
	[+미완료/중단]	동작이나 행위가 완료되지 않거나 중단되었음을 나타낸다.

<표5> 동사와 결합할 때 ‘-았던’이 나타내는 의미

[과거 회상]	[+지속]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행위나 동작이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1회성]	‘지난 번’, ‘어제’ 등과 함께 사용되어 1회성을 나타낸다.
	[+반복성]	‘자주’, ‘매일’, ‘항상’, ‘늘’ 등 반복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사용해서 ‘반복’의 의미를 나타낸다.
	[+완료]	동작이나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19) 연세한국어 2-2권 제9과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20) 서만(2012)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21) 이익섭(2005)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22) 이익섭(2005)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이상으로 ‘-던’과 ‘-았던’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의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던’에는 ‘-았던’에 없는 ‘미완료/중단’ 의미를 지니고 있고, ‘-았던’에는 ‘-던’에 없는 ‘1회성’ 의미를 지닌다. 그 외 상황에서 ‘-던’과 ‘-았던’의 상호 대치 사용이 가능하나 그 의미에 있어 차이점을 보인다. 즉 ‘-던’은 더 ‘현장성’을 드러내고 ‘-았던’은 화자와 사태의 거리를 드러낸다.

한국어 학습자로서 모국어 화자처럼 한국어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러한 중복된 부분은 학습자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던’과 ‘-았던’이 동일한 사태에 사용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피고 이를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던’과 ‘-았던’에 대한 한·중 대조분석

대조분석은 제2언어습득 연구의 접근법 중 하나로서 학습자의 목표언어와 모국어를 대조한 다음 두 언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학습자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두 언어의 대조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도 해당 문법항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셈이다.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던’과 ‘-았던’처럼 과거 회상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존재하지 않다. 관형어 기능을 하는 품사로는 동사와 형용사와 명사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품사 혹은 구 뒤에 ‘的’자를 첨가하면 관형어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的’는 오로지 위 세 가지 품사 혹은 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게 이들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담당할 뿐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的’외에도 시간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던’과 ‘-았던’과 의미적으로 대조를 이룰 수 있는 중국어를 살펴보자. 이혜(2015)에서도 중국어 ‘了’가 ‘완성’, ‘着’가 ‘지속’을, ‘過’가 ‘경험’을 나타낸다고 제시한 바 있다. ‘了’는 과거나 완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사 뒤에 사용한다. 하지만 관형사형 어미처럼 명사를 수식하려면 상술한 ‘的’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즉, ‘동사+了+的’ 구조를 이루어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것이다. ‘在’는 동사 앞에 쓰이는 것으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명사를 수식하려면 ‘在+동사+的’ 구조로 사용되어야 한다. ‘着’는 동사 뒤에 사용하여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명사를 수식하려면 ‘동사+着+的’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過’는 동사 뒤에 쓰여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한 적이 있음을, 즉 과거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過’를 사용할 때는 과거에 어떤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1회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명사를 수식하려면 ‘동사+過+的’ 구조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어에는 ‘태(態)’를 나타내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명사를 통해서 과거임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시간 명사 ... + 동사/형용사 + 的’로 ‘-던’과 ‘-았던’의 ‘과거 회상’ 의미를 나타낸다.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서 공개한 ‘-던’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曾经, 原先)……的’과 ‘(曾经)……过+的’이다.[23] ‘曾经’은 ‘이전에’라는 의미를 나타내 과거임을 드러낸다. ‘原先’는 ‘종전, 본래’의 의미를 나타냄으로 지금과 단절된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23)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사이트 주소는 이와 같다. https://kcenter.korean.go.kr/

(11) 가.그렇게 얌전하던 아이가 코미디언이 되다니 깜짝 놀랐어요.
나.那么安静的女孩儿当了喜剧演员，真是吓了一跳。[24]

예문 (11)에서 '-던'이 상태의 단절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는 이러한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다. 본고에서 이에 '曾经' 혹은 '当年'과 같은 시간 명사를 첨가하여서 '얌전하다'와 현재 상태의 단절을 나타낼 것을 제안한다.[25] 이렇게 하여서 학습자가 목표 문법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2) 가.꼬마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처녀가 되어 나타났다.
나.当年还是小孩子的她，现在已经变成大姑娘了。[26]

예문 (12)는 '当年还是...的' 구조로 '-였던'의 단절 의미를 나타냈다. 형용사, '이다/아니다'가 용언으로 쓰인 문장에서 '-던', '-았던'이 단절의 의미를 나타낼 때 중국어 '曾经/当年...형용사/이다/아니다+的'와 대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 가.제가 자주 가던 호텔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예약해 드릴까요?
나.有我常去的宾馆，我来在网上给你预定吗？[27]

예문(13)에서 반복성을 나타내는 '-던'에 대응되는 것으로 '常+동사+的'가 제시되었다. '常'은 '자주'에 대응되는 것으로 '자주, 늘' 의미를 지닌다. 반복성을 드러내는 '-던'과 '-았던'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으로 '常/经常+동사+的'을 제시한다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14) 가.읽던 책을 덮고 화장실에 갔어요.
나.合上正在读着的书，去了卫生间。[28]

(15) 가.읽던 책을 덮고 화장실에 갔어요.
나.因为太好笑了，哭着的孩子都笑了。[29]

(16) 가.그것을 보고 있던 여자가 나에게 가까이 왔어요.
나.（一直）看着那个东西的女人来到我身边。[30]

24) 예문과 번역문은 모두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25) '当年'은 '그당시'라는 의미를 지님으로서 지금과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26) 예문과 번역문은 모두 <연세한국어>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밑줄은 연구자가 추가한 것이다.
27) 예문과 번역문은 모두 <연세한국어>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밑줄은 연구자가 추가한 것이다.
28) 예문과 번역문은 모두 <연세한국어>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밑줄은 연구자가 추가한 것이다.
29) 예문과 번역문은 모두 <연세한국어>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밑줄은 연구자가 추가한 것이다.

예문(14~16)에서 '-던'은 모두 행위나 동작의 중단을 나타낸다. 그러나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에서 모두 '지속'을 나타내는 '着'가 사용되었다. 이는 중국어 문장에서 행위나 동작이 중단되기 전 지속되었다는 의미가 더 부각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행위나 동작의 단절은 한국어 문장과 마찬가지로 후행절 내용을 통해 드러낸다.

(18) 가.한 번 만났던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见过一次面的人绝对不会忘记。[31]

예문(18)과 같이 '1회성'을 나타낼 때는 '-았던'과 '동사+過+的'이 대응된다. 이때 한국어에서도 '한 번'을 사용하는 것처럼 중국어에서도 '上次， 上周' 등을 사용하여 '1회성' 의미가 더 부각되도록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던'과 '-았던'과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구조를 살펴보았다. 다음 표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제공한다면 '-던'과 '-았던'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표6> ‘-던’과 ‘-았던’이 중국어와의 대조

문법항목	기본 의미	그 외의 의미				
‘-던’	과거 회상	+지속	+단절	+미완료/중단	+반복성	-
중국어 대응 표현	当年/曾经/동사/형용사/이다/아니다+的	동사+着+的 형용사/이다/아니다+的	当年/曾经+동사/형용사/이다/아니다+的	동사+着+的[32]	常/经常+동사+的	
‘-았던	과거 회상	+지속	+단절	+완료	+반복성	+1회성
중국어 대응 표현	当年/曾经/동사/형용사/이다/아니다+的	동사+着+的	当年/曾经+동사/형용사/이다/아니다+的	동사+了+的+명사	常/经常+동사+的	上次/上周+동사+過+的

30) 예문과 번역문은 모두 <연세한국어>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밑줄은 연구자가 추가한 것이다.
31) 예문과 번역문은 모두 <연세한국어>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밑줄은 연구자가 추가한 것이다.
32)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해당 구조를 통해 '-던'의 '미완료/중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해당 구조와 함께 다른 동사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이 구조에 들어가 있는 동사의 행위나 동작을 멈추고 다른 행위나 동작을 하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드러내는 전제 하에 '동사+着+的'가 '미완료/중단'을 나타내는 '-던'과 대응된다.

4. 결론을 대신하며

본고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던'과 '-았던'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고 이들과 결합하는 용언별로 의미 기능을 재정리하였다. 그리고 그와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구조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향후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학습 내용으로 도입된다면 중국어권 학습자가 '-던'과 '-았던'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승혜(2009),「한국어 문법서와 교재에 나타난 '-더-'관련 문법항목 의미 기술의 검토와 '-더-'관련 문법항목의 제시순서」,『어문연구』37-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고영근·구본관(2018ㄱ),『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고영근·구본관(2018ㄴ),『쓰기·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모든 한국어의 문형』, 집문당.

구본관 외(2014),『한국어 문법 총론 1』, 집문당.

국립국어원(2005),『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 용법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수정·박덕유(2017),「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과거시제 관형사형 어미 교육 연구」,『교육문화연구』제23-1호, 551-583쪽.

김창섭(1987),「國語 冠形節의 過去時制 : - '-(았)던'을 중심으로」,『어학』14,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남주연(2012),「'-던'과'-었던'의 의미 차이」,『한국어의미학』38, 27-56쪽.

문숙영(2005),『한국어의 시제 범주』, 태학사.

서만(2012),「한국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한국어교육학 사전』, 도서출판 하우.

성지연(2002),「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사용 연구: 일본인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창선(2006),「현대국어 선어말어미 '-더-'의 기능 연구」,『언어과학연구』29, 2006.

신현숙(1982),「관형형 어미의 의미 분석」,『상명대학교논문집』, 상명여자사범대학.

심혜령·이선중(2012),「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던'과 '-았던'의 의미·기능 연구」,『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3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이석규(1983),「현대국어의시제연구- '- 던', '-았던'을 중심으로」,『국어교육』46, 273-290쪽.

이은기(2005),「오류분석을 통한 한국어 관형절 시제 교수 방안 연구 :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익섭(2005),『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혜(2015),「한국어 '-었-', '-던'과 중국어 '了', '過'의 대조 분석 연구 :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서원(2010),「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대치 오류 분석-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35, 157-185쪽.

한송화(2015),「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과 관형사형 어미 사용 양상 연구 -관계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을 중심으로-」,『문법 교육』, 한국문법교육학회, 211-243쪽.
HE MEIPING, 홍종선(2016),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관형절 내포문 사용 양상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3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115-148쪽.

<한국어 문법서>
강현화 외(2016),『한국어교육 문법(자료편)』, 한글파크.
국립국어원(2005ㄱ),『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체계 편>, 커뮤니케이션북스.
국립국어원(2005ㄴ),『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자료 편>, 커뮤니케이션북스.
이희자, 이중희(2006),『(한국어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백봉자(2006),『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 하우출판사.

<그 외 자료>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연세한국어 2-2』,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사이트 https://kcenter.korean.go.kr/

【토론문】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 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민호(대구한의대)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던’과 ‘-았던’ 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에 대한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어의 관형형 어미인 ‘-던’과 ‘-았던’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살피고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와 대조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르게 한국어에 대한 직관의 부족으로 혼란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중국어의 대응 표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논문을 읽으며 들었던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이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중국어권 학습자가 ‘-던’과 ‘-았던’ 의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높은 오류율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중국어 대응 표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실 수업이 중국어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한국어 모어 화자인 교사들이 이것을 중국어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관형사형 어미인‘-던’과 ‘-았던’은 발표자께서도 밝힌 바와 같이 중급 이상의 한국어 교육에서 교수-학습하는 문법 항목입니다.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교사가 한국어로 이러한 문법 항목을 한국어로 교수-학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작업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적절히 반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던’과 ‘-았던’ 에 대한 오류의 원인이 중국어에서 한국어의 ‘-던’과 ‘-았던’처럼 과거 회상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존재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대조언어학에서 말하는 난의도 위계[1)]에서 3단계‘재해석’ 또는 4단계‘과잉 구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오류가 나타나는 원인은 보다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문법항목에 비해 ‘-던’과 ‘-았던’ 이 높은 오류율을 보인다면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또한 교실 현장에서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1) Cliffdrd Prator(196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H, Douglas Brown, 2007,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에서 재인용.
0단계 전이-두 언어 사이에 서로 다르거나 대조점이 나타나지 않는 단계
1단계 합체-모국어의 두 항목이 목표어에서 본질적으로 한 항목으로 합쳐지는 것
2단계 구별 부족-모국어에 있는 항목이 목표어에 없는 경우
3단계 재해석-모국어에 어떤 항목이 목표어에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거나 분포가 다른 경우
4단계 과잉 구별-모국어에 없거나 만일 있다 해도 전혀 비슷하지 않은 항목을 목표어에서 배워야 하는 경우
5단계 분리- 모국어의 한 항목이 목표어에서 둘 이상의 항목으로 분리 되는 경우

사용하나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원인에 대한 규명이 보다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학습자의 여러 변인, 교수법, 교재의 문제 등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표 6>에서 제시하신 중국어와의 대조에서 ‘-던’과 ‘-았던’ 의 중국어 대조 기본의미가 과거 회상시에는 ‘当年/曾经/동사/형용사/이다/아니다+的’과 같이 동일한 표현으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차이를 보이는 점은 ‘+지속’, ‘+미완료/중단’, ‘+반복성’이 세 항목인데, 그렇다면 이를 교수-학습할 때 명확하게 두 항목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실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두 문법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싶어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제시하신 표를 가지고 교수자가 교수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자의 옥고를 읽으며 생긴 몇 가지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토론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언어행동(몸짓·손짓언어)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민지영(대구한의대)

〈 차 례 〉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2. 초급일본어 교재의 비언어행동 표현 현황
3. 조사결과 및 분류
4. 결론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인간 대 인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단위는 메시지(말)이다. 이 메시지의 구성은 언어적 성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성분까지 포함한다.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학이나, 언어학의 화용론 분야에서 언어적 메시지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비언어적 메시지(말)에 관한 연구는 그리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언어행동에 있어서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것에 수반, 대용되는 비언어적인 언어행동도 실제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60~70%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언어에 대한 인지학적 접근[2]이 요구됨에 따라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에 관한 통합적 연구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3].

인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매체에는 몸짓, 신체적 접촉, 목소리의 운율, 외관, 환경 등이 있다. 몸짓(body language, 신체언어)은, 얼굴표정, 제스처, 몸의 자세, 눈의 움직임 등 신체 움직임에 의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신체동작은 화자의 태도, 지위, 정서적

1)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언어와 비언어가 유기적으로 기능하는데, 지금까지 비언어는 언어에 가려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전달행동에서 비언어는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Birdwhisell(1970)은 전달행동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30~35%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70%는 비언어가 전달한다고 계산하고 있으며, Mehrabian(1968)은 대면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비언어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55%로 가장 많고 다음이 목소리의 억양이나, 톤이 38%이며, 불과 7%만이 언어에 의해서 전달된다고 설명되어 있다.(홍민표, 1997. 재인용함)

2) 현대 언어학은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언어의 자율성에 초점을 둔 객관주의(objectivism) 접근법으로. 이것은 언어를 자율적인 기호체계로 보고 낱말의 객관적 의미자질 및 그 형식적 결합 원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그 결과 의미나 문법의 조직에 인간의 정신, 신체적 체험, 문화적 배경 등이 고려되지 않아,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언어의 구조와 의미의 동기화에 초점을 둔 인지주의(cognitivism)의 접근법은 언어의 구조나 의미가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 그리고 문화적 맥락이라는 인지적 여과장치를 통해 동기화되어, 특히, 인지주의의 주된 원리 가운데 하나인 체험주의에서는 사람의 신체적 특징과 언어의 의미구조에 관한 상관성을 탐구하고 있다. 즉, 인지언어학에서는, 외계를 우리들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지, 다시 말하면, 지각· 감각· 신체적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이미지화 되며 범주화되어 간다고 파악하고 있다. 인간의 언어구조를 단순히 자율적인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간의 일반적인 인지 메카니즘이 반영된 것으로 탐구하는 인지언어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신체화가설이 있다. 즉, 인간의 정신은 신체라는 물리적 매체를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신체를 가진 존재이고, 바로 이 신체와 결부된 경험패턴이 우리 인지와 언어의 토대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山梨, 2000 참조)

3) 언어활동에 있어서 신체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체언어를 말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신체언어가 말만큼이나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임을 인정하면서도 많은 언어학자들은 주로 어휘를 통해 말로 행해지는 의사소통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김영순, 2000 참조)

상태, 무의식적 자기표출 및 은폐, 상대방에 대한 호감 등을 암시한다[4]. 다양한 신체 언어[5]를 적절히 기술하기 위해서, 이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신체 언어에 관한 주요 분류법은 표현수단에 따른 분류, 신체부위에 따른 분류, 표현의도에 따른 분류, 기원적 분류, 의사소통유형에 기초한 분류 등이 있다. 신체부위에 따른 분류는 해당부위가 부분, 전신, 혹은 부분들의 결합한 것이냐에 따라 분류되는데, 신체언어 중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손짓언어이다[6]. 또한, 표현 의도에 따른 분류는 신체언어가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냐에 따라서 분류된다[7]. 기원적 분류는 언어 문화권역[8]에 관련을 두고 있으며, 고유 신체언어인가, 외래 신체언어인가, 혹은 차용 및 변용 신체 언어인가에 따라 분류된다[9].

小池(2003)에서는 일본어 원어민과 일본어를 제2의 언어로 습득하는 외국어 화자와의 대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를 일본어 원어민들은 문법, 발음, 담화구성 등 개별적으로 분류된 항목이 아닌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① 일본어 외국어 화자의 발화 및 대화(turn taking)에 관한 예측, 추측하기 어려운 행동에 관련된 요소, ② 이해와 관심의 정도를 추측하기 어려운 요소 , ③ 대화를 지속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로서, 표정, 제스처, 시선 등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비언어적 행동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김영주 (2011)은 한국의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한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의 인사 행동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도입시에는 한·일 양국 모두 인사말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정형화 된 인사말은 볼 수 없지만, 인사의 선택에 관해서는, 일본인의 경우는 사과 표현 및 환기 단어를 사용하여 인사를 생략하는 현상을 볼 수 있지만, 한국인의 경우 용건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사 행동의 차이를 통하여 접객에서 오해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언어행동은 한·일간의 의사소통 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감각적,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익숙해지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언어간의 비언어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다[10]. 더불어, 한·일 양언어의 비언어행동에 관하여 검토하고 어떠한 유사점과 상이

4) 「目は口ほどに物を言い/눈은 입만큼 말을 한다」즉, 입으로 말하는 것만큼 눈짓으로 그것을 표현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메시지의 그 내용과 동시에 화자로부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

5) 인간은 음성적 언어가 형성되기 이전 오랫동안 본능적으로 신체언어로 의사소통을 했다. 그러다가 인간이 언어를 만들어 사용하면서부터 이전에 신체언어로 표현했던 많은 정보들이 언어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과 심리적 현상이 워낙 복잡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언어라는 한정된 그릇에 온전히 담을 수 없었다. 인간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이면서 본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의사소통의 부족함을 메우게 된 것이다.(임규홍, 2003 참조)

6) 손짓이란, 손을 놀려 어떤 사물을 가리키거나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전하는 일이며, 손짓은 손동작을 사용하여 어떤 사물을 가리키거나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전하는 정보 메시지가 포함된 행위를 의미한다. (이노미, 2008 참조)

7) 비의도적이란, 인간의 보편의 특징과 연관된 몸짓언어로, 울고, 웃고, 화내는 표정을 의미하며, 의도적이란, 특정 의사소통 전달의 의도에 따라 사용되는 것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습화되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권마다 다른 몸짓언어가 사용되기도 한다.(이노미, 2008 참조)

8) 신체적 표현의 제한성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유사한 면도 있지만, 민족마다 신체언어는 분명히 다르며, 심지어 같은 민족이라도 지역에 따라 신체언어가 다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엄지와 검지의 끝을 대고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면 일반적으로 ‘좋다, 잘 되었다’ 같은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프랑스 남부에서는 ‘없다, 무가치’를 뜻하며,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지방에서는 항문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엄지와 검지의 끝을 대고 동그란 모양을 하면 돈을 의미하는데, ‘잘 되었다, 좋다’라는 외래의미가 들어와 쓰이면서 하나의 동작이 두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석주, 1999 참조)

9) 신체적 의사소통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 신체는 상호 감성적 지각과 이성적 지각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도의 인지적 능력으로 무장된 사회화된 조직체이다. 인간 신체간의 대결구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이루어진 문화복합체를 전제로 한다.

10) 언어 메시지는 명시적인 의도나 의미를 가지는데 반하여, 비언어 메시지는 암묵적이며, 불확실한 의미를 전달하는

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 등에서 비언어행동 표현은 어느 정도 강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초급에서 중·고급 교재에 있어서도 비언어행동 표현은 도입하여 학습시켜야 하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11].

2. 초급일본어 교재의 비언어행동 표현 현황

먼저, 제 2언어로서 일본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위한 초급교재에서 비언어행동 표현은 어느 정도 강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북 및 대구 소재의 대학에서 사용되는 초급일본어 교재를 검토하였다. 이하,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별	교재명	비언어행동표현현황
경북대학교	개정판 첫걸음일본어 고정도외 (제이앤씨, 2015)	비언어행동 표현 全無
경주동국대학교	다락원 다이나믹 일본어 Step1 오현정외 다락원, 2006)	비언어행동 표현 全無
계명대학교	다노시이일본어(1) 나성영외 (계명대학교, 2008)	비언어행동 표현 全無
대구대학교	일본어 첫만남 남영복외 (책사랑, 2017)	비언어행동 표현 全無
대구한의대학교	step1 착착일본어 유장옥외 (일본어뱅크, 2016)	비언어행동 표현 全無
영남대학교	오픈일본어 정의상외 (일본어뱅크, 2011)	비언어행동 표현 全無

《표 1. 초급일본어 교재 현황》

상기의 교재는 경북 및 대구 소재의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급일본어 교재들이다. 집필의도를 살며보면, 일본인과의 의사소통 배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어 표현을 익히기 위한 기본 교재라는 설명이 있다. 일본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비언어행동에 관한 내용도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나,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초급교재를 살펴보아도 상황은 비슷하다.

시중 출판도서	비언어행동표현 현황

경우가 있다. 또한, 컨트롤이 어려우며,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이 나타나기 쉬운 반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문화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오해나 마찰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비언어적 행동은 상이한 언어체계를 가진 문화간의 언어를 보강해주고, 감정 표현의 상호관계를 조절해 주며 상호교류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임규홍, 2003 참조)

11) 최근 많은 일본인이 여행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고 있다. 일본 정부 기관인 관광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한국에 일본인 방문자수는 약 200만 9000명이며, 최근, 정치, 경제 문제로 인해 감소추세에 있으나, 세계 제 2위의 일본인 방문국이다. 또한 한국 체류 일본 인원도 2018년 10 월 현재 36719 여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및 유학, 어학연수, 워킹 홀리데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일본인도 늘고 있다. 한편,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수는 2018년 현재 90만 187명으로 세계 제 3 위로 국내에서는 비즈니스와 고객 관계, 또한 영리 목적 이외의 다양한 장면에서 폭넓게 일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나타노 일본어 1 박경연외 (일본어뱅크, 2018)	비언어행동 표현 全無
NEW스타트 일본어1 최성옥외 (일본어뱅크, 2012)	비언어행동 표현 全無
민나노 일본어 초급 (시사일본어, 2015)	비언어행동 표현 全無
개정판 일본어입문 윤호숙 (제이앤씨, 2018)	비언어행동 표현 全無

《표 2. 시중의 초급일본어 교재 현황》

3. 조사결과 및 분류

한·일 양 언어간의 비언어행동에 관련된 표현을 수집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용례조사는 한국어는, 21세기 세종계획의 말뭉치 사전과, 일본어의 경우는 일본어 교사를 위한『日本語ュ一パス言語学』에 수록된 용례를 참고하였으며, 일본어 표현에 대한 검증은 일본인 모국어 화자에게 확인 요청을 했다. 정리한 결과, 1)신체부분을 이용한 비언어행동, 2)감정표현을 나타내는 비언어행동, 3)요구 및 청유 동작을 나타내는 비언어행동, 4)평가 및 정보제공 동작을 나타내는 비언어행동, 5)지시동작을 나타내는 비언어행동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집된 예문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하기의《표3》,《표4》,《표5》,《표6》,《표7》,《표8》과 같다.

1)신체부분을 이용한 비언어행동

앞에서 언급한바, 인간의 의사소통은 신체부분을 나타내는 표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한, 한· 일 양언어 모두 신체부분을 이용한 감정표출의 표현이 많았다.

	부위	표현	감정	비고
일본어	目/눈	目をほそめる 目尻を下げる	기쁨, 불편함 (만족)	
	口/입	口をとがらせる	화	
	歯/이	歯をくいしばる	긴장 의기투합	
	あご/턱	あごをだす	지친모습	
	鼻/코	小鼻をふくらませる 鼻をうごめかす	우쭐 거만	
	顔/얼굴	ふくれっつら 真っ赤になる 青い顔／真っ青な顔 青い顔	화 긴장	
	唇/입술	唇をかむ	분함	

《표 3. 일본어의 신체부분을 이용한 비언어행동》

	부위	표현	감정	비고
한국어	얼굴/주먹 얼굴/손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다 주먹을 불끈 쥔다 얼굴이 붉어지다 두손을 펼쳐 얼굴을 가린다 얼굴이 파리해지다 한손으로 턱을 괸다	화 부끄러움 걱정	
	코	코를 벌렁거리다 코를 씰룩거리다	거만 우쭐	
	목/손	목이 메다 한손을 얼굴 주변에 댄다	슬픔	

	손/손톱	손에 땀을 쥐다 손톱을 만지작거리다	긴장	
	눈/손가락	눈꼴이 사납다 검지를 펼쳐 손가락질을 한다	미움	
	이(치아)	이를 악물다	긴장 의기투합	
	혀	혀를 내민다	지친모습	
	등/몸	등골이 오싹하다 몸 전체를 움츠린다	두려움	

《표 4. 한국어 신체부분을 이용한 비언어행동》

수집된 표현들을 살펴보면, 인간은 의사소통시 많은 신체의 각 부위의 동작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용하고 이러한 인간의 행위, 행동에는 감정이 담겨져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신체 부위를 통한 감정표현은 사용되는 부분 및 감정표현에 있어서 한·일 양언어에서 유사점을 엿볼 수 있고, 특히, 얼굴, 이(치아)를 이용한 감정표현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 반면, 사용되는 부분은 약간 차이를 볼 수 있으나, 인간의 감정의 중심인 희로애락이, 신체부분, 특히, 얼굴을 중심으로 하는 상부의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감정표현을 나타내는 비언어행동

감정표현 행위는 인간의 심신상태, 인지, 사회적 접촉, 감정표출 등과 관련된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의미 구분	표현	동작	한국어	일본어
사랑	사랑해	양손 머리위에 접어 올린다	○	×
화남	화났어	양쪽 검지를 머리위에 세운다	○	○
역겨움	역겨워, 느끼해, 메스꺼워	손을 오므려 입에 갖다댄다	○	○
답답함	아이고, 답답해라	가슴을 친다	○	○
창피	창피해, 부끄러워	뺨위에 손을 대거나 두드린다	○	○
눈물	눈물나, 울었어	검지를 눈 아래로 쓸어 내린다	○	○
울음	엉엉 울었어	두 주먹을 눈 위에 대고 돌린다	○	○
허기	배고파	손바닥으로 배를 문지른다	○	○
포만감	배불러, 잘먹었어	배를 내밀고 두 손으로 두들긴다	○	○
조롱	약 오르지? 메롱	검지로 뺨에 나사 박듯 돌린다	○	○
경고	할켜 버릴거야	양손가락을 할키듯 구부린다	○	○
협박	한번 해 볼 테야	주먹쥔 손을 여러번 감싸 안는다	○	○
위협	죽고 싶어	주먹을 세운다	○	×
욕설	제기랄, 엿 먹어라	주먹쥔 팔목을 굽혀 쓸어 내린다	○	×
외설	역먹어라, 퍼킹	중지를 위로 치켜 세운다	○	○

《표 5. 감정표현을 나타내는 비언어행동》

12) 제스처는 일정한 의미를 갖고, 문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얼굴의 표정은 행복, 놀람, 공포, 분노, 비참, 혐오, 모멸, 흥미, 당혹, 결의 등을 표현한다. 이들 10종의 기본적 표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이지만, 이들의 표현은 민족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얼굴 생김새, 피부 및 머리 색깔, 언어구조까지 아주 유사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오해나 마찰에 관해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면이 있다.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신체의 일부분, 즉 얼굴에서 주로 볼 수 있었으나, 인간의 심신상태, 인지, 사회적 접촉을 나타내는 표현은 신체부분 중에서 손동작, 혹은 손동작과 다른 부위와의 결합에 의한 복합적인 표현이 많았으며, 인간의 가장 생리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랑, 위협, 욕설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한·일양언어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호의적인 표현보다는 악의적인 표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학습자의 습득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요구 및 청유 동작을 나타내는 비언어행동

요구 및 청유 동작은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요구에 따라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표현들이 손동작을 이용한 표현들이 많다.

의미	표현	동작	한국어	일본어
용서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양손을 모아 위아래로 부빈다	○	×
사과	미안합니다.	머리를 긁적인다	○	×
부탁	부탁드립니다, 한번 봐주세요	양손 움켜잡고 흔들다	○	○
웃음	웃어, 스마일, 웃어봐	손으로 입술 위를 올린다	○	○
약속	약속해줘, 꼭 지켜, 약속한거야	새끼 손가락을 구불니다	○	○
전화	전화해, 전화 왔어, 전화 받아	엄지와 소지를 입과 귀에 댄다	○	○
식사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손 숟가락질을 한다	○	×
음주	한잔하자, 한잔 어때?	손 컵 만들어 들이키듯 한다	○	○
흡연	담배 있어, 담배 피자	가위손 만들어 입가에 댄다	○	○
라이터	라이터 있어.	엄지 까닥인다	○	○
생각	생각해 봐, 머리를 써	손으로 관자놀이를 친다	○	○
중지	그만 멈춰, 동작 중지, 그만 해	손바닥을 펼쳐 내 보인다	○	○
조용	쉿, 조용히, 입 다물어	검지를 입술에 수직으로 댄다	○	○
노래방	노래방 어때	손마이크를 한다	○	○
기립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서	손바닥을 위로 펼쳐 올린다	○	○
착석	앉아, 자리에 앉아	손바닥을 아래로 펼쳐 내린다	○	○

《표 6. 요구 및 청유동작을 나타내는 비언어행동》

상기의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언어요소를 통한 의사소통도 가능하나, 비언어행동 요소로서도 충분히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이며, 특히, 조용하라는 표현은 언어적 요소로서의 표현보다 비언어행동의 경우가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용서의 경우, 일본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최대한 숙이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과의 경우도, 한국은 가벼운 사과는 머리를 긁적이는 동작을 취하지만, 일본은 얼굴에 가깝게 두손을 모으는 동작으로 사과를 표시한다. 식사의 경우, 한국은 주로, 오른손은 숟가락을 드는

자세, 왼손은 놓인 밥그릇을 잡는 자세 오른손과 왼손의 거리가 멀다. 일본은 오른손은 젓가락을 표현하고 있으며, 왼손은 밥그릇을 드는 자세로, 양손의 거리는 매우 좁다. 식사도구인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에 있어 차이점이 비언어행동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평가 및 정보제공 동작을 나타내는 비언어행동

평가 및 정보제공은 상호행위적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에 발생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 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표명을 하는 표현으로, 수락적인 표현과 거부적인 표현 등이 있다.

의미	동작	한국어	일본어	비고
부정	검지교차하기	○	○	
금지	검지 교차, 손목교차	○	○	
거절/NO	손바닥 흔들기	○	×	
찬성	손 동그라미	○	○	
OK	엄지 치켜세우기	○	○	
체포	손목교차하기	○	○	
돈	손 동그라미	○	○	
애인	소지 세우기	○	○	
사장	엄지 세우기	○	○	
수다	손 여닫기	○	○	
섹시	손 모래시계	○	○	
임신	배 부풀리기	○	○	
현명	관자놀이 치기	○	○	
우둔	머리; 쥐어 박기	○	○	
강인함	알통 내밀기	○	○	
악인	눈꼬리 올리기	○	○	
미침	검지 돌리기	○	○	
돼지코	코 들어 올리기	○	×	
조금	손 틈 벌리기	○	○	
키	손 수평펴기	○	○	

《표 7. 평가 및 정보제공을 나타내는 비언어행동》

거절의 경우, 한국은 손바닥이 바깥을 보이면서 얼굴 아래부분에서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취하나, 일본은 손날이 보이도록 하여 얼굴부분까지 올려서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취한다. 금지의 경우도, 한국은 검지를 교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손의 손목을 교차시키는 동작을 취하고, 일본의 경우는 양손의 손목을 교차하는 동작이 일반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 얼굴의 생김새를 나타내는 표현중에서 돼지코를 표현하는 경우는 일본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그이외의 표현들은 한·일양언어 모두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찬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는 좋다는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한·일양언어에서 유사한 의미로 취급되고 있는 점은 학습자 입장에서는 유익한 정보로 생각된다.

5)지시동작을 나타내는 비언어행동

일상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표현으로 손동작을 통한 표현들이 많으며, 특히, 나를 가리키는 경우에 한·일 양언어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의미	동작	한국어	일본어	비고
호출	손 까닥이기	○	○	

호출	검지 까닥이기	○	○	
환기	손들어 올리기	○	○	
나(자신)	손 가슴대기	○	×	
나(자신)	코를 검지로 가리키기	×	○	
당신	검지 가리키기	○	○	
내쫓기	검지 가리키기	○	○	
추방	손치켜올리기	○	○	
뒤	엄지 넘기기	○	○	
방향	검지 가리키기	○	○	

《표 8. 지시동작을 나타내는 비언어행동》

지시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외하고 한·일양언어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신(나)를 지시할 때, 일본의 경우는 검지로 자신의 코를 가리킨다. 하지만, 홍민표(2007)에 의하면 이 동작은 여성이 동년배와 이야기 할 때 사용하는 제스처로, 본인을 말하는 것이지를 확인할 때, 자기라는 것을 강조할 때, 자신의 존재를 상대에게 각인시킬 때, 자신에게 시선을 향하게 할 때 사용하며, 성별, 대상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정대상물이나, 방향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지시동작은 명령어와 관련되어 다른 비언어행동 요소보다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손가락중에서 검지를 사용하여 지시하는 경우는 다급할 때, 혹은 분노한 경우 등으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습득시키는 경우는, 일반적인 언어상황에서는 상하관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한·일 양언어에 있어서 비언어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조사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신체부분을 이용한 표현이 많았으며, 특히, 얼굴을 중심으로 한 상부 부분을 통해서 많은 감정표현이 행해지며, 인간의 심신상태, 인지, 사회적 접촉, 감정표출 등도 비언어행동의 요소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보제공 동작, 요구 및 청유동작, 지시동작 등은 손을 이용한 비언어행동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언어행동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요소와 더불어 학습을 수반해야 하며, 초급교재 뿐만 아니라 중·고급 교재에서 다양한 비언어행동 요소를 포함시켜 편성해야 할 것이다.

문화 간 비언어 의사소통 교육의 주요목표는 상이한 문화구성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비언어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태도 변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때문에 문화 간 비언어행동 교육에서의 인지적 접근을 위한 시각매체의 활용은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촉구하여 비언어 정보취득에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비언어행동 교육에 있어서 시각매체 등 양언어의 영상자료를 실제 수업 등에서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가 학습효과에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강구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장면, 예를 들면, 인사장면 등에서 한·일 양언어의 비언어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실제 수업 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영숙(2000)「한국인 손동작의 의미와 활용」,『한국어 의미학』6, 한국어 의미학회 pp.119-138
이노미(2005)「글로벌리즘에 있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비교」,『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표논문, pp.2-16
(2008)「문화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한국과 아시아 지역 손짓언어의 비교연구」,『커뮤니케이션학 연구』,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회, pp.5-44
임지룡외(2000)「신체 언어와 언어 표현의 의사 소통적 상관성」,『언어과학』17, 언어과학회.
임팔용(2004)『韓·日身体語彙의 慣用句의 대조연구』, 日本研究叢書２, 韓国外国語大学校日本研究所
최석재외(2011)「구조에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의미」,『한국어 의미학』35輯 pp.311-336
홍민표(1998)「한국인과 일본인의 비언어행동의 대조 연구」,『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41, 263-278
(2007)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인의 신체언어에 관한 대조사회학적 연구」,『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61, 359-381
石田博史(1989)「身体語彙に関する慣用表現」,『言語』18, 大修館, p.31
加藤正信(1984)『暮らしのことば辞典』, 講談社, pp.3-44
河原修一(1998)「感情を表す日本;語の言葉」,『国語国文第23 号』, 金沢大学国語国文学会
河原修一(1999)「日本t語における感情と思考」,『国語国文』弟24号, 金沢大学国語国文学会, p.5-15
小池真理(2000)「日本{語母語話者が失礼と感じるのは学習者のどんな発話か:『依頼』の場面における母語話者の発話と比較して」『北海道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4, 北海道大学, pp58-80
島崎敏樹(1952)『感情の世界』, 岩波書店, pp.31-40
立川昭二(2000)『からだことば』, 早川書房, pp.3-20
東山安子「日本のジェスチャー世界のジェスチャー」,
http://www.sanseido.net/Main/Words/Paito/Article
森田良行(1990)『日本語学과 日本語教育』, 凡人社, pp.79-90
芳賀矢一(1911)「身体に関する色々の言廻し」,『学生』, 1 月号, 富山房 p.38
山梨正明(2000)『認知言語学原理』, くろしお出版

■ 사전류

新村出(1971)『広辞苑』, 第二版第三刷出版, 岩波書店
中村明(1993)『感情表現辞典』, 東京堂出版
『分類語彙表』(1964) 国立国語研究所, 秀英出版

【토론문】

“비언어행동(몸짓·손짓언어)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에 대한 토론문

엄진숙(영남대)

본고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일 양언어의 비언어행동에 관해 검토하고 어떠한 유사점과 상이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에서 비언어행동 표현은 어느 정도 강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시도한 연구입니다. 본고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신체어 관용 표현에 대한 내용과 비언어행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고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급 일본어 교재 및 시중 판매되고 있는 초급 일본어 교재에 나타난 비언어행동 표현을 분석하여 10종 모두 ‘전무’하다고 표1, 표2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3과 표4에서는 신체 부위 어휘가 사용된 비언어행동 표현을 일본어와 한국어의 경우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초급 일본어 교육에서 신체어 관용 표현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사전적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로서의 언어 사용 맥락은 외국어 초급 단계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표5, 표6, 표7, 표8에서 보듯이 본고에서는 비언어행동의 흥미로운 예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언어행동의 내용은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습득되기도 하고 문화적인 정보로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습득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언어적 지식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교육이 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비언어적 행동의 유형이 대부분 공통적인 것들이 많아 교재에 교육 내용을 특별히 따로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여 교육한다면 그야말로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학습자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될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언어행동의 예를 교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Discourse Analysis: Request Strategies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yangsook Park

Purpose of the study

-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English speakers negotiate a central authentic, consequential speech act.
- 3 excerpts of conversations:
  mother-daughter, husband-wife, & two female friends.
- to examine how gender differences and the social relationship of the participants influence the use of language in terms of politeness, directiveness, and turn taking.

Request

- Basic & ubiquitous activities in social interaction
- An attempt to get someone to do something
- Involving some degree of obligation, of imposition
- A fundamental factor of social interaction in managing social cohesion & social solidarity.
- Conventional linguistic form of requesting (Curl & Drew, 2008)
  - Could you…?
  - I wonder if you could…?
  - I need you to…?

Consequential Request

- Is the targeted action immediate, i.e. to be fulfilled in the here and now, or is it deferred, to be fulfilled at some later point in time (Linström, 1999; Schefloff, 2007)
- Is the targeted action low-cost or high-cost? (Rossi, 2012)
- Is the targeted action bilateral, i.e. integral to an already established joint project between requester and requstee, or unilateral, i.e. in the self-interest of the speaker as an individual (Rossi, 2012; Wootton, 1997)
- Is targeted action a practical one, involving the transfer of a concrete object (Rossi, 2012; Keisanen & Rauniomaa, 2012), or instead a more abstract one, e.g. the provision of a service (Vinkhuyzen & Szymanski, 2005)

Politeness Strategies (Fraser, 1990; Hill et al., 1986; Ide, 1989)

- Positive face: the need to be accepted and liked by others.
- Negative Face: the need to be independent, freedom of action, & not be imposed on by others.
- Bald on record: open & direct way of requests
- Positive politeness: to save positive face by demonstrating closeness & solidarity.
- Negative politeness: to pay attention to negative face, avoiding imposing & give the hearer the options to turn down the request.
- Off-record: indirect speech act to make requests
- Don't do FTA (Face Threatening Acts

Methods

- **Participants:** 28 American adults
- **Data collection & procedure:**
  -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make a consequential request and their conversation was recorded.
  - The collected data were transcribed *using Clark's conventions.*
- **Data analysis:** To analyze 3 exerts politeness, directiveness, and turn taking.

Results 1

A mother and her 15-year-old daughter are at home in the evening. The mother (Mom) approaches the daughter (Carolin) to make a request.

1	Mom:	Cairs, what're you doing?
2	Carolin:	Uh, I'm cleaning (1 sec.) and listening to music.
3	Mom:	What…don't you have homework though?
4	Carolin:	Yeah, but I can do it later.
5	Mom:	Uhhhhh, don't you have a lot of homework?
6	Carolin:	Yeh, (laugh) but I'm used to staying up late!
7	Mom:	(2 sec.) Well, (2 sec.) is it OK if I record this conversation?
8	Carolin:	Yeah, it's fine.
9	Mom:	OK, um, (1 sec.) I'd, (1 sec.) well, (1 sec.) now I'm not sure if I should
10		(1 sec.) well, I had something I wanted to ask you and…
11		maybe I shouldn't if you have really a ton of homework,
12		but (1 sec.), I don't know.
13	Carolin:	You can still ask!
14	Mom:	Well, (laugh) that's true. (laugh)
15		OK, I have a lot of homework, too,
16		that I need to work on tonight and
17		I was wondering…if maybe you'd be able to do the dishes tonight?
18	Carolin:	(1 sec.) probably, I can try.
19		I'll fit it in between my homework,
20		so when I get tired then I can come do it.
21	Mom:	Well, (1 sec.) it'd be really nice for me,
22		But is that gonna make you, like, up too late?
23	Carolin:	That's OK. I think I'd be up late anyways.
24	Mom:	(laugh) Yeah, but that'd make you later,
25		Will [you get] your homework done,
26	Carolin:	[That's OK.]
27	Mom:	(1 sec.) is the crucial thing.
28	Carolin:	Probably, (1 sec.) I think.
29	Mom:	OK, well let's…let's see how we go [then]
30	Carolin:	[OK]
31	Mom:	If I, if I get mine done first then I'll do them=
32	Carolin:	=Otherwise, you can make Dad
33		do it.
34	Mom:	Ohhh, that's true (laugh)! OK.

• Lines 1, 3, 5:
- avoid directness by using interrogative forms
- Pre-request sequences : examines the acceptance of her request
  avoids the subsequent dispreferred response, rejection
- Line 4: the daughter avoids direct refusal
• Line 9: the mother's hedges, hesitation
• Lines 10-12: the daughter waits until her mother ends her turn.
• Line 13: the daughter shows her solidarity and save her face saying, "you can still ask."
- A mother and a daughter, co-construct the talk, each one building on the previous speaker's contribution.
- Solidarity using the daughter's nickname, Cairs as an in-group identity marker.

• Lines 14-17: The mother laughs and continuously displays her understanding of her daughter's busyness, and tries to mitigate any imposition on the daughter's time.
- the mother uses negative politeness strategies ("*I was wondering… if maybe you'd be able to do dishes.*") gives the daughter options to refuse her request.
- The negative politeness makes the daughter feel her time and homework are important; therefore, it shows positive politeness too.
• Lines 25-26 & 30: The daughter shows her solidarity by overlapping her mother's turn ("That's OK.").
- After receiving her daughter's acceptance, she still keeps asking if the daughter is okay about staying up late.
• Line 31: The mother tries to mitigate the imposition by offering an alternative that she could do dishes if she finishes homework early.
• Lines 32-33: The daughter suggests another option that her father can help them.

Results 2

In the following excerpt, a husband and wife (Brad and Daina) are eating dinner on their patio. The wife brings up a River Cats baseball game that they are looking forward to and plan on attending next month in Sacramento. At this point she makes a request that her husband leave his job early to make it on time to the game.

6	Daina	I was thinking about the River Cats game
7	Brad	mmhmm
8	Daina	and um, it starts at seven I guess.
9		And we definitely all deci[ded]
10	Brad	[When is it?]
11	Daina	May 15. Fr.
12		I think it's the 15th.
13		It's Friday.
14	Brad	Friday. =
15	Daina	= Yeah.
16		And um, I was wondering if
17		maybe you can leave work early?
18		Would you be able to be there? =
19	Brad	= Mmhmm.
20		Yeah.
21	Daina	Okay.
22	Brad	Yeah, I can do something like that.
23	Daina	I didn't know if that'd be a problem, because [of traffic] and it's kind hard to
24	Brad	[Nah,] they're [*2 sec*]
25		they're pretty laid back.
26		If I told them that I wanted to come in
27		you know,
28		not that I wanted to
29		that I was gonnu
30		come in at seven
31		and leave at four [*2 sec as he swallows his bite of food*]
32		on Friday
33		they'd be like okay.

34	Daina	Mm cool.
35		And I thought too.
36		[hint of a sigh-chuckle] by then you'll probably know if you've got
37		the job or not.
38		so they're might be a little more flexibility in asking for that and =
39	Brad	= Yeah.
40	Daina	Awesome.
41		And with that 101 that's opened up now too.
42		I mean it's made traffic *so* much better.
43	Brad	Mmhmm =
44	Daina	= So, even if you were to leave at five.
45		You might *still* be able to make it.
46		close.
47	Brad	Uh yeah, but
48		make it at seven.=
49	Daina	=mmhmm.
50		If you want.
51		if
52		I mean it'd it'd be cool if you came home.
53		but if you couldn't.
54		Well, can you come home first do you think? (voice rises with uncertainty)
55	Brad	Yeah, if I leave at four.
56	Daina	Unkay.
57	Brad	I'd be home by six.=
58	Daina	= an we can just go together then.
59	Brad	Yeah.
60	Daina	Cool.

- The wife uses a lot of hedges, such as *I guess* (line 8), *maybe* (line 17), *it's kind hard* (line 23), *probably* (line 37), *might* (lines 38, 45), *I mean* (line 42,52), and *well* (line 54). The husband, on the contrary, uses hedges only once, *you know* (line 26).
- Lines 6-7:
  - In pre-request sequences, the husband backchennels to show that he is attending to listen what the wife is saying.
  - The husband overlaps the wife as signals of active listenership and permits a more multilayered development of topics.
- Lines 16-17:
  - The wife use hedges to mitigate face-threatening act by using adverb modal *maybe* and a question form to request.

- Lines 18-19:
  - The wife repeats her request by using question and polite forms.
  - Negative politeness that shows concern for the face needs of her husband ("*Would you be able to be there?*").
  - The husband latches and backchannels to show solidarity (= *Mmhmm. Yeah.*)
- Lines 34, 60:
  - the wife also use in-group marker '*cool*' to show solidarity.

Results 3

This excerpt is an excerpt of a conversation between Lashauna (Shauna) and H. The conversation begins with a discussion on the temperature of H's apartment and transitions into a conversation about being tired of the semester. The topic of being tired and overwhelmed resulted in a request by Lashauna for help in finalizing a legal matter that involves H. Shauna asks H to email a lawyer in order to ease Shauna's workload. What is ironic is that H had previously asked Shauna to email the lawyer on H's behalf but, because of her workload, she never did. This is, in a sense, a request to pass the responsibility of emailing the lawyer back to H.

1. Shauna: Don't ask [me to do anything else!]
2. H: [I can't]
3. it's longer than the first [semester, isn't it?]
4. Shauna: It feels like it
5. I am just,
6. I am…
7. I am SO DONE=
8. H: =Me too
9. Shauna: SO DONE
10. H: I have this and this on my thing on the MSN like multiple times I'm done
11. but it's not done yet
12. I'm DONE
13. Shauna: (pretending to cry) why is it not over?
14. (buh) Yeah…
15. Oh,
16. Speaking of being done…
17. H: yeah
18. Shauna: Would you like to do me a huge favor?
19. H: Sure
20. Shauna: Would you like to email the lawyer for me?
21. H: What lawyer?
22. Shauna: Your lawyer
23. H: Telling her what?

24. Shauna: Just saying you're interested…
25. Basically what I was going to email the lawyer
26. Except since I'm not done yet,
27. Haha, I need your help…
28. in emailing the lawyer
29. H: Telling her what?
30. Shauna: Uh, Whatever she…
31. He or she asks
32. I sent you the email right?
33. From...
34. H: Hmm?
35. Shauna: From Christine
36. H: When was that?
37. Shauna: Uh...
38. I don't know,
39. I thought I did
40. [Shauna recounts the story of the email she received]
41. Shauna: But...
42. (Quickly) You asked me to email the lawyer and I said I would but I never got around to it
43. H: How about doing this after the finals?

44. Shauna: Because,
45. I might forget and you're going to be out of the country
46. H: [I cou...]
47. Shauna: [You're going] to have to answer questions
48. H: Should I do it before I travel?=
49. Shauna: =[yeah]
50. H: [why?]
51. Why?
52. Shauna: B'cuz that will make it easier to talk to them
53. Cuz like then if you have to call them or something like that,
54. You can't call them from Dubai
55. H: I will do that on my to-do list
56. Haha
57. Never mind
58. Don't think about it
59. I still have time

- Lines 1-4:
  - Shauna uses bald on-record, which leaves the hearer little options to do as she is told or be seen as uncooperative.
  - the most face-threatening mode of action.
  - They overlap each other to show solidarity and support: to express affection & interpersonal concern.

    "*I'm SO DONE*." (lines 3, 5) "*me too*" (line 4)
  - The two speakers take a turn in conversation by explicitly acknowledging the contribution of the previous speaker, and then continue the current topic directly connected with what has gone before.
- Line 1-17:
  - pre-request sequences
  - Shauna ends her pre-request in line 16.

- Line 18:
  - Shauna moves on to the main request.
  - Shauna uses negative politeness strategies to aske a favor of H using modal '*would*' & an adjective '*huge*': shows concern for the face needs of H.
  - Negative politeness strategies make it possible for H to avoid cooperating.
- Line 18: 'Sure' without hesitation
- Line 46-47:
  - With Shana's interruption, the topic is shifted from H's willingness of granting the request to obligatory actions that H should take care of before leaving to Dubai.

Conclusion 1

▶ **Language strategies based on gender**

Male-Female

- Female:
  - to facilitate conversation flow through the use of questions
  - not making a link with the previous speaker's contribution.
- Male:
  - more likely to ignore what has been said before
  - more concentrate on making their own point
  - abrupt topic shift tend to occur

Conclusion 2

▶ **Language strategies based on gender**

Female-Female

- Conversation between women build on each other's contributions: gradual topic shifts
- Indirect speech acts: to mitigate the force of face-threatening acts
- Positive politeness:
  - solidarity in-group makers:
- Negative politeness:
  - hedges, questions, modals: to give the hearer the opportunity to refuse or turn down the request

Limitations of the study

- No quantifiable results
- Lack of data to find densities & distributions, or give empirical validity to claims about conversation organization.
- Despite some background knowledge context is relevant to text, it observes context as something created in talk, rather than talk as something created by context.

【토론문】

“Discourse Analysis: Request Strategies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에 대한 토론문

박준범(영남대)

담화(discourse), 리터러시(literacy)와 같이 사람들 사이의 실제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최근 학계의 움직임을 볼 때, 박향숙 선생님의 화자의 요청 전략에 관한 담화 분석 연구는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문어 텍스트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면 최근에는 구어 텍스트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서의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문맥(context)이 단절된 문장이나 단어의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 벗어나 문맥에 따른 의미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비록 본 발표문이 영어와 영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한국어 모국어 화자, 더 나아가 언어유형론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심도 있게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뜻 깊은 연구에 토론자로 지정되었으나, 사실 토론자는 영어학에 대해서는 그리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어와의 비교, 언어일반론과의 비교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방법(sheet, 6)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연구 논의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미국인 성인 28명은 누구-나이, 성별, 계층, 종교 등과 같은 식별 요소-이고, 이들은 어떤 사회적 관계를 대표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대화 녹음 자료를 전사하여 세 가지 경우-엄마와 딸, 남편과 아내, 두 명의 여자 친구-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가 되나 이 관계가 어떠한 사회적 관계의 대표성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끝으로 이 논의가 질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인다. 연구의 한계(s. 24)로 ‘정량화할 수 없는 결과(No quantifiable results)’, ‘자료의 부족함과 조직의 타당성(Lack of data to find densities & distributions, or give empirical validity to claims about conversation organization)’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제시된 한계점들이 질적 연구를 고려한 것인지, 양적 연구를 고려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둘째, 발표자는 연구대상자들이 보이는 대화의 양상에서 젠더(gender)적 차이와 사회적 관계가 공손성, 지시성, 말차례 전환과 같은 언어 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한다(s. 2)고 언급하였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을 보면 젠더적 관점의 언급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관한 논의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요청의 일반적인 언어 형태로 제시(s. 3)한 ‘Could you…?’, ‘I wonder if you could…?’, ‘I need you to…?’에 관해, 발표자는 문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인지, 화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영어의 관점은 아니지만 한국어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중 문금현(2017)[13])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3) 문금현(2017), “한국어 공손성 표현의 생성 유형별 특징-공손성의 강도와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학 82, 국어학회,
27-66쪽.

음운 층위의 공손성은 음장에 의한 공손표현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법 층위의 공손성은 주격조사 '-께서'와 여격조사 '-께', 선어말어미 '-시-', '해요체' 종결어미의 공손성 강도를 강하게 인식하고 사용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어휘 층위에서는 높임어휘 동사류와 명사류, 높임의 일반호칭어가 공손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고 사용빈도도 높았다. 화용 층위에서는 간접 표현의 공손성이 높게 인식되었는데 사과 표현을 문장 맨 앞에 울타리어로 제시한 간접 요청 표현과 간접 거절 표현을 가장 공손하다고 인식하였다.

부산 지역 20대 화자들의 표준어화와 방언 인식

배혜진(동의대)

〈 차 례 〉

1. 서론
2. 연구방법
3. 방언형 어휘의 표준어화
4.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의 언어 인식
5. 결론

1. 서론

언어는 변화한다. 새로운 음운, 문법, 어휘가 생성되기도 하고 기존의 것들이 소멸되기도 하며 경쟁하면서 그 기능과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성, 발달, 소멸의 흐름은 언어 구조의 변화와 같은 내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언어 사용자 수의 감소 등과 같은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언어는 여러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든 언어가 '평등'하지는 않다. 어떤 언어는 사용 범위가 확장되어 지배적 언어(dominant language)가 되는가 하면 어떤 언어는 소수 언(minority language)가 되기도 한다. 한국어라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적 언어는 서울 방언, 소수 언어는 대표적으로 제주도 방언을 들 수 있다. 서울 방언은 표준어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어=서울말'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지배적 언어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소쉬르는 '언어는 혼자 내버려져 있는 경우, 결국 서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방언들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언어는 한없이 세분되게 된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종의 묵계에 의해 기존 방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국민 전체에 관계되는 모든 것의 전달 수단으로 삼게 된다.'고 하였다. 한국어의 경우 국민 전체의 전달 수단으로 서울 방언을 선택하여 표준어로 정립한 것이다.

한 언어권 내에서 표준어와 방언으로 언어가 나뉘게 되고 표준어의 지위가 높아지면 방언의 표준어화(standardization)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방언 간 접촉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특히 '표준어'와 모방언(mother dialect) 간의 접촉이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20대 화자들을 대상으로 방언의 표준어화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현상이 방언 화자들의 언어 인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방언 어휘의 표준어화와 방언 화자들의 언어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특

히, 표준어화는 여러 방언과의 접촉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상대적으로 접촉이 낮은 농촌보다는 접촉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도시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남방언을 사용하는 대도시들 중 ‘부산’은 예부터 무역 등의 발달로 다른 지역민들과의 접촉이 잦았고 현재는 관광도시로서 외국인의 유입도 상당하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을 조사하기에 적절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 지역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표준어화와 언어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언어 변화를 이끌어갈 개신 세대로서 20대 화자들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청소년기를 벗어났으나 사회로의 진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계층의 변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여러 매체를 쉽게 접하고 잘 활용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노우에 후미오(2017:216)에서도 언어 변화의 기본을 파악하려면 관점을 확대하여 MYUF(Mobile Young Urban Female)도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는 20대 화자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태어나 성장한 곳이 부산 혹은 경남 이외 지역인 제보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설문 결과의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147명의 제보자들 중 태어나 성장한 곳이 모두 부산 혹은 그 주변의 경남인 134명의 응답만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1)]

	남	여	총 인원
부산 지역 20대	62	72	134

설문은 방언 어휘의 표준어화와 언어 인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표준어화를 알아보기 위해『한국방언자료집VII』경상남도 편 I. 어휘에서 ‘인체, 음식’의 어휘들 중 일부를 선정하였다. 언어 인식 조사를 위해서는 이노우에 후미오가 제시한 언어의 지적·정적 가치 개념을 바탕으로 설문항목을 작성하였다.

3. 방언형 어휘의 표준어화

1988년 문교부가 고시한 ‘표준어 규정’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중들에게 ‘표준어=서울말’,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양 없는 사람’이라는 무언의 공식을 만들어 주었다.[2)] 국어과의 1차~7차 교육 과정에서도 ‘표준어’와 ‘방언’을 ‘올바른 말’과 ‘틀린 말’로 이분법하여 틀린 방언을 고치고 올바른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7차 교육 과정으로 나아갈수록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에 따라 ‘구별’해서 써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3)]

1) 제외된 13명의 제보자들은 태어나 성장한 곳이 경상남도 이 외 지역인 서울, 광주, 포항, 구미, 삼척, 군산, 순천 등 여러 지역을 연고로 두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그들의 응답은 부산·경남 생활권인 134명 응답자들의 결과와 크게 상이하지는 않았으나 제보자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이태영(2006:392)에서도 ‘표준어=서울말’이라는 등식이 지역의 언어를 배제한 등식이어서 전체를 대표하는 ‘한국어(공통어)’의 개념에 매우 미흡하고, ‘중앙:지방’, ‘표준:비표준’, ‘교양:비교양’ 등의 이원론적인 대립 개념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언어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 국어과 교육과정별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특히 1차~2차 교육과정에서 표준어는 올바른 말, 방언은 고쳐야만 하는 말로 이분법하고 있다. 1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표준말에 주의하여 틀리는 점을 바

이러한 가치관 아래에 형성된 표준어 교육은 '국어'를 배우는 모든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표준어의 힘(=권력)을 가르치게 된다. 즉, 한 언어권 내에서 특정 지역의 언어가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언어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 고종석(2012:24)의 지적처럼 한 사회에 언어 차별(linguicism)이 존재하는 한 비주류 언어(방언) 사용자는 주류 언어(표준어)를 익혀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표준어의 정립과 표준어 정책의 결과 다양한 방언들이 '방언 평준화(dialect leveling)'를 경험하고 있고 나아가 '표준어화(standardization)'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특히 방언의 어휘들은 급격하게 표준어로 대체되고 있다. 표준어화는 성조나 억양과 같은 초분절요소, 음운, 문법, 어휘 등 다양한 층위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어휘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부산 방언의 대표적인 어휘들이 표준어화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경남 지역 출신 토박이 화자이면서 부산 지역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134명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2주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한국방언자료집VII』 경상남도 편의 I.어휘 중 '인체'와 '음식'에서 총 41개의 어휘를 선정하였다. 이 자료집은 부산광역시와 같은 광역 도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외되어 있어 부산과 바로 인근해 있는 '양산, 김해'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한국방언자료집』 어휘편은 '농사, 음식, 가옥, 의복, 인체, 육아, 인륜, 경제, 동물, 식물, 자연, 상태, 동작'으로 분류되어 있어 모든 항목을 다 살펴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농사, 가옥, 의복, 육아' 등은 20대 화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일상 생활에서 쓰임이 많은 '인체'와 '음식'에서 선정하였다. 농경문화를 직접 접해보지 못한 20대 화자들에게 '농사'와 관련된 어휘는 자주 들어보지 못했고 사용률이 낮은 단어일 것이다. 이런 저빈도 단어들은 고빈도의 일상 생활 어휘에 비해 표준어화가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비조사를 거쳐 부분적으로 선별하였다.[4)]

'인체'와 '음식' 어휘들 중에서도 '(쌀을) 일었다, (밥을) 푼다, (눈두덩이) 붓다, (얼굴을) 씻어라' 등과 같은 동사형은 제외하고 명사형들 중에서 총 41개의 어휘를 선정하였으며, 그 어휘는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 어휘 목록>

주제	어휘	어휘수
인체	지기미, 지금(비듬)	2
	쎄미, 세암/시암(수염)	2
	뽈태기(뺨)	1
	쭈굴사리(주름살)	1

주제	어휘	어휘수
음식	깍떼기(깍두기)	1
	지렁(간장)	1
	조푸/조포(두부)	1
	콩지렴(콩나물)	1

로잡게 한다, 어법에 맞는 표준말을 쓰고, 속어와 사투리를 의식적으로 피할 수 있게 한다'이다. 2차는 '표준말과 비교하여 틀리는 점을 바로잡도록 한다, 속어·사투리·야비한 말을 의식적으로 피하게 한다'이다. 1차~2차에서는 방언을 '사투리'라는 용어로 개념화하였고, 방언과 속어를 함께 묶어 바로잡아야 하는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태영(2006:396)에서도 지적하였듯이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비표준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비표준발음'과 '비표준어'를 혼동하여 설명하고 있고, 여전히 지역의 언어를 배제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

4) 부산 토박이 화자로 조사 대상자인 대학생들의 부모 세대인 50대 화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들어본 적은 있는 어휘들을 선정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누꾸제비, 눈꺼부지기(눈곱)	2		물에(오이)	1
	애눈(봉사)(애꾸)	1		정구지(부추)	1
	코꾸녕, 코꾸무(콧구멍)	2		가메, 당부(가마)	2
	입수구리(입술)	1		주구, 주개(주걱)	2
	쎄(혀)	1		누룬밥(누룽지)	1
	궁디이(엉덩이, 궁둥이)	1		끼미/끼미기(고명)	1
	칼빼, 장개이(정강이)	2		박상(튀밥)	1
	깔딱질(딸꾹질)	1		백시리떡(백설기)	1
	세아리, 께악질(사레)	2		단술(식혜, 감주)	1
	재침(기침)	1		떠꺼리, 뜨벵이(뚜껑)	2
	자부름(졸음)	1		툭싸리(뚝배기)	1
	꼬랑내(고린내)	1		정지(부엌)	1
인체 총계		22개	음식 총계		19개

강희숙(2015:22)에서도 강조하였듯이 해당 방언 어휘의 인지도 및 실제 사용 양상을 묻는 조사에서는 ‘제시한 방언 어휘 항목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준어화 설문항목 예시>

	①어휘의 뜻을 알고 있다 (뜻:)	②들어본 적 있으나 어휘의 뜻을 잘 모른다	③처음 들어봤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뽈태기	① 뜻:	②	③
쭈굴사리	① 뜻:	②	③
코꾸녕	① 뜻:	②	③
입수구리	① 뜻:	②	③
쎄	① 뜻:	②	③
궁디이	① 뜻:	②	③
꼬랑내	① 뜻:	②	③

이를 위해 해당 어휘를 뜻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의미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어휘의 뜻을 알고 있다고 ①을 체크하였으나 전혀 다른 의미로 알고 있는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하였다.[5)]

먼저, 부산 지역 20대 화자들의 인체 어휘 인지도를 살펴보자.

5) 예를 들어, 음식 중 표준어의 ‘두부’에 대응하는 ‘조푸/조포’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①을 선택하였으나 ‘쥐포’라고 의미를 알고 있는 11명의 응답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조푸/조포’는 134명 중 11명이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하였으나 잘못된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0%의 진지도(%)가 된 것이다.

<인체 어휘의 인지도(%)>

범위(%)	인체 어휘	어휘수
99~90	코꾸녕(99%), 궁디이(97%), 꼬랑내(94%)	3
69~60	뽈태기(64%)	1
39~30	입수구리(31%)	1
19~10	애눈(봉사)(19%), 재침(19%), 깔딱질(14%)	3
9~0	코꾸무(4%), 쎄(4%), 장개이(0.7%), 쭈굴사리(0.7%), 눈꺼부지기(0.7%) 지기미(0%), 세암/시암(0%), 칼빼(0%), 누꾸제비(0%), 세아리(0%), 께악질(0%), 쎄미(0%), 자부름(0%), 지금(0%)	14

22개 중 50% 이상의 인지도를 보인 어휘는 '코꾸녕, 궁디이, 꼬랑내, 볼태기'로 4개에 불과했는데, 그 중 '코꾸녕, 궁디이, 꼬랑내'는 화자의 90% 이상이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어 방언 어휘의 인지율이 높았다. 표준어 '콧구멍'에 대응되는 부산 방언형은 '코꾸녕, 코꾸무'인데 '코꾸녕'은 90% 이상이 알고 있는 데 비해 '코꾸무'는 134명 중 4명만이 응답하여 4%의 낮은 인지율을 보였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부산 지역 20대 화자들의 음식 어휘 인지도를 살펴보자.

<음식 어휘의 인지도(%)>

범위(%)	음식 어휘	어휘수
89~80	단술(84%)	1
69~60	정구지(65%), 누룬밥(60%)	2
29~20	박상(22%)	1
19~10	깍데기(17%), 백시리떡(16%), 정지(13%)	3
9~0	콩지럼(0.7%), 뜨벵이(0.7%) 당부(0%), 물에(0%), 끼미/끼미기(0%), 가메(0%), 주구(0%), 지렁(0%), 떠꺼리(0%), 조푸/조포(0%), 툭싸리(0%), 주개(0%)	12

19개 중 50% 이상의 인지도를 보인 어휘는 '단술, 정구지, 누룬밥'으로 3개에 불과했는데, 그 중 '단술'이 84%로 가장 높았다. 인체 어휘 22개 중 17개, 음식 어휘 19개 중 16개가 20% 이하의 낮은 인지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지속적인 표준어 교육의 결과 부산 지역의 전형적인 방언 어휘들이 젊은 세대에서 급격하게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4.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의 언어 인식

표준어 중심의 교육과 미디어 발달로 인해 표준어의 세력은 점점 강해진다. 이러한 표준어는 언어 그 자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언어에 대한 화자들의 '의식'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3장에서 살펴본 방언 어휘의 표준어화는 산발적이거나 부분적이어서 방언의 개별적인 요소에 영향을 끼치지만 언어에 대한 의식[6]은 자신의 방언에 지속적이고 전체적인 영향을 끼친다. 화자들의 언어 선택(code swithching)[7]은 바로 이러한 언어 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노우에 후미오(2015:62~66)에서는 언어의 가치를 지적 가치와 정적 가치로 나누고 있다. 언어의 ‘시장’ 가치는 지적 가치에 대응하며 정적 가치는 언어에 대한 애착심ㆍ언어 충성심과 관련하는데, 이것은 모든 언어에 있으며 언어 권력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지적 가치와 정적 가치는 ‘언어(모국어):언어(제2 언어)’와 같이 개별 언어들 사이의 언어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권 내에서도 ‘표준어:방언’, ‘모방언(mother dialect) : 제2 방언’ 사이의 언어 인식을 살펴보기에도 적절한 개념이다.

‘표준어’를 ‘언어의 표준’ 개념으로만 다루면 방언과 표준어를 대립적인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언어의 표준’ 개념으로서 출발한 표준어에 점차 ‘올바름’의 개념이 덧보태짐으로써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가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게 된다.(한성우2012:384) 즉, ‘표준어=올바른 언어’의 공식이 받아들여지면 표준어의 지적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쳐야 하는 잘못된 말’로 인지하게 되는 방언의 지적 가치는 낮아지게 된다. 시간이 흐르고 표준어의 지적 가치 상승으로 인해 방언의 지위가 약해지면서 방언 화자들은 스스로의 방언에 대한 지적 가치와 정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도 하락시킬 수도 있다. 방언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방언을 지키고 발전시키거나 자신의 방언을 표준어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게 된다.

이 장에서는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의 방언 어휘가 표준어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화자들 스스로의 언어 인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 인식은 크게 1)한국어와 제2 언어의 지적ㆍ정적 가치, 2)부산방언과 표준어의 지적ㆍ정적 가치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먼저,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세계의 다른 언어들 사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설문1> 세계의 언어를 순위로 매긴다면 ‘한국어’는 몇 위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설문2> 습득하고 싶은 제2 언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3> 만일, 단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언어를 선택하겠습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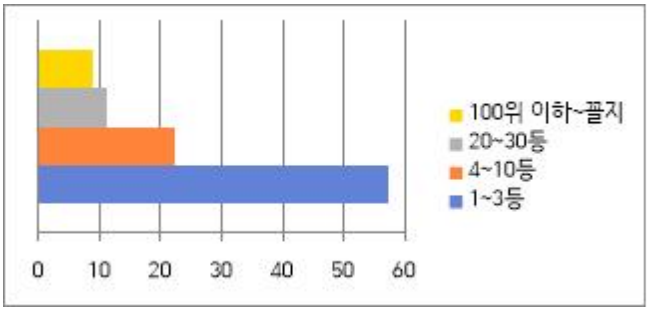
<설문1> ‘세계의 언어를 순위로 매긴다면 ‘한국어’는 몇 위쯤 된다고 생각합니까?’는 세계의 많은 언어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2014년 에스놀로그(Ethnologue)[8]의 언어 사용자 수 조사에서 한국어 사용자 수는 7,729만 명으로 13위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해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은 한국어의 위치를 꽤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순위	1~3위	4~10위	20~30위	100위 이하
인지도(%)	57.5%(77/134)	22.4%(30/134)	11.1%(15/134)	9%(12/134)

6) 이 때 ‘언어에 대한 의식’은 세계 언어의 일부인 ‘한국어’에 대한 의식이 될 수도 있고 한국어 내의 ‘방언’에 대한 의식이 될 수도 있다.

7) 마찬가지로 이 때 ‘언어 선택’이란 ‘한국어:제2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모방언:제2 방언’ 혹은 ‘모방언:표준어’가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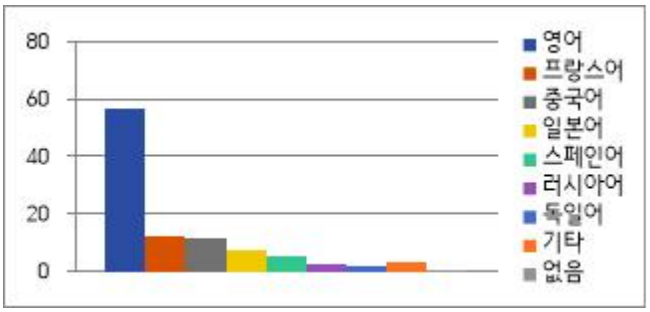
8) 에스놀로그(Ethnologue)는 언어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언어 정보 제공 사이트이다. 2014년 개정판 이전에는 한국어 사용자 수가 6,640만명으로 집계되어 18위였으나 1,000만 명 이상 증가하여 순위도 13위로 상향되었다.



<설문2>는 한국어를 제외한 제2 언어 중 습득하고 싶은 언어가 무엇인지 <설문3>은 한국어를 포함한 모든 세계 언어들 중 하나만을 사용한다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두 항목은 언어의 시장가치와 관련된 것이므로 언어의 지적가치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볼 수 있다.

<설문2> '습득하고 싶은 제2 언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언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기타	없음
%	56.7%	12%	11.2%	7.5%	5.2%	2.2%	1.5%	3%	0.7%



한국어를 제외한 제2 언어 중에서는 영어를 습득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56.7%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러시아어>독일어>기타>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언어에는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아랍어, 힌디어가 있었는데 총 134명의 학생 중 1명씩 4개의 언어를 선택하였다.

제2언어 습득 이유는 '시장가치', '실용성', '언어에 대한 느낌', '희소성'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세계의 언어들 사이에는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영어는 압도적으로 지위가 높은 언어라고 볼 수 있다. 부산지역 20대 화자들 역시 영어의 시장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전 세계 공용어로 세계인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을 습득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순위는 프랑스어에 비해 낮지만 영어에 대적할 언어로 중국어를 꼽으면서 '요즘 급성장하는 나라이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배워두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이 역시 중국이라는 나라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높아져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일본어는 '여행, 유학'을 위해서, 스페인어는 '외국어 중 스페인어가 바탕이 되는 언어들이 많아서 다른 언어를 더 배울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독일어는 '독일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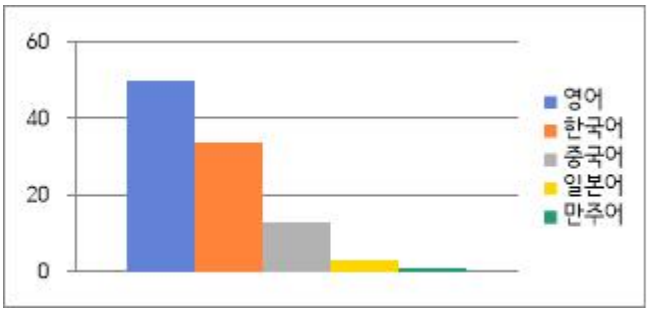
서로 읽고 싶어서’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는 영어, 중국어와 달리 시장가치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언어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습득의 이유를 ‘실용성’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어는 ‘고급스러워보이고 어감이 부드럽고 예뻐서’, 스페인어는 ‘멋있다, 발음에서 열정이 느껴져서’, 독일어는 ‘거친 발음들이 멋져서’와 같은 이유들도 있었는데 이는 시장가치나 실용성과는 관계없이 개별언어에 대한 화자 개인의 이미지나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아랍어, 힌디어를 선택한 이유는 모두 ‘희소성’이었다. 이들 언어는 영어, 중국어처럼 시장가치가 높아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익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습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희소한 언어라는 개념 역시 시장가치로 인해 지적 가치가 높아진 언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본다면 ‘희소성’ 역시 지적 가치 판단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설문3> ‘만일, 단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언어를 선택하겠습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만주어
%	50%(67/134)	33.6%(45/134)	12.7(17/134)	3%(4/134)	0.7%(1/134)



‘영어>한국어>중국어>일본어>만주어’ 순으로 나타났는데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는 모두 아시아 국가의 언어들이었다. <설문2>에서 영어와 중국어는 시장가치가 높기 때문에 습득하고 싶은 언어로 선택하였는데, 이들 언어 사이에 모국어인 ‘한국어’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이할만하다.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친숙하기 때문에, 응용이 쉽고 개성있고 배우기 쉽기 때문에, 한국어만큼 실용적이고 이 세상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고 다양한 언어유희가 가능한 언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쓰는 말이니까, 세종대왕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등이었다.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국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말은 과학적이다, 외국인이 배우기 쉽다, 세상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다’ 등과 같은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자들은 한글의 과학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지적 가치가 높았다.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지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정적 가치를 함께 상승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는 국제화와 글로벌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세계 영어’(World English)라는 칭송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언어 선택은 순수하게 지적 판단이나 시장의 수요만으로 지배되는 것은 아니다. 지적 또는 실용적 요인 이외에 정적 또는 심리적 요인이 언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언어 선택에는 자유경제로서의 경제 원칙이 관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심리적·정적요소가 제약하거

나 제어하기도 한다는 이노우에 후미오(2015:65)의 결과를 본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이 부산 방언과 표준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설문4> 방언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설문5> 표준어가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설문6> 본인이 사용하는 부산 방언을 좋아합니까?
<설문7> 본인이 사용하는 부산방언은 표준어로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설문8> 한국어의 방언들(서울경기방언, 충청도방언, 경상도방언, 전라도방언, 제주도방언)을 순위로 매긴다면 부산방언이 포함된 경상도방언은 몇 위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설문4>~<설문7>은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지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다.

<설문4>	①좋은 일이다	②좋지 않은 일이다	③별 생각없다
인식률(%)	62%(83/134)	1.5%(2/134)	36.5%(49/134)

<설문4> '방언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 20대 화자의 62%가 그들의 방언에 대해 긍정적인 지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이유들을 분류해보면 '전통성, 방언의 특성, 유대감 형성, 언어의 다양성'으로 나누어진다.

전통성	방언의 특성	유대감 형성	언어의 다양성
▌써왔으니까(전통) ▌그 지역의 문화를(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감 있어서 ▌쓰기 편함 ▌매력적이고 독보적이다 ▌그냥 왠지 좋다 특별한 느낌, 고유성과 특별함, 그 지역의 특색이고 옛말 연구도 가능하니까 ▌표준어가 나타낼 수 없는 의미와 뉘앙스가 있어서 재밌다	▌소속감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더 잘 대해 줄 때도 있고 아는 사람 만난 기분이 들어서 기분 좋기 때문 ▌토속성을 느낄 수 있고 지역 사람들과 유대감이 높아짐	▌언어의 다양성을 높인다 ▌언어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뜻을 더욱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언어의 다양성이 존재(많은 표현),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 각 지방마다 다른 것도 특색이라고 생각

이 외에도 '그 지역의 특성을 간접경험할 수 있어서, 똑같은 억양으로만 한다면 삶의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서울 사람들이 보면 멋있어 보여서' 등의 이유들도 있었다.

36.5%의 응답자들은 방언이 있는 것이 좋다는 질문에 대해 별 생각없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역시 공통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의사소통 여부, 가치 판단의 필요성, 방언 사용의 자연스러움'이 있다.

의사소통	가치 판단 필요성	방언 사용의 자연스러움
▌정감이 가서 좋지만 뜻이 잘못 전달될 수 있어서 장단점이 있음	▌좋고 나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지역성을 잘 나타내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

▌의사소통만 잘 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서 ▌알아들을 수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서	이로 인해 사람들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준어 가르치는 것도 문제	▌익숙하게 써와서 별 생각 없기 때문이다 ▌태어난 곳의 언어를 습득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방언이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응답한 1명은 그 이유를 ‘언어의 통일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소수의 응답자이기는 하지만 방언의 다양성이라는 가치보다 언어의 통일성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설문5> ‘표준어가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는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의 표준어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설문4>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설문5>	①좋은 일이다	②좋지 않은 일이다	③별 생각없다
인식률(%)	73.9%(99/134)	3%(4/134)	23.1%(31/134)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은 방언과 함께 표준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지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언어의 통일성, 기준의 필요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들 수 있다.

언어의 통일성(의사소통)	기준의 필요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하나의 언어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타지역끼리 대화가 힘든 것을 막아주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통일성 있는 억양이 좋을 것 같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니 헷갈일 일이 없다 ▌뉴스나 사건을 전달할 때 기준이 있는 언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형이 존재해야 사투리의 구분이 가능하니까	▌일단 외국인이 배울 때 표준이 되는 언어가 있어야 쉽기 때문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표준어가 있어야 쓰기 쉽기 때문에 ▌외국들이 방언을 배우게 되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설문4>~<설문5>를 통해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은 방언과 표준어는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방언과 표준어를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3%는 표준어가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너무 등급을 매긴다, 구분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말에 우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였다. 표준어가 ‘등급, 구분, 우위’를 만들어내며 이로 인해 표준어와 방언 사이에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화자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별 생각없다고 응답한 23.1%는 ‘의사소통만 잘 되면 뭐든 상관 없다, 표준어만 쓴다고 그럴 필요도 방언만 쓴다고 그럴 이유도 없다,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면 지역 상관없이 그 말이 표준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가치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설문6>~<설문7>은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정적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다.

<설문6>	①좋다	②싫다	③별 생각없다
인식률(%)	75.4%(101/134)	0%(0/134)	24.6%(33/134)

<설문6> ‘본인이 사용하는 부산 방언을 좋아합니까?’의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방언에 대해 75.4%가 긍정적인 정적가치를 갖고 있으며, 단 한명도 자신의 방언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4.6%는 별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좋다	③별 생각 없다
▌이유가 필요할까?, 그냥 좋아요 ▌평생을 이 말투로 살아와서, 내가 쓰고 있기 때문, 정겨워서, 편하고 듣기 쉬워서, 친근함, 익숙하다, 우리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 편하다, 부산 사나이 아이가, 내가 쓰니까 뭔가 단합력이 생긴다, 부산 사람들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구수하고 좋다, 입에 착착 감겨요, 부산이 좋다, 할머니 같아서 ▌쎄 보이지만 통통튀어 귀엽다, 의사전달이 잘 되는 것 같음(서울말에 비해 직설적이고 뚜렷함), 멋있어서, 특별한 것 같다, 들을 때 더 친밀감 있고 표현하는 데 유용하다, 재밌다, 다른 지역 사람들도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방언, 정겹고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사투리가 특이해서, 가장 일반적인 사투리라고 생각하고 매력적인 방언인 것 같다	▌좋고 싫음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 좋음이나 싫다 중은 좋다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언이어서, 그냥 살면서 쓰는 것, 자연스러운 것, 그냥 쓰는 거라 별 생각없다 ▌태어나서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경남사람이다 ▌정겹다

부산 방언이 ①좋다, ③별 생각 없다고 응답한 이유들 중 ‘내가 쓰고 있는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설문7> ‘본인이 사용하는 부산방언은 표준어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의 응답 결과이다.

<설문7>	①고쳐야 한다	②고칠 필요 없다	③별 생각없다
인식률(%)	26.2%(35/134)	52.2%(70/134)	21.6%(29/134)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의 52.2%는 방언을 표준어로 고쳐야 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앞선 <설문4>~<설문6>을 통해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은 자기 방언에 대한 정적 가치와 지적 가치가 모두 높았고 표준어에 대한 지적 가치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준어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지만 자기 방언에 대한 지적·정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부산 방언을 표준어로 고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①고쳐야 한다	②고칠 필요 없다
▌고쳐서 언어의 전체적인 표준화가 필요하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의미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서, 공적인 자리에서 부산 방언을 사용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서울 쪽에 취업할 때, 수도 진출해 성공을 꿈꿔서이다, 면접볼 때 표준어를 써야함, 부산에서 일하고 살 것이 아니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비스 직종에서는 표준어를 권장하기 때문에 고쳐야할 것 같다, 종종 현 시대와 매우 덜어진 시대착오적인(성차별 등) 표현들은 고쳐나가야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그대로	▌지역특성을 위해, 지역마다 언어의 특색이 있는데 이를 굳이 고칠 필요는 없다, 같은 말이고 문화이고 역사이다, 내 개성이다 ▌쓰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음, 아직 고쳐야할 필요성을 못 느낌, 태어날 때부터 사용한 방언을 고칠 필요가 없다 ▌표준어는 공적인 자리나 자료 등에서는 필수겠지만 일상에서 방언을 쓴다고 해서 안 좋을 이유가 없다, 표준어랑 같이 쓰면 된다, 딱히 ‘틀린’ 언어가 아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뿐 ▌부산 방언을 고치려면 다른 지역 방언도 고쳐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방언을 사용하면 직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하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무의미함, 그렇게 따지면 표준어 사용하는 사람도 타지역에 왔을 때 그 지역 방언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생각 없다

고쳐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의미 전달을 위해 표준화가 필요하기 때문, 취업 등의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고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는 ‘그 지역의 특성이기 때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 표준어와 방언을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 표준어 전환의 무의미성’이었다.

나머지 21.6%는 ③별 생각없다고 응답했는데, ‘방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 별 생각 없다, 안 쓴다, 내 말에 방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등의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특이한 점은 별 생각없다고 응답한 화자들이 스스로 방언 사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한국어:제2 언어’에 대한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의 언어 인식은 제2 언어 중에서 시장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영어의 지적 가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지적·정적 가치 또한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	영어	부산방언	표준어
지적가치	+	+	+	+
정적가치	+		+	

부산 지역 20대 화자들이 가지는 ‘모방언(부산방언):표준어’에 대한 지적 가치는 부산 방언과 표준어 모두 높았고, 부산 방언에 대한 정적 가치 또한 높았다. 이는 방언에 대한 지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말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이 있는 유형에 해당한다.[9] 1996년 일본 NHK 조사 지도에서는 교토、오사카、도쿄、홋카이도에서 ‘자신감형’으로 나타났는데, 지적 플러스 평가는 대도시 중심, 정적 플러스 평가는 주민의 애향심과 애착심으로 방언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지역들이 중심이었다. 부산 지역 20대 화자들은 대도시 ‘부산’에 대한 애향심과 애착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감형’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산 방언 어휘의 표준어화 현상은 부산 방언의 소멸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방언에 대한 지적、정적 가치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표준어로 언어 선택이 진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연구 결과처럼 ‘분열형, 자기혐오형, 지역멸시형’의 언어 인식을 보이는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의 방언 소멸과 표준어화는 자신감형을 보이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철기(2005)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제주도의 표준어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방언이 소멸되고 표준어로 언어가 선택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방언 화자들의 언어 인식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9) 1996년 일본 NHK는 여론조사의 형태로 ‘사투리가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까?’(지적 이미지)와 ‘지역 말을 좋아합니까?’(정적 이미지)를 피조사자들에게 물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열형, 자기혐오형, 지역멸시형, 자신감형, 중립형’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분열형’은 지적 마이너스 평가와 정적 플러스 평가, ‘자기혐오형’은 지적 마이너스 평가와 정적 마이너스 평가, ‘지역멸시형’은 지적 플러스 평가와 정적 마이너스 평가, ‘자신감형’은 지적 플러스 평가와 정적 플러스 평가를 보인 지역을 의미한다.

5. 결론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의 방언형 어휘는 상당부분 표준어형으로 대체되는 표준어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방언 인식 조사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방언에 대한 지적가치와 정적가치가 높은 '자신감 있는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 언어들을 배제시키는 방식의 표준어 중심의 교육이 개선되고 언어생태학적 가치가 정립된다면 표준어화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참고문헌>

강희숙, 「한국어 방언 접촉의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 전남방언 어휘의 표준어화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64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pp.9~36.

고창석, 『말들의 풍경』, 돌베개,

루이-쟝 칼베, 김병욱 옮김, 『언어와 식민주의』, 유로서적, 2004.

미우라 노부타카·가스야 게이스케, 이연숙·고영진·조태린 옮김,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신승용,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국어학』 123, 한국어문학회, 2014, pp.67~89.

이정민, 「한국어의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 접촉과 태도」, 『한글』 173, 한글학회, 1981, pp.559~584.

이노우에 후미오, 김덕호·김순임·양민호·안미애 역, 『경제언어학』, 역락, 2015.

이철기. 「소멸위기 언어 보전의 관점에서 본 지역방언 교육의 현황 - 제주방언 말소리 아래아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18권 0호,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5, pp.29~52.

이태영, 「지역언어의 중요성과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pp.391~408.

조규태, 「지역 언어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42, 국어교육학회, 2008, pp.169~188.

조태린, 「표준어 정책의 무네점과 대안 모색」, 한말연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7권 0호, 2007, pp.189~195.

조태린, 「성문화된 규정 중심의 표준어 정책 비판에 대한 오해와 재론」, 『국어학』 79, 국어학회, 2016, pp.67~104.

최경봉,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표준어 넘어서기-』, 태학사, 2008, pp.227~250.

최용기, 「표준어와 표준어 정책」,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표준어 넘어서기-』, 태학사, 2008, pp.306~33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VIII』 경상남도편, 19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성우, 「방언과 표준어 의식」, 『방언학』 제16호, 한국방언학회, 2012, pp.383~410.

【토론문】

“부산지역 20대 화자들의 표준어화와 방언 인식”에 대한 토론문

김지숙(경성대)

이 글은 부산 지역 20대 화자들의 방언 인식을 통해 사회언어학적 의미를 찾아내고 언어 변화의 사회적 요인과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2015년 번역된 <언어 경제학> 내 이론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저 역시 사회방언학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사회언어학 연구 절차는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바를 선정하고 그것이 특정 언어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해석을 해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지 조사든 설문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조사 항목이 잘못 선정된다거나 표본 추출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거나 또는 조사 방법이 실제의 언어 사용을 관찰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칫 그 연구 결과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발표는 몇 가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즉 조사 항목의 선정과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좀더 자세히 말하면, 부산의 인구도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고 젊은 연령층은 근대 교육과 문물의 수혜자로서 지금의 언어 변화를 부산 지역의 언어 변화라고 할 수 있는지, 표준어화가 부산 지역 20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부산 지역의 도시 언어 변화는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 모집단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고민은 중요하리라 봅니다. 발표자는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20대 화자의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글에서 조사된 어휘의 지리적, 사회적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부산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며 20대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지역의 20대 화자는 토박이로서 순수성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더 명확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도시방언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도시 지역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느 곳을 조사 지점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무엇보다 조사 목적에 부합되는 곳을 조사 지점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내 수업을 듣는 학생 몇 명 중 부산 지역 거주자로 했다면 이 연구의 표본 추출은 문제가 있다. 사회언어학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웃 조사, 사회 교류망 조사가 좋은 대안이 될 듯하다. 그래서 인체, 음식의 99%, 22% 인지도가 말하는 부분이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용하는 것과 말하는 것의 차이가 있고, 구술 조사와 설문 조사의 차이

도 있다. 토론자도 20대 학생들에게 이 어휘가 들어간 발화를 실제 사용, 글로 제시했는데 발화로 제시한 경우 대부분 어휘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다. 즉 실제 사용을 관찰한다면 더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 전통 방언과 사회 방언 모두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조사 수집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언 조사 방법은 이들 고려 사항을 고루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언 자료를 조사할 내용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 조건은 그 지역이나 사회의 특성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것부터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조사하기 쉬운 항목부터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조건은 전래적인 조사 항목에 비중은 두어야 한다. 특히 신생어들도 훌륭한 조사 항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조사 항목이 인체, 음식에만 한정되어 있고 그 어휘도 많지 않은데 지금의 조사 항목이 이를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4. 사회언어학적인 연구가 목표라면 방언 분화와 사회적인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는 3장과 4장의 연결이 어색하다. 이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5. 언어 인식에 대한 부분이다. 언어 인식에 주목한 것은 언어 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다만 언어 인식에 대한 현상 설명에는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8쪽에 부산 지역 20대 화자들이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하나의 언어로 선택의 이유가 과연 지적 가치라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는 자신의 언어에 대한 애착심, 충성심과 관련되는 정적 가치와 더 관련 있어 보인다. 이처럼 가치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 그래서 설문 조사로 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6. 다수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통계적인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소수의 제보자를 심층 조사할 것인가에 따라 조사 항목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통계 처리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려면 여러 개의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여 관찰 결과를 분석하려는 연구에서는 조사 항목보다는 언어 사용의 사회적인 맥락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7. 설문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에 남녀의 구분이 있고 언어의 기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여자를 포함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남녀의 차이는 어떤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언어에 더 민감하다는 점에서 젊은층의 경우는 조사 목적에 따라 성별을 제한하는 등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노우에 후미오(2015) 번역판을 곳곳에 인용해서 번역자와 이야기를 했다. 이를 통해 들은 부분을 MYUF는 기존의 방언 제보자의 선정의 어려움으로(3대 이상, 무학자 등) 조사에 적합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한다. 즉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 든 세대를 고려한 제보자 선정으로 봐야 한다.

부가적으로 표준어와 지리적으로도 거리가 먼 왜 부산 지역의 화자를 선택하였는지, 언어 인식을 파악하면 표준어화를 어떻게 막는다는 것인지도(12~13쪽) 궁금하다.

수정할 부분으로는, 변이형을 고려하면 어휘 목록 수 계산이 정정되어야 한다. 표 번호가 없어 쪽수로 제시하면, 4쪽의 코꾸녕, 코꾸무 2개와 코꾸녕, 궁디이, 꼬랑내 3개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어휘 수 계산이 다시 정정되어야 한다. 이노우에 후미오(2017)은 참고 문헌에 없는데 어떤 책인지 보완해야 한다.

그동안의 몇몇 선행 논의가 있고 이노우에 후미오도 80년대부터 방언 인식에 대해 논의했으므로 이를 꼼꼼하게 검토해 본인의 논지가 무엇이고, 기존 논의와의 차별성은 무엇인지도 밝히는 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연구윤리 교육>

사회 : 박은정(영남대)

발표자	발표시간	제목
윤정헌 (경일대)	18:00 ~ 18:30	연구윤리와 연구자의 책임

연구윤리와 연구자의 책임

윤정헌(경일대)

Ⅰ. 연구윤리의 중요성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나 윤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구자로서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연구자 간,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 연구자와 대중 및 국가, 더 나아가 인류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치나 덕목과 관련됨.

1. 연구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최소한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 또는 표절 등 거짓과 속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자는 연구자로서 마땅히 알고 지켜야 할 가치나 윤리를 고려하면서 그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부정행위로부터 멀어지며 연구의 진실성을 증진할 수 있다.

연구윤리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 옳은 연구 방향인지 잘 모르거나 혼란스러울 때, 연구자 개인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바람직한 방향을 안내해 주고, 연구부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로부터의 유혹을 떨쳐 버리게 함으로써 연구자가 진실하고, 당당하게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연구윤리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연구윤리의 확립이 학계와 문화계에 고질화된 윤리 불감증, 편법주의, 양적 업적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연구에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개인의 품격 및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공인이든 대중이든 우리 사회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리는 학연, 지연, 혈연에 입각한 맹목성과 편협성의 가치 추구 그리고 관행화된 불법과 탈법, ‘정당한 절차를 무시해도 원하는 성과만 얻으면 그만이다’라는 윤리적 불감증의 총체적 축소판을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수행의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음.

바람직한 연구수행 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부적절행위 또는 의심스런 연구수행을 줄이고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연구 윤리교육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연구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바람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반성해야 함.

Ⅱ. 연구자의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Ⅲ. 연구부정행위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②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③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Ⅳ.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1.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 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대학 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대학 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대학 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대학 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7. 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9.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0. 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1. 판정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대학 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 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 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